

저자 정약용 · 신만
편자 지송욱
국역 박상영
해제 박상영

국역
增補
單方新編



9 788959 701964

ISBN 978-89-5970-196-4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단방신편 單方新編	1.1
풍문 風門	1.1.1
반신불수와 구안와사 半身不遂 口眼不正 邪	1.1.1.1
백전풍(白癡風) 白轉風	1.1.1.2
중풍 中風	1.1.1.3
백호풍 白虎風	1.1.1.4
중풍담결 中風痰厥	1.1.1.5
구안와사 口眼喎斜	1.1.1.6
파상풍 破傷風	1.1.1.7
한문 寒門	1.1.2
운기병 運氣	1.1.2.1
상한 傷寒	1.1.2.2
풍한에 상한 경우 感傷風寒	1.1.2.3
땀 내는 방법 取汗方	1.1.2.4
상한에 두루 쓰는 약 痛 治	1.1.2.5
전염병 染病	1.1.2.6
노인이 기가 허하여 침하는 경우 老人氣虛感寒	1.1.2.7
성교 후 열이 나는 상한병 犯熱傷寒	1.1.2.8

운기에 의한 병을 예방하는 방법 運氣豫防	1.1.2.9
역려 예방약 癘疫豫防藥	1.1.2.10
여역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법 癘疫不傳方	1.1.2.11
상한병이 전경(傳經)하는 기간이 지나서도 낫지 않는 경우 傷寒過經不解	1.1.2.12
중한 中寒	1.1.2.13
추위에 얼어 죽은 경우 中寒凍死	1.1.2.14
서문 暑門	1.1.3
더위로 인한 체증 暑滯	1.1.3.1
중서 中暑	1.1.3.2
서증 暑症	1.1.3.3
복서 伏暑	1.1.3.4
오래된 복서증(伏暑證) 積年伏暑	1.1.3.5
서설 暑泄	1.1.3.6
여름 감기 暑感	1.1.3.7
더위 먹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中暑不食	1.1.3.8
서증에 보하는 약 暑宜補	1.1.3.9
더위 먹어 설사하는 병 暑痢	1.1.3.10
습문 濕門	1.1.4
습담 濕痰	1.1.4.1
습담으로 체한 경우 濕痰滯	1.1.4.2
기후와 풍토가 몸에 안 맞아 오한과 발열이 있고 몸이 무거우며 나른하고 노곤한 경우 水土不服, 寒熱身重怠因	1.1.4.3
조문 燥門	1.1.5

조병 燥病	1.1.5.1
화문 火門	1.1.6
화기를 내리는 약 降火	1.1.6.1
내상문 內傷門	1.1.7
술로 인한 체증 酒滯	1.1.7.1
식적으로 배가 창만해진 경우 食積腹脹	1.1.7.2
오래된 체증 宿滯	1.1.7.3
체증을 내리는 약 消滯	1.1.7.4
물을 마시고 체한 경우 水滯	1.1.7.5
술을 마시고 체한 경우 酒滯	1.1.7.6
두부를 먹고 체한 경우 豆腐滯	1.1.7.7
개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狗肉滯	1.1.7.8
쇠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牛肉滯	1.1.7.9
돼지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猪肉滯	1.1.7.10
전복을 먹고 체한 경우 全鰓滯	1.1.7.11
미역을 먹고 체한 경우 甘藷滯	1.1.7.12
김을 먹고 체한 경우 海衣滯	1.1.7.13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 果滯	1.1.7.14
감을 먹고 체한 경우 柿滯	1.1.7.15
상추를 먹고 체한 경우 蒿苳滯	1.1.7.16
참외를 먹고 체한 경우 眞茈滯	1.1.7.17
나물이나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 菜果滯	1.1.7.18
생선을 먹고 체한 경우 魚肉滯	1.1.7.19

보리국수나 밀국수를 먹고 체한 경우 大小麥麵滯	1.1.7.20
온갖 식체 一切食滯	1.1.7.21
날것과 찬 것과 단단한 것을 먹고 체한 경우 食生冷硬物	1.1.7.22
음식에 상하여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경우 傷食發熱頭痛	1.1.7.23
허로문 虛勞門	1.1.8
도한 盜汗	1.1.8.1
허로 虛勞	1.1.8.2
곽란문 癰亂門	1.1.9
급곽란 急癰	1.1.9.1
곽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癰亂吐瀉	1.1.9.2
뱃속까지 뒤틀려 아픈 경우 轉筋入腹	1.1.9.3
두루 치료하는 약 通治	1.1.9.4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腹痛吐瀉	1.1.9.5
건곽란 乾癰	1.1.9.6
학질문 瘧疾門	1.1.10
학질 瘧疾	1.1.10.1
이틀거리 二日瘧	1.1.10.2
학질 瘧疾	1.1.10.3
당학 唐瘧	1.1.10.4
이틀거리 二日瘧	1.1.10.5
담문 痰門	1.1.11
오래된 가래기침 年久痰咳	1.1.11.1
담이 걸리는 경우 痰牽	1.1.11.2

담이 뭉친 경우 痰核	1.1.11.3
담이 관절에 들어간 경우 痰入骨節	1.1.11.4
담으로 혼절하는 경우 痰厥	1.1.11.5
담이 뭉친 경우 痰結	1.1.11.6
구토문 嘔吐門	1.1.12
구토 嘔吐	1.1.12.1
토증 吐症	1.1.12.2
해역문 咳逆門	1.1.13
딸꾹질 咳逆	1.1.13.1
해수문 咳喇門	1.1.14
해수 咳嗽	1.1.14.1
감기로 기침하는 경우 感咳	1.1.14.2
마른기침 乾咳	1.1.14.3
오래된 색상(色傷)과 풍한상(風寒傷)과 해천(咳喘)에 두루 쓰는 약 年 久色傷風寒傷咳喘並用藥	1.1.14.4
소갈문 消渴門	1.1.15
소갈 消渴	1.1.15.1
소변문 小便門	1.1.16
소변이 탁한 경우 小便濁	1.1.16.1
혈뇨 血尿	1.1.16.2
소변을 자주 누고 질이는 경우 小便頻數遺尿	1.1.16.3
임질 淋疾	1.1.16.4
임질 淋疾	1.1.16.5
고림 膏淋	1.1.16.6

석림 石淋	1.1.16.7
대변문 大便門	1.1.17
이질 痢疾	1.1.17.1
설사 泄瀉	1.1.17.2
폭설 暴泄	1.1.17.3
체하여 자주 대변 보는 경우 滯後數便	1.1.17.4
뒤가 묵직하고 배가 아프며 대변이 자주 나오는 경우 後重腹痛數便	
설사를 하고 갈증이 있는 경우 泄瀉渴症	1.1.17.6 1.1.17.5
이질 痢疾	1.1.17.7
백리 白痢	1.1.17.8
적리와 백리 赤白痢	1.1.17.9
배 아프고 하혈하는 경우 腹疼下血	1.1.17.10
설리 泄痢	1.1.17.11
뒤가 묵직한 경우 後重	1.1.17.12
혈변 血便	1.1.17.13
정문 精門	1.1.18
몽설 夢泄	1.1.18.1
유정 遺精	1.1.18.2
양기부족 陽氣不足	1.1.18.3
몽설 夢泄	1.1.18.4
신문 神門	1.1.19
광질 狂疾	1.1.19.1
간질 癇疾	1.1.19.2

혈문 血門	1.1.20
토혈 吐血	1.1.20.1
토혈 吐血	1.1.20.2
적취문 積聚門	1.1.21
오래된 적병 積久塊癖	1.1.21.1
창만문 脹滿門	1.1.22
배가 창만한 경우 脹滿	1.1.22.1
고창 鼓脹	1.1.22.2
부종문 浮腫門	1.1.23
부종 浮腫	1.1.23.1
큰 병을 앓은 뒤의 부종 大病後浮腫	1.1.23.2
학질이 낫지 않아 생긴 부종 瘡未差浮腫	1.1.23.3
상풍으로 부은 경우 傷風浮	1.1.23.4
황달문 黃疸門	1.1.24
황달 黃疸	1.1.24.1
큰 병을 앓은 뒤의 황달 大病後黃疸	1.1.24.2
주달 酒疸	1.1.24.3
제충문 諸蟲門	1.1.25
회충 蛔蟲	1.1.25.1
회충 蛔蟲	1.1.25.2
회적 蛔積	1.1.25.3
아플 때에 구급하는 약 方疼救急	1.1.25.4
촌백충 寸白蟲	1.1.25.5

두부 頭部	1.1.26
두통 頭痛	1.1.26.1
두풍 頭風	1.1.26.2
편두풍 偏頭風	1.1.26.3
숯 태우는 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픈 경우 炭頭痛	1.1.26.4
두풍으로 눈이 어두운 경우 頭風眼昏	1.1.26.5
두풍으로 눈병이 생긴 경우 頭風眼疾	1.1.26.6
면부 面部	1.1.27
면종 面腫	1.1.27.1
죽은개 癍点	1.1.27.2
안부 眼部	1.1.28
눈병 眼疾	1.1.28.1
눈알이 이유 없이 깊이 꺼지고 백태가 끼는 경우 眼睛空然深去, 而有白苔者	1.1.28.2
삼눈 目蓼	1.1.28.3
눈병 眼疾	1.1.28.4
눈이 어두운 경우 眼昏	1.1.28.5
눈동자가 붉어지는 경우 眼赤	1.1.28.6
눈이 붉게 부어오르고 눈물이 나오는 경우 赤腫流淚	1.1.28.7
눈알이 아픈 경우 目珠痛	1.1.28.8
예막 瞖膜	1.1.28.9
눈꺼풀이 늘어져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 眼胞下垂不收	1.1.28.10
야맹증 雀目	1.1.28.11
삼눈 目蓼	1.1.28.12

다래끼 偷針	1.1.28.13
귀먹은 경우 耳蠱	1.1.28.14
이명 耳鳴	1.1.28.15
귓속이 아픈 경우 耳疼	1.1.28.16
귀먹은 경우 耳蠱	1.1.28.17
갑자기 귀가 먹는 경우 暴蠱	1.1.28.18
귀 먹은 지 오래된 경우 積年蠱	1.1.28.19
노인이 귀 먹은 경우 老人蠱	1.1.28.20
비부 鼻部	1.1.29
코피 鼻衄	1.1.29.1
코가 붉어진 병 鼻紅	1.1.29.2
구설부 口舌部	1.1.30
입병 口病	1.1.30.1
입을 악다문 경우 口噤	1.1.30.2
입이 마르는 경우 口乾	1.1.30.3
중설 重舌	1.1.30.4
혀에서 갑자기 피가 나는 경우 舌忽出血	1.1.30.5
혀가 썩는 경우 舌肉腐	1.1.30.6
혀가 안으로 오그라드는 경우 舌縮	1.1.30.7
혀가 늘어지는 경우 舌出	1.1.30.8
아치부 牙齒部	1.1.31
이가 아픈 경우 齒通	1.1.31.1
풍치 風齒	1.1.31.2

치통 齒疼	1.1.31.3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齒衄	1.1.31.4
이빨의 뿌리가 단단해지게 하는 약 固齒	1.1.31.5
턱이 늘어진 경우 頤退	1.1.31.6
목에 멍울이 맺힌 경우 項核	1.1.31.7
인후부 咽喉部	1.1.32
인후 咽喉	1.1.32.1
갑작스럽게 목구멍 아픈 경우 急喉疼	1.1.32.2
목구멍이 부어서 막힌 경우 咽喉浮塞	1.1.32.3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경우 咽喉腫疼	1.1.32.4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혈은 경우 浮疼爛傷	1.1.32.5
후비로 붓고 아픈 경우 喉痺腫疼	1.1.32.6
단아와 쌍아 單蛾雙蛾	1.1.32.7
목에 생긴 수포 喉泡	1.1.32.8
현옹(懸癰) 蒂癰垂	1.1.32.9
배부 背部	1.1.33
등이 가려운 경우 背癢	1.1.33.1
흉복부 胸腹部	1.1.34
결흉 結胸	1.1.34.1
복통 腹痛	1.1.34.2
흉복통 胸腹疼	1.1.34.3
평소에 가슴이 아픈 경우 平常心疼	1.1.34.4
진심통 眞心疼	1.1.34.5

교장사 絞腸沙	1.1.34.6
유부 乳部	1.1.35
유암 乳岩	1.1.35.1
요협부 腰脅部	1.1.36
요협통 腰脅痛	1.1.36.1
요통 腰疼	1.1.36.2
요협통 腰脅疼	1.1.36.3
피부 皮部	1.1.37
피풍으로 가려운 경우 皮風癢	1.1.37.1
풍단 風丹	1.1.37.2
단독 丹毒	1.1.37.3
어우러기 黴駁	1.1.37.4
무사마귀 大黑子	1.1.37.5
혹 癭瘤	1.1.37.6
두드러기 癰疹	1.1.37.7
수족부 手足部	1.1.38
어깨와 팔이 아픈 경우 肩臂痛	1.1.38.1
각기로 아프고 부은 경우 脚氣痛脰	1.1.38.2
사지가 아픈 경우 四肢痛	1.1.38.3
어깨와 팔이 아픈 경우 肩臂疼	1.1.38.4
각기로 아픈 경우 脚氣疼	1.1.38.5
가래뿔 便毒	1.1.38.6
티눈 足贅	1.1.38.7

풍온으로 다리가 쑤신 경우 風溫脚疼	1.1.38.8
수종다리 水腫脚	1.1.38.9
전음부 前陰部	1.1.39
산증 疝症	1.1.39.1
성기가 가려운 경우 陰痒	1.1.39.2
전음과 후음 사이가 가려운 경우 兩陰間痒	1.1.39.3
음낭이 부은 경우 腎囊浮腫	1.1.39.4
후음부 後陰部	1.1.40
탈항 脫肛	1.1.40.1
탈항 脫肛	1.1.40.2
항문이 가려운 경우 肛門痒	1.1.40.3
항문이 아픈 경우 大孔疼	1.1.40.4
창종문 瘡癰門	1.1.41
온갖 종기 勿論某癰	1.1.41.1
터진 종기 破癰處	1.1.41.2
등창 背瘡	1.1.41.3
하감창 下疳瘡	1.1.41.4
치질 痔疾	1.1.41.5
당창 唐瘡	1.1.41.6
뿌리가 박힌 온갖 악창 諸有根惡瘡	1.1.41.7
대풍창 大風瘡	1.1.41.8
동창 凍瘡	1.1.41.9
땀띠 暑疥瘡	1.1.41.10

습창 濕瘡	1.1.41.11
두창 頭瘡	1.1.41.12
머리와 머리카락 경계에 독종이 난 경우 頭髮毒瘡	1.1.41.13
발저 髮疽	1.1.41.14
발저와 머리의 종기 髮疽腦瘡	1.1.41.15
머리의 종기가 처음 났을 때 腦瘡初發	1.1.41.16
머리의 종기가 굵은 경우 腦瘡成膿	1.1.41.17
면창 面瘡	1.1.41.18
귀가 헐은 경우 耳瘡	1.1.41.19
코가 헐은 경우 鼻瘡	1.1.41.20
코구멍이 헐은 경우 鼻孔瘡	1.1.41.21
코속이 헐은 경우 鼻內瘡	1.1.41.22
입안이 헐은 경우 口內瘡	1.1.41.23
구감창 口疳瘡	1.1.41.24
치감 齒瘡	1.1.41.25
혀가 헐은 경우 舌瘡	1.1.41.26
입술에 종기가 난 경우 唇瘡	1.1.41.27
입술이 부르튼 경우 唇皸	1.1.41.28
턱밑에 종기가 난 경우 頤下瘡	1.1.41.29
연주창 連珠瘡	1.1.41.30
나력 癰癰	1.1.41.31
범아귀에 생긴 창종(瘡腫) 虎口瘡	1.1.41.32
사두창 蛇頭瘡	1.1.41.33

홍사정 紅絲疔	1.1.41.34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종기가 난 경우 手足指腫	1.1.41.35
손바닥 가운데나 발바닥 가운데에 종기가 난 경우 手足掌心腫	
손이나 발의 종기 手足瘡	1.1.41.37 1.1.41.36
등창 背瘡	1.1.41.38
음경이 헐은 경우 玉莖瘡	1.1.41.39
하감창 下疳瘡	1.1.41.40
음낭이 헐어서 가려운 경우 腎瘡痒	1.1.41.41
전음이 헐은 경우 下陰瘡	1.1.41.42
음습창 陰濕瘡	1.1.41.43
전음과 후음 사이가 헐은 경우 兩陰間瘡	1.1.41.44
치질 痔疾	1.1.41.45
음낭에 난 종기 陰囊瘡	1.1.41.46
볼기에 난 종기 臀瘡	1.1.41.47
다리에 난 종기 脚瘡	1.1.41.48
넓적다리 무릎의 습종 腿膝濕瘡	1.1.41.49
다리의 습종 脚濕瘡	1.1.41.50
내종 內瘡	1.1.41.51
담종 痰腫	1.1.41.52
정종 疔瘡	1.1.41.53
검은 정 黑疔	1.1.41.54
진버짐 濕癬	1.1.41.55
마른옴 乾疥	1.1.41.56

진음 濕疥	1.1.41.57
옷 옷아서 혈은 경우 漆瘡	1.1.41.58
열종 熱瘡	1.1.41.59
매창 梅瘡	1.1.41.60
풍열로 독종이 생긴 경우 風熱毒瘡	1.1.41.61
창에 벌레가 생긴 경우 瘡蟲	1.1.41.62
창종을 처음 앓을 때 瘡瘡初起	1.1.41.63
이름 없는 독종 無名毒瘡	1.1.41.64
온갖 악창 諸惡瘡	1.1.41.65
뿌리가 있는 온갖 악창 諸有根惡瘡	1.1.41.66
온갖 혈종 諸血瘡	1.1.41.67
창종의 독혈 瘡瘡毒血	1.1.41.68
큰 종기의 열독 大瘡熱毒	1.1.41.69
오래도록 종기가 낫지 않는 경우 久瘡不瘥	1.1.41.70
창으로 가렵고 아픈 온갖 경우 諸瘡痒疼	1.1.41.71
오래된 종기가 아물지 않는 경우 久瘡不合	1.1.41.72
창의 뿌리를 뽑아내는 약 拔根	1.1.41.73
썩은 살을 없애고 새살을 돋게 하는 약 祛惡生新	1.1.41.74
창구가 막힌 경우 瘡口塞	1.1.41.75
새살이 돋기 전에 피부가 아물어버린 경우 經先皮合	1.1.41.76
구창 灸瘡	1.1.41.77
끓었는지 시험하는 방법 驗膿方	1.1.41.78
저절로 터지게 하는 약 自破方	1.1.41.79

종기를 터뜨린 후 붙이는 약 破瘡後藥	1.1.41.80
혈은 곳을 씻어내는 약 洗瘡藥	1.1.41.81
부인문 婦人門	1.1.42
부인의 허로 虛勞	1.1.42.1
대하 帶下	1.1.42.2
허로 虛勞	1.1.42.3
월경 때가 되어 배가 아픈 경우 臨經腹痛	1.1.42.4
명치 부위가 아픈 경우 心腹痛	1.1.42.5
대하 帶下	1.1.42.6
전음이 가려운 경우 下陰痒	1.1.42.7
전음이 혈은 경우 下陰瘡	1.1.42.8
전음이 차가운 경우 下陰冷	1.1.42.9
전음과 후음 사이가 가려운 경우 兩陰間痒	1.1.42.10
전음과 후음 사이가 혈은 경우 兩陰間瘡	1.1.42.11
포문이 툇 튀어나온 경우 胞門突出	1.1.42.12
혈괴 血塊	1.1.42.13
임신하는 기묘한 처방 孕胎奇方	1.1.42.14
수태했는지 시험하는 처방 驗胎方	1.1.42.15
임산부의 상한 孕婦傷寒	1.1.42.16
소변이 찝끔찝끔 나오는 경우 淋瀝	1.1.42.17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小便不通	1.1.42.18
해산달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 產朔數便	1.1.42.19
임산부가 허약한 경우 孕婦虛弱	1.1.42.20

태를 보호하는 법 護胎	1.1.42.21
태동 胎動	1.1.42.22
자현 子懸	1.1.42.23
난산 難産	1.1.42.24
횡산 橫産	1.1.42.25
역산 逆産	1.1.42.26
두루 치료하는 처방 通治	1.1.42.27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경우 兒死腹中	1.1.42.28
산부가 해산하지 못하고 죽으려는 경우 孕婦未産經死	1.1.42.29
포의가 나오지 않는 경우 胞衣不下	1.1.42.30
산후에 음문이 빠지는 경우 産後陰戶脫	1.1.42.31
산후에 배가 아픈 경우 産後腹疼	1.1.42.32
산후에 가슴이 아픈 경우 産後心疼	1.1.42.33
산후에 허리와 배가 아픈 경우 産後腰腹疼	1.1.42.34
산후의 혈훈 産後血暈	1.1.42.35
산후의 오로 産後惡露	1.1.42.36
산후의 발열 産後發熱	1.1.42.37
산후부종 産後浮腫	1.1.42.38
산후에 딸꾹질하는 경우 産後咳逆	1.1.42.39
산후에 코피가 나는 경우 産後衄血	1.1.42.40
산후에 사지가 마비된 경우 産後四肢不仁	1.1.42.41
산후의 열입혈실(熱入血室) 産後熱入血室	1.1.42.42
산후에 어혈이 뭉친 경우 産後血塊	1.1.42.43

산후에 대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 産後數便	1.1.42.44
산후에 설사가 나는 경우 産後泄瀉	1.1.42.45
산후 이질 産後痢疾	1.1.42.46
산후의 잡병을 두루 치료하는 처방 産後雜病通治	1.1.42.47
젖이 잘 돌지 않는 경우 乳少	1.1.42.48
젖이 아픈 경우 乳疼	1.1.42.49
유종 乳腫	1.1.42.50
젖에 멍울이 진 경우 乳核	1.1.42.51
유암(乳巖) 乳岩	1.1.42.52
산문이 상한 경우 産門傷處	1.1.42.53
소아문 小兒門	1.1.43
소아장수법 小兒長壽法	1.1.43.1
단독 丹毒	1.1.43.2
고름으로 귀가 막힌 경우 聾耳	1.1.43.3
인후가 갓 아픈 경우 咽喉始痛	1.1.43.4
아이가 뱃속에서 우는 경우 腹中啼	1.1.43.5
신생아 예방약 初生預治	1.1.43.6
씻기는 방법 洗浴法	1.1.43.7
갓 태어났을 때의 위급한 증세 初生危症	1.1.43.8
태독 胎毒	1.1.43.9
단독 丹毒	1.1.43.10
백단독 白丹毒	1.1.43.11
태단 胎丹	1.1.43.12

황단독 黃丹毒	1.1.43.13
경풍의 예방 驚風預防	1.1.43.14
경풍 驚風	1.1.43.15
만경풍 慢驚	1.1.43.16
급경풍과 만경풍 急慢驚	1.1.43.17
감기 感氣	1.1.43.18
서사(暑邪)에 상한 경우 暑傷	1.1.43.19
서설 暑泄	1.1.43.20
담증 痰症	1.1.43.21
복학의 예방 腹瘡預防	1.1.43.22
복학 腹瘡	1.1.43.23
별학 鰓瘡	1.1.43.24
감질 疳疾	1.1.43.25
회충 蛔蟲	1.1.43.26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吐瀉	1.1.43.27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小便不通	1.1.43.28
소변이 찝끔찝끔 나오는 경우 淋瀝	1.1.43.29
설사 泄瀉	1.1.43.30
적리농혈 赤痢膿血	1.1.43.31
백리 白痢	1.1.43.32
적리와 백리 赤白痢	1.1.43.33
서설과 서리 暑泄痢	1.1.43.34
온갖 설사와 이질 諸泄痢	1.1.43.35

머리 위의 종기 頭上瘡	1.1.43.36
두면창 頭面瘡	1.1.43.37
고름으로 귀가 막힌 경우 聾耳	1.1.43.38
코속에 군살이 생긴 경우 鼻生瘰肉	1.1.43.39
코구멍이 갑자기 붓는 경우 鼻孔猝浮	1.1.43.40
코피 衄血	1.1.43.41
입속이 헐어 짓무르는 경우 口糜爛	1.1.43.42
잇몸이 곪고 썩은 경우 齒疳	1.1.43.43
입속에 백태가 끼는 경우 口中白苔	1.1.43.44
입가로 침을 흘리는 경우 滯頤	1.1.43.45
입술이 붓는 경우 唇浮	1.1.43.46
턱 아래에 멍울이 생긴 경우 頷下核	1.1.43.47
구홍 龜胷	1.1.43.48
구배 龜背	1.1.43.49
배꼽에 피나 진물이 나는 경우 臍中血汁	1.1.43.50
배꼽에 바람이 든 경우 臍封犯風	1.1.43.51
배꼽이 헐은 경우 臍瘡	1.1.43.52
배앓이 腹疼	1.1.43.53
복창 腹脹	1.1.43.54
음낭이 습으로 부은 경우 腎囊濕浮	1.1.43.55
음경 끝이 갑자기 부은 경우 陽頭猝浮	1.1.43.56
음경이 썩는 경우 陽莖傷腐	1.1.43.57
하감창 下疳瘡	1.1.43.58

산증 痧症	1.1.43.59
항문 부위가 피부로 막혀 있는 경우 肛門皮塞	1.1.43.60
악창을 예방하는 방법 惡瘡預治	1.1.43.61
살이 썩는 경우 肥膚傷腐	1.1.43.62
은진 癰疹	1.1.43.63
홍역 紅疫	1.1.43.64
습유 拾遺	1.1.43.65
제상문 諸傷門	1.1.44
떨어지거나 넘어져 상한 경우 落傷	1.1.44.1
배가 찢어져 창자가 나온 경우 腹裂傷臟出	1.1.44.2
뼈가 어긋난 경우 違骨	1.1.44.3
화상 火傷	1.1.44.4
쇠붙이나 칼에 상한 경우 金刀傷	1.1.44.5
개에게 물려 상한 경우 狗咬傷	1.1.44.6
뱀에게 물린 경우 蛇咬	1.1.44.7
뱀이 입속에 들어간 경우 蛇入口中	1.1.44.8
벌에 쏘인 경우 蜂螫	1.1.44.9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 落傷	1.1.44.10
절상 折傷	1.1.44.11
뼈가 어긋난 경우 違骨	1.1.44.12
눌려서 상한 경우 觸傷	1.1.44.13
화상 火傷	1.1.44.14
탕화상 湯火傷	1.1.44.15

화약에 덴 경우 火藥傷	1.1.44.16
쇠붙이나 칼에 상한 경우 金刀傷	1.1.44.17
매 맞아서 독이 오른 경우 杖毒	1.1.44.18
바늘 끝이 살에 박힌 경우 針鍼入肥	1.1.44.19
큰 가시가 살에 박힌 경우 大刺入肥	1.1.44.20
가시가 눈에 들어간 경우 棘刺入眼	1.1.44.21
먼지가 눈에 들어간 경우 塵物入眼	1.1.44.22
곡식 까끄라기가 눈에 들어간 경우 穀芒入眼	1.1.44.23
실날같은 먼지가 눈에 들어간 경우 飛絲入眼	1.1.44.24
사람에게 물린 경우 人咬	1.1.44.25
말에게 물린 경우 馬咬	1.1.44.26
호랑이에게 물린 경우 虎咬	1.1.44.27
개에게 물린 경우 狗咬	1.1.44.28
뱀에게 물린 경우 蛇咬	1.1.44.29
지네에게 물린 경우 蜈蚣咬	1.1.44.30
거미에게 물린 경우 蛛蜘蛛咬	1.1.44.31
온갖 벌레에 물린 경우 諸蟲咬	1.1.44.32
온갖 벌레나 뱀에 물린 경우 一切蟲蛇咬	1.1.44.33
벌에게 쏘인 경우 蜂螫	1.1.44.34
해독문 解毒門	1.1.45
말고기독 馬肉毒	1.1.45.1
온갖 뼈나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諸骨鯁在咽	1.1.45.2
음식에 중독되어 가슴이 답답한 경우 飲食煩悶	1.1.45.3

온갖 음식의 독 諸食毒	1.1.45.4
소주의 독 燒酒毒	1.1.45.5
육독 肉毒	1.1.45.6
말고기독 馬肉毒	1.1.45.7
소고기독 牛肉毒	1.1.45.8
개고기독 狗肉毒	1.1.45.9
양고기독 羊肉毒	1.1.45.10
돼지고기독 豬肉毒	1.1.45.11
닭과 계란의 독 鷄肉及卵毒	1.1.45.12
저절로 죽은 짐승의 고기독 自死肉毒	1.1.45.13
온갖 생선의독 諸魚毒	1.1.45.14
복어와 복어 알의 독 河豚及卵毒	1.1.45.15
온갖 채소의 독 諸菜毒	1.1.45.16
온갖 버섯의 독 諸菌毒	1.1.45.17
온갖 해초의 독 諸海菜毒	1.1.45.18
온갖 과일의 독 諸果毒	1.1.45.19
온갖 음식에 중독된 경우 諸百物毒	1.1.45.20
온갖 약의 독 諸藥毒	1.1.45.21
파두의 독 巴豆毒	1.1.45.22
부자의 독 附子毒	1.1.45.23
초오의 독 草烏毒	1.1.45.24
유황의 독 硫黃毒	1.1.45.25
비상의 독 砒霜毒	1.1.45.26

구급문 救急門	1.1.46
---------	--------

실수로 지네를 삼킨 경우 誤吞蜈蚣	1.1.46.1
--------------------	----------

실수로 거머리를 삼킨 경우 誤吞水蛭	1.1.46.2
---------------------	----------

바늘을 삼킨 경우 誤吞針	1.1.46.3
---------------	----------

실수로 금이나 은을 삼킨 경우 誤吞金銀	1.1.46.4
-----------------------	----------

온갖 뼈나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諸骨鯁在咽	1.1.46.5
--------------------------	----------

곡식 까끄라기가 목에 걸린 경우 穀芒在咽	1.1.46.6
------------------------	----------

대나무나 나무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竹木刺在咽	1.1.46.7
----------------------------	----------

수저가 입속에 붙은 경우 匙着口中	1.1.46.8
--------------------	----------

귀신에게 가위 눌린 경우 鬼壓	1.1.46.9
------------------	----------

익사 溺水死	1.1.46.10
--------	-----------

배멀미 船暈	1.1.46.11
--------	-----------

육축병 六畜病	1.1.47
---------	--------

소의 병 牛病	1.1.47.1
---------	----------

말의 병 馬病	1.1.47.2
---------	----------

양의 병 羊病	1.1.47.3
---------	----------

돼지의 병 猪病	1.1.47.4
----------	----------

개의 병 狗病	1.1.47.5
---------	----------

닭의 병 鷄病	1.1.47.6
---------	----------

해제·출판

해제	2.1
----	-----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增補〕單方新編 | 〔증보〕단방신편

著 茶山 丁若鏞, 舟村 申旻

| 저자 다산 정약용, 주촌 신만

編譯 池松旭

| 번역 지송옥



風門 풍문 | 풍문



半身不遂 口眼不正¹邪 반신분슈와 입 눈 비둘어진 디 | 반신불수와 구안와사

陳皮 當歸 五佳皮² 各四兩, 濁酒五斤, 浸三日, 早夕二次溫服.

진피 당귀 오가피 각 념 4냥 중을 탁주의 사흘을 담엇다가 그 술을 식전과 전역에 더여 먹으라.

진피 당귀 오가피 각 4냥을 탁주 5근에 3일 동안 담가 두었다가 아침과 저녁 2차례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다.

1. 不正 : 말 그대로 '바르지 않다', 즉 '비뚤어지다'라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는 '쥬'로 표기한다. ↩

2. 五佳皮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五加皮'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白轉風¹ 어루러기 | 백전풍(白癜風)

垂絲虫汁, 塗當處, 神効.

그리마베레를 진익여 그 물을 바르라.

그리마를 찢어서 즙을 내어 환처에 바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¹. 白轉風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白癜風'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中風 바람 마진 디 | 중풍

凡風症濕之所崇也. 細切松葉, 一匙和水常服.

중풍에 솔잎을 간을개 썰어 물에 타 항상 먹으라.

풍증은 습(濕)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솔잎을 촘촘히 썰어 1술을 물에 타서 늘 먹는다.

香油或薑汁灌之.

참기름이나 흑 강즙을 먹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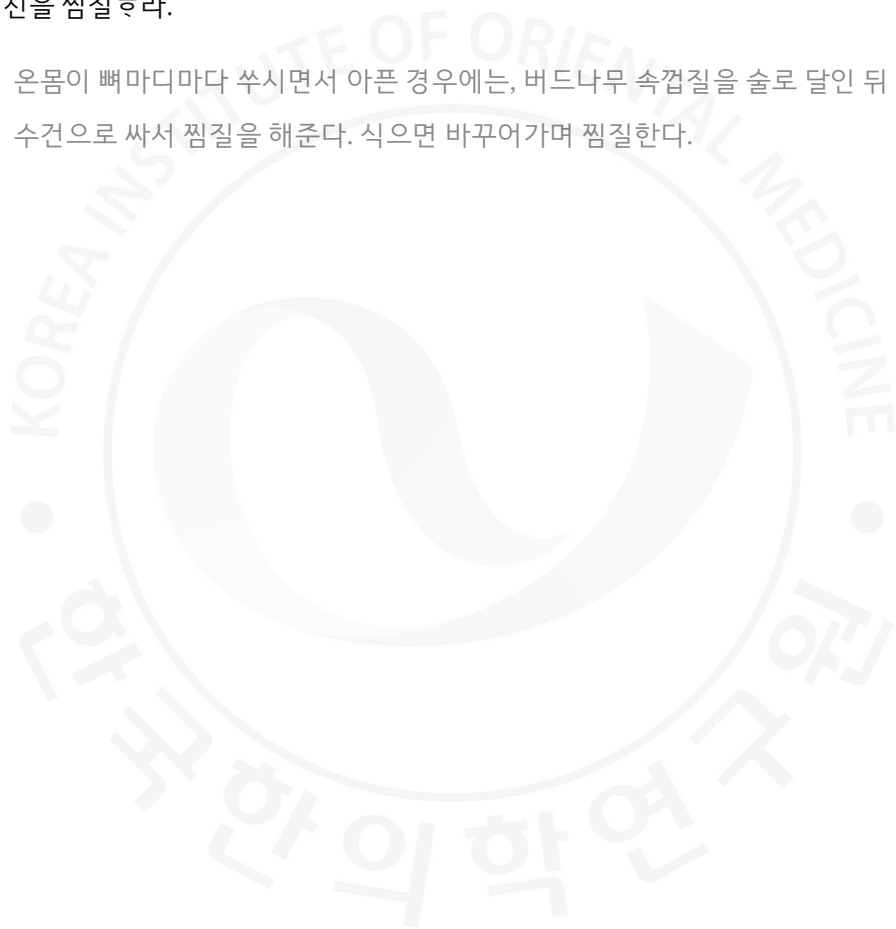
참기름이나 생강즙을 먹인다.

白虎風 백호풍 | 백호풍

遍身節節作疼, 取柳白皮, 酒煎, 布裹熨之. 冷則換之.

전신이 골절마다 쑤시고 압흔 디, 버드나무 속껍질을 술에 다려 수건에 싸서 더웁게 전신을 찜질하라.

온몸이 뼈마디마다 쑤시면서 아픈 경우에는, 버드나무 속껍질을 술로 달인 뒤 수건으로 싸서 찜질을 해준다. 식으면 바꾸어가며 찜질한다.



中風痰厥 중풍담결된 디 | 중풍담결

中痰氣絕, 心頭尙煖, 急用多年古塔古殿上陳石灰一合, 末, 水煎一盞, 傾出澄清灌口, 痰下自甦. 重者再灌.

중담^ㅎ야 끄결^ㅎ 디, 여러 히 목은 회반 한 줌을 작말^ㅎ야 물에 다려 한 잔을 쏘어 도 청^ㅎ야 먹으면 담이 소하되야 회싱^ㅎ느니, 병이 중한 즈는 두 번을 쓰라.

중풍에 담(痰)이 차서 기절하였으나 가슴이 여전히 따뜻한 경우에는, 급히 오래된 탑이나 건물 위쪽의 목은 석회 1홉을 가루 내어 물에 1잔을 달인 뒤 잔을 기울여 맑은 옷물을 입속에 부어넣으면 담이 내려가 저절로 깨어나게 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재차 입속에 부어넣어 준다.

痰眩痰厥, 童便和薑汁飲之.

중담^ㅎ야 정신이 현란한 디, 동변에 강집을 타 먹으라.

담(痰)이 차서 어지럽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동변에 생강즙을 타서 먹인다.

中痰癰瘰¹, 取馬齒莧四五斤, 煮, 湯菜同吃, 瀉出痰, 卽愈.

중풍²야 반신불수된 디, 쇠비름 스오 근을 삶아서 국과 건지를 함식 먹으면 담뽕을 누고 즉^ㅎ츠.

중풍에 담(痰)이 차서 수족탄탄(手足癱瘓)이 된 경우에는, 마치현 4-5근을 삶아서 그 국과 건더기를 함께 먹으면 담이 설사로 나오고 곧 낫는다.

1. 癰瘰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癰瘰'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중풍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중담'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다.↵



口眼喎斜 구안와사 | 구안와사

芥一把, 青梁米四合, 薄荷半握, 豉五合綿裹. 右¹煎荊芥取汁, 下梁及荷豉, 煮粥入鹽醋少許, 空心服. 中風大小便澀, 俱治.

중풍하야 입과 눈이 빗돌어진 디, 형개 혼 줌, 청량미 너 홉, 박하 반 줌, 메주 다섯 홉을 준비하야 낫코, 먼저 형기를 다려 그 물에 청량미 박하 메주를 너어 죽 쑼어 소금과 초를 조금씩 타서 공심에 여러 번 먹으라. 중풍하야 대소변이 삽흔 디도 이 약을 쓰나니라.

형개 1줌, 청량미 4홉, 박하 반 줌, 두시(숨에 쉰 것) 5홉. 우선 형개를 달여 즙을 낸 뒤 청량미 박하 두시를 넣고 죽을 쑼어 소금과 식초를 조금씩 넣고 빈속에 먹는다. 중풍으로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모두 치료한다.

綿花子炒黑 乳香並末 各三錢, 紅糖一兩, 飯后黃酒下二三次, 有效.

면화씨 검게 볶아 가루 낸 것, 유향 작말 셔 돈 증, 유향 작말 셔 돈 증, 홍사탕 혼 량 증을 약주에 타서 밥 먹은 후에 이삼 차를 먹으면 즉차.

면화씨(검게 볶아 가루 낸 것) 유향(가루 낸 것) 각 3돈, 흑설탕 1냥을 식후에 황주에 타서 2-3차례 먹으면 효험이 있다.

希薺并莖葉實, 酒蜜浸蒸, 曝乾屢次, 或煎或丸多服, 諸風症無不效.

진득찰의 줄기와 잎과 열미를 술과 꿀에 담가 써서 벗혀 말리기를 여러 번 하야, 흑 디려도 먹고 흑 환 지어 먹으면 각식 풍증에 신평.

희첩의 줄기와 잎과 열매를 술과 꿀을 담갔다 찌내어 벌에 말리기를 여러 번 한 뒤에 달이거나 환을 빻어 많이 먹으면, 온갖 풍증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取希薺葉, 付之不斜, 處一宿即效.

진득찰납을 성헌 편에 부치고 하로밤을 지니면 즉측ㅎ느니, 좌편으로 기우렷거든
우편에 부치고 우편으로 기우렷거든 좌편에 부치라.

희침의 입을 비뚤어지지 않은 얼굴 쪽에 붙이고 하룻밤을 지내면 곧 낫는다.

1. 右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先'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破傷風 파상풍 | 파상풍

瘡處或刀傷處, 乾而無水氣, 身冷氣不平者, 乃破傷風之候. 急用人糞新放者, 厚付傷處, 艾灸其上, 以水出爲度.

종기와 혹 상처가 간조해야 수기가 업고 몸이 차고 기운이 불평흔 자는 파상풍이니, 사람의 똥 시로 눈 것을 상처에 두터이 부치고 그 우에 약썩으로 씹질하되 상처에 물이 흘르기까지 하라.

종기 난 곳이나 칼에 상한 곳이 건조해져 습기가 없고 몸이 차고 기가 고르지 않은 것은, 바로 파상풍의 징후이다. 급히 사람이 갓 눈 똥을 구해서 상처에 두텁게 바른 뒤 그 위에 썩뚝을 뜨되,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뜬다.

蚯蚓搗取汁, 好酒下.

지렁이를 짓익여 집니여 조흔 술에 타 먹으라.

지렁이를 찢어서 즙내어 좋은 술에 타서 먹는다.

煎紫檀香, 和蜜服. 或白丹香 黃蠟, 同煎服, 極妙.

자단향을 다려 꿀에 타 먹고, 흑 백단향과 밀을 함씩 다려 먹으면 신표.

자단향을 달여서 꿀에 타서 먹는다. 흑은 백단향과 황랍을 함께 달여서 먹으면 매우 신표하다.

魚膠, 燒存性末, 和溫酒服. 亦治角弓反張.

싱선 불에를 살너 작말하야 더운 술에 타 먹으라. 또 각궁반장된 디도 이 약을 쓰느니라.

부레풀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다. 이 약은 각궁반장(角弓反張)도 치료한다.



寒門 한문 | 한문



運氣 윤기 | 윤기병

初發時, 石榴一個破之, 并皮煎服, 取汗, 神効妙¹. 流感嗽傷寒犯房亦妙.

석류 한 기를 씨틀어 썩질 훈티 달여 먹고 땀 나라.

병에 갓 걸렸을 때, 석류 1개를 깨뜨려 껍질 채 달여서 먹고 땀을 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유행하는 사기(邪氣)에 감촉되어 생긴 가래기침(嗽)이나 상한을 앓을 때 성행위를 하여 얻은 병에도 좋다.

九味羌活湯, 依本方三貼用, 有汗則桂枝一錢, 無汗則麻黃去根一錢, 煎服. 勿論某感皆宜.

구미강활탕 의본방 三貼을 쓰라. 땀이 났거든 계지 일 전을 가입하고, 땀이 업거든 마황 거근하야 혼 돈을 너어 먹으라.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²을 본방대로 3첩을 쓰되, 땀이 나는 경우에는 계지 1돈을 더하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마황(뿌리를 잘라낸 것) 1돈을 더하여 달여서 먹는다. 어떠한 감기이든 모두 잘 듣는다.

1. 神効妙 : '効'자와 '妙'자 중 1자는 연자(衍字)로 보인다. ←

2.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구미강활탕. ① 사계절에 상관없이 단지 두통·골절통·발열·오한이 있고 땀은 없으며, 맥이 부긴(浮緊)할 때는 마황탕 대신 이것을 써야 한다.《절암》 ② 땀이 나면 마황을 먹어서는 안 되고, 땀이 나지 않으면 계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잘못 복용하면 그 변화를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어 삼양의 금기를 범하지 않게 한 것이니 해표(解表)의 신방(神方)이다. 강활 방풍 각 1돈 반, 창출 천궁 백지 황금 생지황 각 1돈 2푼, 세신 감초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줄기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입문》”(九味羌活湯.① 不問四時,但有頭痛,骨節痛,發熱,惡寒,無汗,脈浮緊,宜用此,以代麻黃爲穩當.《節奄》② 有汗,不得服麻黃,無汗,不得服桂枝.若誤服則其變不可勝言,故立此法,使不犯三陽禁忌.乃解表神方.羌活 防風 各一錢半,蒼朮 川芎 白芷 黃芩 生地黃 各一錢二分,細辛 甘草 各五分.右剉,作一貼,入生薑三片,大棗二枚,葱白二莖,水煎服.《入門》)↩



傷寒 치위에 상한 디 | 상한

始痛一二日, 白礬三錢煎服. 老弱一二錢. 如有嘔逆, 服法油一匙即瘥.

운긔 상한 시통헌 지 일이 일에 백반 서 돈 중을 다려먹으되, 만일 구역헝거든 들기름 한 술을 먹으면 곧 낫느니, 로약은 일이 전 중식 쓰라.

처음 앓은 지 1-2일 되었을 때, 백반 3돈을 달여서 먹는다. 노약자는 1-2돈을 먹는다. 약을 먹고 구역질이 나는 경우에는 들기름 1술을 먹으면 곧 낫는다.

老葱白十五本, 薑五片, 酒水相半煎服, 取汗.

파뿌리 열다섯 기와 생강 다섯 점을 술과 물을 양반햏야 다려 먹고 취한햏라.

묵은 총백 15뿌리와 생강 5쪽을 술과 물을 반반씩 섞은 것에 넣고 달여서 먹은 뒤 땀을 낸다.

取生雉, 爛烹服之, 取汗, 神效. 男雌女雄.

싱치를 삶어먹고 취한햏면 신희햏니, 남즈논 암컷을 쓰고 녀즈논 수컷을 쓰느니라.

살아있는 꿩을 문드러지도록 삶아서 먹은 뒤 땀을 내면 신포한 효험이 있다. 남자는 암꿩을 쓰고 여자는 수꿩을 쓴다.

將至發狂, 黃連 寒水石末 各一錢, 甘草煎水調下.

열긔가 대단햏야 발광햏는 디, 황련 한수석 작말햏야 각 한 돈 중을 감초 다린 물에 타 먹으라.

열이 심햏야 발광햏려 할 때에는, 황련과 한수석 가루 낸 것 각 1돈을 감초 달인 물에 타서 먹는다.

始痛一日, 眉疼惡寒, 此太陽經病, 將大熱之漸. 取鑿刃火煨浸水, 取澄飲之, 爲極妙. 得病三四日用之, 無不神效.

시통하던 날 눈섭이 압히고 오한이 나면 티양경병이니 가리늬를 불에 달와 물에 담가 갈어안싸든 그 물을 마시라. 스오 일 된 뒤에 써도 신표.

앓은 지 첫째 날에 눈섭 부위가 아프고 오한이 드는 것은 태양경병이니 열이 크게 일어나려는 조짐이다. 보습의 날을 불에 달군 뒤 물에 담가 그 웃물을 마시면 매우 신표하다. 병을 앓은 지 3일이나 5일이 되었을 때에 써도 신표한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始痛喜明, 此小陰經病. 取奉火奴二寸, 子時煎服.

시통시에 밝은 덕을 조와하면 소음경병이니, 부짓당이를 두 치썸 잘나 쯔시에 다려 먹으라.

처음 앓을 때, 밝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소음경병이다. 부집개 2치를 잘라 자시에 달여서 그 물을 먹는다.

惡寒筋縮, 頭痛曲臥, 此厥陰經病. 取鎌刀火燬浸水, 溫服.

오한 잇고 힘줄이 옥조이고 두통 잇고 사지를 오그리고 누으면 꺾음경병이니, 낫늬를 불에 달와 물에 담가 더웁게 먹으라.

오한이 잇고 힘줄이 옥조이며 두통이 잇고 오그리고 눕는 것은 꺾음경병이다. 낫의 날을 불에 달구어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따뜻하게 먹는다.

腹滿大便燥澁, 或二便不通, 此陽明經病. 取鷄子清一介, 香油 清蜜 各一鍾子, 冷水服. 加芒硝二錢, 尤好.

비가 창만하고 디변이 조삽하고 혹 디소변이 불통하면 양명경병이니, 계란 흰 지 흰 쯔위와 참기름과 꿀 각 한 종쯔식 냉수에 타 먹으되, 망초 두 돈 쯔을 너어 먹으면 더욱 조호니라.

배가 창만하고 대변이 말라서 잘 나오지 않거나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양명경병이다. 계란 1개의 흰자, 참기름 꿀 각 1종지를 냉수에 타서 먹는다. 망초 2돈을 더해도 좋다.

大便堅硬, 時有咳嗽喘促, 此太陰經病. 取方解石火煨浸水, 調香油一鍾子服之.

대변이 굳고 씨로 희소와 천촉증이 잇시면 티음경병이니, 차돌을 불에 달와 물에 담가 참기름 한 종자를 타 마시라.

대변이 굳고 때로 기침을 하며 숨이 차는 것은 태음경병이다. 차돌(方解石)을 불에 달구어 물에 담근 뒤 그 물에 참기름 1종지를 타서 먹는다.

耳鳴耳聾譫語, 如人將捕有畏懼之心, 此小陽經病. 取斧刃火煨浸水, 溫服.

귀가 울고 귀가 막고 군소리 해야 놀리는 마음이 잇는 듯하면 소양경병이니, 독식놀을 불에 달와 물에 담가 더웁게 마시라.

귓속이 울리거나 귀가 먹으며 헛소리 하되, 누군가가 잡으려고 오는 듯 두려운 마음이 잇는 것은 소양경병이다. 도끼의 날을 불에 달구어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따듯하게 먹는다.

始痛, 蠡魚頭多煎服, 取汗, 和¹解. 通治傷寒.

상한 시초에 가물치머리를 많이 삶어먹고 취한하면 화히되느니, 상한 통치하는 약이니라.

병을 처음 앓을 때, 가물치 머리를 많이 삶아서 먹고 땀을 내면 바로 낫는다. 이 약은 상한에 두루 쓴다.

倘遇無藥處, 將兩手指相交緊, 叩腦後風府穴, 禮拜百餘, 汗出, 自解.²

만일의 약이 업는 곳이어든, 두 손가락을 싹지 씨고 뇌후의 풍부혈을 치며 하늘을 향하여 레비 빅어 번을 하면 땀이 나셔 스사로 풀니느니라.

만약 약이 업는 곳에서 병이 낫다면, 두 손가락으로 각지를 끼고 뒤통수의 풍부혈을 두들기며 절을 100여 번 하여 땀을 내는데, 병이 저절로 풀린다.

1. 和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卽'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이인재, 《수진경험신방》〈상풍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물치 머리를 많이 삶아서 먹고 땀을 내면 바로 낫는다." (蠡魚頭, 多煎服, 取汗, 卽解.) ←
2. 倘遇無藥處, 將兩手指相交緊, 叩腦後風府穴, 禮拜百餘, 汗出, 自解. : 장종정, 《유문사친》〈해리상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한 방법으로, 약이 없는 곳에서 발병한 경우 두 손가락으로 깍지를 끼고 뒤통수의 풍부혈을 두들기며 앞을 향해 100여 번 절을 하여 땀을 내면 병이 저절로 풀린다." (又一法, 無藥處, 可用兩手指相交緊, 扣腦後風門穴, 向前禮百餘拜, 汗出, 自解.) ←

感傷風寒 치위에 상하여 감기를 들닌 뒤 | 풍한에 상한 경우

木麥末三合, 忍冬去麁皮一握, 瓠內白如柿大三枚, 生薑一兩, 好酒一盃, 火杖末三本. 煎沸和蜜服, 取汗.

모밀갈우 서 홉과 인동넉출 겹줄 디강 벗겨서 훈 줌과 박속 감만큼 세 덩이와 싱강 훈 양 줌과 부짓당이 싯 무즈른 것 세 기를 조흔 술 훈 잔에 다려 술을 타 먹고 취한하라.

메밀가루 3홉, 인동(거친 겹줄을 벗겨낸 것) 1줌, 박속(흰 부분. 감만 한 크기) 3 덩이, 생강 1냥, 좋은 술 1잔, 부집개(끝 부분) 3개. 이상의 약재를 끓여오를 때 까지 달여 꿀을 타서 먹고 땀을 낸다.

外感內傷, 木麥微炒一合, 薑七片, 連鬚葱白七根, 煎, 調酒, 連服三四次.

외감니상에 모밀 볶거 한 홉, 싱강 일곱 점, 총백 수염 잇는 치 일곱 썰이를 다려 술을 타 삼스차 연복하라.

내상을 낀 외감에는 메밀(약간 볶은 것) 1홉, 생강 7쪽, 총백(잔뿌리가 달린 것) 7뿌리를 달여서 술을 타서 3-4차례 연이어 먹는다.

飲葱根湯, 嚼生薑, 得汗, 卽痊.

파국을 먹고 싱강을 씹어 먹어 땀이 나면 즉츠.

파뿌리 달인 물을 먹고 생강을 씹어 먹은 뒤 땀이 나면 곧 낫는다.

傷風鼻塞, 荊芥穗三錢煎服.

감기에 코 막힌 뒤, 형기이삭 서 돈 증을 다려 먹으라.

상풍으로 코가 막힌 경우에는, 형개수 3돈을 달여서 먹는다.

陰症極熱痰盛, 取急瀝水百沸五合, 薑汁三匕, 眞油二匕, 隨症服.

상한음증에 열기가 심하고 담이 성한 디, 급한 여울물 오 흡을 빅비탕 민드려 강집 세 술과 참기름 두 술을 타 먹으라.

상한음증으로 열이 심하게 나고 담이 짝 막힌 경우에는, 급하게 흐르는 여울물 끓인 것 5흡에 생강즙 3술과 참기름 2술을 타서 증상에 따라 먹는다.

熱盛不退, 炙臍中無限數, 妙.

열기가 성한 디, 비꼽을 무수히 씹질하라.

열이 심하여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배꼽에 무수히 뜸을 뜨면 좋다.

時令, 宜神仙粥. 糯米半合, 薑五片, 長流水一升, 一沸後, 入葱白七本, 又一沸, 加入醋半盞煎, 去滓溫服.

시령에 찰쌀 반 흡과 생강 다섯 점을 장류수 한 되에 다려 한 번 끓은 뒤에, 총백 일곱 켤이를 너어 또 한번 끓인 뒤에, 초 반 잔을 가입하야 반쯤 되게 다려 썩기는 건져버리고 더웁게 먹으라.

유행병에는 신선죽(神仙粥)을 쓴다. 찰쌀 반 흡, 생강 5쪽을 장류수 1되에 넣고 한 번 끓어오를 때까지 달인 뒤 총백 7뿌리를 넣고, 한 번 더 끓어오를 때까지 달인 다음 식초 반 잔을 넣고 달여서 찌꺼기를 건져내고 따뜻하게 먹는다.

取汗方 취한하는 법 | 땀 내는 방법

粳米末, 同葱白半握, 煎爲粥, 和醋一鍾子, 暫沸成一味, 煮後, 去葱白取飲, 發汗如神.

메쌀 갈우를 총백 반 줌 너어 죽 쑤어 초 한 종즈를 타 잠간 삶인 뒤에 총백은 **컨**¹져 버리고 먹으면 즉시 **취**²한하는 법.

메쌀가루에 총백 반 줌을 넣고 쑨 죽에 식초 1종지를 넣고 잠간 끓여 졸인 뒤 총백을 건져내고 먹으면, 땀을 내는 데에 신묘하다.

1. 컨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건'의 오기인 듯하다. ←

2. 취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uf325'의 오기인 듯하다. ←

痛¹ 治 통치 | 상한에 두루 쓰는 약

神契正氣散. 香附子 蘇葉 各二錢, 蒼朮一錢五分, 陳皮 厚朴 藿香 半夏 川芎 白芷 各一錢, 柴胡 黃芩 神曲炒黃 甘草 各五分. 身熱頭痛, 項直脊強, 加麻黃 羌活 各一錢五分.

신계정기산. 향부자 소엽 각 두 돈 중, 창출 한 돈 오 푼 중, 진피 후박 곽향 반하 천궁 백지 각 한 돈 중, 시호 황금 신국 초하고 감초 각 오 푼 중이니, 만일 신열과 두통이 있고 목이 뻣뻣하고 등살이 발으거든, 마황 강활 각 한 돈 오 푼 중을 가입하라.

신계정기산(神契正氣散). 향부자 소엽 각 2돈, 창출 1돈 5푼, 진피 후박 곽향 반하 천궁 백지 각 1돈, 시호 황금 신국(볶아 누렇게 된 것) 감초 각 5푼.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목이 경직되고 등이 뻣뻣한 경우에는, 마황 강활 각 1돈 5푼을 더한다.

神契香蘇散. 香附子三錢, 蘇葉二錢, 蒼朮一錢五分, 甘草五分. 甲己生乾葛, 乙庚生麥門冬, 丙辛生羌活, 丁壬生木通, 戊癸生黃芩 各一錢, 加入. 方痛, 連鬚葱根五本加入.

신계향소산. 향부자 서 돈 중, 소엽 두 돈 중, 창출 한 돈 오 푼 중, 감초 오 푼 중. 갑기생은 건갈, 을경생은 맥문동, 병신생은 강활, 덩임생은 목통, 무계생은 황금 각 한 돈 중씩 가입하고, 시통홀 씨 수염 있는 총벽 다섯 켤이를 가입하라.

신계향소산(神契香蘇散). 향부자 3돈, 소엽 2돈, 창출 1돈 5푼, 감초 5푼. 갑기생은 갈근 1돈을 더하고, 을경생은 맥문동 1돈을 더하고, 병신생은 강활 1돈을 더하고, 정임생은 목통 1돈을 더하고, 무계생은 황금 1돈을 더한다. 갓 병났을 때에는 총백(잔뿌리가 달린 것) 5개를 더한다.

三柴胡飲. 山查三錢, 赤芍藥 柴胡 陳皮 羌活 防風 川芎 白芷 半夏 黃芩 各一錢, 甘草五分, 生薑三片, 棗二枚, 葱白二根. 感毒似至傷寒者用之. 頭痛眩暈, 身熱肢節疼甚者, 連用三貼.

삼시호음. 산사 서 돈 중, 적작약 시호 진피 강활 방풍 천궁 백지 반하 황금 각 한 돈 중, 감초 오 푼 중, 생강 석 점, 대추 두 기, 파 두 켤이니, 감독으로 상한 될 듯한 디 쓰라. 만일 두통이 있고 어질업고 신열 잇고 지절통이 심한 즈는 세 첩을 연복하라.

삼시호음(三柴胡飲). 산사 3돈, 적작약 시호 진피 강활 방풍 천궁 백지 반하 황금 각 1돈, 감초 5푼, 생강 3쪽, 대추 2개, 총백 2뿌리. 감독(感毒)으로 상한이 되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몸에 열이 나고 사지 관절이 심하게 쑤시는 경우에는 3첩을 연이어 쓴다.

萬全湯. 當歸 白芍藥 各一錢, 山查 神曲 半夏 各五分, 甘草三分. 虛, 加仁蔘²五分或羌活二三分. 無論晝熱夜熱食傷寒傷風傷等症用之.

만전탕. 당귀 백작약 각 한 돈 중, 산사 신곡 반하 각 오 푼 중, 감초 서 푼 중이니, 허한 사람은 인삼 오 푼을 가입하고, 혹 강활 이삼 푼을 가입하라. 무론 낮에 잇는 열기나 밤³에 잇는 열기나 식상이나 한상이나 풍상이나 모든 증에 다 쓰라.

만전탕(萬全湯). 당귀 백작약 각 1돈, 산사 신곡 반하 각 5푼, 감초 3푼. 허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삼 5푼이나 강활 2-3푼을 더한다. 낮에 열이 나는 경우, 밤에 열이 나는 경우, 식상(食傷), 한상(寒傷), 풍상(風傷) 등의 증상에 모두 다 쓴다.

1. 痛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通'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발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밤'의 오기인 듯하다. ←



染病 염병 | 전염병

宜五行散. 取農器(보습)入火紅熱, 以黃土塗之, 又以男子糞塗之, 又以水洒之, 又以黃土汁塗之, 以木匙括取, 浸黃土水, 或調米飲用之. 金木水火土皆俱, 故名五行散.

오행산. 보습을 불에 달와 황토를 발르고, 또 남자의 똥을 발르고, 또 물을 쏘이고, 또 황토즙을 발르고, 나무술로 긁어 황토수에 담겨서 그 물을 먹으되, 혹은 미음에 타 먹으라. 이 약은 오행이 다 들어서 오행산이니라.

오행산(五行散)을 쓴다. 보습을 벌겋고 뜨거워질 때까지 불 속에 넣은 뒤 황토를 바르고, 또 남자의 똥을 바르고, 또 물을 뿌리고, 또 황토즙을 바른 후에 나무 손가락으로 긁어서 황토물에 담가 그 물을 마시거나 혹은 미음에 타서 쓴다.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오행산이라 부른다.

老人氣虛感嘔¹ 노인이 기허하여 허소하는 디 | 노인이 기가 허하여 침하는 경우

宜五果茶. 胡桃十介, 銀杏十五介, 生栗留外皮七介, 生薑一塊細切. 水煎和蜜服. 或砂糖尤好. 或去銀杏, 入胡椒九粒.

오과다. 호도 열 개, 은행 십오 개, 것밤 일곱 개, 생강 한 켤 썰어 물에 다려 그 물²에 꿀이나 사탕을 타 먹으라. 혹은 은행을 빼고 호초 아홉 개를 넣기도 하느니라.

오과차(五果茶)를 쓴다. 호도 10개, 은행 15개, 생밤(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7개, 생강(잘게 썬 것) 1덩이. 이상의 약재를 물에 달여서 꿀을 타서 먹는다. 혹은 설탕을 타 먹어도 좋다. 혹은 은행을 빼고 호초 9알을 넣기도 한다.

1. 嘔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嘔'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2. 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물'의 오기인 듯하다. ↩

犯熱傷寒 범방훈 후 상한병 | 성교 후 열이 나는 상한병

危劇, 取火杖末, 見樣於中指中節折二枚, 煎¹沸湯服, 取微汗.

범방훈 후 상한병이 위급한 디, 부짓당이 솟흘 장손가락 가운데 마디에 견양하야 잘 나 두 기를 다려 빅비탕 만드려 먹고 취한하라.

위급할 경우에는, 부집개 끝을 중지의 가운데 마디만큼 2개 잘라내어 물에 달여서 그 물을 먹고 땀을 조금 낸다.

傷寒因女色陰症, 取陳皮熱鍋炒焦, 酒水煎服.

상한병이 계집의 음증을 인하야 알는 디논, 진피를 복거 술과 물에 다려 먹으라.

여색을 밝혀 상한음증(傷寒陰症)으로 전변된 경우에는 진피를 뜨거운 술에 넣고 탈 때까지 볶은 뒤 술이나 물에 달여서 먹는다.

犯熱, 木麥一合, 忍冬一握, 生薑一塊, 濁酒一盃, 煎沸後, 眞炭一角, 燒紅, 浸右水服之, 取汗, 神效.

범열에 모밀 한 홑, 인동 한 줌, 생강 한 켤을 탁주 한 잔에 다려 끓은 뒤에 참숯 한 덩이를 불에 피워 그 물에 담갔다가 ² 취한하면 신표.

성교 후 열이 나는 경우에는, 메밀 1홑, 인동 1줌, 생강 1덩이를 탁주 1잔에 넣고 끓어오를 때까지 달여 놓은 뒤, 참숯 1덩이를 벌겋게 될 때까지 태워서 앞에 설명한 탁주에 담가서 그 탁주를 먹고 땀을 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蘇葉 黃芩 各五錢, 煎服.

소엽 황백 각 다섯 돈을 다려 먹으라.

소엽 황백 각 5돈을 달여서 먹는다.

取石榴濃熟皮裂者一介, 煎服, 取汗, 卽效. 若無自裂者, 則以竹刀裂皮.

석뉴 잘 닉어 겁질 터진 것 혼 기를 다려 먹고 취한하면 즉차하느니라. 만일 겁질 터진 석뉴가 업거든 디칼로 겁질을 씨져서 쓰라.

잘 익어서 겁질이 터진 석류 1개를 달여서 먹고 땀을 내면 곧 효험을 본다. 만약 겁질이 저절로 터진 석류가 없다면, 대칼로 겁질을 찢어서 쓴다.

黃柏塩蜜炙 麻黃 各一掬, 水三碗煎半服, 良.

황벽을 소금과 꿀을 발라 구어 마황 혼 줌과 물 세 사발에 다려 반 되거든 먹으라.

황백(소금과 꿀을 발라서 구운 것) 마황 각 1줌을 물 3사발에 넣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먹으면 좋다.

取雌雉左足毛際, 水三甫兒, 煎至一甫兒, 服之.

암꿩 좌편 발목장이를 물 세 보에 다려 혼 보 되게 해야 먹으라.

암꿩 왼발(털이 난 경계까지)을 물 3보시기에 넣고 1보시기가 될 때까지 달여서 먹는다.

大豆殼枝, 濃煎服.

콩깍지를 가지 채 진하게 다려 먹으라.

콩깍지를 가지 채 진하게 달여서 먹는다.

舌卷不能語, 至無省覺, 黃柏酒炒二錢, 蜜炒二錢, 鹽水炒二錢, 薑炒二錢, 不炒二錢, 合一兩煎服, 神效.

범열에 혀가 굵어 말 못하고 성각 업는 디, 황벽을 술에 초하야 두 돈 중, 꿀에 초하야 두 돈 중, 소금물에 초하야 두 돈 중, 강집에 초하야 두 돈 중, 초하지 안인 것 두 돈 중, 합 혼 양증을 다려 먹으면 즉효.

열을 범하여 혀가 말려 말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지경이 된 경우에는, 황백(술에 볶은 것 2돈, 꿀에 볶은 것 2돈, 소금물에 볶은 것 2돈, 생강즙에 볶은 것 2돈, 볶지 않은 것 2돈) 총 1냥을 달여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生芋六七介, 嚼下, 神效.

토란 룡칠 지를 날것으로 먹으면 신표.

토란 생것 6-7개를 씹어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白沸湯 生冷水 各半甫兒, 葱白一握, 薑七片, 黃柏蜜炙一錢, 鷄子清一介, 童便一鍾子, 柴胡煎水一甫兒. 同煎, 和眞油一匕, 服之. 時令產後發熱, 俱效.

빅비탕 반 보와 냉수 반 보와 총빅 혼 줌과 싱강 일곱 점과 황빅 꿀에 초흔 것 혼 돈 중과 계란 흰즈위 혼 기와 동변 혼 중즈와 시호 달인 물 혼 보를 함씩 다려 참기름 혼 술을 타 먹으라. 또 시령과 산후 발열에도 쓰나니라.

끓인 물과 냉수 각 1보시기, 총백 1줌, 생강 7쪽, 황백(꿀을 발라서 구운 것) 1돈, 계란 1개의 흰자, 동변 1종지, 시호 달인 물 1보시기. 이상을 함께 달여서 참기름 1술을 넣고 먹는다. 유행병이나 출산 후 열이 나는 경우에 모두 효험이 있다.

1. 白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百'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2. 高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먹고'에서 '먹'자가 빠진 듯하다. →

運氣豫防 운긔 예방법 | 운기에 의한 병을 예방하는 방법

冬至日子時, 取蓍麻莖本, 熬于家內各房竈下, 則一年運氣不入.

동지날 피마자더로 집안 아궁이마다 불 씨면 일 년 니 운긔를 피하느니라.

동짓날 자시(밤 11시-오전 1시)에 피마자줄기로 집안의 아궁이마다 불을 떼면
1년 내내 운기로 인한 사기(邪氣)가 들어오지 않는다.



癘疫豫防藥 여역에 예방약 | 역려 예방약

海蔘三介, 忍冬炙三四束, 茵陳五握, 桑木東向枝皮晒乾三束. 煎服. 方疹用之, 亦妙.

희삼 세 기, 인동 삼사 줌, 인진 다섯 줌, 뽕나무 동편으로 향흔 가지 겹질을 벗혀 말려 석 줌을 갖치 다려 먹으라. 시통홀 씨 먹어도 조흐니라.

해삼 3마리, 인동(구운 것) 3-4묶음, 인진 5줌, 뽕나무(동쪽으로 뺀 가지를 겹질 벗겨서 벌에 말린 것) 3묶음.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먹는다. 갓 병났을 때 써도 좋다.



癘疫不傳方 여역이 전염되지 않는 법 | 여역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법

取冬至豆粥所漉小豆皮, 鷄子一介, 牛肉一盞, 以左交藁索縛束之, 入于病所烟燼, 無傳染之患.

동지날 팥죽 쑤 때 걸은 팥껍질과 계란 흰자와 쇠고기 흰 덩이를 원식기로 묶어 병든 사람 거쳐흔 방 굴독에 너으라.

동짓날 팥죽 쑤 때 거른 팥의 껍질, 계란 1개, 쇠고기 1덩이. **원새끼**¹를 꼬아 앞의 약재를 다발로 묶어서 환자가 거쳐하는 곳의 아궁이에 넣으면 전염될 염려가 없어진다.

¹. 원새끼 : 두 가닥의 벗짚을 양손바닥으로 비벼서 새끼를 만들 때 오른손을 안쪽으로 왼손을 바깥쪽으로 끌어당겨 만든 새끼를 가리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새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통 오른새끼가 일반적이지만, 금줄일 경우는 반드시 원새끼라야 된다. 금줄은 신성한 제장이나 기타 잡인의 출입을 삼가는 장소 또는 아기 낳은 때도 치게 된다. 이 원새끼는 악귀를 쫓는 기능을 지녔다고 한다." ↩

傷寒過經不解¹ 상한병이 과한하야도 낙한 못하는 디 | 상한병이 전경(傳經)하는 기간이 지나서도 낫지 않는 경우

蘇陳飲. 蘇葉 陳皮 各二錢, 醋一鍾子. 入葱白二十本薑三片, 水煎, 隨時服.

소진음. 소엽 진피 각 두 돈 중, 초 한 종죽, 총백 이십 지, 강 석 점을 물에 다려 먹으라.

소진음(蘇陳飲)을 쓴다. 소엽 진피 각 2돈, 식초 1종지. 이상의 약재에 총백 20뿌리와 생강 3쪽을 넣고 물에 달여서 수시로 먹는다.

1. 過經不解 : 한사(寒邪)가 육경(六經)을 모두 지나 병이 나을 때가 되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허준, 《동의보감》〈잡병〉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한에 6일이 지나면 한 번 전경(傳經)을 하여서 7일에는 병이 나아야 하는데, 다시 전경하여 13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것을 '과경불해(過經不解)'라고 한다. 한법이나 하법을 잘못 써서 사기(邪氣)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傷寒六日傳經一遍, 七日當解, 而再傳至於十三日以上不愈, 謂之過經不解. 由汗下失宜, 邪氣留連故也) ←

中寒 치운 독기를 마신 디 | 중한

身冷脉微, 面青黑, 葱白連根切 小麥麩 各三升, 鹽二升, 以水和勻¹, 分二包, 炒極熱, 包絹, 互熨臍上. 冷則以水拌濕, 更炒熨之.

한독을 마셔 몸이 냉하고 얼굴이 푸르고 검은 디는, 총백 썰어 찢어서 되와 밀기울서 되와 소금 두 되를 물에 반죽하여 등에 난와 흔겁에 싸서 분²에 쏘여 극히 더웁게 하여 비뺌을 여러 번 찜질하라.

중한으로 몸이 차고 맥이 미(微)하며 얼굴이 검푸른 경우에는, 총백(잔뿌리 달린 채로 썬 것) 밀기울 각 3되, 소금 2되를 물에 넣고 고루 섞어 두 포대에 나누어 아주 뜨겁게 볶은 후 비단으로 싸서 번갈아서 배꼽을 찜질한다. 식으면 물에 적셔서 다시 볶아서 찜질한다.

1. 勻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勻'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2. 分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분'의 오기인 듯하다. ←

中寒凍死 추위에 얼어 죽게 된 디 | 추위에 얼어 죽은 경우

冬月落水, 微有氣, 急去濕衣, 以生人煖衣包之, 取灰炒熱入囊, 熨心上, 冷則換之, 令煖氣通裡. 以熱酒或薑茶灌口.

겨울에 물에 빠져 얼어 죽게 된 디, 급히 젖은 옷을 벗기고 성흔 사람의 입은 옷을 버셔 싸눗코, 지를 즈루에 너어 불 쏘여 덥게 해야 명문 우에 씹질하되, 식거든 시로 밧구어 더운 괴운이 비속에 통하게 하고, 또 더운 술이나 혹 싱강차를 먹이라.

겨울에 물에 빠져 숨결이 미약하진 경우에는, 급히 젖은 옷을 벗기고 멀쩡한 사람의 따뜻한 옷으로 감싼 뒤 재를 구해다가 뜨겁게 볶아 자루에 넣고 명치 부위를 찜질하되, 차가워지면 바꾸어 주어서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통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뜨거운 술이나 생강차를 입속에 부어넣어준다.

暑門 서문 | 서문



暑滯 더위로 체한 디 | 더위로 인한 체증

清暑六和湯、養胃湯, 依本方合製用之, 神効.

청서육화탕과 양위탕을 의본방 합제하여 달여 먹으라.

청서육화탕(清暑六和湯)¹과 양위탕(養胃湯)²을 본방대로 해서 합제하여 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 청서육화탕(清暑六和湯)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서(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육화탕. ① 더위로 심비(心脾)를 상하여 구토 설사가 있거나, 객란으로 굳이 뒤틀리거나, 부종 학질 이질을 치료한다. 향유 후박 각 1돈 반, 적복령 곽향 백편두 모과 각 1돈, 사인 반하 행인 인삼 감초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② 이것에 황련(밀기울에 볶는다) 1돈을 넣을 것을 청서육화탕이라고 한다.《의감》"(六和湯. ① 治暑傷心脾, 嘔吐泄瀉, 或霍亂轉筋, 及浮腫瘧痢. 香薷, 厚朴各一錢半, 赤茯苓, 藿香, 白扁豆, 木瓜各一錢, 縮砂, 半夏, 杏仁, 人參, 甘草各五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② 加麯炒黃連一錢, 名曰清暑六和湯.《醫鑑》) ←

2. 양위탕(養胃湯) : 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내상(內傷)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향사양위탕. 음식 생각이 나지 않고 속이 막히고 답답하여 편안하지 않은 것은 위(胃)가 차갑기 때문이다. 백출 1돈, 사인 창출 후박 진피 백복령 각 8푼, 백두구 7푼, 인삼 목향 감초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의감》"(香砂養胃湯. 治飲食不思, 痞悶不舒, 此胃寒也. 白朮一錢, 縮砂, 蒼朮, 厚朴, 陳皮, 白茯苓各八分, 白豆蔻七分, 人參, 木香, 甘草各五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醫鑑》) ←



中暑 더운 독기 마신 디 | 중서

中暈幾死, 切勿灌冷水及冷物遍身, 急移陰涼處, 取路上熱土, 作窩於臍上, 令人尿其中. 又取熱土及蒜子同研, 取水灌口.

서독으로 죽게 된 디, 냉수와 냉한 물건을 몸에 갖가지 말고, 급히 선늘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길 가온디 더운 흙을 가져다가 비스듬히 우의를 덮고 가온디를 움푹하게 하고 그 가온디에 오줌을 누며, 더운 흙과 마늘을 함씩 갈아 집 너여 먹이라.

중갈(中暈)로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입속에 냉수를 부어주거나 차가운 물건이 몸에 닿지 않고 하고, 급히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 길의 뜨거운 흙으로 배꼽 위에 가운데가 움푹하게 쌓아 그 가운데에 오줌을 누다. 그리고 뜨거운 흙과 마늘을 함께 갈아서 즙을 내어서 입속에 부어준다.

取路上泥土馬蹄踏翻乾燥者, 浸水飲之, 神效.

길거리에 진흙이 말굽에 밟혀 말는 것을 물에 담가 마시면 신표.

길의 진흙 중에 말굽에 밟히고 뒤집혀서 마른 것을 물에 담가 마시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宜連薤飲. 香薤三錢, 厚朴一錢五分, 黃連七分半. 入酒少許煎, 取冷服.

연유음. 향유 서 돈^{중돈}¹, 후박 한 돈 오 푼 중, 황련 칠 푼 반 중을 술 조금 부어 다려서 차게 먹으라.

연유음(連薤飲)을 쓴다. 향유 3돈, 후박 1돈 5푼, 황련 7푼 반. 이상의 약재에 술을 조금 넣고 달여서 차게 해서 먹는다.

¹. 중돈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돈중'의 오기인 듯하다. ↩



暑症 서증 | 서증

茅根淨洗 木麥炒黃, 同煎服, 雖年久暑症, 亦效. 但孕婦不可服.

식썰이를 정하게 씻고 모밀을 복거 갖치 다려 먹으면 년구헌 서증도 풀니느니, 조식
비인 계집은 이 약을 못 먹느니라.

모근(깨끗하게 씻은 것)과 메밀(누렇게 될 때까지 볶은 것)을 함께 달여서 먹으면 오래된 서증에도 효험이 있다. 다만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된다.

槐花 軟筍, 煎服, 奇效.

회화와 디순을 다려 먹으면 신표.

괴화와 죽순(연한 것)을 달여서 먹으면 기이한 효험이 있다.

伏暑 더위 먹은 디 | 복서(伏暑)

大豆爲粥, 露宿一夜, 空心連服三日, 雖年久伏暑, 亦效.

콩죽을 쑤어 하루밤 이슬 맞쳐 공심에 먹되, 삼일을 연복하면 연구한 서증도 즉차.

콩으로 죽을 쑤어 하룻밤 동안 이슬을 맞힌 뒤 빈속에 먹되, 3일간 연이어 먹는
다. 오래된 복서증(伏暑證)에도 효험을 본다.

白米 石菖, 全煎爲粥, 露宿一夜, 空心頓服.

쌀과 석이버섯을 함식 죽 쑤어 하루밤을 이슬 맞쳐 공심에 만이 먹으라.

흰 쌀과 석이버섯을 함께 넣고 죽을 쑤어 하룻밤 동안 이슬을 맞힌 뒤 빈속에
단번에 먹는다.

積年伏暑 여러 히 된 서증 | 오래된 복서증(伏暑證)

青蒿三錢, 香薷 益母草 各二錢. 煎服十貼, 愈.

청고 서 돈 중, 향유 익모초 각 두 돈 중을 다려 먹으되 열 첩만 쓰면 족차.

청호 3돈, 향유 익모초 각 2돈.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10첩을 먹으면 낫는다.

杜鵑花煎服.

진달래꽃을 다려 먹으라.

진달래꽃을 달여서 먹는다.

舊暑至夏必發, 煎石麻葉, 服之.

년구헌 서증이 여름에 복발하느 디, 돌새닙을 다려 먹으라.

오래된 서증이 여름만 되면 반드시 발병하는 경우에는, \$\$\$돌개잎을 달여서 먹는다.

暑泄 서설 | 서설

煨薑或乾薑五錢, 胡椒 蒼朮 各三錢, 山查 益母草 各二錢, 煎服.

구은 싱강이나 흑 건강 닛 돈 중, 호초 창출 각 서 돈 중, 산사 익모초 각 두 돈 중을 다려 먹으라.

싱강(젓불에 넣어서 구운 것) 혹은 건강 5돈, 호초 창출 각 3돈, 산사 익모초 각 2돈을 달여서 먹는다.

大蒜五六箇, 爛烹和蜜服. 或困暑煩悶, 取汁和蜜服.

큰 마늘 오륙 통을 무르게 삶어 꿀을 타 먹고, 흑 서증으로 속이 답답한 디 마늘집을 니여 꿀을 타 먹으라.

마늘 5-6개를 문드러지도록 삶아서 꿀을 타서 먹는다. 흑 더위를 먹어 속이 답답한 경우에는 마늘 즙을 꿀에 타서 먹는다.

蒼朮 乾薑 各五錢, 煎服. 滯, 加山查三錢.

창출 건강 각 닛 돈 중을 다려 먹으되, 체증이 잇거든 산사 서 돈 중을 가입하라.

창출 건강 각 5돈을 달여서 먹는다. 체증이 있는 경우에는, 산사 3돈을 더한다.

百草霜爲末, 白粥作丸下之.

안진 검정을 작말하야 흰죽에 환을 지어 먹으라.

백초상을 가루 내어 흰죽으로 환을 빚어서 먹는다.

暑熱多食瓜果所致, 橘餅沸湯冲服, 神效.

서열에 참외와 실과를 만이 먹어 설사하느 디, 굴병을 다려 먹으면 신표.

무더위에 과일을 많이 먹어 설사가 생긴 경우에는, 귤병(橘餅)을 끓인 물에 타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消導而不痊, 黑糖五六片, 青松子十五介, 良薑 胡椒 各一錢, 煎服二三次, 卽痊.

소도하야도 낫지 안이하는 디, 검은엿 오륙 편과 풀은 술방울 십오 개와 양강 호초 각 한 돈 중을 다려 이삼 차 먹으면 즉차.

기운을 소통시켜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검은 엿 5-6조각, \$\$청송자(靑松子) 15개, 양강 호초 각 1돈을 달여서 2-3차례 먹으면 곧 낫는다.

暑熱引飲過多, 致吐瀉, 澤瀉 白茯苓 白朮 各二錢, 薑三片, 燈心二十莖, 煎服.

서열에 냉수를 많이 먹어 토사하는 디, 택사 백복령 백출 각 두 돈 중, 싱강 석 점, 등심 이십 개를 다려 먹으라.

무더위에 물을 너무 켜서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에는, 택사 백복령 백출 각 2돈, 생강 3쪽, 등심 20줄기를 달여서 먹는다.

暑傷濕冷吐瀉, 桂心 赤茯苓 等分, 末, 一兩, 和蜜作八丸, 每一丸, 井花水化下.

더위에 습냉에 상하야 토사하는 디, 계심 적복령 등분 작말하야 한 양중을 꿀에 반죽하야 환약 여덟 개를 지어 한 개씩 정화수에 가라 먹으라.

더울 때에 습냉한 사기(邪氣)에 상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에는, 계심 적복령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 것 1냥으로 꿀에 반죽하여 8개의 환을 빚어 매번 1환씩 정화수에 녹여서 먹는다.

暑癰吐瀉, 香薷散, 依本方, 或加甘草五分服.

토사곽란에 향유산을 의본방하야 쓰고, 흑 감초 오 푼 중을 가입하나니라.

더위로 인한 토사곽란(吐瀉霍亂)에는 향유산(香薷散)¹을 본방대로 써서 먹거나, 감초 5푼을 더하여 먹는다.

薑汁一合, 蜜一匙, 生芩汁少許. 水三合和勻頓服.

강집 혼 흡, 꿀 혼 술, 생지황집 조금, 물 서 흡에 타 먹으라.

생강즙 1흡, 꿀 1술, 생지황즙 조금. 이상의 약재를 물 3흡에 타서 단번에 먹는
다.

若兼腹疼吐瀉, 縮脾飲, 依本方服.

만일 복통이 잇고 토사하거든, 축비음을 의본방하야 먹으라.

복통과 구토·설사를 겸하였다면, **축비음(縮脾飲)**²을 본방대로 써서 먹는다.

1. 향유산(香薷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서(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향유산. 모든 서병으로 토사곽란이 있거나 정신이 혼미하여 기절하려는 것을 치료한다. 향유 3돈, 후박 백편두 각 1돈 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약간의 술을 넣어 물에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한 후 찬물에 담갔다가 먹는다."(香薷散. 治傷中一切暑病, 或霍亂吐瀉, 或昏塞欲絕. 香薷三錢, 厚朴白扁豆 各一錢半. 右剉, 作一貼, 入酒少許, 水煎去滓, 沈冷服之.) ↵

2. 축비음(縮脾飲)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서(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축비음. 여름철에 생것이나 찬것에 상하여 배가 아프고 구토, 설사를 하는 것을 치료한다. 사인(간 것) 1돈 반, 초과 오매육 향유 감초 각 1돈, 백편두 갈근 각 7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縮脾飲. 治暑月內傷生冷, 腹痛吐瀉. 縮砂研一錢半, 草果 烏梅肉 香薷甘草 各一錢, 白扁豆 乾葛 各七分. 右剉, 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 ↵

暑感 서감 | 여름 감기

香薷三錢, 煨薑五錢五分, 煎溫服. 傷風頭疼, 加羌活一錢, 眩症, 加防風八分.

향유 서 돈 중, 구은 생강 닷 돈 오 푼 중을 다려 더웁게 먹으되, 상풍하야 두통이 잇 거든 강활 혼 돈 중을 가입 하고, 어질어온 증에는 방풍 팔 푼 중을 가입 하라.

향유 3돈, 생강(젓볼에 넣어서 구운 것) 5돈을 달여서 따뜻하게 먹는다. 풍에 상하여 머리가 아플 경우에는 강활 1돈을 더하고,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방풍 8푼을 더한다.

中暑不食 서증으로 음식 못 먹는 디 | 더위 먹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棗葉搗取汁，一湯器和水飲之。久暑亦效。

대초입을 지씨어 집니여 혼 탕기에 물을 타 마시면 연구혼 서체도 낫느니라.

대추나무 잎을 찢어서 낸 즙 한 탕기를 물과 섞어서 마신다. 더위 먹어 체한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도 효험이 있다.

薑汁一合，蜜一匙，水三合和勻飲。

강집 혼 홉, 꿀 혼 술을 물 서 홉에 타 먹으라.

생강즙 1홉, 꿀 1술을 물 3홉에 타서 마신다.

蒜汁或藍汁飲。

만늘을 집니거느 혹 쪽을 집니여 먹으라.

마늘즙이나 쪽즙을 마신다.

暑宜補 서증에 보하는 약 | 서증에 보하는 약

十味香薷飲. 香薷一錢五分, 厚朴 白扁豆 人蔘 陳皮 白朮 白茯苓 黃芪 木果¹ 甘草 各七分. 消暑和胃補氣. 或末熱湯或冷水調下.

십미향유음. 향유 한 돈 오푼 중, 후박 백편두 인삼 진피 백출 백복령 황기 모과 감초 각 칠 푼 중을 다려 먹고, 혹은 작말하야 더운 물에 녹여 찬 물에 녹여 타 먹으라.

십미향유음(十味香薷飲)을 쓴다. 향유 1돈 5푼, 후박 백편두 인삼 진피 백출 백복령 황기 모과 감초 각 7푼. 더위를 씻어내고 위(胃)를 조화롭게 해주며 기를 보해준다. 혹은 가루 내어 뜨거운 물이나 냉수에 타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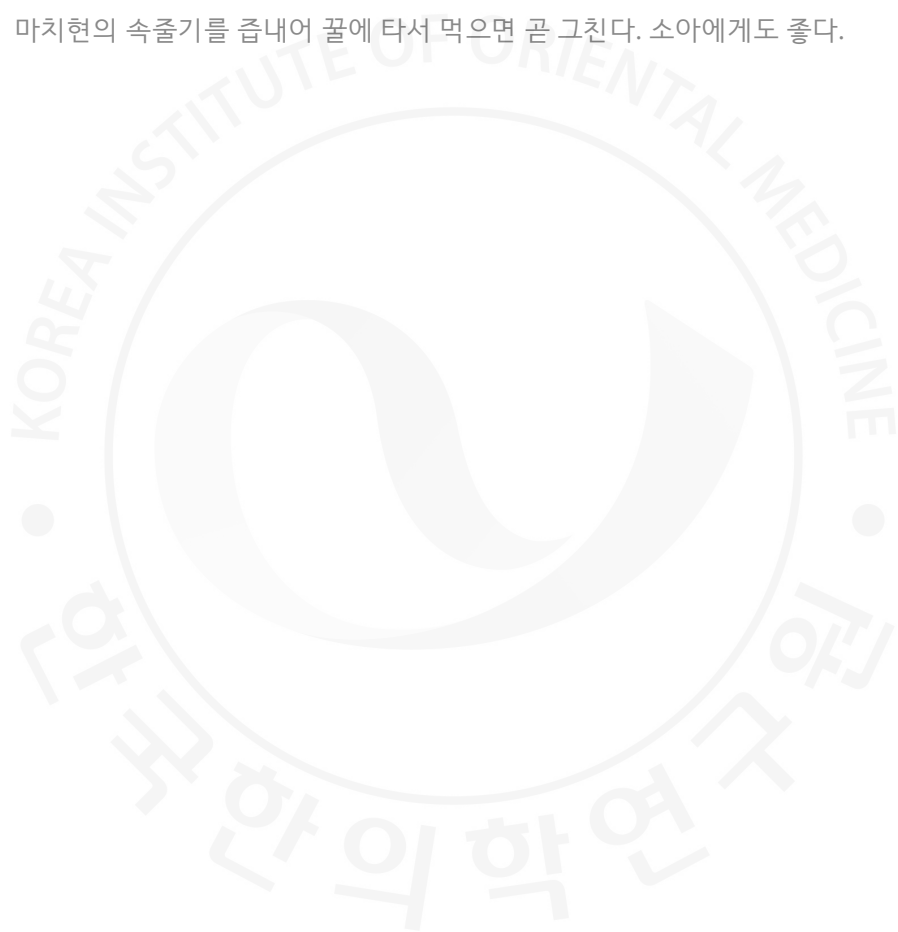
1. 果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暑痢 서증으로 리질하는 디 | 더위 먹어 설사하는 병

馬齒莧白莖取汁, 和蜜服, 卽止. 小兒尤好.

쇠비름 줄기를 집니여 꿀에 타 먹으면 즉차하느니, 어린아히에게도 조흐니라.

| 마치현의 속줄기를 즈내어 꿀에 타서 먹으면 곧 그친다. 소아에게도 좋다.



濕門 습문 | 습문



濕痰 습담 | 습담

取五加皮, 和酒, 蒸薰疼處, 卽差.

오가피를 술에 셋거 압흔 디를 씬질흐면 즉차.

오가피를 술에 섞어 아픈 곳을 훈증하면 곧 낫는다.



濕痰滯 습담으로 체한 디 | 습담으로 체한 경우

六一散, 依本方, 加葛粉一錢, 和水服, 神效.

육일산 의본방에 갈분 혼 돈 중을 합하여 물에 타 먹으라.

육일산(六一散)¹ 본방에 갈분 1돈을 더하여 물에 타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 육일산(六一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서(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익원산. ① 중서로 몸에 열이 나는 것과 구토와 설사·적백리·옹폐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위(胃) 속의 적취나 한열을 씻어내고 적기(積氣)를 뚫으며, 구구(九竅)와 육부를 통하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며, 뭉친 것을 제거하고 물이 뭉친 것을 없애며, 갈증을 멎게 하고 번열을 제거하며, 비신(脾腎)의 기를 크게 기르고 온갖 약·술·음식의 독을 풀어준다. 활석 6냥, 감초(구운 것) 1냥을 곱게 가루내어 3돈씩 뜨거운 꿀물에 타서 먹는다. 차게 마실 때는 우물물에 타서 먹는다.《선명》 ② 육일산이나 천수산이나 신백산이라고도 한다.《선명》"(益元散. ① 治中暑, 身熱吐瀉, 腸澀下痢赤白, 癰閉, 濕胃中積聚寒熱, 宣積氣, 通九竅六府, 生津液, 去留結, 消蓄水, 止渴除煩, 大養脾腎之氣, 解百藥酒食邪毒. 滑石六兩, 甘草灸一兩. 右細末, 每三錢, 溫蜜水調服. 欲冷飲者, 井水調下.《宣明》 ② 一名六一散, 一名天水散, 一名神白散.《宣明》) ←

기후와 풍토가 몸에 안 맞아 오한과 발열이 있고 몸이 무거우며 나른하고 노곤한 경우
우 水土不服, 寒熱身重怠因

水土不服¹, 寒熱身重怠因² 슈토불복해야 한열과 게으르고 곤한 디 | 기후와 풍토가 몸에 안 맞아 오한과 발열이 있고 몸이 무거우며 나른하고 노곤한 경우

不換金正氣散, 加藿香 檳榔 各一錢, 三四貼用效.

불환금정기산에 곽향 빈랑 각 한 돈씩 가입해야 삼스 첩 쓰라.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³에 곽향 빈랑 각 1냥을 더하여 3-4첩을 쓰면 효험이 있다.

1. 服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伏'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因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困'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불환금정기산. 상한음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거나 한열이 왕래하는 것을 치료한다. 창출 2돈, 후박 진피 곽향 반하 감초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不換金正氣散.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或寒熱往來. 蒼朮二錢, 厚朴 陳皮 藿香 半夏 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

燥門 조문 |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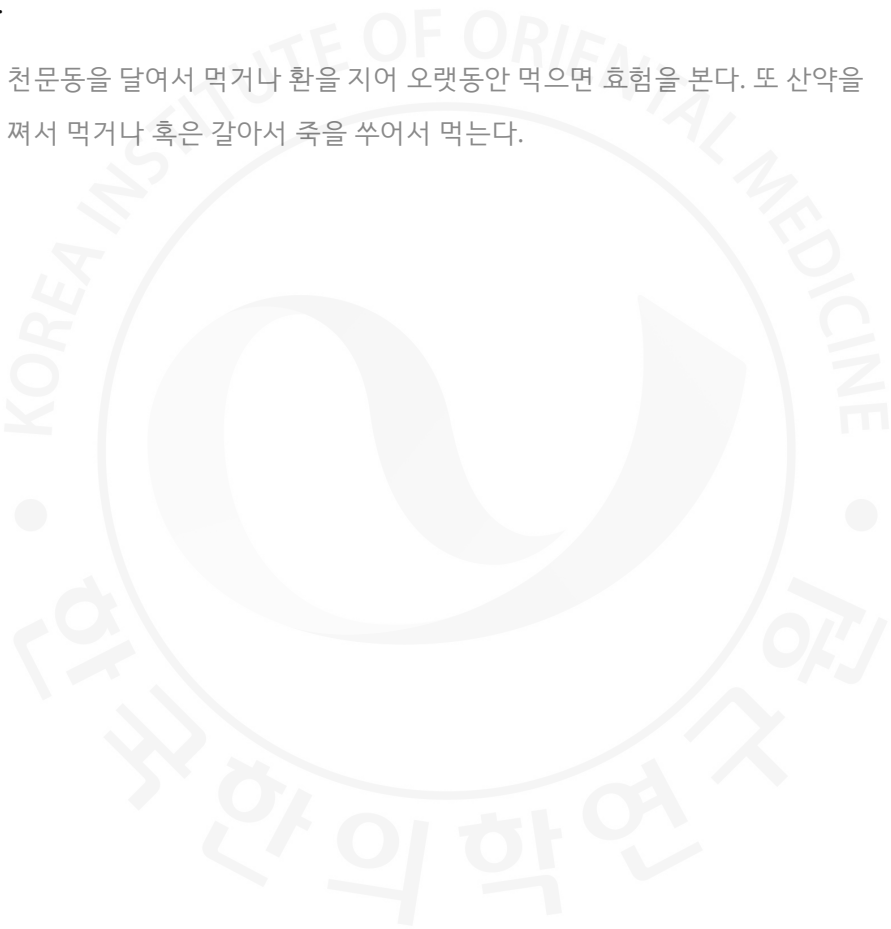


燥病 조흔 병 | 조병

天門冬煎服, 或作丸久服, 效. 又山藥蒸食, 或研糲粥食.

천문동을 다려 먹고, 혹은 환 지어 먹으라. 또 산약을 써서 먹고 혹은 갈아 죽 쑤어 장복하라.

천문동을 달여서 먹거나 환을 지어 오랫동안 먹으면 효험을 본다. 또 산약을 찌서 먹거나 혹은 갈아서 죽을 쑤어서 먹는다.



火門 화문 | 화문



降火 화기를 내리는 약 | 화기를 내리는 약

海螵蛸和馬馬莧¹, 煮常服.

오징어뼈와 쇠비름을 다려 장복하라.

해표초²와 마치현을 달여서 늘 먹는다.

1. 馬馬莧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馬齒莧'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해표초 : 오적골(烏賊骨)의 이명이다. ↩

內傷門 니상문 | 내상문



酒滯 주체 | 술로 인한 체증

不換金正氣散, 對金飲子, 合製煎用, 神效.

불환금정기산 디금음자 합제하여 달여서 먹으라.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과 대금음자(對金飲子)¹를 합제하여 달여서 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葛花, 陳皮, 薑三片, 煎茶服, 效.

칙꽃과 진피와 생강 세 조각 너서 차 다려 먹으라.

갈화와 진피와 생강 3조각을 차로 달여서 먹으면 효험이 있다.

¹. 대금음자(對金飲子)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내상(內傷)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금음자. ① 술이나 음식에 상한 것을 치료한다. 위(胃)를 조화시키고 담을 삭인다. 진피 3돈, 후박 창출 감초 각 7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 ② 여기에 갈근 2돈, 적복령 사인 신국 각 1돈을 넣으면 더욱 좋다.《활인심》"(對金飲子. ① 治酒食傷, 和胃消痰. 陳皮三錢, 厚朴 蒼朮 甘草 各七分. 右剉, 作一貼, 薑三片, 水煎服. ② 加乾葛二錢, 赤茯苓 縮砂 神麴 各一錢, 尤好.《活人心》) ←

食積腹脹 음식에 체 해야 비가 포만흔 디 | 식적으로 배가 창만해진 경우

漸脹不下, 熟¹酒和薑汁, 頻頻服之.

점점 포만해야 नी리지 안는 디, 더운 술에 강집을 타 자조 먹으라.

점점 창만해져서 소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뜨거운 술에 생강즙을 타서 자주 먹는다.

¹. 熟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熱'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宿滯 오랜 체증 | 오래된 체증

取木麥稿灰三升, 薑汁和丸, 服之.

모밀 디를 지 만드려 서 되를 강집에 환하여 미음에 먹으라.

메밀짚 태운 재 3되를 생강즙으로 환을 빻어 먹는다.

取杏仁油, 限三朔服之.

살구씨기름을 석달 한하고 먹으라.

살구씨기름을 3달 동안 먹는다.

取桑木向南枝, 濃煎長服. 經效.

뽕나무 남편으로 버든 가지를 잘나 진하게 다려 장복하라.

남쪽으로 뺀 뽕나무 가지를 진하게 달여서 장복한다.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

消滯 체증 풀는 약 | 체증을 내리는 약

陳皮一錢, 生薑五錢, 煎和蜜服. 肉滯, 加山查一錢, 枳實五分. 穀滯, 加神曲 麥芽 各一錢. 外感挾滯, 加荊芥穗八分, 吉更五分. 水滯, 加亭藳子 木苳 各八分. 果滯, 加草果 枳角 各五分.

진피 한 돈 중, 생강 닷 돈 중을 다려 꿀을 타 먹으라. 고기에 체한 디, 산사 한 돈 중, **기실**¹ 오 푼 중을 가입하고, 곡식에 체한 디, 신곡 맥아 각 한 돈 중을 가입하고, 외감 협체에 형개수 팔 푼 중, 길경 오 푼 중을 가입하고, 물에 체한 디, 정력자와 목과 각 팔 푼 중을 가입하고, 실과에 체한 디, 초과와 **지각**² 각 오 푼 중을 가입하라.

진피 1돈, 생강 5돈을 달여서 꿀을 타서 먹는다. 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에는, 산사 1돈, 지실 5푼을 더한다. 곡식을 먹고 체한 경우에는, 신곡 맥아 각 1돈을 더한다. 외감(外感)에 체증이 겹친 경우에는, 형개수 8푼, 길경 5푼을 더한다. 물을 마시고 체한 경우에는, 정력자 모과 각 8푼을 더한다.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에는, 초과 지각 각 5푼을 더한다.

助元散. 白朮三錢, 蓮肉一錢五分, 白茯苓 陳皮 各一錢, 麥芽 檳榔 烏藥 各五分. 薑二片, 棗二枚, 準差用之. 肉滯, 加山查三錢. 菜果滯, 加草果一錢. 觸寒感冒, 加荊芥 細辛 各八分. 感冒, 頭疼肢節疼, 加防風 藁本 各八分. 酒滯, 加丁香五分. 暑傷, 加白扁豆 香薷 各一錢. 咳喘, 加天門冬 蘇子 各一錢.

조원산. 빅출 서 돈 중, 연육 한 돈 오 푼 중, 빅복녕 진피 각 한 돈 중, 맥아 빈랑 오약 각 오 푼 중, 생강 석 점, 디초 두 기. 고기에 체한 디, 산사 서 돈 중을 가입하고, 나물이나 실과에 체한 디, 초과 한 돈 중을 가입하고, 감기에는 형기 세신 각 팔 푼 중을 가입하고, 두통지절통에 방풍 고본 각 팔 푼 중을 가입하고, 술에 체한 디 정향 오 푼 중을 가입하고, 히소와 천축에는 천문동 소조 각 한 돈 중을 가입하라.

조원산(助元散). 백출 3돈, 연육 1돈 5푼, 백복령 진피 각 1돈, 맥아 빈랑 오약 각 5푼. 이상의 약재에 생강 2쪽과 대추 2개를 넣어 쓰되, 나올 때까지 쓴다. 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에는 산사 3돈을 더한다. 나물이나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에는, 초과 1돈을 더한다. 한기에 상하여 생긴 감기에는, 형개 세신 각 8푼을 더한다. 감기로 머리와 사지 관절이 쑤시는 경우에는, 방풍 고본 각 8푼을 더한다. 술을 마시고 체한 경우에는, 정향 5푼을 더한다. 더위에 상한 경우에는, 백편두 향유 각 1돈을 더한다. 기침하고 숨이 가쁜 경우에는, 천문동 소자 각 1돈을 더한다.

無論某滯, 以所食本物, 燒存性末, 調白沸湯, 入眞油一匙, 空心服, 無不效.

무론 아모 체증이던지 먹고 체한 물건을 불에 살와 작말하야 빅비탕에 타고 참기름
흔 술을 가입하야 먹으라.

어떤 체증이든 먹고 체했던 음식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 내어 끓인 물에
타서 참기름 1술을 넣고 빈속에 먹으면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1. 기실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지실'의 오기인 듯하다. ↩

2. 기각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지각'의 오기인 듯하다. ↩

水滯 물에 체한 디 | 물을 마시고 체한 경우

取井中苔煎服. 或沙二三介吞之, 亦好.

우물 가온디 익기를 다려 먹으라. 모리 두세 기를 삼켜도 조흐니라.

| 우물 속의 이끼를 구해서 달여 먹는다. 혹은 모래 2-3알을 삼켜도 좋다.



酒滯 술에 체한 디 | 술을 마시고 체한 경우

蜜水或砂糖水, 和葛粉服. 又不換金正氣散, 對金飲子, 合製煎服, 卽差.

꿀물이나 사탕물에 갈분을 타 먹으라. 또 불환금정기산에 대금음자를 합제하여 다
려 먹으면 즉차.

꿀물이나 설탕물에 갈분을 타서 먹는다. 또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과 대
금음자(對金飲子)를 합제하여 달여 먹으면 곧 낫는다.

飲冷酒數便, 服熱酒一盃.

찬 술을 먹고 자조 뒤 보논디는, 썰인 술 한 잔을 먹으라.

찬 술을 마시고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뜨거운 술 1잔을 먹는다.

銀杏枝煎服, 神效.

은행나무가지를 다려 먹으면 신표.

은행나무가지를 달여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豆腐滯 두부에 체한 디 | 두부를 먹고 체한 경우

米泔水一湯器, 溫服.

쌀뜨물 한 탕기를 데어 먹으라.

쌀뜨물 1탕기를 따뜻하게 먹는다.

南草灰水服之. 又草屋上年久藁草, 浸水連飲.

담비 지물을 먹으라. 또 초가집웅에 년구흔 집흘 물에 우려 먹으라.

담배 잿물을 먹는다. 또 초가지붕 위의 오래된 짚을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연
이어 먹는다.

狗肉滯 지고기에 체한 디 | 개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陳久唐稷¹莖, 煎服.

오리 묵은 수수디를 다려 먹으라.

오래된 사탕수수(唐稷)²의 줄기를 달여서 먹는다.

木麥末, 作稀粥服.

모밀갈우로 묽게 죽 쑤어 먹으라.

메밀가루로 묽은 죽을 쑤어서 먹는다.

靑黛少許, 和溫水服, 卽效.

청디를 조금 더운 물에 타 먹으면 즉치.

청대 조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藁草一掬, 杏仁少許, 煎服.

벼집 한 줌에 행인 조금 너어 다려 먹으라.

벼집 1줌과 행인 조금을 달여서 먹는다.

杏仁末, 或蜜或糖, 和作餅啖之, 卽差.

살구씨를 작말하야 썰에나 엿에 반죽하야 먹으면 즉차.

행인 가루를 꿀이나 엿에 반죽하여 떡처럼 만들어 먹으면 곧 낫는다.

¹. 唐稷 : 언해에는 "수수"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지 알 수 없다. 《동의보감》, 《제중신편》 등에는 稷藟를 "슈슈"로 언해하였기 때문이다. 고증에 한계가 있

어 언해를 따라 번역하였다. ↩

2. 사탕수수(唐稷) : 언해에는 "수수" 혹은 "수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수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 《제증신편》 등에는 "秫薊"을 "슈슈"로 언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부터 전래된 수수라는 의미에서 사탕수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



牛肉滯 쇠고기에 체한 디 | 쇠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樺皮, 燒存性, 和水服.

벗나무 껍질을 불에 살와 물에 타 먹으라.

화피(樺皮)¹을 약성이 남게 태워 물에 타서 먹는다.

老柳皮, 燒存性, 調鹽水服.

늙은 버드나무 껍질을 불에 살와 소금물에 타 먹으라.

늙은 버드나무의 껍질을 약성이 남게 태워 소금물에 타서 먹는다.

龍蓼²并莖葉根實, 煎服, 神效.

가마종을 디와 닙과 썰이와 열미를 함식 다려 먹으면 신표.

까마중의 줄기와 잎과 뿌리와 열매를 함께 달여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阿魏煎服. 又好醋一鍾子溫服, 神效. 無論何樣滯皆可.

아위를 다려 먹으라. 또 조흔 초 혼 종조만 덩게 먹으면 신표. 무론 아모 체에도 먹느니라.

아위를 달여서 먹는다. 또 좋은 식초 1종지를 따뜻하게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이 처방은 어떠한 체증이든 다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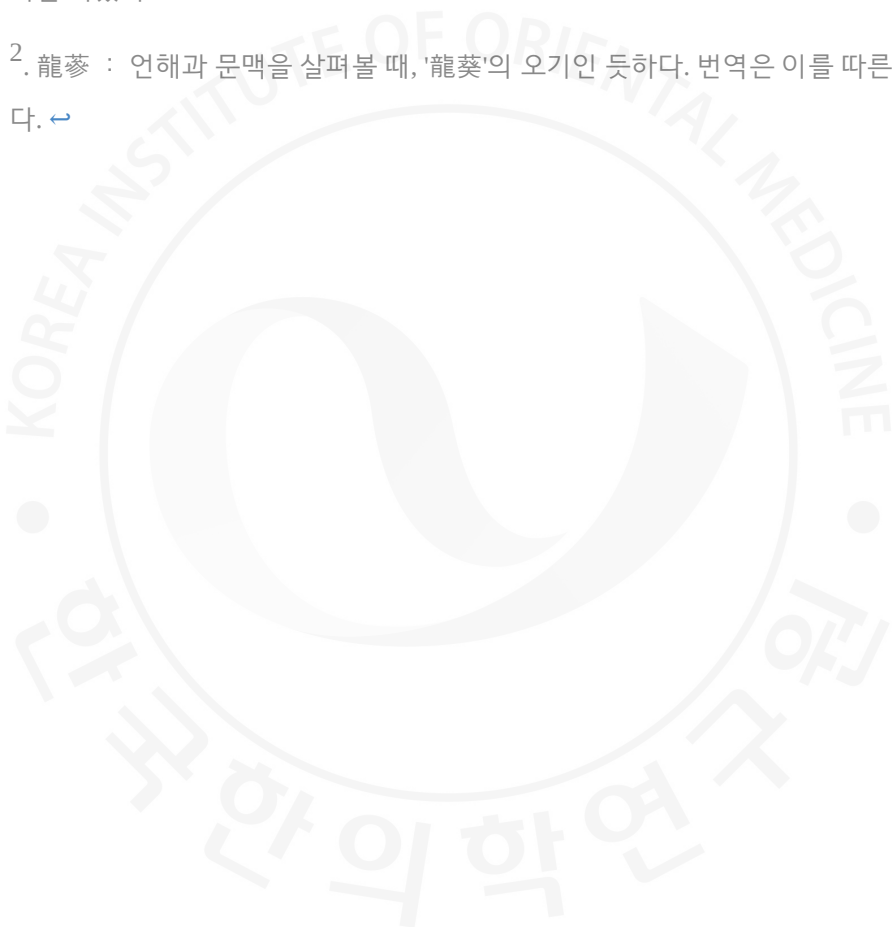
若危急, 清醬 好醋 各一甫兒, 入羊蹄根一握, 細辛二錢, 勿爛煎服.

만일 위급하거든, 지령과 조흔 초 각 혼 보에 소로장이 썰이 혼 줌과 세신 두 돈 줌을 다려 먹으라.

위급한 경우에는, 간장(清醬)과 좋은 식초 각 1보시기에 양제근 1줌과 세신 2돈을 넣고 문드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달여서 먹는다.

1. 화피(樺皮) : 《동의보감》에는 "벗"으로, 본서에는 "벗나무"로 언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樺木'을 '벗나무'로 본 듯 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자작나무(*Betula platyphylla* Suk)로 보고 있어 기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약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화피"로 지칭하기 때문에 번역은 이를 따랐다. ←

2. 龍蓼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龍葵'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猪肉滯 도야지고기에 체한 디 | 돼지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酸醬¹ 根煎服, 卽差.

꾸아리나무 쥘이를 다려 먹으면 즉초.

파리나무(酸漿)의 뿌리를 달여 먹으면 곧 낫는다.

蝦醢汁溫服, 亦有效.

시우젓국을 더여 먹어도 즉효.

새우젓국을 따뜻하게 먹어도 효험이 있다.

1. 酸醬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酸漿'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全鰓滯 전복에 체한 디 | 전복을 먹고 체한 경우

南草煎服, 卽效.

담비를 다려 먹으면 즉효.

| 담배를 달여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甘藷¹滯 메역에 체한 디 | 미역을 먹고 체한 경우

梧桐葉煎服. 若值無葉, 枝根亦可.

오동잎을 다려 먹으되, 만일 잎이 없거든 가지와 썰이도 쓰라.

오동잎을 달여서 먹는다. 오동잎이 없는 경우에는, 오동나무 가지나 뿌리를 써도 좋다.

葛根煎服. 《經》曰: "葛山之下無藷氣."

갈근을 다려 먹으라.

갈근을 달여서 먹는다. 《경》에 "갈산(葛山) 아래에는 콧기(藷氣, 미역 기운)가 없다."² 하였다.

1. 甘藷 : 미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海菜"를 많이 쓰나 일상에서 "甘藷"라고 하였다. 이창우, 《수세보결》〈주류〉해조주(海藻酒) "해조는 지금 민간에서 감팍이라고 한다." (海藻, 今俗稱甘藷) ←

2. "갈산(葛山) 아래에는 콧기(藷氣, 미역 기운)가 없다." : 출전을 고증할 수 없다. ←

海衣滯 히의에 체한 디 | 김을 먹고 체한 경우

木麥莖作灰水服.

모밀디 지물을 먹으라.

| 메밀 줄기 태운 잿물을 먹는다.



果滯 실과에 체한 디 |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

桂皮五錢煎服.

계피 닛 돈 중을 다려 먹으라.

| 계피 5돈을 달여서 먹는다.

燒猪肉末, 水調服.

제육을 불에 살와 작말¹하야 물¹에 타 먹으라.

| 돼지고기를 태워서 가루 내어 물에 타 먹는다.

草果五錢煎服. 菜果滯良.

초과 닛 돈 중을 다려 먹으라. 나물과 실과 체에도 조흐니라.

| 초과 5돈을 달여서 먹는다. 나물이나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에도 좋다.

| ¹. 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물'의 오기인 듯하다. ↩

柿滯 감에 체한 디 | 감을 먹고 체한 경우

取唐稷少許, 生嚼吞下, 卽效.

수수를 날로 씹어 먹으면 즉효.

사탕수수(唐稷)¹ 조금을 날것으로 씹어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薑茶調薑發末二錢, 準差服.

싱강차에 필발 갈우 두 돈 중을 타 먹으라.

생강차에 필발 가루 2돈을 타서 먹되, 나올 때까지 먹는다.

大口魚嚼下, 或烹食之.

대구를 삶어 먹으라. 혹은 그져도 먹느니라.

대구를 날것으로 씹어 먹거나 삶아서 먹는다.

¹. 사탕수수(唐稷) : 언해에는 "수수" 혹은 "수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수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 《제중신편》 등에는 "秬薊"을 "슈슈"로 언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부터 전래된 수수라는 의미에서 사탕수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

葛芡滯 상치썸에 체한 디 | 상추를 먹고 체한 경우

取白砂器煎服.

빅샤기를 다려 먹으라.

| 흰 사기를 달여서 먹는다.



眞苺滯 참외에 체한 디 | 참외를 먹고 체한 경우

眞品佩香磨水服. 或麝香調水服.

진품향을 물에 갈아 먹고, 혹은 사향을 물에 타 먹으라.

진품의 패향(佩香,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향)을 물에 갈아서 먹는다. 혹은 사향을 물에 타서 먹는다.

葱白爛搗, 入人乳少許, 取汁服.

총백을 난도하여 사람의 젖을 조금 넣어 집니여 먹으라.

총백을 문드러지게 찼은 뒤 사람의 젖을 조금 넣어서 즙내어 먹는다.

柿霜三錢煎服. 或北魚煎服.

곶감 시설 서 돈 중을 다려 먹고, 혹은 북어도 다려 먹으라.

시상(柿霜)¹ 3돈을 달여서 먹는다. 혹은 북어를 끓여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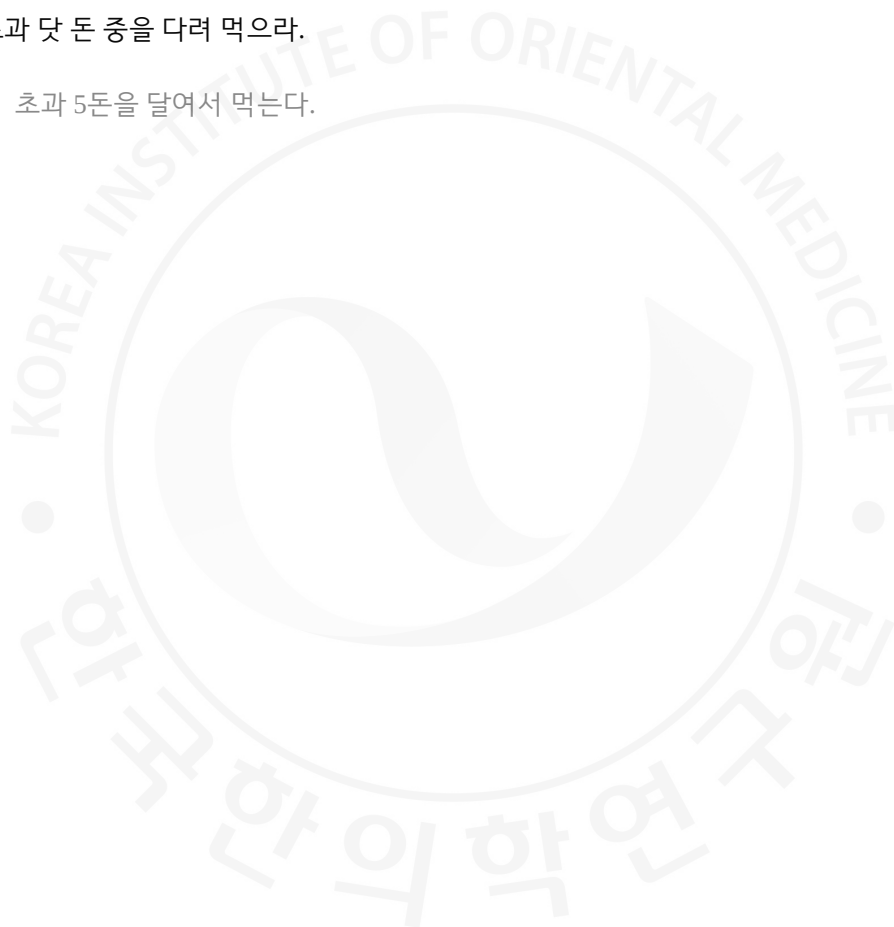
¹. 시상(柿霜) : 곶감 겉면에 두텁게 맺힌 흰 가루 ↩

菜果滯 나물이나 실과에 체한 디 | 나물이나 과일을 먹고 체한 경우

草果五錢煎服.

초과 닛 돈 중을 다려 먹으라.

| 초과 5돈을 달여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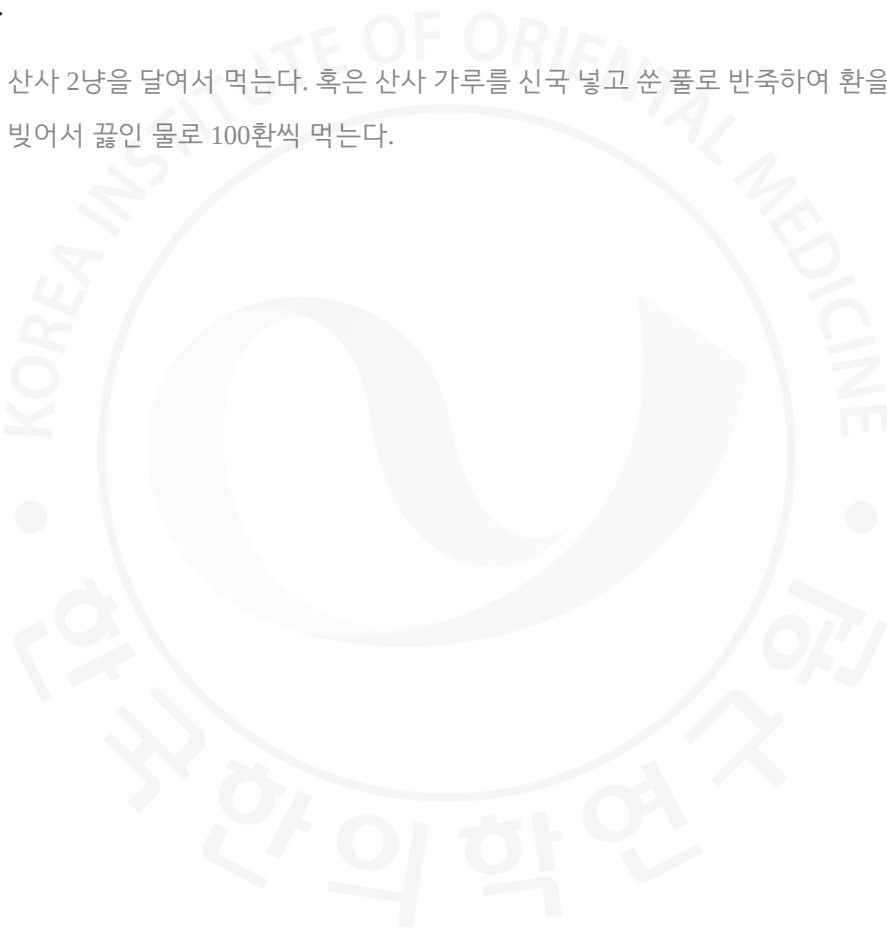


魚肉滯 어육에 체한 디 | 생선을 먹고 체한 경우

山査二兩煎服. 或末神曲糊丸, 白湯下百丸.

산사 두 냥 중을 다려 먹고, 혹은 작말허야 신곡과 풀에 환허야 빅비탕에 빅 환식 먹으
락.

산사 2냥을 달여서 먹는다. 혹은 산사 가루를 신곡 넣고 쉰 풀로 반죽하여 환을
빚어서 끓인 물로 100환씩 먹는다.



大小麥麵滯 밀국수나 모밀국수에 체한 디 | 보리국수나 밀국수를 먹고 체한 경우

生蘿菔嚼嚥之.

무우를 날로 먹으라.

무를 날것으로 씹어먹는다.

膨脹作疼, 烏梅肉爲丸, 每二三十丸, 白湯下.

포만하고 비 압흔 디, 오미육을 환약 지어 이삼십 기식 빅비탕에 먹으라.

배가 창만하고 아픈 경우에는, 오매육으로 환을 빚어 매번 20-30환씩 끓인 물로 먹는다.

一切食滯 뭇은 식체 | 온갖 식체

若至危急, 用射薑子¹, 卽通. 壯者九介, 老弱三介或五介.

병이 위급하거나 **사강**²을 먹이면 즉차 통하니, 장정은 아홉 기를 쓰고, 노약은 세 기나 혹은 다섯 기를 쓰라.

위급해진 경우에는, 사간의 씨(射干子)를 쓰면 곧 식체가 내려간다. 장정은 9알을 쓰고, 노약자는 3알 혹은 5알을 쓴다.

1. 射薑子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射干子'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사강\uf1fc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사간\uf1fc'의 오기인 듯하다. ↩

食生冷硬物 싱된 것과 찬 것과 단단한 것 먹어 체한 디 | 날 것과 찬 것과 단단한 것을 먹고 체한 경우

痞滿脹痛, 內消散, 依本方用.

포만하고 비 압흔 디, 니소산을 의본방하야 쓰라.

속이 막히고 그득하며 배가 불러 오르고 아픈 경우에는, 내소산(內消散)을 본
방대로 쓴다.



傷食發熱頭痛 음식에 체해야 발열하고 두통 잇는 디 | 음식에 상하여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경우

症似傷寒, 陶氏平胃散, 依本方用.

증세가 상한 갓흔 디논, 도씨평위산을 의본방하야 쓰라.

증상이 상한 비슷한 경우에는, **도씨평위산(陶氏平胃散)**¹을 본방대로 쓴다.

¹. 도씨평위산(陶氏平胃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내상(內傷)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도씨평위산. 창출 1돈 반, 후박 진피 백출 각 1돈, 황련 지실 각 7푼, 초과 6푼, 신국 산사육 건강 목향 감초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陶氏平胃散. 蒼朮一錢半, 厚朴 陳皮 白朮 各一錢, 黃連 枳實 各七分, 草果六分, 神麴 山楂肉 乾薑 木香 甘草 各五分. 右剉, 作一貼, 薑三, 水煎服.) ↩

虛勞門 허로문 | 허로문



盜汗 도한 | 도한

牛尾一個를 ¹煎古音 ², 每日一次式, 五六日用, 卽止. 此外更無好藥.

쇠꼬리 한 기식 고와서 오륙일 먹으라.

쇠꼬리 1개를 고아서 매일 1차례씩 5-6일 동안 먹으면 곧 그친다. 도한에는 이
이외에 달리 좋은 약이 없다.

1. 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연문으로 보인다. ↩

2. 古音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연문으로 보인다. ↩

虛勞 허로 | 허로

取鷄卵新生者, 或日久無傷者, 穿孔吸之, 以差爲準.

싱계란 상하지 안이훈 것을 만이 먹으라.

계란 중 갓 나온 것이나 혹은 오래되었으나 상하지 않은 것에 구멍을 뚫어 빨아서 먹되, 나올 때까지 먹는다.



癰亂門 곽란문 | 곽란문



急癰 급각란 | 급각란

蒜子四五根煎沸冷服, 卽效.

마늘 사오통을 다려 차게 먹으면 즉효.

| 마늘 4-5뿌리를 끓어오를 때까지 달여서 차게 해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艾葉以手揅之, 作丸梧子大, 下三介, 卽瘥.

약쑥을 부벼 환약 만들어 세 기를 먹으면 즉차.

| 약쑥을 손으로 주물러서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빻어 3환을 먹으면 곧 낫는다.

癰亂吐瀉 곽란토사 | 곽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桃葉煎服,

복송아나무잎을 다려 먹으면 **즉효**¹.

| 복송아잎을 다려서 먹으면 위급한 경우에도 효험을 본다.

蒜子生蘇葉汁和服, 效.

마늘을 소엽집에 타 먹으면 즉효.

| 마늘을 소엽(생것) 즙 낸 것에 섞어서 먹으면 효험을 본다.

1. 즉효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즉효'의 오기인 듯하다. ↩

轉筋¹入腹 전근되어 비로 드는 디 | 뱃속까지 뒤틀려 아픈 경우

男子則以手挽其腎, 女子則挽其乳, 取百草霜二匕, 和米飲服之.

남자의 병이면 손으로 그 신을 잡아다리고, 녀자의 병은 그 젖을 잡아다리고, 안진 검정 두 술을 미음에 타 먹이라.

남자가 병났을 경우에는 손으로 외신을 잡아당기고, 여자가 병났을 경우에는 젖을 잡아당긴 후, 백초상 2술을 미음에 타서 먹인다.

1. 轉筋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轉筋'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通治 통치하는 약 | 두루 치료하는 약

鹽薑同煎灌之, 卽吐而愈.

소금과 생강을 함식 다려 먹으면 곧 토하고 낫는다.

소금과 생강을 함께 넣고 달여서 입속에 부어주면 곧 토하고 낫는다.

獨頭蒜汁飲之.

뽕야마늘즙을 먹으라.

외톨마늘의 즙을 먹는다.

天南星三錢, 薑七片, 棗三枚, 煎服, 手足冰冷, 不省人事者, 亦甦.

천남성 서 돈 중, 생강 일곱 점, 대추 세 개를 다려 먹으면 수족이 차고 정신 업슬 지경이라도 회심한다.

천남성 3돈에 생강 7쪽과 대추 3개를 넣고 달여서 먹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고 인사불성이 된 경우에도 소생한다.

鷄腸草, 按取自然汁, 頓服數升. 百藥無過此.

닭이싱이를 부벼 자연즙을 নিয়ে 두어 글릇 먹으면 즉차.

계장초를 주물러서 낸 즙을 내어 단번에 여러 되 먹는다. 온갖 약 가운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取鹽三升, 炒極熱, 入于染青木袋, 安于病人臍上, 盛火熨斗, 熨鹽袋食頃, 卽差

소금 서 되를 볶가 더웁거든 청헌겍으로 지은 전디에 너어 병인 비꼽 우에 덮고 다리미에 불을 팔게 꾸어 소금 전디를 다리면 혼 식경 만에 즉차.

소금 3되를 몹시 뜨겁게 볶아 푸르게 물들인 무명 전대에 넣어서 환자의 배꼽 위에 놓은 뒤, 다리미에 불을 넣고 한 식경 동안 소금 넣은 전대를 다림질하면 곧 낫는다.

至於危急, 薑五兩切之, 入牛尿一升, 煎服.

위급한 지경이어든, 생강 다섯 냥을 썰어 쇠오줌 한 되에 넣어 다려 먹으라.

위급해진 경우에는, 생강 5냥을 썰어서 쇠오줌 1되에 넣고 달여서 먹는다.

香油塗手足掌心, 遠火照之, 死者復生.

참기름을 수족 장심에 발르고 불을 켜서 멀리 빋치면 죽은 자도 회생하니라.

참기름을 손바닥 가운데와 발바닥 가운데에 바르고 멀리서 불로 쪼이면 죽은 사람도 되살아난다.

冷水洗馬鼻飲, 神效.

찬물¹로 말코를 씻서 그 물을 먹으면 신표.

찬물로 말의 코를 씻은 뒤 그 물을 마시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無論輕重, 放溺于腦後, 神效.

뇌후에 오줌을 누면 신표.

곽란 증세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뒤통수에 오줌을 누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¹. 찬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찬물'의 오기인 듯하다. [↩](#)



腹痛吐瀉 복통 잇고 토사하는 디 |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木果¹煎服.

모과를 다려 먹으라.

모과를 달여서 먹는다.

¹. 果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乾癯 건곽란 | 건곽란

腹疼無瀉, 水漿不入口, 是乾癯. 水荏汁 赤豆汁各一椀, 和勻飲.

복통만 있고 토사는 안이하고 물과 장을 입에 넣치 안이하는 것이 건곽란이니, 들새 집 적두집을 নিয়ে 각 한 대접씩을 함께 타 먹으라.

배가 아프지만 설사를 하지 않고 물이나 음료를 먹지 않으려는 것은 건곽란이다. 들깨와 팥을 1사발씩 즙내어 섞어서 마신다.

鹽炒黃一匙, 和童便服.

소금을 눌러게 복거 한 술을 동변에 타 먹으라.

소금(누렇게 될 때까지 볶은 것) 1술을 동변에 타서 먹는다.

大蒜爛搗, 塗手足掌心, 遠火照之.

큰 마늘을 난도하여 **슈죽**¹ 장심에 발르고 불을 켜서 멀리 빗치라.

마늘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손바닥 가운데와 발바닥 가운데에 바르고 멀리서 불로 쪼인다.

¹. 슈죽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슈죽'의 오기인 듯하다. ↩

瘧疾門 학질문 | 학질문



瘧疾 학질 | 학질

天麻 草菓 檳榔 各七分, 細末, 直早薑茶調服. 孕婦亦可.

천마 초과 빈랑 각 칠푼 중을 작말하야 직날 새벽에 싱강차에 타 먹으라. 잉티흔 부인에게도 무방하니라.

천마 초과 빈랑 각 7푼을 곱게 가루 내어 당일 새벽에 생강차에 타서 먹는다.

이 약은 임산부에게 써도 좋다.

唐黃丹一錢, 調豆粥, 直早服之, 日晚進食, 如是二次. 老弱宜用七分.

당황단 1돈을 팥죽에 타 직날 새벽에 먹고 반 일을 굶되, 두 직만 시험하면 족차. 노약은 칠 푼 중을 쓰라.

당황단 1돈을 팥죽에 개어서 당일 새벽에 먹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야 음식을 먹되, 이렇게 2차례를 한다. 노약자는 7푼을 써야 한다.

二日瘡 이일학 | 이틀거리

始初, 柴胡五錢, 枳角四錢, 水煎, 調蜜陀僧八分服, 神效.

시초를 씨에 시호 닷 돈 중, 기각 너 돈 중을 다려 밀타승 팔 푼 중을 타 먹으면 신표.

시작될 때에 시호 5돈, 지각 4돈을 물에 달여서 밀타승 8푼을 타서 먹으면 신표
한 효험이 있다.



瘧疾 학질 | 학질

金鷄蠟一分五里, 養胃湯調合, 直日前夜服一貼, 直日未明又服一貼, 神效. 以差爲度.

금계랍 한 톨 오 리 중을 양위탕의 먹으되, 직일 전날 밤의 한 첩 먹고 직날 밝기 전에 또 한 첩 먹으라.

금계랍(金鷄蠟, 염산키니네) 1톨 5리를 양위탕(養胃湯)에 타서 먹되, 당일 전날 밤에 1첩을 먹고 당일 새벽에 또 1첩을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나을 때까지 먹는다.

木通煎服卽差. 屢試輒效.

목통을 다려 먹으면 즉차.

목통을 달여서 먹으면 곧 낫는다. 누차 시험하여 그때마다 효험을 보았다.

蔓蓼煎水, 和蜜長服, 尤好.

잔디 뿌리를 다려 꿀을 타 장복하면 조호니라.

만삼을 물에 달여서 꿀을 타서 장복하여도 좋다.

附子五錢, 仁蓼¹四錢, 藿香三錢, 砂仁二錢, 良薑一錢, 煎服.

부자 다섯 돈 중, 인삼 네 돈 중, 곽향² 세 돈 중, 사인 두 돈 중, 양강 한 돈 중을 다려 먹으라.

부자 5돈, 인삼 4돈, 곽향 3돈, 사인 2돈, 양강 1돈을 달여서 먹는다.

久而不止, 蜜陀僧細末, 於未發前用, 酒下五六分服後, 心中嘈雜, 餓半日, 卽愈. 幼弱減半.

오리 낫지 않는 디, 밀타승을 작말하야 오록 푼 중을 알기 전에 술에 타 먹고, 반 일을
굴무면 즉차하느니, 로약은 반감하야 쓰라.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에는, 밀타승을 곱게 가루 내어 발병하기 전에 쓰되,
술로 5-6푼 먹은 후에는 가슴 속이 부글대며 편치 않을 것이니 한나절을 끓으
면 곧 낫는다. 어린 아이는 절반을 쓴다.

1.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

2. 枳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枳殼'의 오기인 듯하다. ↩

唐瘡 며느리고굴 | 당학

剪病人手足瓜甲, 各插于葱莖, 直早投入路邊井中.

병인의 손톱발톱을 베어 각각 파납에 쪼져 직날 식벽¹에 길것 우물에 너으라.

환자의 손톱과 발톱을 잘라서 각각 파줄기에 꽂아 당일 새벽에 길가 우물 속에 던져 넣는다.

¹. \ue99a벽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ue999벽'의 오기인 듯하다. ↩

二日瘡 이틀거리학질 | 이틀거리

十將軍丸, 依本方, 細末, 蜜丸梧子大, 薑湯下三十丸, 空心服. 小兒十五丸, 或二十丸. 神効.

십장군음 의본방 세말 밀한 오즈디하야 싱강 다린 물에 삼십 기식 공심의 먹으라. 어린 아히는 열다섯 기 혹 스무 기식 먹으라.

십장군환(十將軍丸)¹을 본방대로 써서 곱게 가루 내어 꿀로 벽오동씨만 하게 반죽하여 생강 달인 물로 30환씩 빈속에 먹는다. 어린아이는 15환이나 20환을 쓴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¹. 십장군환(十將軍丸)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해학(疥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십장군환. 구학이나 학모를 치료한다. 사인 빈랑 상산 초과 각 2냥, 삼릉 봉출 청피 진피 오매 반하 각 1냥. 먼저 상산 초과를 술과 식초 각 1사발씩 넣은 것에 하룻밤 담근 후에 나머지 8가지 약을 함께 넣고 저녁까지 담근다. 이것을 숯불에 마를 때까지 달여 가루내고 술과 식초 반반씩을 넣고 쏘 꿀로 반죽하여 오자대로 환을 만든다. 하루에 2번씩 끓인 물에 30-40알씩 먹는다. 8냥을 복용하면 병의 뿌리가 뽑힌다."(十將軍丸. 治久瘡, 及瘡母. 縮砂 檳榔 常山 草果 各二兩, 三稜 蓬朮 青皮 陳皮 烏梅 半夏 各一兩. 右先將常山 草果, 酒醋各一椀, 浸一宿, 後入八味同浸至晚, 炭火煮乾爲末, 酒醋各半打糊和丸梧子大, 白湯下三四十丸, 日二服, 服至八兩, 卽除根.) ↩

痰門 담문 | 담문



年久痰咳 연구헌 담히쇼 | 오래된 가래기침

五味子膏一匙式, 淡薑茶, 毎日空心食遠調下, 神効.

오미조 살 듯터운 걸로 가려서 혼 근을 체에 너어 써서 걸너 빙청 혼 되에 석거 혼 향 아리에 너어서 솟헤 물을 붓되, 향아리 몸이 반쯤 잠기게 하고 불을 문무화로 일쥬야 를 찌서 고가 되거든, 미일 공심식원으로 혼 술식 싱강초에 타 먹으라.

매일 빈속에 식사한 지 한참 뒤에 오미자고(五味子膏)¹ 1술을 묶은 생강차에 타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 오미자고(五味子膏)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정(精)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미자고는 정기(精氣)를 잘 새어 나가지 않게 하여 몽유 정 활탈을 치료한다. 오미자 1근을 깨끗이 씻어 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비벼서 즙을 짜내고 씨를 뺀다. 베로 걸러서 술에 넣고 거울에 채취한 꿀 2근과 함께 은근한 불로 고아서 고약을 만든다. 1~2숟가락을 떠서 끓인 물에 타서 빈속에 먹는다.《본초》"(五味子膏, 澁精氣, 治〔夢遺〕滑脫. 五味子一斤, 洗淨水浸一宿, 按取汁, 去核, 以布濾過, 入鍋內, 入冬蜜二斤, 慢火熬成膏. 每取一二匙, 空心, 白湯調服.《本草》) ←

痰牽 담 걸리는 디 | 담이 걸리는 경우

苦椒一介, 付足掌心, 而左疼則付左足, 右疼則付右足.

고초 한 기를 발 장심에 부치되 좌편이 걸니거든 좌편에 부치고 우편이 걸리거든 우편에 부치라.

고추 1개를 발바닥 가운데에 붙이되, 왼쪽이 걸리면 왼발에 붙이고 오른쪽이 걸리면 오른발에 붙인다.

夫婦間, 迭以左足輕輕三踏疼處, 一宿, 見差.

부부간 누가 알턴지 서로 왼발로 압흔 디를 가만이 세 번 밟고 하룻밤 지니면 족차.

부부가 서로 왼발로 아픈 곳을 살며시 3번 밟고 하룻밤 자고나면 낫는다.

槐葉煎服取汗. 又苦椒醬一匙, 清蜜一匙, 和水溫服, 一宿, 卽差.

회화나무잎을 다려 먹고 취한하라. 또 고초장 한 수사락 꿀 한 수사락 물에 타 덥게 먹고 덥게 자고나면 족차.

회화나무의 잎을 달여서 먹고 땀을 낸다. 또 고초장 1술, 꿀 1술을 물에 타서 따뜻하게 먹고 하룻밤 자고나면 곧 낫는다.

法荏¹一合, 磨取汁, 和酒溫服.

들새 한 홉을 갈아 집니여 술에 타 더웁게 먹으라.

들개 1홉을 갈아서 즙내어 술에 타서 따뜻하게 먹는다.

堅硬有癰漸, 搗菁根尾, 熏火付多日.

단단이 멍처 종괴 될 념녀가 잇거든 무우 쏙이를 난도하여 불에 쏘여 더웁게 하여 여러 날 부치라.

단단히 뭉쳐서 종기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 꼬랑지를 찢어서 불에 찌
인 뒤 여러 날 동안 붙여둔다.

¹. 法茛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水茛'의 오기인 듯하다. 통상 '水茛'은 들
깨를, '法油'는 들기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로 보인다. ↪



痰核 담이 뭉친 디 | 담이 뭉친 경우

商陸 南星, 爛搗付之.

작늑 썰이와 남성을 난도햏야 부치라.

상륙과 남성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인다.

凝結牽疼, 南苽¹灸¹火, 乘溫連壓之.

담이 뭉치여 결리고 압흔 디, 호박을 불에 쏘여 더웁게 지즈라.

담이 뭉쳐서 결리고 아픈 경우에는, 호박을 불에 구워서 따듯할 때에 계속해서 환처를 지져준다.

葛苳葉付之.

상치넙을 부치라.

상추 잎을 붙인다.

牟飯入袋, 溫付, 消解.

보리밥을 헌겅에 싸 더웁게 부치면 풀리느니라.

보리밥을 전대에 넣고 환처에 따듯하게 붙여주면 풀린다.

塗毒蛇油, 卽消.

독사비암의 기름을 발르면 즉차.

독사의 기름을 바르면 곧 풀린다.

結核將膿, 蒼耳子, 爛搗付之.

멍울이 장차 골무랴 햏거든 독고말이를 난도햏야 부치라.

멍울이 굵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창이자를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인다.

¹.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痰入骨節 담이 골절에 든 디 | 담이 관절에 들어간 경우

枯白礬研三錢, 酒調服三四次, 奇效.

고백반을 갈아서 돈 중식 술에 타 삼사차 먹으면 신표.

백반(구워서 간 것) 3돈을 술에 타서 3-4차례 먹으면 기이한 효험이 있다.



痰厥 담결된 디 | 담으로 혼절하는 경우

清油多灌之, 即吐痰而愈. 又竹瀝和薑汁小許, 多灌之.

참기름을 많이 먹으면 담을 토해야 즉차. 또 죽력에 강집을 타 먹으라.

참기름을 입속에 많이 부어 넣어주면, 담을 토해내고 낫는다. 또 죽력에 생강
즙 약간을 타고 입속에 많이 부어 넣어준다.

鷄子黃三枚, 和童便灌下, 即甦.

계란 노른자위 세 지를 동변에 타 먹으면 즉차.

계란 3개의 노른자를 동변에 타서 입속에 부어넣으면 소생한다.

痰結 담 붓흔 디 | 담이 뭉친 경우

厚紙上塗黃蠟後, 滲薑汁照火待乾. 更滲薑汁, 更照火, 溫付當處, 以絲裹之. 胡桃五六介連外皮, 搗碎, 水二甫兒, 煎至一甫兒, 數次服之, 則神效.

쪼희에 밀칠 햐 그 우에 강집 발너 불에 쏘여 말는 후에, 다시 강집을 칠 햐 쏘 불에 쏘여 담든 디 부친 후 솜으로 싸미고, 호도 것겁줄 잇는 치 댓 기 짓씨여 물 두 보 아에 다려 흔 보아 되게 햐 두어 번 먹으면 신탈.

두터운 종이에 황랍을 바른 후 생강즙을 칠하여 불에 쪄여서 마르기를 기다린다. 다시 생강즙을 발라 불에 쪄인 뒤 따듯할 때에 환처에 붙이고 솜으로 싸맨다. 그리고 호도(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5-6개를 부수어서 물 2보시기에 넣고 1보시기가 될 때까지 달여 여러 차례 먹으면 신탈한 효험이 있다.

嘔吐門 구토문 | 구토문



嘔吐 구역하는 디 | 구토

伏龍肝澄清水五合, 調薑汁 蜜 各一鍾子, 飲. 凡吐症, 忌酸物.

아궁이바닥의 지를 쓸고 흙을 파서 물에 담겨 갈아안싸든 그 물 싸라 오 흙을 싱강집
과 쌀 각 한 종조를 흙새 타 먹으라.

복룡간을 물에 넣고 가라앉힌 옷물 5홉에 생강즙과 꿀 각 1종지를 섞어서 마신
다. 무릇 토증이 있을 때는 신 음식을 피한다.

取菉豆末, 和鷄子清, 付足掌心.

녹말을 계란흰죽위에 반죽하여 발 장심에 부치라.

녹두 가루를 계란 흰자에 개어서 발바닥 가운데에 붙인다.

吐症 토하는 증 | 토증

白豆久¹ 丁香 各一錢, 末, 分二次, 溫水調服. 初雖不效, 連服則不吐.

백두구 정향 각 1돈을 가루 내어 2차례에 나누어 따뜻한 물에 타 여러 차례를 연복하라.

백두구 정향 각 1돈을 가루 내어 2차례에 나누어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다. 처음에 효험이 없더라도 연이어 먹으면 토증이 사라진다.

¹. 白豆久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白豆蔻'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咳逆門 히역문 | 해역문



咳逆 폐기하는 법 | 딸꾹질

盛冷水于器, 以二箸十字樣, 安于器上, 因飲其水, 卽止.

그릇에 냉수를 써 놔고 그 위에 저사락 두 기를 열십자로 놔고 그 물을 네 귀로 마시면 즉치.

그릇에 찬물을 담은 뒤 젓가락 2개를 그 그릇 위에 열십자(十)로 놓고 그 물을 마시면 곧 낫는다.

鼻吸冷水卽止.

코으로 냉수를 마시면 즉치.

코로 찬물을 마시면 곧 낫는다.

柿蒂 松葉, 同煎服.

감꼭지와 솔잎을 흠씩 다려 먹으라.

감꼭지와 솔잎을 함께 달여서 먹는다.

咳喇¹門 히소문 | 해수문

- ¹. 咳喇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咳嗽'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咳嗽 긁침 하는 디 | 해수

取陳鷄, 去內腸, 滿入黑錫梨汁, 濃煎服之. 久咳寒咳仙方.

묵은 닭을 잡아 내장을 업시 하고 검은엿과 비집을 너어 고와 먹으면, 오랜 히소와
닝긁침에 신통한 방문이니라.

묵은 닭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검은엿과 배즙을 짭 채워넣은 뒤 진하게 고아서
먹는다. 오래된 해수나 한사(寒邪)로 인한 해수에 잘 듣는 처방이다.

秋牟五錢, 忍冬去節三錢, 皮栗¹十介, 薑七片, 煎, 臥服. 咳喇²神方.

가을보리 닛 돈 중, 인동 서 돈 중, 싱룰 열 기, 싱강 일곱 점을 다려 잘 씨에 먹으면 히
소의 신통한 방문이니라.

가을보리 5돈, 인동(마디를 제거한 것) 3돈, 생밤(껍질이 있는 것) 10개, 생강 7
쪽을 달여서 잘 때에 먹는다. 해수에 신통한 처방이다.

1. 皮栗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生栗'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

2. 咳喇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咳嗽'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

感咳 감기로 기침하는 디 | 감기로 기침하는 경우

蘇葉二錢, 杏仁一錢, 煎服.

소엽 두 돈 중, 행인 한 돈 중을 다려 먹으라.

| 소엽 2돈, 행인 1돈을 달여서 먹는다.



乾咳 말은기침 | 마른기침

當歸五錢, 白芍藥四錢, 煎服.

당귀 닛 돈 중, 백작약 너 돈 중을 다려 먹으라.

| 당귀 5돈, 백작약 4돈을 달여서 먹는다.



年久色傷風寒傷咳喘並用藥 년구흔 색상과 풍한상과 히소 에 통치 하는 약 | 오래된 색상(色傷)과 풍한상(風寒傷)과 해천(咳喘)에 두루 쓰는 약

瓜蒌實,黃熟者一介,切去上半腰,不去汁,取其子,知幾介后,杏仁亦同幾介,同入瓜蒌殼內,還取切去腰白紙濕裹幾層,外以鹽泥厚裹,入火中待燒煙未盡時,取出去鹽泥及紙,取瓜蒌燒存性爲末,更以貝母介數,一同瓜蒌子介數,作末和勻入小砂器中,更以大砂鍋傾冷水,以藥入器,置大砂鍋水中,經宿出火毒,以白清和勻每二錢重,澄心湯水化服,雖年久色傷,風寒傷咳嗽,神效.¹

한울타리 훈 기를 반을 돌려베고 그 속에 잇는 씨를 니여 세여보와서 그 슈가 몇 개가 되든지 살구씨를 한울타리씨 슈디로 세여서 한울타리 속에 살구씨와 한울타리씨를 다 한가지로 넋코 베여넌 것을 도로 마췌고, 그 우에 조희로 물 축여 여러 번 싸고 그 우에 조흔 진흙에 솜을 너어 짓익여서 터지지 안이하게 꼭 싸서 불 속에 너어 터이면 연기가 날 터이니, 그 연기가 다 진하기 전에 불을 물리고 흙과 조희 탄 것은 물리고 한울타리를 씨 든 치 작말하고, 피모(小貝母)를 한울타리씨 슈디로 세여서 싱으로 작말하야 한울타리와 핑인 작말한 데 화합하야 오지그릇에 담어, 또 큰 그릇에 냉슈를 붓고 그 속에 약 담은 그릇을 물 넘씨안케 너어 흐로밤 지니여 화독을 췌 뒤에, 조흔 꿀에 누긔하게 반죽하야 두 돈 증식 등심차에 흑 설당 두 돈 증을 타서 미일 공심에 먹으면 신평하니, 이 약 보담 나흔 것은 업슬췌 안이라 영영 거근하느니라.

과루(瓜蒌) 1개를 절반을 잘라서 그 속의 씨앗 개수를 센다. 과루 씨앗 개수와 같은 행인(杏仁)을 과루 속에 넣고 베었던 것을 다시 맞추고 그 위에 종이를 축여서 여러 차례 싸고, 또 그 위에는 좋은 진흙에 솜을 넣어 짓이긴 것으로 터지지 않게 꼭 싸서 불속에 넣으면 연기가 날 것이다. 그 연기가 다 없어지기 전에 불에서 꺼내어 진흙과 종이를 떼어내고 과루를 씨 채 가루 낸다. 패모(작은 것)를 과루 씨앗 개수대로 생것으로 가루 내어 과루와 행인 가루 낸 것에 섞어서

오지그릇에 담는다. 또 큰 그릇에 냉수를 붓고 그 속에 약 담은 오지그릇을 물이 넘치지 않게 하여 넣고 하룻밤을 지내어서 화독(火毒)을 뺀 뒤에 좋은 꿀에 잘 반죽하여 2돈씩 등심 달인 물에 먹되, 흑 설탕 2돈을 넣고 매일 빈속에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약보다 더 나은 약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약을 먹으면 병의 뿌리를 온전히 없앨 수 있다.)

¹. 언해에 해당하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수진경헌신방》〈해수증〉해수통치(咳嗽通治)에 같은 치법이 있어 역자가 임의로 보충하였다. [↪](#)

消渴門 소갈문 | 소갈문



消渴 소갈증 | 소갈

取生松葉 黃柏皮, 連換水, 煎至十五次, 收置陰涼處, 隨渴飲一盃.

싱솔납과 황경피를 물을 갈와 십오 초를 다려 서늘한 곳에 두고 목 말으거든 한 잔씩 먹으라.

솔잎(생것)과 황백피를 물을 갈아가며 15차례 달여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고 갈증이 날 때마다 한 잔씩 마신다.

五豆湯. 赤小豆 綠豆 黑豆 靑豆 黃豆 各一合, 烏梅五個, 煎服, 神效.

〔소갈증〕¹ 오두탕. 적소두 룡두 흑두 청두 황두 각 한 홉, 오미 다섯 기를 다려 먹으면 신표.

오두탕(五豆湯). 적소두 룡두 흑두 청두 황두 각 1홉, 오미 5개를 달여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黃芪六兩蜜炙², 甘草一兩炙³, 水煎無時服.

황기 엇 양 꿀 발늑 굽고, 감초 한 양 구어서 물에 다려 장 먹으라.

황기(꿀을 발라서 구운 것) 6냥, 감초(구운 것) 1냥을 물에 달여서 때에 상관없이 먹는다.

人乳 牛乳, 無時服, 最好.

스름에 젖이늑 쇠젖을 무시로 먹으면 최호헝니라.

사람의 젖이나 우유를 때에 상관없이 먹으면 가장 좋다.

¹.〔소갈증〕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연문으로 보인다. ↩

2. 飧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飧'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飧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飧'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小便門 소변문 | 소변문



小便濁 오줌이 탁한 디 | 소변이 탁한 경우

淫羊藿三錢, 虎掌根二錢, 木通一錢, 煎水, 調薑粉一錢五分服五貼.

음양곽 서 돈 중, 호장근 두 돈 중, 목통 한 돈 중을 다려 강분 한 돈 오 푼 중을 타 먹으라.

음양곽 3돈, 호장근 2돈, 목통 1돈을 물에 달여서 생강 가루 1돈 5푼을 타서 5첩 복용한다.



血尿 피오즘 누는 디 | 혈뇨

白茅根煎服, 幾次即差. 又淋疾仙藥.

식썩리를 다려 여러 번 먹으라. 림질에도 조흔 약이니라.

| 백모근을 달여서 여러 차례 먹으면 곧 낫는다. 임질에도 좋은 약이다.



小便頻數遺尿 오줌을 자조 누고 질이는 대 | 소변을 자주 누고 질이는 경우

山茱萸酒蒸, 爛搗, 和蜜成泥, 每日空心服二三匙.

산수유를 술에 써 난도 해야 썰에 타 날마다 공심에 두세 술씩 먹으라.

산수유를 술에 써서 문드러지게 찢어서 꿀에 진흙처럼 되도록 반죽한 뒤 매일 빈속에 2-3술씩 먹는다.



淋疾 림질 | 임질

白茅根煎茶, 長服卽效. 雖至石淋亦效.

식썰이초를 다려 장복하면 석림이 되엇셔도 즉효.

백모근을 찻물에 달여서 장복하면 곧 낫는다. 석림(石淋)이 되엇더라도 효험을 본다.



淋疾 임질 | 임질

地榆一兩重, 早朝煎服, 而服前米飲先喫, 後小間服之. 數日則勿論某淋皆効.

지유 일 냥 중을 일즉 다려 먹되, 약 먹기 전에 쌀미음 한 보만 먹고 조금 잇다 약 먹으라.

지유 1냥을 새벽에 달여서 먹되, 먹기 전에 미음을 먼저 마신 후 조금 잇다가 먹는다.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 어떠한 임질이라도 모두 효험을 본다.

人頭髮精擇, 消存性¹, 一匙米泔水, 數三次空心服, 神効.

인두발 정하게 갈혀 살너 한 슈싸락식 쓰물에 타 슈습츰 공심에 먹으라.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 골라내어 약성이 남게 태워 1술씩 쌀뜨물에 섞어 여러 차례 빈속에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綿花煎服効. 五六十歲人, 已開花, 三四十歲人, 半開花, 少年及小兒, 未開花, 取用十餘介.

면화 십여 기를 다려 먹으면 즉효하니, 오륙십세 된 로인은 다 핀 것을 쓰고, 삼스십세 된 이는 반쯤 핀 것을 쓰고, 소아는 피지 안이훈 것을 쓰라.

면화를 (10여 개) 달여서 먹으면 효험을 본다. 50-60세는 활짝 핀 것을 쓰고, 30-40세는 반쯤 핀 것을 쓰고, 소년과 소아는 피지 않은 것을 쓴다.

¹. 消存性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燒存性'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膏淋 피가 엉키여 고약 갇힌 림질 | 고림

取眞荳汁, 入¹粟米爲心作粥, 空心常服, 好.

참새집에 좁쌀을 넣어 죽 쑼어 공심에 장복하라.

참깨즙에 좁쌀로 새알을 만들어 넣고 죽을 쑼어 빈속에 늘 먹으면 좋다.

1. 入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入'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石淋 골음이 단단하야 **돌**¹ 갇흔 디 | 석림

取石魚頭中石二介, 火煨細末, 燈心煎湯調下.

족의 멀이 속에 든 돌 두 기를 불에 띄여 작말하야 등심 다린 물에 타 먹으라.

조기 머릿속에 든 돌 2개를 불에 태워서 곱게 가루 내어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먹는다.

淋疾初痛, 雪糖冷水調服多時, 卽效.

림질 시초홀 씨에 설당을 냉수에 타 먹으라.

임질을 처음 앓을 때 설당을 냉수에 타서 여러 차례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久淋. 玉鎖丹, 依本方, 五倍子一斤, 白伏苓六兩, 龍骨二兩. 右極細末, 醋糊作丸菴荳大, 空心溫鹽湯二十丸式吞下, 次次加服至四五十丸. 又下焦不足, 夢泄當門破等用此, 則固精.

오랜 림질에 옥쇄단 의본방, 오비즈 혼 근, 백복령 엇 양중, 룡골 두 양중을 극세말하야 초와 꿀에 환을 잘게 지어 이십환씩 먹으되, 촛촛 더하야 스오십환씩 먹으라. 또 하초 부족하야 몽설하고 당문파 되는 디 이 약을 쓰면 조흐니라.

오랜 임질에는 다음 약을 쓴다. 옥쇄단(玉鎖丹, 본방대로 쓴 것)², 오배자 1근, 백복령 6냥, 용골 2냥. 이상의 약재를 몹시 곱게 가루 내어 식초로 쏜 풀로 반죽하여 녹두알만 하게 환을 빚어 빈속에 따뜻한 소금물로 20환씩 먹고, 40-50환씩 먹을 때까지 차츰 양을 늘려나간다. 또 하초가 부족하여 생긴 몽설(夢泄)이나 당문파(當門破, 조루)에 이 약을 쓰면 정(精)을 든든하게 해준다.

¹. 돌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돌'의 오기인 듯하다. ←

². 옥쇄단(玉鎖丹, 본방대로 쓴 것)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정(精)에는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옥쇄단. 정기(精氣)가 허하여 정이 새어 나가는 것 을 막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용골 연화예 검실 오매육 모두 같은 양. 이 약들 을 가루 내어 산약으로 쏜 풀로 반죽하여 팔알만 하게 환을 만든다. 미음으로 30알씩 빈속에 먹는다."(玉鎖丹. 治精氣虛滑, 遺泄不禁. 龍骨 蓮花藥 芡仁 烏 梅肉 各等分. 右爲末, 山藥糊和丸小豆大, 空心, 米飲下三十丸.) ←



大便門 대변문 | 대변문



痢疾 이질 | 이질

糊椒末三錢調蜜, 空心服, 不食早飯, 午後白粥喫之, 去根.

호초 갈우 셔 돈 중을 꿀에 기여 공심에 먹고 아침밥 먹지 말고 잇다가 낮 뒤의 흰죽 한 그릇 먹으면 낫는니라. 소아는 호초말 혼 돈식 쓰라.

호초 가루 3돈을 꿀에 개어서 빈속에 먹고 아침밥을 거른 뒤 오후에 흰죽을 먹으면 병의 근원을 없애준다.

薇菜湯菜間多食卽効.

고스리를 국이든 나물이든 만드러서 많이 먹으면 신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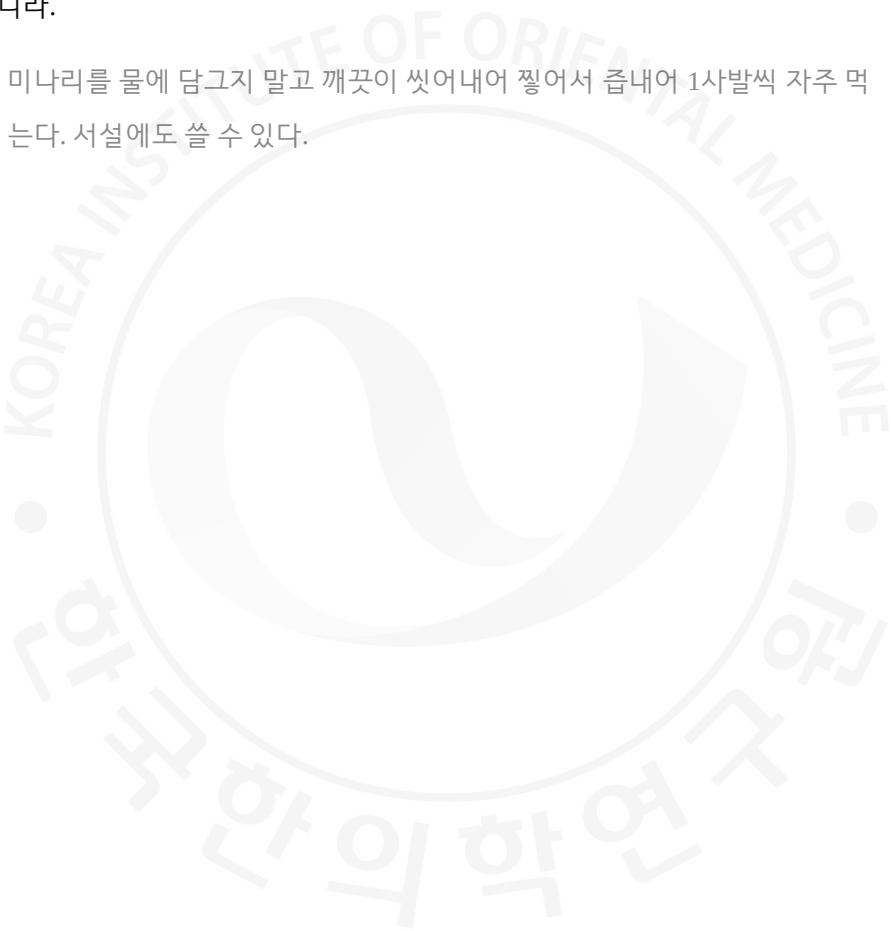
고사리로 국이든 나물이든 만들어 많이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泄瀉 설사 | 설사

水芹勿浸水淨洗, 搗取汁, 一椀頻服. 暑泄亦可.

미나리를 물에 씻지 말고 정히 골나 난도허야 집니여 훈 디접을 먹으라. 서설에도 쓰
느니라.

미나리를 물에 담그지 말고 깨끗이 씻어내어 찢어서 즙내어 1사발씩 자주 먹
는다. 서설에도 쓸 수 있다.



暴泄 도수 업시 설사하는 디 | 폭설(暴泄)

車前子炒末二錢, 米飲調服, 立效. 根葉亦可.

길경이씨를 복거 작말하야 미음에 타먹으면 즉효하느니, 쌀이와 납도 쓰느니라.

차전자(볶아서 가루 낸 것) 2돈을 미음에 타서 먹으면 바로 효험을 본다. 뿌리나 잎도 쓸 수 있다.

菴荳末, 和鷄子清, 付百會穴. 兒泄尤好.

녹말을 계란흰조 위에 반죽하야 백회혈에 붓치라. 어린아히 설사에 더욱 조흐니라.

녹두 가루를 계란 흰자에 개어서 백회혈에 붙인다. 어린아이의 설사에도 좋다.

滯後數便 체하여 자주 뒤보는 디 | 체하여 자주 대변 보는 경우

山查去核三錢, 檳榔二錢, 乾薑一錢五分. 水一椀煎至一甫兒, 和蜜二匕, 空心二三服, 神效. 痢疾初發, 尤效. 又丁香作末五分, 溫水吞下, 卽止.

산사를 씨 발고 서 돈 중, 빈랑 두 돈 중, 건강 혼 돈 오 폰 중을 다려 꿀 두 술을 타 공심에 두세 번 먹으라. 또 리질 시초에도 신표. 또 정향 갈우 오 폰 중을 더운 물에 타 먹으면 즉효.

산사(씨를 발라낸 것) 3돈, 빈랑 2돈, 건강 1돈 5푼. 이상의 약재를 물 1사발에 넣고 1보시기가 될 때까지 달여서 꿀 2술을 타서 빈속에 2-3차례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이질이 처음 발병했을 때 먹어도 효험이 있다. 또 정향 가루 5푼을 따뜻한 물에 먹으면 증상이 곧 멎는다.

後重腹痛數便 후중하고 비 압꾸고 뒤 쯔쨌 뵈이고 곱쑹 누
는 디 | 뒤가 묵직하고 배가 아프며 대변이 자주 나오는 경
우

丁香極細末五分重, 水茶間調下數三次, 卽效.

정향 극세말 오 푼 중을 물에나 차에나 타서 슈슴츠 먹으라.

정향(매우 곱게 가루 낸 것) 5푼을 물이나 차에 타서 여러 차례 먹으면 곧 효험
을 본다.

泄瀉渴症 설사하고 갈증 있는 디 | 설사를 하고 갈증이 있는 경우

百沸湯一甫兒, 冷水一甫兒, 和勻飲之, 卽止. 各半甫兒式, 和鹽少許飲之, 取汗, 則感氣神效.

빅비탕 한 보, 냉수 한 보를 타서 먹으면¹ 즉치. 각 반 보씩에 소금을 조금 타먹으면 감기에 신표.

끓인 물 1보시기에 냉수 1보시기를 섞어서 마시면 곧 증상이 멎는다. 각 반 보시기씩에 소금 약간을 넣고 마신 뒤 땀을 내면 감기에 신표한 효험이 있다.

米泔一椀, 冷而服之, 卽止. 亦治癰亂.

쌀뜨물 한 디접을 찬 이로 먹으면 즉치. 꺾란에도 쓰느니라.

쌀뜨물 1사발을 차게 해서 먹으면 곧 증상이 멎는다. 이 약은 꺾란도 치료한다.

1. 만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면'의 오기인 듯하다. ↩

痢疾 리질 | 이질

始初, 火藥三錢調酒下.

시초홀 씨 화약 서 돈 중을 술에 타 먹으라.

처음 앓을 때에 화약 3돈을 술에 타서 먹는다.

莧草二握, 龍葵一握, 生薑五角, 濃煎連服.

비름 두 줍, 삼아종이디 한 줍, 싱강 다섯 켤을 다려 연복하라.

현초 2줌, 까마중 1줌, 생강 5쪽을 진하게 달여서 연이어 먹는다.

柏子內皮 薑少許, 煎服數次.

жат속겅질과 싱강을 다려 두어 차례 먹으라.

жат 속겅질과 생강 약간을 달여서 여러 차례 먹는다.

當歸五錢, 苦椒三介, 煎, 空心服, 準差. 極效.

당귀 닷 돈 중, 고초 세 기를 다려 공심에 수춌 먹으면 신표.

당귀 5돈, 고추 3개를 달여서 빈속에 먹되 나올 때까지 먹는다. 지극히 효험이 있다.

薺菜並莖葉根, 入薑濃煎, 服數次, 效.

낭이넙을 썰이 잇는 치 싱강과 함식 다려 수춌 먹으라.

낭이의 잎과 줄기와 뿌리에 생강을 넣고 진하게 달여 여러 차례 먹으면 효험이 있다.

蜜水調眞荏鹽二三匕, 冷服.

꿀물에 참깨소금 두세 술을 타서 차게 먹으라.

꿀물에 참깨소금 2-3술을 넣고 차게 해서 먹는다.

溪蟹生取汁, 半甫兒服之三次, 神效.

가지를 집니여 반 보식 세 번 먹으면 신표.

민물가재를 날것으로 쥼내어 반 보시기씩 3차례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白痢 흰곱송 | 백리

黃粱米五合, 末, 調東壁土, 澄清水飲之.

지장썰 다섯 홉을 작말하야 동편 벽 흙을 물에 당겨 도청하야 그 물에 타 먹으라.

황량미(黃粱米) 5홉을 가루 내어 동편 벽의 흙과 섞어 물에 넣고 가라앉힌 뒤
그 웃물을 마신다.

百艸霜五錢, 熱酒或米飲調下. 亦治暴泄痢.

안진 검정 닛 돈 증을 더운 술에나 미음에나 타 먹으라.

백초상 5돈을 뜨거운 술이나 미음에 타서 먹는다. 이 약은 갑작스런 설리(泄痢)도 치료한다.

薑汁 清蜜 各一合, 溫水下.

싱강즙과 꿀 각 한 홉을 더운 물에 타 먹으라.

생강즙 꿀 각 1홉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다.

赤白痢 붉고 흰 게 석긴 곱송 | 적리와 백리

秋牟 小麥稿燒末 各七合水飛, 黃土二兩水飛, 滑石一兩, 和蜜服. 赤白虛實, 俱效.

가을보리집지와 밀집지 수비햐야 각 칠 홉, 황토 수비햐야 두 냥중, 활석 한 양증을 술에 타 먹으라.

가을보리집(태워서 가루 내어 수비한 것) 밀집(태워서 가루 내어 수비한 것) 7홉, 황토(수비한 것) 2냥, 활석 1냥을 꿀에 타서 먹는다. 적리와 백리의 허증과 실증에 모두 효험이 있다.

石葺末二匙, 調蜜如餅, 空心頓服, 神效.

석이를 작말햐야 두 술을 술에 반죽햐야 공심에 먹으면 신평.

석이버섯 가루 2술을 꿀에 반죽하여 떡처럼 빻아서 빈속에 단번에 먹으면 신평한 효험이 있다.

燒酒 清¹ 薑汁 薤汁 蓴汁 梨汁 童便 竹瀝 各一鍾子, 空心調服, 以差爲度.

소주 술 강즙 무즙 밤즙 비즙 동변 죽력을 각 한 종조식 셋거 공심에 먹으면 무론 아모 리질이든지 즉효.

소주 꿀 생강즙 무즙 밤즙 배즙 동변 죽력 각 1종지씩을 섞어서 빈속에 먹되 나을 때까지 먹는다.

燒酒和黑糖, 重湯服之. 病雖極重, 二三服, 無不效. 若善飲酒, 隨量飲之.

소주에 검은넷을 너어 쓸어먹으되 술을 잘 먹는 사람이면 량디로 먹으라.

소주에 검은넷을 넣어 증탕해서 먹는다. 병이 지극히 위중하더라도 2-3차례 먹으면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술을 잘 먹는 경우에는 양껏 먹는다.

無論某痢疾, 仁蓼²敗毒散, 依本方, 加大黃二錢重, 數貼煎服, 卽效.

무론 아모 리질이든지 인삼패독산 의본방에 대항 두 돈 중을 가입하여 두어 첩 먹으면 즉효.

어떤 이질이든 막론하고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³ 본방에 대항 2돈을 더하여 여러 첩을 달여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1. 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淸蜜'에서 '密'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인삼패독산. ① 상한이나 유행성 질병으로 발열·두통이 있고 목덜미가 뻣뻣하며, 팔다리와 온몸이 괴롭고 아프거나, 상풍으로 기침하고 코가 막히며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을 치료한다.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지각 길경 천궁 적복령 인삼 감초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박하 약간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의감》 ② 본방에 천마 지골피를 같은 양으로 넣은 것을 인삼강활산이라고 한다. ③ 본방에 형개수·방풍을 같은 양으로 넣은 것을 형방패독산이라고 한다."(人蔘敗毒散. ① 治傷寒時氣, 發熱頭痛, 項強, 肢體煩疼, 及傷風, 咳嗽, 鼻塞, 聲重.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川芎 赤茯苓 人蔘 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薄荷少許, 水煎服.《醫鑑》 ② 本方, 加天麻 地骨皮 等分, 名曰人蔘羌活散. ③ 加荊芥穗, 防風等分, 名曰荊防敗毒散.) ↩

腹疼下血 비 압하고 피곱송 누는 디 | 배 아프고 하혈하는 경우

黃土和水三四沸, 去滓服一二升. 又丁香末五分, 以水調下, 即差.

황토를 물에 삶여 거지하야 만이 먹으라. 또 정향 갈우 오 푼 중을 물에 타 먹으면 즉
츠.

황토를 물에 넣고 3-4차례 달아오를 때까지 끓인 뒤 찌꺼기를 제거하고 1-2되
를 먹는다. 또 정향 가루 5푼을 물에 타서 먹으면 곧 낫는다.

黃連三錢, 末, 酒調服. 或鷄子白, 和丸服.

황련 서 돈 중을 작말하야 술에 타 먹거나, 혹은 계란 흰즈위에 환 지어 먹으라.

황련 3돈을 가루 내어 술에 타서 먹는다. 혹은 계란 흰자에 개어서 환을 빚어
먹는다.

胡椒末五分, 槐花末一錢, 米飲或酒調下.

호초갈우 오 푼 중, 회화갈우 혼 돈 중을 미음에나 혹은 술에 타 먹으라.

호초 가루 5푼, 괴화 가루 1돈을 미음이나 술에 타서 먹는다.

泄痢 설사하며 곱뽕 누는 디 | 설리

濁酒溫沸, 調鹽鹵二三匙, 服數次.

탁주를 끓이고 간수 두세 술을 타서 수차례 먹으라.

| 탁주를 따뜻하게 달여서 간수 2-3술을 타서 여러 차례 먹는다.



後重 뒤 묵어은 디 | 뒤가 묵직한 경우

後重堅不下糞，以蜜煮爲糖，如大棗核，而納于糞門內數次，下糞神效。又香油 清醬，納糞門，亦效。

꿀을 삶여 엿갓치 엉기거든 디추씨만치 만들어 분문에 두어 번 너으면 즉시 뒤를 보나니라. 참기름과 간장을 **항씩**¹ 타 디통을 분문에 디고 붙어 너으면 즉효.

뒤가 묵직하고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꿀을 엿처럼 되도록 끓인 뒤 대추씨만 하게 만들어 항문 속에 여러 차례 넣으면 대변이 나오는 데에 신묘한 효험이 있다. 또 참기름과 간장〔清醬〕을 항문 속에 넣어도 효험을 본다.

蘿菔汁一鍾子，莧汁一**鍾子**²，滾水調服。久痢不止，亦效。

무즙 한 종조와 비름즙 한 종조를 삶인 물에 타 먹으라. 오랜 리질에도 신평.

무즙 1종지, 현초즙 1종지를 끓인 물에 타서 먹는다. 오래된 이질이 낫지 않는 경우에도 효험을 본다.

1. 항\uea45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함\uea45'의 오기인 듯하다. ↩

2. 鍾子 : 𩇑의 오기로 보인다. 《주춘신방》, 《의방합편》 등의 동일한 조문에 "𩇑"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血便 피똥 누는 디 | 혈변

取北魚三介式, 連三日煎服.

북어 세 기식 연삼일을 다려 먹으라.

| 북어 3마리씩 3일 동안 연속하여 달여 먹는다.



精門 정문 | 정문



夢泄 몽설 | 몽설

取鷄內金末, 好酒和下. 多多尤好.

닭의 멀석운이 속에 누른겉질을 말녀 작말하야 조흔 술에 타 만이 먹으라.

계내금(鷄內金)을 가루 내어 좋은 술에 타서 먹는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遺精 유정 | 유정

瞿麥一斗食之, 良.

석죽화 한 말을 먹으면 조흐니라.

| 구맥 1말을 먹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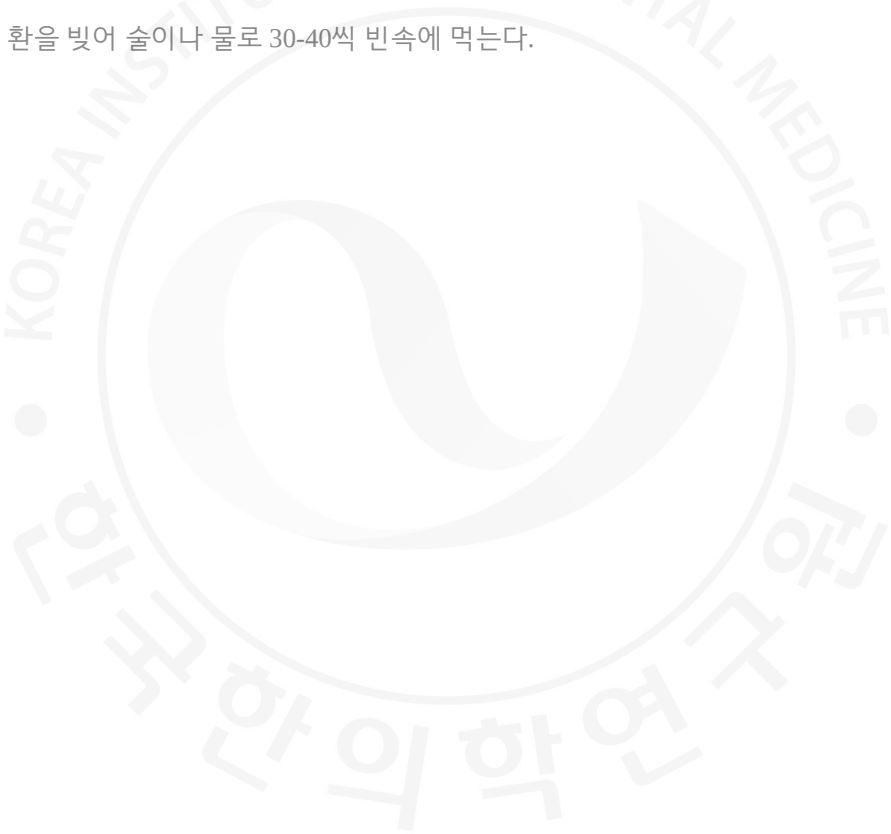


陽氣不足 양기부족에 | 양기부족

兔絲子九製一斤, 作末, 以五月雀卵作丸梧子大, 以酒水調空心吞下三四十丸.

토스즈 아홉 번 법제한 것 한 근을 작말하야 오월에 낳은 참새알을 새쳐서 그 물에 환을 잘게 지어 삼스십환식 술이나 물에 공심복으로 먹이라.

토사자(9번 법제한 것) 1근을 가루 내어 5월에 낳은 참새알로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어 술이나 물로 30-40씩 빈속에 먹는다.



夢泄 몽설 | 몽설

柚子仁三十介或二十介, 無時煎服三四次.

유자씨 설흔 기늑 이십기늑 달여서 씨 업시 삼스춌 먹으라.

유자씨 30개 혹은 20개를 달여서 때에 상관없이 3-4차례 먹는다.

白朮炒 薏苡仁 各一兩, 芡實七錢, 水煎空心立服. 壯陽極炒.

백출 초헝고 의이인 각 일양, 검실 칠전 물에 다려 공심에 서서 먹으라.

백출(볶은 것) 의이인 각 1냥, 검실 7돈을 물에 달여서 빈속에 먹되 단숨에 먹는다. 양기를 키우는 데에 매우 좋다.

神門 신문 | 신문



狂疾 및 친병 | 광질

暑粉 輕粉 各四兩, 防風一兩, 紅花七錢, 胡粉五錢, 狗砂三錢. 末作散用之.

서분 경분 각 녣 량 중, 방풍 한 냥 중, 홍화 일급 돈 ¹종, 호분 닷 돈 중, 구사 서 돈 중
을 작말하야 서 돈 중식 물에 타 먹으라.

서분 ²경분 각 4냥, 방풍 1냥, 홍화 7돈, 호분 5돈, 구사 3돈. 이상의 약재를 가
루 내어 산제(散劑)를 만들어 쓴다.

1. 종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중'의 오기인 듯하다. ←

2. 서분 : '暑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

癇疾 질알병 | 간질

剖老桑木, 取白虫生者三介, 以酒吞下, 取微汗. 經效.

늙은 뽕나무 속에 잇는 흰 벌레 세 기를 산 이로 술과 함식 삼키고 취한후면 즉효.

늙은 뽕나무를 쪼개어서 그 속에 잇는 흰 벌레(산 것) 3마리를 잡아 술과 함께 삼킨 뒤 땀을 약간 낸다.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



血門 혈문 | 혈문



吐血 토혈 | 토혈

棕櫚毛¹, 燒存性, 一匙式溫水調服.

종여털을 소온성해야 한 술식 더운 물에 타 먹으라.

종려피(棕櫚皮)를 약성이 남게 태워 1술씩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다.

一葉草煎, 長服, 神效. ○此草在京城北漢山城.

일엽초를 찻 다려 장복하라.

일엽초를 달여서 장복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풀은 경성의 북한산성에 서 난다.

木柑珠花, 煎茶長服, 神效.

염주나무꽃을 찻 다려 장 먹으라. 이 낭기 경성 동대문 외 영도사의 잇느니라.

염주나무의 꽃으로 차를 달여서 장복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이 나무는 서울 동대문 밖 영도사(永導寺)²에 있다.)

白芨末五分冷水和下, 卽以鷄卵二個生食. 小兒, 則白芨二分, 鷄卵一介用.

백급말 오 푼을 냉수의 5 먹고, 꾀 계란 두 기를 싱으로 먹고, 적은 아히는 백급 이 푼, 계란 일 기를 용하라.

백급 가루 5푼을 찬물에 타서 먹고 꾀 계란 2개를 날것으로 먹는다. 소아는 백급 2푼에 계란 1개를 쓴다.

¹. 棕櫚毛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棕櫚皮'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². 영도사(永導寺) : 개운사(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의 옛 이름이다. ↩



吐血 피 토하는 디 | 토혈

側柏葉研, 酒調服.

측백나무잎을 작말하야 술에 ½ 먹으라.

측백엽을 갈아서 술에 타서 먹는다.

香油溫服, 非但救急, 長服祛根.

참기름¹을 더여 먹으면 잠시 효험뿐 아니라, 장복하면 거근하나니라.

참기름을 따뜻하게 하여 먹으면 구급할 뿐 아니라, 장복하면 병의 근원을 없애 준다.

取新絛灰五分, 酒調服.

시소음 불 살은 지 오 푼 중을 술에 ½ 먹으라.

새솜(태워서 재로 만든 것) 5푼을 술에 타서 먹는다.

糯米飯, 付腦後, 卽止. 衄血亦可.

찰밥을 뇌후에 부치면 즉치. 코피 나는 디도 조흐니라.

찰밥을 뒤통수에 붙이면 증상이 곧 멎는다. 코피가 날 때에도 쓸 수 있다.

杏仁去殼四十介, 戶樞鐵二雙, 煎服三次, 卽效.

살구씨 40개와 문돌저귀 두 쌍을 다려 세 차례를 먹으면 즉효.

행인(껍질을 벗겨낸 것) 40개와 문의 경첩 2쌍을 달여서 3차례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1. 참기름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참기름'의 오기인 듯하다. ↗



積聚門 적취문 | 적취문



積久塊癖 연구헌 적병 | 오래된 적병

取鉛片, 猛打薄之如紙, 吞下, 則消下即效.

납을 쳐서 얇게 늘여 빻지 갓치 하여 먹으면 즉치.

납 조각을 맹렬히 두들겨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먹으면 적취가 내려가고 곧
효험을 본다.

取屋漏水如良漿者, 課日服效.

집웅이 썩어서 진질령물 된 것을 날마다 먹으면 조흐니라.

지붕에서 새어나오는 간장 같은 물을 매일 먹으면 효험을 본다.

脹滿門 창만문 | 창만문



脹滿 비가 창만한 디 | 배가 창만한 경우

粘米 糖米 木米 各一斗, 爲飯, 入麴末一斗五升, 化燒酒. 和蜜一升, 乾薑 胡椒 各五合, 末, 密封溫置常服.

찰쌀 수수쌀 모밀쌀 각 한 말, 누룩갈우 한 말 닷 되, 술 비져 소주 닐려 꿀 한 되와 건강 호초 각 다섯 홑을 작말하야 소주에 쥘서 더운 디 두고 장복하라.

찰쌀 수수 메밀 각 1말로 밥을 지은 후 누룩가루 1말 5되를 넣고 소주를 빙는다. 이 소주에 꿀 1되, 건강 호초 각 5홑을 가루내어 넣고 밀봉하여 따뜻한 곳에 두고 늘 먹는다.

鼓脹 고창 | 고창

多食生菰, 效. 又服鹵水好.

싱비치를 많이 먹으라. 또 간수를 공복에 한 술씩 먹으면 조흐니라.

| 생배추를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다. 또 간수를 먹으면 좋다.



浮腫門 부종문 | 부종문



浮腫 부종 | 부종

一身遍浮, 取席菜搗付始浮處, 神效.

전신이 다 부은 디, 돛나물을 난도하여 처음 붓든 디 부치면 신표.

온몸이 부은 경우에는, 돛나물을 찢어서 처음 부은 곳에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消導後, 取山葡萄蔓煎茶, 常服, 神效.

소도한 뒤에 포도넉 차를 다려 장복하면 신표.

음식이 소화된 뒤에 산포도 넉으로 차를 달여서 늘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木通 車前子并炒, 作茶長服, 利水道則愈.

목통 차전자를 초하여 차를 다려 장복하라.

목통 차전자(두 약재 함께 볶은 것)로 차를 달여 장복하는데, 오줌이 잘 나오게 되면 낫는다.

鱸魚去皮作湯服.

미씨리를 거피하여 국 끓여 먹으라.

미꾸라지(껍질을 벗긴 것)로 국을 끓여서 먹는다.

桑灰水, 煎赤豆長服. 春豆尤好.

쑥나무 지물에 볶은 팥을 다려 장복하라.

쑥나무 잣물로 팥을 달여서 장복한다. 봄에 난 팥을 써도 좋다.



大病後浮腫 대병 뒤에 부종 나는 디 | 큰 병을 앓은 뒤의 부 종

山藥 蓮肉, 作粥服之.

산약과 연육을 죽 쑤어 먹으라.

| 산약과 연육으로 죽을 쑤어서 먹는다.

生薑 厚朴 等分, 煎服.

생강과 후박을 등분하여 다려 먹으라.

| 생강과 후박 각각 같은 양을 달여서 먹는다.

瘡未差浮腫 학질에 부종 나는 디 | 학질이 낫지 않아 생긴 부종

宜藿香正氣散.

곽향정기산을 쓰라.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¹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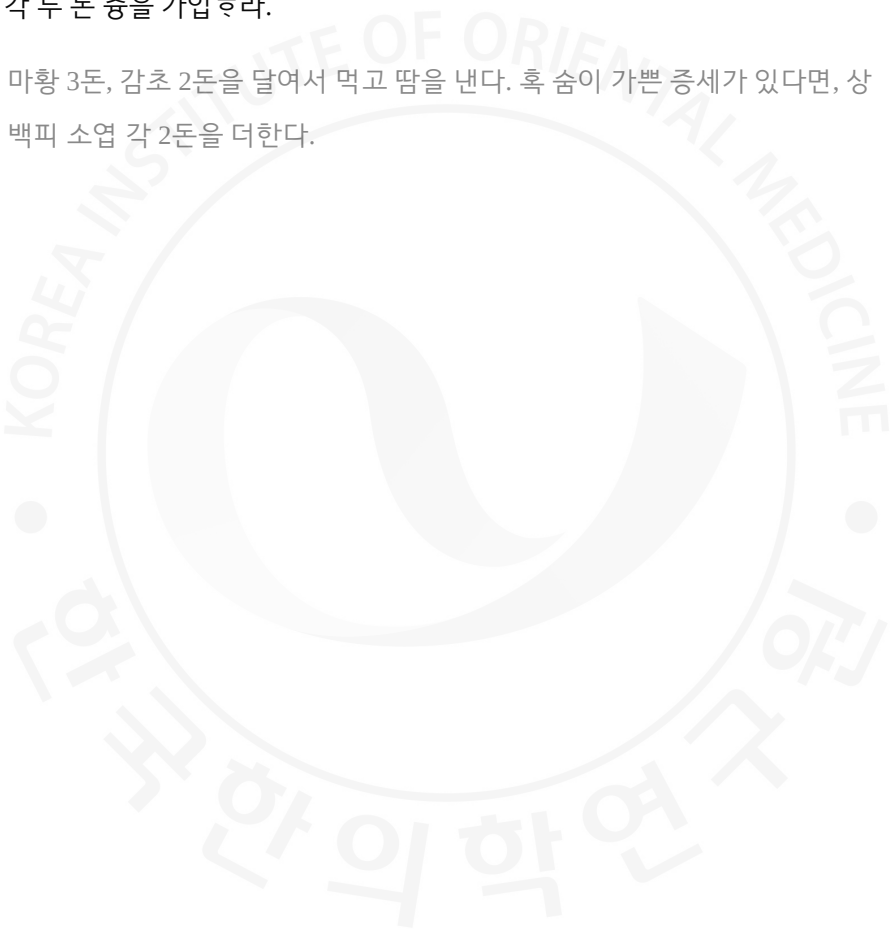
¹.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곽향정기산. 상한음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신 것을 치료한다. 만약 표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는 이 약으로 경락을 운동시키면 병이 심해지지 않는다. 곽향 1돈 반, 자소엽 1돈, 백지 대복피 백복령 후박 백출 진피 반하(법제한 것) 길경 감초(구운 것) 각 5푼. 이 약들을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藿香正氣散.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如不分表裏證, 以此導引經絡, 不致變動. 藿香一錢半, 紫蘇葉一錢, 白芷 大腹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製 桔梗 甘草炙 各五分.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

傷風浮 바람에 상해야 부증 나는 디 | 상풍으로 부은 경우

麻黃三錢, 甘草二錢, 煎服取汗. 或喘急, 加桑白皮 蘇葉 各二錢.

마황 서 돈 중, 감초 두 돈 중을 다려 먹고 취한되, 혹 천촉증이 잇거든 상백피와 소엽 각 두 돈 중을 가입하라.

마황 3돈, 감초 2돈을 달여서 먹고 땀을 낸다. 혹 숨이 가쁜 증세가 있다면, 상백피 소엽 각 2돈을 더한다.



黃疸門 황달문 | 황달문



黃疸 황달 | 황달

益母草汁一鍾子, 和酒一盃服.

익모초집 한 종자를 술 한 잔에 꺾 먹으라.

익모초즙 1종지를 술 1잔에 타서 먹는다.

眞苽或生蘿菔, 多食, 卽效.

참외나 혹 싱무를 많이 먹으면 즉효.

참외나 생 무를 많이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多食海毛骨.

우무가시를 많이 먹으라.

우뭇가사리를 많이 먹는다.

絡石煎服, 通治諸疸.

담장이를 다려 먹으면 여러 가지 달에 다 조호니라.

낙석(絡石)¹을 달여 먹으면 온갖 황달을 두루 치료한다.

烹黃鷄雌雄, 食其肉, 飲其水.

늘은 닭 자웅을 삶아 고기와 국을 함씩 먹으라.

누런 닭 암수를 함께 삶아서 그 고기와 국을 먹는다.

無論黃黑疸, 多食冷水, 最妙.

무론 황달 흑달하고 냉수를 많이 먹으면 조호니라.

황달이든 흑달이든 냉수를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 ¹. 낙석(絡石) : 본서나 《동의보감》 등에는 "담장이"로 언해되어 있으나 낙석(絡石)은 담쟁이덩굴과 다른 식물이다. 낙석의 기원은 *Trachelospermum jasminoides*로 알려져 있으며 마삭줄에 해당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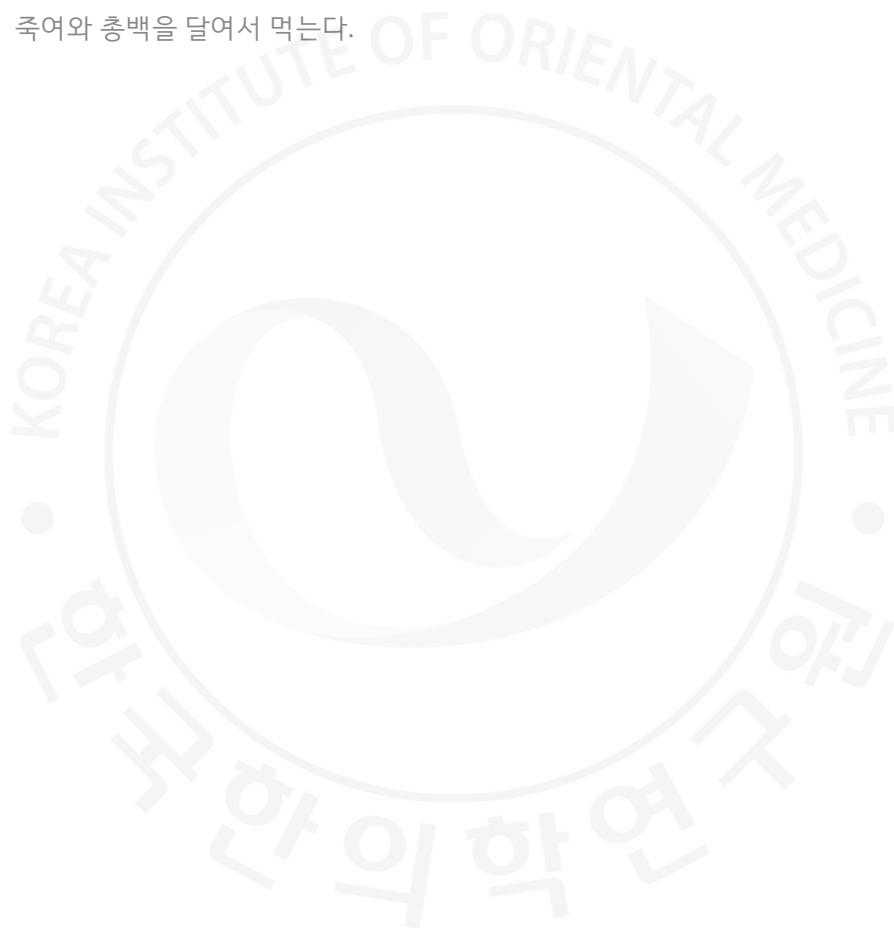


大病後黃疸 대병 뒤에 황달 | 큰 병을 앓은 뒤의 황달

竹茹 葱白, 煎服.

죽여와 총백을 다려 먹으라.

| 죽여와 총백을 달여서 먹는다.



酒疸 술에 체해야 황달 된 디 | 주달

服生葛根汁, 神效.

싱갈근집을 먹으면 신표.

| 생 갈근의 즙을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諸蟲門 제충문 | 제충문



蛔蟲 회충 | 회충

蚯蚓糞一撮，石上置之，炭火覆於其上，其土熟紅，則去炭，水一碗浸清飲之，使病人不知此物之何，可也。遠處煎之，不知病人。

지렁이똥 한 줌을 돌 위에 놔코 그 위에 숯불을 피워 그 흙이 북도록 익거든 냉수 한 스푼에 담겨 도청해야 먹되, 병인을 속여서 무슨 물인지 몰으게 하라. 병인이 모르게 멀리서 다리라.

지렁이똥 1줌을 돌 위에 놓고 그 위에 숯불을 피워두었다가 흙이 붉게 익으면 숯을 빼내고 물 1잔에 담가 가라앉힌 뒤 그 웃물을 마시게 하되, 환자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게 하여야 한다. 멀리서 불을 피워 환자가 모르게 해야 한다.

蛔蟲 회충비 알는 디 | 회충

取陳久大口魚一尾, 勿用水洗, 以巾拭塵, 爛烹頓服, 積年苦痛百藥不效者, 亦差.

오리 묵은 대구 한 기를 물 못치지 말고 말은 슈건으로 먼지를 씨쳐 다려 먹으면 적
년 고통흔든 회충도 죽네.

오래 묵은 대구 1마리를 물로 씻어내지 말고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낸 뒤 문드
러지도록 삶아 단번에 먹으면, 오랫동안 고생하고 온갖 약으로도 효험을 보지
못한 경우도 낫는다.

茄子枝葉, 煎服.

가지디와 잎을 다려 먹으라.

가지의 가지와 잎을 달여서 먹는다.

無論年之老幼, 病之遠近, 取苦椒二升, 折腰, 入眞油一升, 煎半去椒, 睡覺空心, 乘
溫痛飲, 蟲死盡下.

고추 두 되를 씨 바르고 참기름 한 되에 다려 반쯤 되거든 고초를 건지고 시벽에 잠
새여 공심에 더여 많이 먹으면 회가 다 죽어 나오느니라.

환자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병이 오래되었거나 갓 생겼거나 상관없이, 고추
(허리부분을 자른 것) 2되를 참기름 1되에 넣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고추
를 건져낸 뒤, 잠이 깨어 빈속에 따뜻하게 해서 많이 먹으면 회충이 모두 죽어
서 대변으로 나온다.

芥子末爲丸, 黑糖爲衣, 晨朝空心, 下六七十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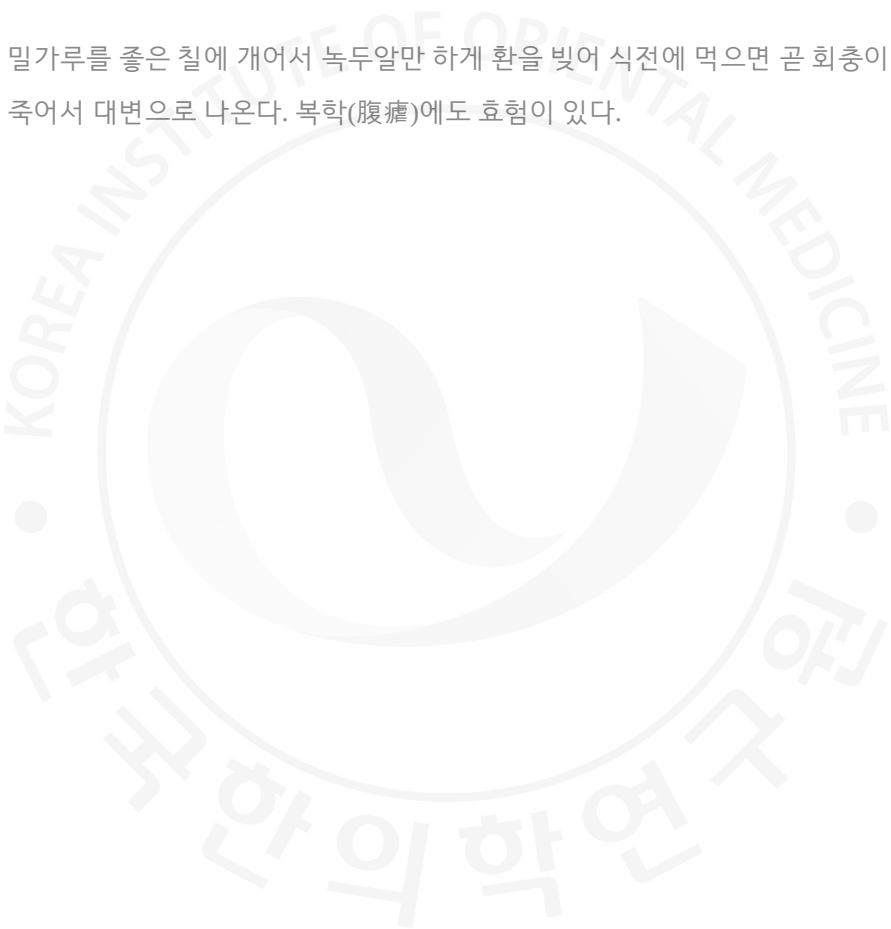
계주 갈우를 환약 민드려 검은엿으로 싸서 시벽 공심에 룡칠십개씩 먹으라.

겨자 가루로 환을 빻은 뒤 검은엿으로 겹을 입혀 새벽에 빈속에 60-70환씩 먹는다.

眞末, 和眞漆, 丸綠豆大, 食前吞下, 蟲卽死下. 腹瘡亦效.

밀가루에 싱칠을 섰거 환 짓되 녹두만콤식 해야 식전에 먹으면 즉치고 복학에도 조흐니라.

밀가루를 좋은 칠에 개어서 녹두알만 하게 환을 빻어 식전에 먹으면 곧 회충이 죽어서 대변으로 나온다. 복학(腹瘡)에도 효험이 있다.



蛔積 회적 | 회적

幾魚三四介, 入火略熟, 朝起空心, 課日喫之, 限二斗, 祛根.

멸치 삼스개를 디강 구어 식전 공심에 날마다 먹으되, 두 말만 장복하면 거근하니라.

멸치 3-4마리를 불 속에 넣어 살짝 익혀서 매일 아침에 잠깁을 때 빈속에 먹되,
최대 2말을 먹으면 병의 근원을 없애준다.

課日食鹽, 限一斗, 積自消.

날마다 소금을 먹되 한 말만 장복하면 적이 녹으니라.

매일 소금을 먹되 최대 1말을 먹으면 적이 저절로 녹아내린다.

陳皮煮茶, 日服爲常, 積自消. 方疹, 五錢或一兩連服.

진피차를 장복하면 적이 스사로 녹으니라. 압흘 씨에는 닛 돈 중이나 혹 한 양증을 연복하라.

진피로 차를 달여서 매일 먹으면 적이 저절로 녹아내린다. 갓 병났을 때에는 5
돈이나 1냥을 연이어 먹는다.

方疼救急 압흘 씨에 구급하는 약 | 아플 때에 구급하는 약

眞末爲稀粥, 不下鹽服之.

밀갈우를 물새 죽 쑤어 소금 넋치 말고 먹으라.

| 밀가루로 몁게 죽을 쑤어서 소금을 넣지 않고 먹는다.

車前子根二介, 嚼下.

길경이 쏘이 세¹개를 씹어 먹으라.

| 차전자 뿌리 2개를 씹어서 먹는다.

1. 세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두'의 오기인 듯하다. ←

寸白蟲 촌백충 누는 디 | 촌백충

梔子一兩, 檳榔三錢, 並麤末, 和蜜, 月初朝空心服, 日晚進食, 第三日拔根而下, 卽取胡椒麤末五錢, 溫水調下二次, 永不更作.

비즈 혼 랑 중, 빈랑 셔 돈 중을 작말하야 꿀에 섰거 초할오날 식전 공복에 먹고 반일 씬을 굴무면 삼일 후에 보씨 나오느니, 호초를 작말하야 닛 돈 중을 더운 물에 타서 두 차례를 먹으면 거근하느니라.

비자 1냥, 빈랑 3돈을 모두 거칠게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초하룻날 아침 빈속에 먹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 3일 되는 날에 뿌리까지 뽑혀 대변으로 나온다. 이때 즉시 호초(거칠게 가루 낸 것) 5돈을 따뜻한 물에 타서 2차례 먹으면 다시는 촌백충을 앓지 않게 된다.

眞木炭去皮末, 每月初服一匙.

참나무숯을 껍질 벗기고 작말하야 미월 초싱에 혼 술식 먹으라.

참나무숯을 껍질 벗기고 가루 내어 매월 초에 1술식 먹는다.

頭部 두부 | 두부



頭部 머리 알는 디 | 두통

白芷一錢, 末, 重疼時, 溫蜜水調服二三次, 永除.

백지 한 돈 중을 작말하야 더운 꿀물에 타 이삼츠 먹으면 낫느니라.

백지 1돈을 가루 내어 몹시 아플 때에 따뜻한 꿀물에 타서 2-3차례 먹으면 다시는 두통을 앓지 않는다.



頭風 풍머리 알는 디 | 두풍

無論偏正, 川芎 白芷 各二錢, 末, 和牛頭髓, 盛磁器, 重湯蒸熟, 食遠吞下, 卽飲熱酒
盡量, 一宿而覺, 其病如失.

천궁 백지 각 두 돈 중을 쇠머리골에 섰거 사기에 담아 중탕하야 익켜서 먹은 후에,
슬인 술을 량껏 먹고 자고 새면 족초.

편두풍이든 정두풍이든 상관없이, 천궁 백지 각 2돈을 가루 내어 소의 두수(頭
髓)와 섞어 사기그릇에 담아서 중탕하여 익혀서 식사한 지 한참 후에 먹는다.
그리고 곧 뜨거운 술을 양껏 먹고 하룻밤을 자고 깨어나면 깨끗이 낫는다.

偏頭風 변두풍 | 편두풍

山鳩數首, 正月十五日內煮食, 則即效.

산비둘기를 정월 보름 안에 잡어 두 마리를 고와 먹으면 즉효.

산비둘기 여러 마리를 정월 15일 이내에 고아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初中末三伏日, 桑葉濃煎, 連次沐頭, 極效. 課年試之.

초중말 삼복일에 뽕나무잎을 진하게 다려 복날마다 머리를 감으면 신평하느니, 히
마다 시험하라.

초복·중복·말복에 뽕나무의 잎을 진하게 달여서 복날마다 머리를 감으면
몹시 효험이 좋다. 매년 시험해볼 일이다.

取蘿蔔汁, 入生龍腦少許, 調勻, 滴入鼻孔, 左疼入右, 右疼入左, 左右俱疼, 并入之.

무우즙에 용뇌 조금 넣어 고로섯거 코궁기 너으되, 좌편을 알커든 우편에 넛코, 우편
을 알커든 좌편에 넛코, 좌우를 다 알커든 두 코에 다 너으라.

무즙에 용뇌 생것을 조금 넣어 고루 섞어서 콧구멍 속에 떨어뜨려 넣되, 왼쪽
머리가 아프면 오른쪽 콧구멍에 넣고, 오른쪽 머리가 아프면 왼쪽 콧구멍에 넣
고, 양쪽 머리가 다 아프면 양쪽 콧구멍에 다 넣는다.

炭頭痛 술머리 알는 디 | 술 태우는 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픈 경우

取凍沈菹水飲之.

무우김치국물을 먹으라.

| 동치미 국물을 마신다.



頭風眼昏 두풍으로 눈 어둔 디 | 두풍으로 눈이 어두운 경우

威靈仙 蒼耳子 各二兩, 水四碗, 濃煎, 沐頭十餘次.

위령선과 독소마리 각 두 량 중을 물 네 사발에 다려 십여 초를 머리 감으라.

위령선 창이자 각 2냥을 물 4사발에 넣고 진하게 달여 그 물로 10여 차례 머리를 감는다.

頭風眼疾 두풍으로 안질 잇는 디 | 두풍으로 눈병이 생긴 경우

七月採木通, 去皮, 折三寸, 取三斤, 水五六盆, 煎至五六椀, 分三次沐頭, 頭目疾永差.

칠월에 목통을 캐여 껍질을 벗기고 세 치씩 잘너 셔 근을 물 오륙동의에 다려 오륙사발 되게 햏야 세 차례에 눈와 머리 감으면 즉츰.

7월에 목통을 캐어서 껍질을 벗기고 3치 크기로 잘라 3근을 물 5-6동이에 넣고 5-6사발이 될 때까지 달인다. 이것으로 3차례에 나누어 머리를 감으면 두풍으로 인한 눈병이 완전히 낫는다.

面部 면부 | 면부



面腫 면종 | 면종

面上諸腫, 嚼眞荳付之, 準差.

참새를 씹어 낫기까지 부치라.

| 얼굴에 나는 온갖 종기에는, 참깨를 씹어서 나을 때까지 붙여준다.

赤小豆末, 和醋作餅, 付之.

붉은팻을 작말해야 초에 반죽해야 부치라.

| 팥을 가루 내어 식초에 개어 떡처럼 만들어 붙인다.

蒜汁塗之, 無乾時.

마늘즙을 자조 발느라.

| 마늘즙을 바르되, 마르지 않게끔 자주 바른다.

桑蟲汁塗之, 神效.

뽕나무벌레를 트쳐 발르면 신표.

| 뽕나무벌레를 즙내어 바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癍点 죽은씨 | 죽은개

鷄子黃 杏仁油, 和勻塗之, 次日以好酒洗之.

계란 노른자와 살구씨 기름을 섞거 발르고 잇튧날 조흔 술로 씨치라.

계란 노른자와 행인으로 짠 기름을 잘 섞어서 바른 뒤, 다음날 좋은 술로 씻어 낸다.



眼部 안부 | 안부



眼疾 안질 | 눈병

九煎紅靈砂, 水飛, 兩眼小摻之, 神效. 非九煎難用.

구전홍영사를 두 눈에 조금씩 너으라.

홍영사(9회 구운 것)를 수비하여 양쪽 눈에 조금씩 뿌려 넣어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9회 구운 것이 아니면 쓸 수 없다.

白雪糖, 極細末, 臨臥, 兩眼摻之, 神效.

백설당을 작말하야 잘 씨에 두 눈에 너으라.

백설당을 몹시 곱게 가루 내어 잘 때에 양쪽 눈에 뿌려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大棗七枚去核, 入白礬, 灸¹於炭火後, 白清塗之, 加塗白鹽, 更灸²一次, 倭黃連 黃栢 各二兩, 同煎水洗眼, 卽效.

디초 칠개를 씨 빼고 그 속에 백반을 너어서 숯불에 군 뒤에 그 우에 백청을 바르고 또 소금을 발라서 다시 굽고, 왜황련 황백 각 두 량 중을 함씩 다려서 눈을 씨스라.

대추(씨를 발라낸 것) 7개에 백반을 넣고 숯불에 구운 후 좋은 꿀을 바르고 또 소금을 발라 다시 1차례 더 굽고, 왜황련 황백 각 2냥을 넣고 함께 달여서 그 물로 눈을 씻어내면 곧 효험을 본다.

1.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2.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眼睛空然深去, 而有白苔者 눈알이 공연이 깊어지고 백티
끼는 디 | 눈알이 이유 없이 깊이 꺼지고 백태가 끼는 경우

白朮三兩, 乾葛二兩, 同爲末, 二錢式, 溫水頻服.

백출 석 량, 건갈 두 량을 갖치 작말하야 더운 물에 두 돈 증식 조쵸 타 먹으라.

백출 3냥, 갈근 2냥을 함께 가루 내어 2돈씩 따뜻한 물로 자주 먹는다.



目蓼 삼눈 | 삼눈

寸白虫, 乾爲作末, 摻之, 神效.

촌백충을 말녀 작말하야 가루를 뿌리라.

| 촌백충을 말려서 가루 내어 뿌려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眼疾 눈병 | 눈병

取生芩汁滴眼, 合眼臥睡. 覺後, 煎楓樹皮洗之, 神效.

싱지황집을 눈에 넋코 자다 씨인 후에 신나무껍질 다린 물로 씨치면 신탈.

생지황 즙을 눈 속에 똑똑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잔다. 잠에서 깨어난 뒤 신나무 껍질 달인 물로 씻어내면 신탈한 효험이 있다.

楓葉細切, 和燒酒, 蒸取汁, 點之.

신나무땀을 가늘게 썰어 소주에 셋거 써서 그 물을 너으라.

단풍나무 잎을 잘게 썰어서 소주에 섞어 써서 그 물을 눈 속에 똑똑 떨어뜨려 넣는다.¹

寸白虫, 乾爲末, 摻之, 則神效.

촌백충을 말녀 작말하야 너으면 신탈.

촌백충을 말려서 가루 내어 뿌려주면 신탈한 효험이 있다.

取大豆殼枝, 煎沸, 熏其熱, 又洗之.

콩싹지를 다려 더운 김을 쏘이고 또 그 물로 씨치라.

콩싹지와 콩 줄기를 끓어오를 때까지 달여서 눈에 김을 쏘고, 또 그 물로 눈을 씻어낸다.

平曉取牛鼻出涎, 入眼. 瞼膜亦效.

새벽에 쇠코에서 흘러나오는 콧물을 눈에 너으라. 빅티 싹 디도 조흐니라.

새벽에 소의 코에서 흘러나오는 콧물을 눈 속에 넣어준다. 예막에도 효험이 있다.

生薑去皮精洗出汁, 以自己手指點于當處, 卽效.

싱강을 정히 씨쳐 집니여 두어 번 너으면 즉효.

싱강을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즙을 내어 환자 자신의 손가락에 묻혀
아픈 눈에 똑똑 떨어뜨려 넣으면 곧 효험을 본다.

天行眼疾, 取燒酒洗之.

안질 돌님에는 소주로 씨치라.

유행성 눈병에는 소주로 눈을 씻어낸다.

¹. 허준, 《동의보감》〈외형〉 안(眼)에 다음과 같이 동일한 치법이 보인다. "또, 단풍나무 잎을 얇게 썰어서 소주와 함께 찌서 짜낸 즙을 눈에 넣어도 효과가 있다.《속방》"(又, 楓葉細切, 和燒酒蒸絞取汁, 點眼亦效.《俗方》) ←

眼昏 눈 어둔 디 | 눈이 어두운 경우

昏如蒙霧, 取端午正午所摘杏葉, 陰乾, 煮取汁, 頻頻溫洗.

단오날 오시에 살구넙을 싸서 그늘에 말려 다려 더웁게 헹야 자조 씨치라.

안개가 낀 듯 눈이 어두울 경우에는, 단오날 오시에 딴 살구나무 잎을 그늘에 말렸다가 달인 물로 따뜻하게 자주 눈을 씻어낸다.

重病後, 無故昏者, 取子午井花水, 飲四五日, 神效.

중병 후에 눈 어둔 디는, 미일 즈시와 오시에 정화수를 먹으면 스오일에 즉쳐.

큰 병을 앓은 후에 눈이 까닭 없이 어두워진 경우에는, 자시와 오시에 정화수를 떠서 4-5일 동안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眼赤 눈알 붉은 안질 | 눈동자가 붉어지는 경우

取田螺一介去掩, 糝以黃連末, 置露中, 曉取之, 肉化爲水, 以之滴眼, 赤瘴¹自消.

울영 혼 개를 싹지 세고 황련 갈우를 뿌려 이슬 맞춧다가 시벽에 보면 살이 다 물이 될 것이니 눈에 발느라.

우렁이(껍질을 벗겨낸 것) 1마리에 황련 가루를 뿌리고 이슬을 맞히면 새벽에 살이 모두 물 같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눈 속에 똑똑 떨어뜨리면 적장(赤障)이 저절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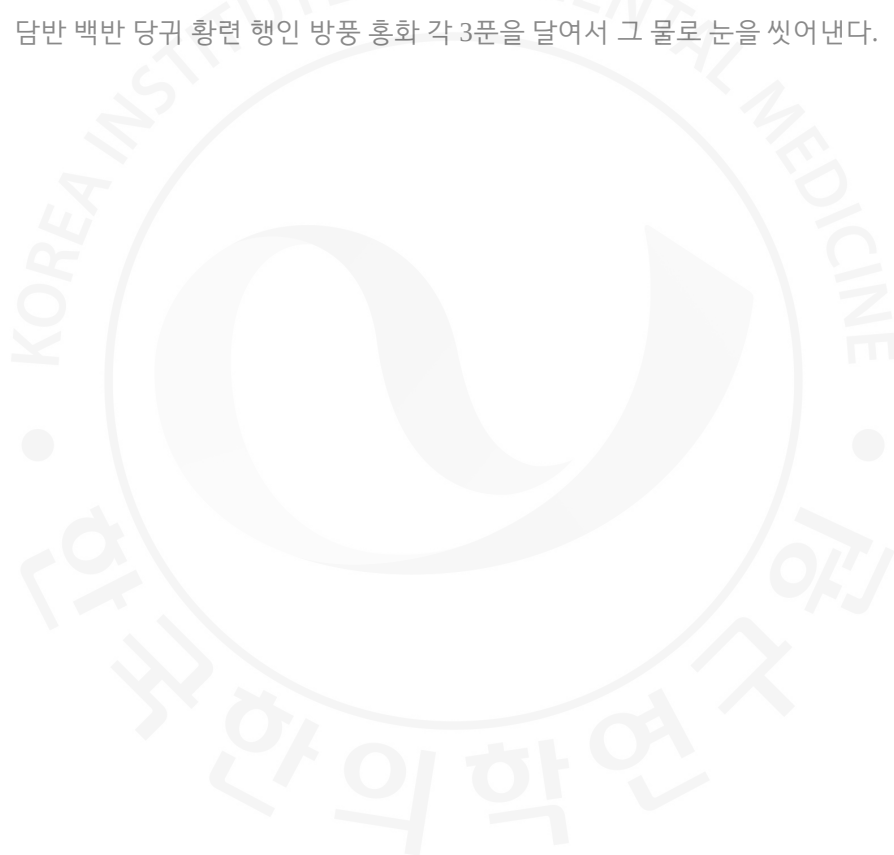
1. 赤瘴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赤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赤腫流淚 눈이 붉고 부어 눈물 흐르는 디 | 눈이 붉게 부어 오르고 눈물이 나오는 경우

膽礬 白礬 當歸 黃連 杏仁 防風 紅花 各三分, 煎洗.

담반 백반 당귀 황련 행인 방풍 홍화 각 서 푼 즙을 다려 씨치라.

담반 백반 당귀 황련 행인 방풍 홍화 각 3푼을 달여서 그 물로 눈을 씻어낸다.



目珠痛 눈알이 압흔 디 | 눈알이 아픈 경우

夏枯草 香附子 各二兩, 甘草四錢. 并末, 一錢五分, 清茶調下. 下咽, 疼即減, 至四五服, 愈.

하고초 향부자 각 두 량 중, 감초 너 돈 중을 함식 작말하야 혼 돈 오 푼 중식 차에 5스오츠만 먹으면 족츠.

하고초 향부자 각 2냥, 감초 4돈. 이상의 약재를 함께 가루 내어 1돈 5푼씩 찻물에 타서 먹는다. 약을 먹으면 곧 통증이 감해지고 4-5일을 먹으면 낫는다.

狗膽, 和生男乳, 入眼, 宿一次, 神效.

개 쓸개에 남조아히 먹는 것을 5 눈에 넣코 자고 일어나면 족츠.

개의 쓸개에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젖을 섞어 눈 속에 넣은 뒤 하룻밤 자고 나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瞖膜 빅태 신 디 | 예막

取新生兒食乳前初放糞, 晒乾末, 和人乳, 入眼, 雖至廢盲者, 瞖消視明.

갓난아기 비 안의 똥을 빻해 말려 작말하야 인유에 ㅅ서 너으면 폐밍이라도 즉츰.

갓난아기가 젖을 먹기 전에 싼 똥을 벌에 말려서 가루 내어 사람의 젖에 개어서 눈 속에 넣으면, 실명한 경우에도 예막이 사라지고 밝게 보인다.

杏仁去皮, 磨人乳取汁, 点之, 過五六日, 自脫.

살구씨 거피하야 젖에 갈아 오륙일을 너으라.

행인(껍질을 벗겨낸 것)을 사람의 젖에 갈아 즙을 내어 5-6일 동안 눈 속에 떨어뜨리면 예막이 저절로 없어진다.

南瓜去皮, 亂搗, 蒸于炊飯, 取油滴之, 神效.

호박씨를 거피하고 난도하야 밥솥에 써서 기름 니여 너으면 신탈.

호박(껍질을 벗겨낸 것)을 짓찧어서 밥 짓고 있는 밥솥에 써서 기름을 내어 눈 속에 떨어뜨리면 신탈한 효험이 있다.

眼胞下垂不收 눈가이 늘어져 감싸 못하는 디 | 눈꺼풀이 늘어져서 눈을 뜨지¹ 못하는 경우

宜大補脾胃, 烹陳鷄, 日夕²食.

묵은 닭을 삶아 만이 먹어 비위를 보하라.

비위(脾胃)를 크게 보해야 하니, 묵은 닭을 삶아 매일 많이 먹는다.

1. 뜨지 : 언해에는 "감\u0045"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눈을 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夕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多'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雀目 밤눈 못 보는 디 | 야맹증

取夜明砂, 調酒服.

박쥐똥을 술에 ½ 먹으라.

| 야명사를 술에 타서 먹는다.

破雀頭, 取血滴眼.

참새 머리를 찢쳐 피를 নিয়ে 너으라.

| 참새의 머리를 깨어서 피를 내어 눈 속에 똑똑 떨어뜨린다.

北魚油服之, 卽差.

북어기름을 먹으면 즉차.

| 북어기름을 먹으면 곧 낫는다.

目蓼 눈에 삼선 디 | 삼눈

人中龍, 乾末, 和人乳, 点滴蓼, 根自消.

사람이 토한 회를 말려 작말하야 인유에 셋거 너으라.

인중룡(人中龍)¹을 말려서 가루 내어 사람의 젖에 개어서 삼눈에 똑똑 떨어뜨리면 병의 근원이 저절로 없어진다.

胡椒浸人乳, 滴數次. 又乾苦椒去子, 捲作針, 日出時東向坐, 以苦椒針點蓼處, 則即愈.

호초를 인유에 담겨 두어 차례를 너으라. 또 말는 고초를 싸개여 흰 솜이 뽕뽕하게 비벼 흰 돛을 씨에 동편을 향하야 고초 솜으로 침 주듯 삼에다가 디었다가 세면 즉 죽.

호초를 사람의 젖에 담가 여러 차례 눈 속에 똑똑 떨어뜨린다. 또 말린 고추(씨를 빼낸 것)를 말아서 침처럼 뽕뽕하게 만든 뒤 해가 뜰 때에 동쪽을 향해서 앉아 고추로 만든 침으로 삼눈에 점을 찍듯이 대었다가 떼면 곧 낫는다.

¹. 인중룡(人中龍) : 《의방합편》〈목부〉작목(雀目)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인중룡〔남자가 입에서 토해낸 회충으로, 붉은 것이 좋다.〕"(人中龍〔男子口中吐出蛔, 色紅者佳.〕) ←

偷針 다락기 | 다래끼

病在左上, 書地平二字於右足掌心, 在左下, 書天平二字於右足掌心, 在右上, 書地平於左足, 在右下, 書天平於左足, 則不膿而痊, 百試百效. 但試之膿除, 不效.

좌편 눈 위에 나거든 우족 장심에 싸 디 평홀 평 두 즈를 쓰고, 좌편 눈 아리 나거든 우족 장심에 하날 천 평홀 평 두 즈를 쓰고, 우편 눈 우에 나거든 좌족 장심에 지평을 쓰고, 우편 눈 아리 나거든 좌족 장심에 천평을 쓰면, 곰씨 안고 낮되 곰씨 시작된 데는 효험 업느니라.

다래끼가 왼쪽 눈 위쪽에 난 경우에는 '地平' 2자를 오른발 발바닥 가운데에 쓰고, 왼쪽 눈 아래에 난 경우에는 '天平' 2자를 오른발 발바닥 가운데에 쓰고, 오른쪽 눈 위쪽에 난 경우에는 '地平' 2자를 왼발 발바닥 가운데에 쓰고, 오른쪽 눈 아래에 난 경우에는 '天平' 2자를 왼발 발바닥 가운데에 쓴다. 이렇게 하면 굼지 않고 낮게 되니, 100번 시험하면 100번 다 효험을 본다. 다만 굼은 것을 없애는 것에는 효험이 없다.

始起泡如粟者, 針刺出血, 妙.

처음 나서 좁쌀 갓을 씨에 침으로 싸서 피를 니면 즉효.

처음 생겨서 좁쌀처럼 부은 경우에 침으로 찔러 피를 내면 좋다.

耳部

이부

이부

耳聾 귀 막힌 디 | 귀먹은 경우

猫溺入耳, 神效.

고양이를 방안에 가두되 세간을 다 치우고 걸네질 정하게 치고 나오지 못하게 문 닫고, 문틈으로 조코 보와서 오줌을 방바닥에 누거든, 곳 고양이를 니쫓고 정한 솜에 그 오줌을 못쳐서 귀에 싸 너으라.

고양이 오줌을 귓속에 넣어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耳中忽大痛, 奔走如虫行, 或出血, 水蛇脫皮, 燒研吹入, 立效.

(귀속이 홀연 압푸고 또 피 나오느 디) 물비암 썩질을 불에 살너 작말하야 너으면 즉 효.

귓속이 갑자기 몹시 아프고 벌레가 뛰어 돌아다니는 듯하고 혹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물뱀의 허물을 태워서 가루 내어 귓속에 붙어넣으면 바로 효험을 본다.

耳內有膿, 痛不可忍, 抱鷄卵殼炒黃末, 香油調灌耳內, 痛止.

(귀속이 골마 압푸 디) 병아리 싸 너리고 남은 알 썩질을 불의 누른빛 너게 쏘여 작말하야 귀에 너으라.

귓속이 끓고 아파서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병아리가 부화하고 남긴 계란 껍질을 누렇게 될 때까지 볶아서 가루 내어 참기름에 타서 귓속에 부어넣으면 통증이 그친다.

耳鳴 귀에 소리 나는 디 | 이명

栢子六十介, 細嚼, 五味子水吞下.

잣 륑십개를 씹어 오미즈국에 삼키라.

잣 60개를 꼭꼭 씹어서 오미자 우린 물로 먹는다.



耳疼 귀 알는 디 | 귓속이 아픈 경우

取地龍大者, 盛于器, 經一宿, 自然生汁, 滴耳. 耳聾亦效.

지렁이를 큰 그릇에 넣어 하룻밤 두면 자연이 물이 날 터이니 너으라. 귀 막은 디도 조흐니라.

지렁이 큰 것을 그릇에 담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저절로 즙이 생기는데, 이것을 귓속에 똑똑 떨어뜨린다. 귀먹은 데도 효험이 있다.

粘租稿, 細切爛烹, 入空瓶同烹, 使熱氣充滿瓶內, 取以付瓶口于疼耳, 熏氣. 亦治頭風.

찰벼집을 썰어 삶으되 비인 병과 한 가지 삶으면 더운 김이 병속에 가득 들 것이니, 병입을 알는 귀에 다이고 그 김을 쏘이라.

찰벼집을 잘게 썰어 문드러지게 삶고, 빈병을 넣고 함께 삶아 열기가 병속에 가득하게 한 뒤, 이 병의 주둥이를 아픈 귀에 대고 김을 쐬다. 두풍(頭風)도 치료한다.

耳聾 이론 | 귀먹은 경우

鼠膽入耳. 每月初三日以後, 鼠無膽.

쥐 쓸기를 너으면 즉효. 미월 초사흘 지니면 쥐가 쓸기가 업느니라.

쥐의 쓸개를 귓속에 넣는다. 매월 3일 이후에는 쥐에게 담이 없어진다.

取地龍入置葱葉內, 自然爲水, 取其水滴耳.

지렁이를 파넵 속에 너어 물 되거든 그 물을 너으라.

지렁이를 파의 잎 속에 넣으면 저절로 물이 되는데, 그 물을 귓속에 똑똑 떨어뜨린다.

不能遠聽, 石雄黃 硫黃, 綿裹納耳.

멀리 듣지 못하는 디, 석웅황과 유황을 솜에 싸 귀를 막으라.

먼 곳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웅황과 유황을 솜에 싸서 귀를 막는다.

暴聾 급작이 귀 막은 디 | 갑자기 귀가 먹는 경우

全蝎去毒, 末, 調酒滴耳, 聞水即愈.

전갈을 거독하고 작말하야 술에 타 귀에 너으면 즉초.

전갈의 독을 제거하고 가루 내어 술에 타서 귓속에 똑똑 떨어뜨린 뒤 물소리를
들으면 낫는다.



積年聾 귀 막은 지 오래된 디 | 귀 먹은 지 오래된 경우

取田螺數介, 盛于楪匙, 蒸於炊飯, 待其水出, 和眞油少許滴耳, 限一朔, 耳中雜物盡出.

울영이 두어 기를 접시에 담어 밥 위에 써서 물이 나거든 그 물에 참기름 조금 섞거 귀에 넣되, 한 달만 하면 귀속에 있던 잡물이 다 나오느니라.

우렁이 여러 마리를 접시에 담아 밥 짓고 있는 밥솥에 써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참기름 조금을 섞어서 귓속에 똑똑 떨어뜨린다. 1달 동안 이렇게 하면 귓속에 있던 온갖 찌꺼기가 다 나온다.

老人聾 로인의 귀 막은 디 | 노인이 귀 먹은 경우

取指南石塞耳, 鑱鍊水, 含之, 妙.

지남석으로 귀를 막고 낫쇠 담근 물을 입에 먹음으라.

| 자석으로 귀를 막고 낫의 쇠 부분을 우려낸 물을 입에 머금으면 좋다.

甘遂塞耳, 甘草煎水飲之.

감수로 귀를 막고 감초를 다려 먹으라.

| 감수로 귀를 막고 감초 달인 물을 먹는다.

鼻部 비부 | 비부



鼻衄 코피 나는 디 | 코피

蘿蔔汁 熱酒 各半盞, 和勻, 再用湯溫服.

무집 반 잔과 더인 술 반 잔을 타 지탕하야 더웁게 먹으라.

무즙과 뜨거운 술 각 반 잔을 잘 섞은 뒤 재탕하여 따뜻하게 먹는다.

蒜一介, 爛搗, 付足掌心, 左出血付右, 右出血付左, 左右出血并付.

만늘 흰 기를 난도하야 발장심에 부치되, 좌편 코궁게서 피 나거든 우편에 부치고, 우편에서 나거든 좌편에 부치고, 좌우에서 다 나거든 좌우에 부치라.

마늘 1개를 문드러지게 찢어서 발바닥 가운데에 붙이되, 왼쪽 콧구멍에서 피가 나면 오른쪽 발바닥에 붙이고, 오른쪽 콧구멍에서 피가 나면 왼쪽 발바닥에 붙이고, 양쪽 콧구멍에서 모두 피가 나면 양쪽 발바닥에 다 붙인다.

鍋煤水調服.

숯밧 안진 검정을 물에 타 먹으라.

솔바닥의 그을음을 물에 타서 먹는다.

靑蒿納鼻孔.

접이쑥으로 코궁글 막으라.

청호로 콧구멍을 막는다.

鼻紅 코이 붉은 병 | 코가 붉어진 병

百草霜 天煤 硫黃 唐信石 各等分, 末, 調良水, 頻塗之.

백초상 천매 유황 당비상을 각 등분하여 간수에 개여 자조 발느라.

백초상 천매(天煤)¹ 유황 당비상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간수에 타서 자주 바른다.

柿水正果長服五十日. 或柿霜準五升服.

수정과를 오십일 장복하라. 혹은 시설을 닷 되 위한하고 먹어도 조흐니라.

곶감 넣은 수정과를 50일간 장복한다. 혹은 시상(柿霜, 곶감 겉면의 흰 가루)을 5되까지 먹는다.

¹. 천매(天煤) : 부엌 천장에 낀 그을음을 가리킨다. 《오주연문장전산고》〈만물편·충어류·어〉하돈변증설(河豚辨證說) "부엌 천장에 낀 그을음〔세 속에서 천매라고 한다.〕"(廚竈上塵煤〔俗名天煤〕) ←

口舌部 구설부 | 구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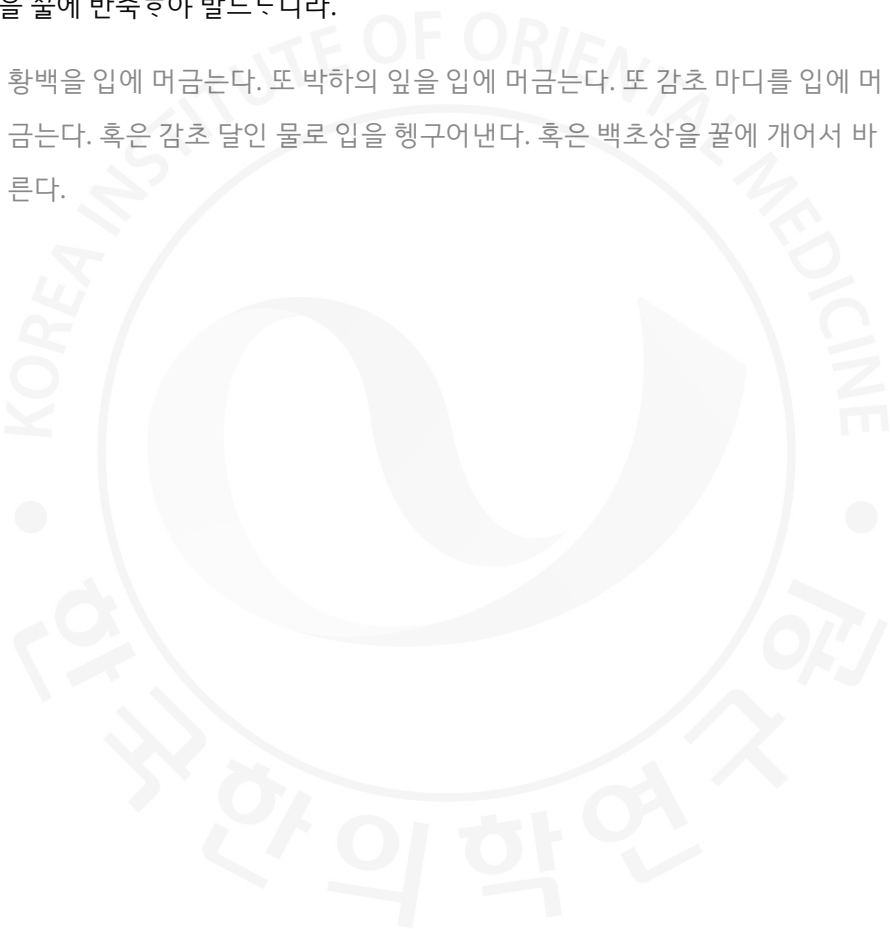


口病 입병 | 입병

黃栢含之. 又薄荷葉含之. 又甘草節含之. 或甘草水洗之. 或百草霜蜜調塗之.

황벽을 물고, 박하잎도 물고, 감초꼭도 물고, 감초 다린 물로 씻기도 하고, 혹은 안진 검정을 꿀에 반죽하여 발라주니라.

황벽을 입에 머금는다. 또 박하의 잎을 입에 머금는다. 또 감초 마디를 입에 머금는다. 혹은 감초 달인 물로 입을 헹구어낸다. 혹은 백초상을 꿀에 개어서 바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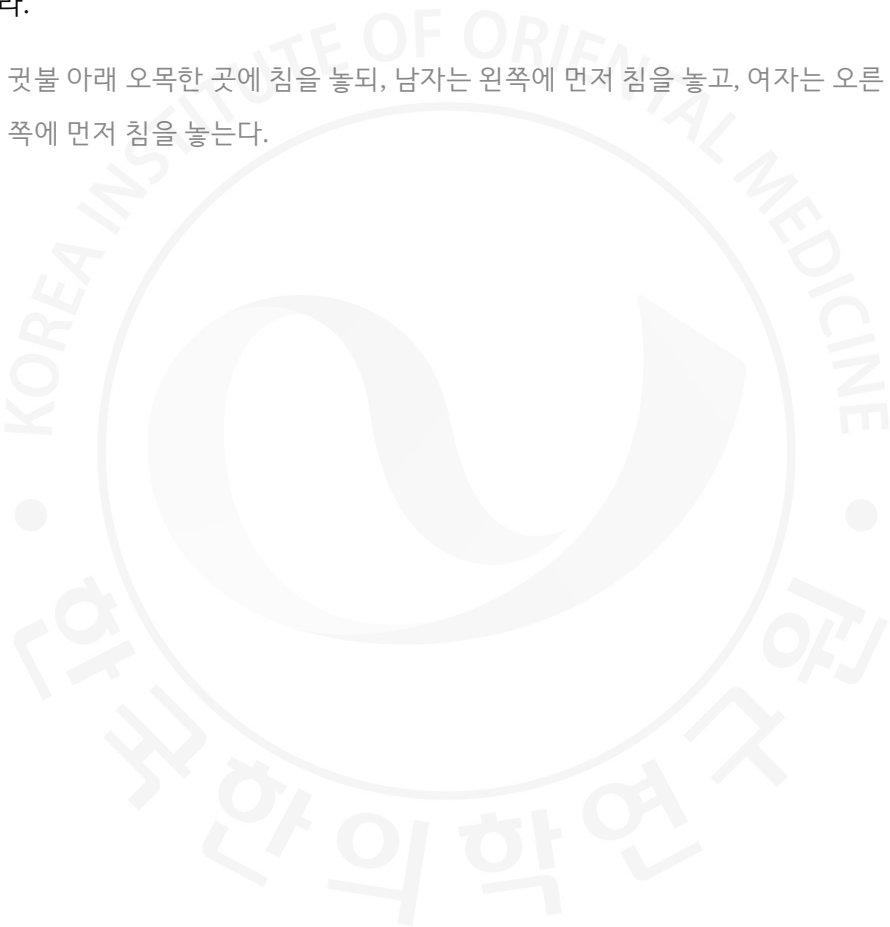


口噤 입을 다문 디 | 입을 악다문 경우

耳垂珠下凹處下針, 男先左, 女先右.

두 귀 수주 아래 움푹한 디를 침주되, 남자는 좌편을 먼저 하고, 녀자는 우편을 먼저
하라.

꺄볼 아래 오목한 곳에 침을 놓되, 남자는 왼쪽에 먼저 침을 놓고, 여자는 오른
쪽에 먼저 침을 놓는다.



口乾 입이 마는 디 | 입이 마르는 경우

取梔子, 末, 和蜜丸, 入舌底轉之.

치즈를 작말하야 꿀에 환 만들어 혀 밑에 넣고 굴리라.

치자를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어 혀 밑에 놓고 굴린다.



重舌 혀 밑에 또 혀가 나는 병 | 중설

鹿角或馬齒, 極細末, 和蜜, 日三塗之.

사슴의 뿔이나 흑 말의 이를 간을게 작말하야 꿀에 개여 날마다 세 번식 발느라.

| 사슴의 뿔이나 말의 이를 몹시 곱게 가루 내어 꿀에 개어 하루 3차례 바른다.

割生豬下唇, 付之當處, 卽效.

싱도야지 아리입살을 버여 붓치면 즉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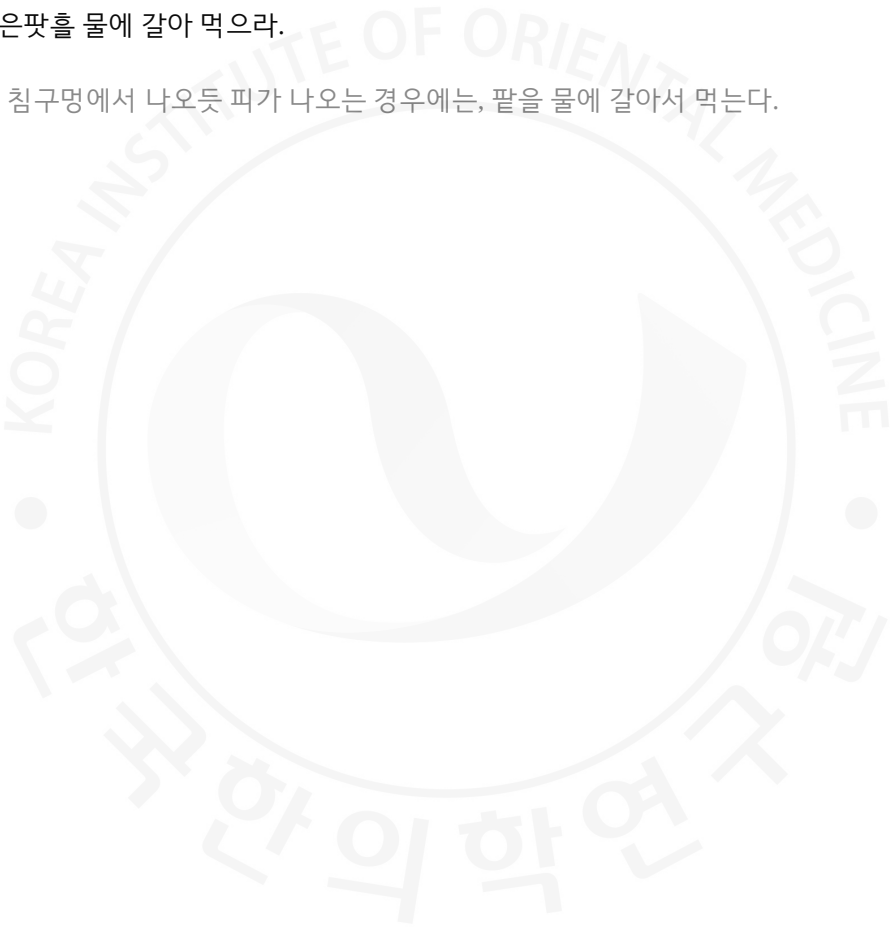
| 살아 있는 돼지의 아랫입술을 잘라내어 환처에 붙이면 곧 효험을 본다.

舌忽出血 혀에 흘연이 피 나는 디 | 혀에서 갑자기 피가 나는 경우

血出如針孔, 取赤豆磨水飲之.

붉은팻흙 물에 갈아 먹으라.

침구멍에서 나오듯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팻을 물에 갈아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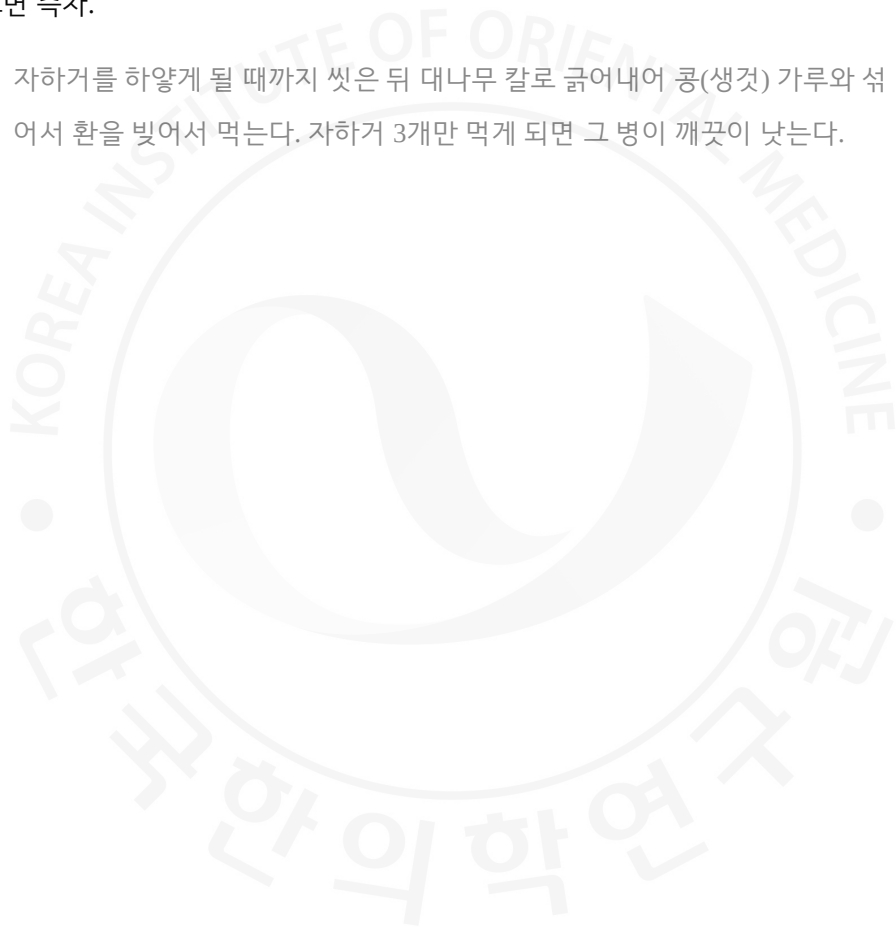


舌肉腐 혀가 썩난 디 | 혀가 썩는 경우

取紫河車洗白之, 以竹刀刮取其肉, 和生大豆末丸, 吞下. 用三具, 其疾如失.

갓난아히 턱을 흰빛 나도록 씻쳐 디칼로 굽어 날콩갈우에 환햏야 먹으라. 세 부만 먹으면 즉차.

자하거를 하얗게 될 때까지 씻은 뒤 대나무 칼로 굽어내어 콩(생것) 가루와 섞어서 환을 빚어서 먹는다. 자하거 3개만 먹게 되면 그 병이 깨끗이 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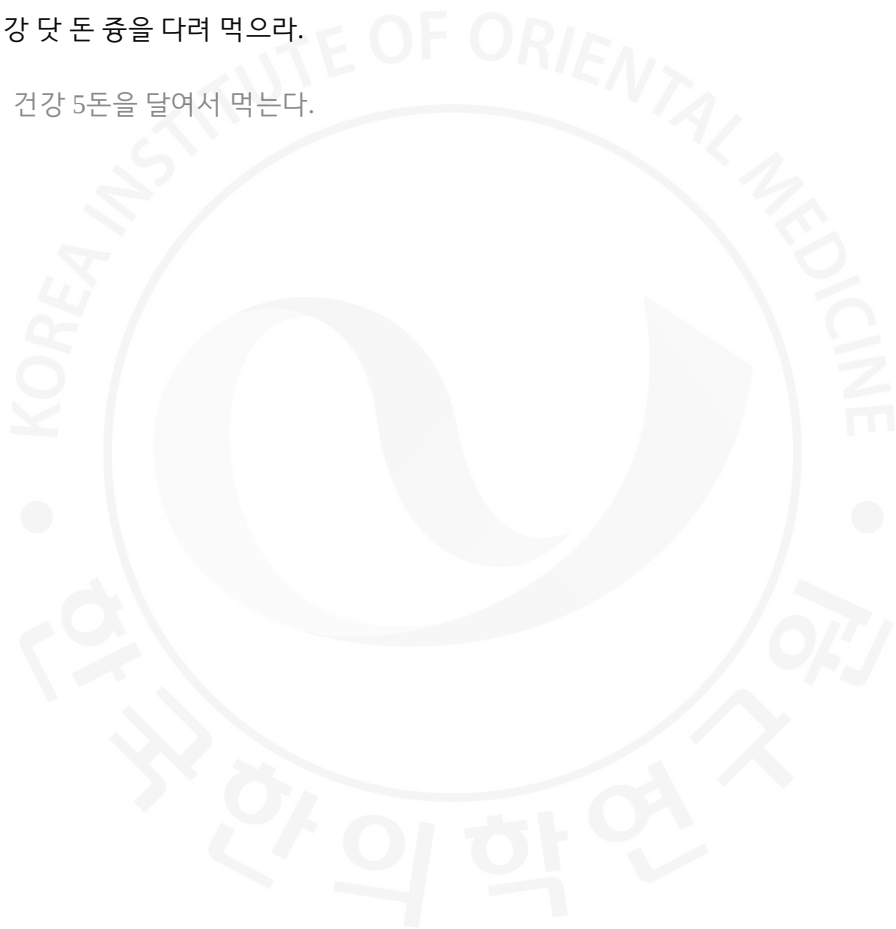


舌縮 혀가 안으로 당기는 디 | 혀가 안으로 오그라드는 경우

乾薑五錢煎服.

건강 닛 돈 중을 다려 먹으라.

| 건강 5돈을 달여서 먹는다.



舌出 혀가 늘어지는 디 | 혀가 늘어지는 경우

取水片付之. 亦治舌端生疹.

얼음조각을 부치라. 혀바늘 선 디도 조흐니라.

| 얼음조각을 붙인다. 혀끝의 헛바늘도 치료한다.

因驚而出, 針舌底即縮.

놀니여 혀가 늘어진 디는, 혀밧흘 침주면 즉차.

| 놀래서 혀가 늘어진 경우에는, 혀 밑에 침을 놓으면 혀가 들어간다.

牙齒部 아치부 | 아치부



齒通¹ 이 앓픈 디 | 이가 아픈 경우

礪砂 川椒 三錄 各一錢, 合細末, 摻於痛處, 其流涎不可吞下.

붕소 천초 습록을 작말하야 당처에 뿌리고 그 침을 먹지 말노.

붕사 천초 삼록(三綠)² 각 1돈을 섞어서 곱게 가루 낸 뒤 환처에 뿌리되, 이 때 흐르는 침을 삼켜서는 안 된다.

風虫齒勿論. 胡桃肉, 亂搗如泥, 調合烟草, 吸烟于當處, 卽效.

(풍충치 물논하고) 호도육을 란도하야 담비에 석거셔 알는 이에 디고 연기를 쐐노.

풍치와 충치를 가리지 않고 호도육을 진흙처럼 되도록 문드러지게 찢어 담배와 섞어서 환처에 연기를 빨아들이면 곧 효험을 본다.

五里木, 細切煎茶, 頻頻含之, 效.

오리남글 츠 다려 즈조 물노.

가늘게 썬 오리나무로 차를 달여 자주 입속에 머금으면 효험을 본다.

白吉更一兩重, 數三次煎服, 效.

빅도라지를 다려서 슈습츠 먹으라.

백길경을 여러 차례 달여서 먹으면 효험을 본다.

生淸爛煎, 白綿以木枝末裹纏, 入于爛蜜中, 痛齒含煮, 卽效.

싱청을 쓰리고 썬리 솃헤 솜을 동여셔 쓰린 꿀을 씹어 알는 이의 지지라.

신선한 꿀을 문드러지도록 끓인 뒤, 흰 솜으로 나뭇가지 끝을 싸매어 끓인 꿀 속에 담갔다가 입에 머금어서 아픈 이빨에 지지면 곧 효험을 본다.

柳木茸, 細切, 吸烟當處, 神效.

버드나무버섯을 잘게 썰어 디에 담어 알는 이에 디고 피여 연기를 쏘이라.

버드나무버섯을 잘게 썰어서 담뱃대에 넣고 환처에 연기를 빨아들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1. 通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痛'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삼록(三綠) : 옅은 초록색을 내는 광물성 안료를 가리키는 듯하다. ↩

風齒 풍치 | 풍치

瓦松水煎頻含.

기와집 위에 나는 풀을 다려 즙주 물늑.

와송(瓦松)¹을 물에 달여 자주 입에 머금는다.

自然銅五錢, 礪砂二錢五分, 同煎頻含, 神效.

자연동 닷 돈, 붕사 두 돈 오 푼 다려 즙쥌 물늑.

자연동 5돈, 붕사 2돈 5푼을 함께 달여서 자주 입에 머금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¹. 와송(瓦松) : 작엽하초(昨葉荷草)의 이명(異名)으로 바위솔을 가리킨다. 《동의보감》〈탕액〉 작엽하초(昨葉荷草)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래 된 기와 지붕 위에 자라는데 멀리서 보면 소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와송(瓦松)이라고도 한다."(生年久瓦屋上, 遠望如松, 故一名瓦松.) ↩

齒疼 이 알는 디 | 치통

萊豆十四介, 胡椒七箇. 龜末以鹽裹之, 按疼齒, 無論風蟲神效.

녹두 열네 개, 호초 일곱 개를 작말하야 풀숨에 싸서 알는 이를 눌우면 풍치충치에 다 신호.

녹두 14알, 호초 7개.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내어 풀숨에 싸서 아픈 이빨에 꼭 누르면 풍치나 충치에 모두 신묘한 효험이 있다.

取年久松籬所在松鈴, 濃煎含之, 非但止疼, 又能固齒.

년구흔 솔나무 울타리의 솔방울을 다려 물을 물면 즉효하고 이가 단단하여지니라.

오래된 소나무 울타리에 있는 솔방울을 진하게 달여서 입에 머금으면, 통증이 그칠 뿐 아니라 이빨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取礪砂末塗之, 不嗽水, 非但止疼, 亦能固齒.

붕사 갈우를 발느고 물로 양치 말면 즉효하고 이가 단단하니라.

붕사 가루를 바른 뒤, 물로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통증이 그칠 뿐 아니라 이빨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削紫丹香挿髻, 預防不疼.

자단향을 삭가 상투에 꽂으면 치통이 업는 예방이니라.

자단향을 상투에 꽂으면 치통을 예방해준다.

吉利花木¹, 東行根採之, 煎水含之, 卽效.

썰네나무 동으로 벼은 썰리를 다려 물면 즉효.

동쪽으로 뺀 찔레나무의 뿌리를 깨어서 물에 달여 입에 머금으면 곧 효험을 본다.

¹. 吉利花木 : 다른 용례가 없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언해에 "네나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찔레나무"로 보고 번역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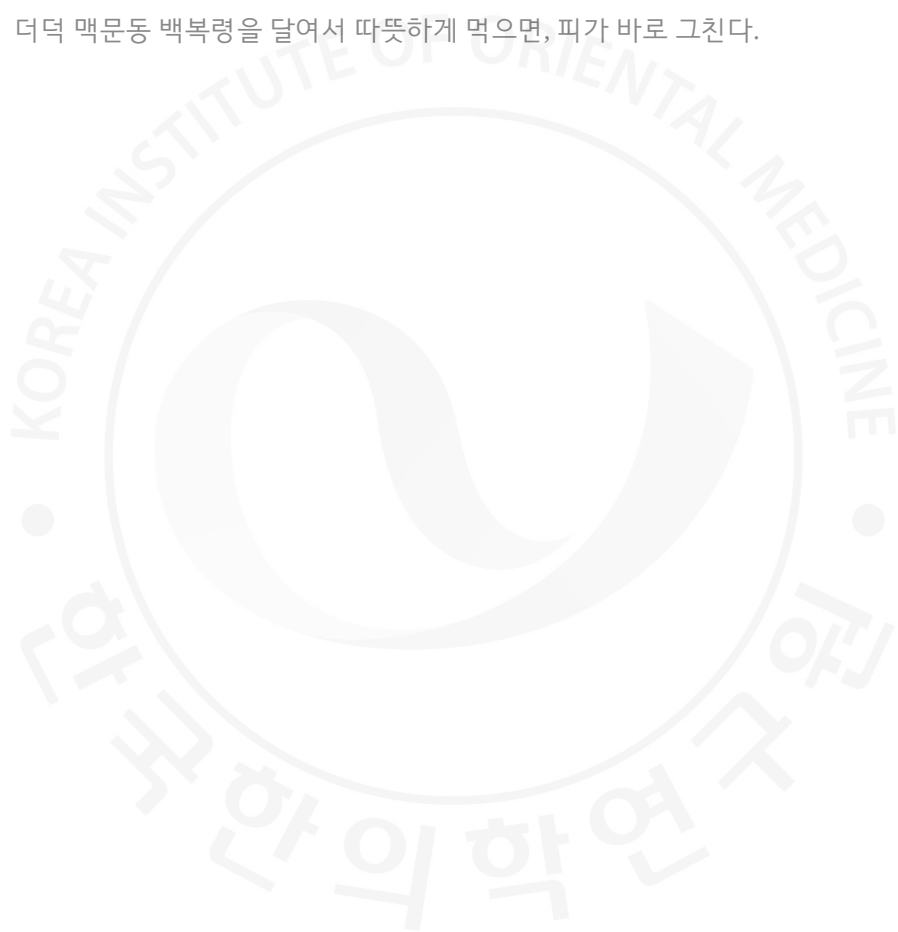


齒衄 이몸에 피나는 디 |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煎沙蔘 麥門冬 白茯苓, 溫飲, 其血立止.

사삼 맥문동 백복령을 다려 먹으면 즉효.

더덕 맥문동 백복령을 달여서 따뜻하게 먹으면, 피가 바로 그친다.



固齒 이를 굳게 하는 약 | 이빨의 뿌리가 단단해지게 하는 약

取皮麻子莖節, 以鹽實其中, 以火燒之, 莖燒鹽存後, 取鹽作末, 更取他莖入鹽, 火燒, 如是九次, 鹽末三兩重, 松脂去滓三兩重, 礬砂五錢重, 合爲末, 每朝養齒, 勿以水含漱, 則永不落齒.

피마자 뒤에 소금을 너서 구어 소금만 남썬든, 또 그 소금을 작말하야 피마자 뒤에 너어 굽되, 이러케 아홉 번 하야 작말하야 석 량 중과 송진 거지흔 것 석 량 중과 붕사 다섯 중을 합하야 작말하야 두고, 미일 양치하되 그냥 물었다가 비얏고 물로는 양치 말면 평상 빠지지 안느니라.

피마자 줄기의 마디 속에 소금을 채운 뒤 불을 피워 그 줄기를 태운다. 줄기는 타 버리고 소금이 남은 후에 그 소금을 가루 내어 다른 피마자 줄기 속에 넣고 또 불로 태운다. 이런 식으로 9차례 한 소금 3냥, 송진(찌꺼기를 없앤 것) 3냥, 붕사 5돈을 섞어서 가루 낸 뒤 매일 아침 이것으로 이를 닦고 물로 헹구어내지 않으면 이빨이 영영 빠지지 않게 된다.

取初落齒, 燒存性末, 調水服, 更不見落.

처음 빠진 이를 불에 살와 작말하야 물에 5 먹으면, 다시 빠지지 안이하느니라.

처음 빠졌던 이빨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 내어 물에 타서 먹으면 다시는 이빨이 빠지지 않는다.

自然銅六七箇, 搗碎煎沸, 含水終日, 極效.

산골 육칠개를 찌쳐 물에 다려 물면 신효.

자연동 6-7개를 빻아서 물에 달인 후 그 물을 하루 종일 머금고 있으면 매우 좋다.

頤頤部

함항부

함항부



頤退 턱이 늘어진 디 | 턱이 늘어진 경우

燎頤爐火上, 候出汗, 用布縛頭, 縛定三時間, 效.

턱을 화로불에 쪼여 땀이 나거든 뵈수건으로 동여두면 낫느니라.

화롯불에 턱을 찢어서 땀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베로 머리를 동여매고 3시간 동안 고정해두면 효험을 본다.

多煎桑條, 溫服, 取汗.

뽕나무가지를 많이 다려 더웁게 먹고 취한하라.

뽕나무가지를 많이 달여서 따뜻하게 먹고 땀을 낸다.

項核 목에 멍울이 선 디 | 목에 멍울이 맺힌 경우

取蟾蜍溲塗之, 卽解.

독겁이 오줌을 엇어 발르면 곱 풀리느니라.

| 두꺼비 오줌을 바르면 곱 낫는다.



咽喉部 인후부 | 인후부



咽喉 인후증 | 인후

硼砂塊, 口中含之, 其流涎當處流入, 神效.

붕사 덩이를 입에 물어 그 침을 조조 적시라.

붕사 덩어리를 입속에 머금고 흐르는 침을 환처에 흘려 넣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匏花蝶, 燒存性作末, 入竹筒, 吹入當處, 卽差.

박꽃노뽕을 살노 작말하야 디통에 너어서 당처의 불노.

박각시나방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 내어 죽통에 넣어 환처에 불어넣으면 곧 낫는다.

急喉疼 급한 이후 알는 디 | 갑작스럽게 목구멍 아픈 경우

猪牙皂角 白礬 黃連 等分, 焙乾瓦上爲末, 吹喉, 小頃吐膿血而愈.

도야지이와 조각 백반 황련을 등분하여 기와에 볶고 불 새여 말녀 작말하여 목궁게
불어너으면, 농혈을 토하고 **낮나라**¹.

저아조각 백반 황련 각각 같은 양을 기와 위에 놓고 불을 쬌어 말려서 가루 내
어 목구멍 속에 불어넣으면, 잠시 후 피고름을 토해내고 낮는다.

¹. 낮나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낮나라'의 오타인 듯하다.

咽喉浮塞 인후가 부어 목궁기 머인 디 | 목구멍이 부어서 막힌 경우

以鹽吹喉, 卽差.

소금을 뿌려 제리면 즉초.

| 소금을 목구멍에 붙어넣으면 곧 낫는다.

乾松茸浸溫水嚥之. 或煎服.

말는 송이를 더운 물에 담가 먹고, 혹은 다려도 먹느니라.

| 말린 송이버섯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먹는다. 혹은 달여서 먹는다.

麥門冬湯, 調牛黃服, 奇效.

믹문동을 다려 우황을 타 먹으면 신표.

| 맥문동을 달여서 우황을 타서 먹으면 큰 효험이 있다.

咽喉腫疼 인후가 부어 압흔 디 |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경우

取礪砂末, 以管吹入¹, 即瘥.

붕사 갈우를 디통으로 불어 너으면 즉쳐.

붕사 가루를 대롱으로 아픈 곳에 불어넣으면 곧 낫는다.

皮麻子莖, 入鹽燒之, 吹喉, 即差. 常鹽亦宜.

피마즈 디에 너어 구은 소금을 즈쥬 당쳐에 뿌리고 면자 즉쳐하고, 그져 소금도 조흐 나라.

피마자 줄기에 소금을 넣어서 태운 뒤 그 소금을 목구멍에 불어넣으면 곧 낫는다. 그냥 소금도 좋다.

取自己脚鱗, 吹入.

병인의 다리의 비늘을 굵어 불어 너으라.

환자 다리의 각질을 굵어서 목구멍에 불어넣는다.

¹. 瘥定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瘥處'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浮疹爛傷 부어 허여진 디 |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혈은 경우

玄蔘 吉更 甘草 各七分, 煎服, 灸兩耳輪三壯.

현삼 길경 감초 각 칠 분을 다려 먹고 두 귀박귀를 석 장식 쓰라.

현삼 길경 감초 각 7분을 달여서 먹고, 양쪽 귓바퀴에 뜬을 3장 뜬다.



喉痺腫疼 후비창으로 부어 압흔 디 | 후비로 붓고 아픈 경우

取食鹽炒紅, 末, 吹入五七次, 出涎, 卽愈.

소금을 붉은 빛 나게 볶거 육칠초 불어너으면 즉초.

소금을 붉게 될 때까지 볶아 가루 내어 5-7차례 목구멍에 불어넣고 침을 뱉어 내면 곧 낫는다.

單蛾雙蛾 목궁기 부르터 부은 디 | 단아와 쌍아

取皂角刺 枯白礬, 細研, 和蜜塗之.

조각조 고백반을 작말하야 꿀에 석거 발느라.

조각자 백반(구운 것)을 곱게 갈아서 꿀에 개어서 발라준다.



喉泡 쓰리부튼 디 | 목에 생긴 수포

針破出血後, 以黑荏鹽拭之.

침 주어 피는 후에 검은 씨소금으로 문질느라. 식념을 문디도 즉초.

침으로 터뜨려 피를 낸 뒤 검은깨 깨소금으로 문지른다. (식염으로 문질러도
곧 낫는다.)



蒂癰垂 목젓 갈아안는 디 | 현옹(懸癰)

以物按舌, 醢鹽于匙柄端, 點之, 卽效.

혀를 누르고 술총에 소금을 씹어 목젓에 발르면 즉치.

혀를 누르고 손가락 손잡이 끝부분에 소금을 찍어서 목젓에 찍듯이 바르면 곧 낫는다.

食鹽 枯白礬,

소금과 고백반을 작말하여 붙여너으라.

소금과 백반(구운 것)을 곱게 가루 내어 붙여넣는다.

背部 비부 | 배부



背癢 등이 갈여온 디 | 등이 가려운 경우

此老人例症. 蔓蔘限一斤, 煎茶, 日常服.

이는 로인 예증이니 잔디 훈 근을 차 다려 장복하라.

| 이것은 노인이 늘 앓는 증상이다. 만삼을 차로 달여서 최대 1근까지 늘 먹는다.

背癢, 以烟臺筒搔之, 平生不生背癢.

등이 가렵거든 담비통으로 긁으면 평생 등창이 업느니라.

| 등이 가려울 때에 담배 대통으로 긁으면 평생 등창을 앓지 않는다.

胸腹部 흉복부 | 흉복부



結胸 결흉증 | 결흉

寒症結胸, 或吃飯氣惱, 心口飽塞, 用好燒酒頓熱, 將布二塊湛酒, 自胸向下抹, 如布冷換熱數次, 滯下即出大孔, 極驗.

소주를 더웁게 해야 뱃허리를 당가 가슴을 문질러주되, 허리가 차거든 다시 더웁게 당가 두어 차례하면 극효.

한증 결흉으로 흑 밥을 먹으면 괴롭고 명치가 더부룩하고 막히는 경우에는, 좋은 소주를 급히 데운 뒤 행주 2장을 소주에 담가 가슴에서 시작하여 아래 방향으로 문질러주되, 행주가 차가워지면 뜨거운 것으로 갈아주며 여러 차례 이것을 반복하면, 체증이 내려가 곧 항문으로 나오니 극히 효험이 있다.

腹痛 비 알는 디 | 복통

防風三錢, 熟地黃二錢,

방풍 서 돈 중, 숙지황 두 돈 중을 다려 먹으면 구급.

방풍 3돈, 숙지황 2돈을 달여 먹으면 구급할 수 있다.

一切腹疼緊急, 不知何病, 只用鹽微炒, 布裹熨之, 立止.

복통이 심하여 무삼 병인지 몰으는 디, 소금을 복거 뵈에 싸서 비를 문질느라.

배가 아프고 땅기지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소금을 살짝 볶아 베에 싸서 찜질을 하면 통증이 바로 멎는다.

好醋一鐘子溫服, 卽效.

조흔 초 혼 종즈를 덥게 먹으면 즉효. 무론 모체하고 조흐니라.

좋은 식초 1종지를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胸腹疼 홍복통 | 홍복통

粘米五合爲飯 木麥五合, 神曲 淸蜜 各五合, 胡椒 川椒 苦椒 苦練根 牧丹皮 車前子 乾薑(童便浸乾) 各三合. 右合和炒, 入于唐南茆內, 以藁索團縛, 塗黃土, 埋糠火濃 熟取出, 空心隨量溫服, 卽痊. 疝症蛔症咳嗽眩症, 亦效.

찰쌀 다섯 홑 밥 짓고, 모밀 신국 쌀 각 다섯 홑, 호초 천초 고초 고려근 목단피 차전 자 건강은 동변에 담가 말린 것 각 서 홑을 함식 섯거 초하야 당호박 속에 너어 삭씨 로 묶고 황토를 발나, 겨불에 뭇어 익거든, 공심에 양디로 더여 먹으면 즉효. 이 약이 산증, 회증, 해소, 현기증에도 조흐니라.

찰쌀밥(5홑으로 밥 지은 것), 메밀 5홑, 신국 꿀 각 5홑, 호초 천초 고추 천련근 목단피 차전자 건강(동변에 담갔다가 말린 것) 각 3홑. 이상의 약재를 섞어서 볶아 당호박 속에 넣은 뒤 새끼로 등글게 묶고 황토를 발라 겨로 지핀 불에 문 었다가 걸쭉하게 익으면 꺼낸다. 이것을 빈속에 먹고 싶은 만큼 양껏 따뜻하게 먹으면 곧 낫는다. 이 약은 산증, 회충, 해수, 현기증에도 효험이 있다.

平常心疼 평상심통 | 평소에 가슴이 아픈 경우

卽胃口疼. 取麻黃 鶯粟殼 甘草 川弓 各一錢五分, 於疼時煎熱服, 卽愈. 常疼者可用, 初疼者不可用.

마황 잉속각 감초 천궁 각 한 돈 오 푼 중을 다려 더웁게 먹으면 즉측ㅎㄷㄷ, 항상 알
튼 사람은 먹으되, 처음 알는 사람은 먹지 말나.

이것은 위(胃)의 입구가 아픈 것이다. 마황 잉속각 감초 천궁 각 1돈 5푼을 아
플 때에 달여서 뜨거울 때에 먹으면 곧 낫는다. 늘 아픈 사람은 쓸 수 있지만,
처음 아픈 사람은 써서는 안 된다.

眞心疼 진심통 | 진심통

此疼驟發痛, 卽昏倒如死, 與平常心疼不同. 用風化石灰五分, 好燒酒一盃調服, 少刻有蟲從鼻中出, 預備好鑷鉗, 候蟲出急鉗住, 用大炭火燒死. 此蟲飛去, 則害人不淺.

풍화석회 오피 증을 소주 한 잔에 5 먹으면 벌레가 코궁그로 나올 터이니, 집게를 예비했다가 급히 집어 숯불에 5여 죽이라.

이 통증은 급작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죽은 것처럼 혼절하는 것이니 평소에 가슴이 아픈 것과는 다르다. 풍화석회 5푼을 좋은 소주 1잔에 타서 먹으면 잠시 있다 벌레가 코에서 나올 터이니, 쇠로 된 집게를 준비해 두었다가 벌레가 나오기를 기다려 급히 집게로 집어 활활 타는 숯불에 태워서 죽인다. 이 벌레가 날아서 달아나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힐 것이다.

絞腸沙 교장사증 | 교장사

此病夏月甚多, 忽然肚腸急疼, 唇指青黑. 用明礬末, 每二錢, 用冷水熱水各半盞調服, 卽愈.

이 병은 여름에 흔히 잇느니, 명백반을 작말하야 두 돈 중을 냉수 반 잔 끓인 물 반 잔에 ½ 먹으라.

이 병은 여름에 매우 흔한 것으로, 갑자기 배가 몹시 아프고 입술과 손가락이 검붉게 된다. 명반 가루를 매번 2돈씩 찬물과 뜨거운 물 각각 반 잔씩 섞은 물에 타서 먹으면 곧 낫는다.

乳部 유부 | 유부



乳岩 젖에 멍울이 단단해야 돌 갓튼 디 | 유암

乳中有核, 堅硬不解, 付不去滓松脂, 神效. 或他痰核俱可.

거지 안이훈 송진을 부치면 신표. 다른 담핵에도 부치느니라.

젖 속에 멍울이 생겨 딱딱하고 흠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은 송진을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이 약은 다른 담핵에 모두 쓸 수 있다.



腰脅部 요협부 | 요협부



腰脅痛 요협통 | 요협통

白沸湯一甫兒, 淸一匙, 苦椒醬一匙, 調和溫服, 取汗, 神效.

빅비탕 혼 보시기와 쌀 혼 술, 고초장 혼 술을 ½서 더웁게 먹고 땀 나라.

끓인 물 1보시기, 꿀 1술, 고추장 1술을 섞어서 따뜻하게 해서 먹고 땀을 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腰疼 혈이 알는 디 | 요통

茄子并葉莖實, 燒存性, 溫酒調下.

가지를 디와 납지 불에 살와 더운 술에 飮 먹으라.

가지의 잎과 줄기와 열매를 약성이 남게 함께 태워서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다.

木通去皮節五錢, 水煎, 空心日常服.

목통을 껍질과 마디를 바리고 닛 돈 중을 다려 공심에 장복하라.

목통(껍질과 마디를 제거한 것) 5돈을 물에 달여서 빈속에 늘 먹는다.

白蒺藜一兩, 桃花 紅鳳仙花 紅花 各七錢, 沈香三錢. 右細末調合, 分十封. 黑雪糖二錢, 童便一甫兒, 調和一封式, 空心調下.

백질려 1냥, 복숭화싹, 붉은 봉선화, 홍화 각 일곱 돈 중, 침향 서 돈 중을 작말하야 섯거 열 봉을 만드려 흑설당 두 돈 중과 동변 1호 보에 飮 혼 봉식 공심에 먹으라.

백질려 1냥, 복숭아꽃 봉선화(붉은 것) 홍화 각 7돈, 침향 3돈.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고 섞어서 10봉지로 나눈다. 1봉지씩 흑설당 2돈과 함께 동변 1보시기에 타서 빈속에 먹는다.

腰脅疼 혈이와 갈비디 압흔 디 | 요협통

宜定痛散. 蘿菴子一錢五分, 蒼朮 陳皮 厚朴 各一錢, 吉更 只角 白芥子 川芎 各七分, 杏仁 唐木香 甘草 各五分, 薑五片, 一二貼, 卽效.

정통산. 나복조 혼 돈 오피, 창출 진피 후박 각 혼 돈, 길경 기각 박기자 천궁 각 칠푼, 행인 당목향 감초 각 오피, 싱강 다섯 점 다려 먹으되, 혼두 첩이면 즉효.

정통산(定痛散)을 쓴다. 나복자 1돈 5푼, 창출 진피 후박 각 1돈, 길경 지각 백개자 천궁 각 7푼, 행인 당목향 감초 각 5푼. 이상의 약재에 생강 5쪽을 넣고 달여 먹는데, 1-2첩을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皮部 피부 |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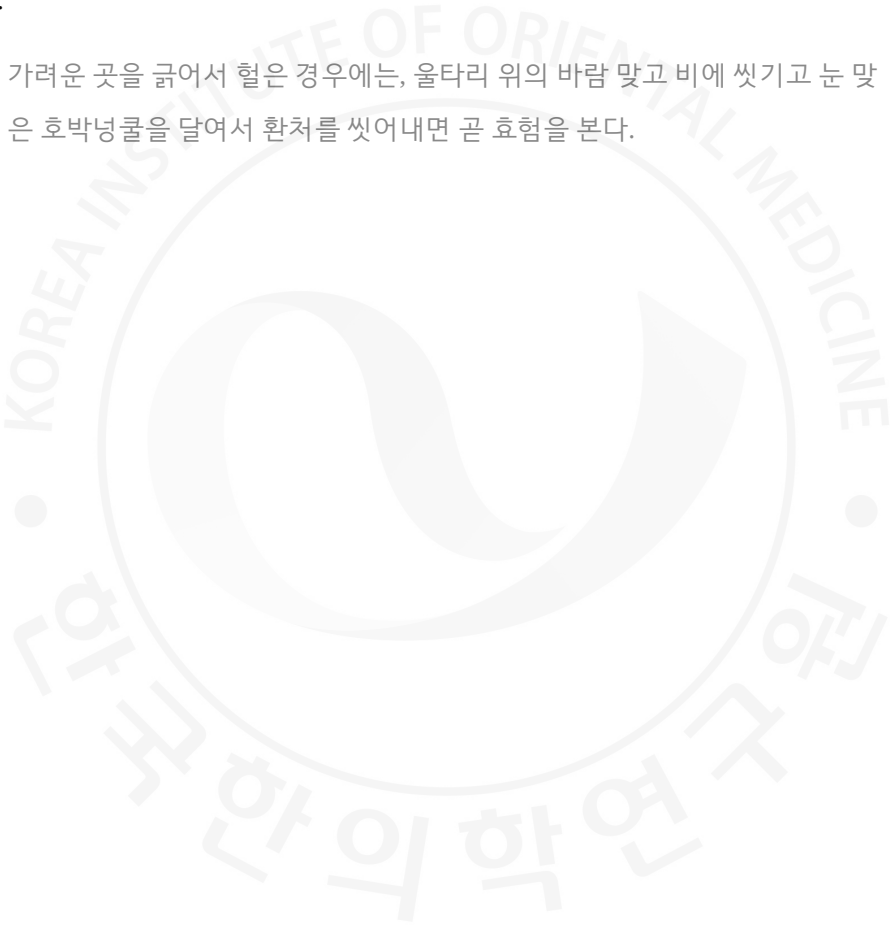


皮風癢 피풍으로 긁여온 디 | 피풍으로 가려운 경우

搔痒成瘡, 取籬上風磨雨洗雪洒南爪蔓, 煎洗, 卽效.

긁여워 긁어서 흔데된 디, 울췌리의 묵은 호박넉출 비바람 마진 것을 다려 씨치면 즉 효.

가려운 곳을 긁어서 혈은 경우에는, 울타리 위의 바람 맞고 비에 씻기고 눈 맞은 호박넉쿨을 달여서 환처를 씻어내면 곧 효험을 본다.



風丹 풍단 | 풍단

取龍葵并根, 濃煎洗之, 付其滓.

가마중이디를 쏘이 치 다려 씻고 그 건지를 부치라.

가마중을 뿌리 채 진하게 달여서 씻어내고 그 찌꺼기를 붙인다.

焰硝水, 塗之, 卽效.

염초를 물에 ½ 발르면 즉효.

염초 탄 물을 바르면 곧 효험을 본다.

信石 紅靈砂 等分, 和眞油塗之.

비상과 영사를 등분하여 참기름에 지여 발느라.

비상 홍영사 각각 같은 양을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雄馬糞, 溫水取汁, 淋洗之.

숫말의 똥을 더운 물에 집니여 씨치라.

숫말의 똥을 따뜻한 물로 즈내어 환처를 씻어낸다.

昆布或甘藷, 浸潤付之.

곤포나 흑 메역을 축여 부치라.

다시마나 미역을 물에 축여서 붙인다.

靑魚或銀口魚鹽汁, 神效.

청어 젓국이나 은구어 젓국을 자주 발느라. 단독에도 신효.

청어 젓국이나 은어 젓국을 바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丹毒 단독 | 단독

無論老幼, 取寒水石 芒硝, 溫水磨之, 淋洗付之, 神效. 以差爲準. 經驗.

늑은이 어린이 무론하고 한수석 망초를 더운 물에 곁아 부치면 신표.

늑은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한수석 망초를 따뜻한 물에 곁아놓고 환처를 씻어낸 뒤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나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 이 처방은 경험방이다.



黠駁 얼우럭이 | 어우러기

阿魏 皂角 等分, 煎服, 即效.

아위와 조각조를 등분하여 다려 먹으면 즉효.

아위 조각자 각각 같은 양을 달여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取硫黃末, 和薑汁, 略去薄皮, 塗之, 神效.

유황 곱우를 강집에 타 당처를 좀 굽고 발르면 신평.

유황 가루를 생강즙에 탄 뒤, 환처를 대충 굽어내고 바르면 신평한 효험이 있다.

大黑子 무사마귀 | 무사마귀

取生太一介, 置黑子傍, 以筆濡墨, 点黑子, 仍又点太, 埋于汚濕處, 早晚生苗, 灌以熱水, 苗死則痣消. 又以縣花初開花磨之, 則神效.

콩 흰 기를 무사마귀 옆에 놓고 붓에 먹을 찍어 사마귀에 점 찍고, 또 콩에 점 찍어 그 콩을 시궁치에 못었다가 싹이 늦거든 썰는 물을 부어 싹이 죽으면 사마귀도 죽는니라. 또 면화 처음 핀 꽃을 문디면 떨어지나니라.

생콩 1알을 무사마귀 옆에 놓고 붓에 먹을 묻혀서 무사마귀에 점을 찍고, 또 콩에 점을 찍은 뒤 더럽고 습한 곳에 묻고 나서 얼마간 지나서 싹이 나면 뜨거운 물을 붓는데, 싹이 죽으면 무사마귀도 사라진다. 또 갓 핀 목화로 문지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癭瘤 흑난디 | 흑

海藻 草龍膽 昆布并酒洗 海粉 木通 貝母(薑炒) 枯礬 松蘿 麥芽 半夏麴 各七分. 煎服.

해조, 초롱담, 곤포, 해분, 목통, 패모 강초훈 것과 고빅반, 솔나무에 얼킨 담정이넌
출, 믹아 반하국 각 칠 푼 중을 다려 먹으라.

바닷말 초롱담 곤포(모두 술로 씻은 것) 해분 목통 패모(생강즙에 볶은 것) 백
반(구운 것) 송라 맥아 반하국 각 7푼.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먹는다.

宜十六味流氣飲, 依本方用.

십육미류기음을 의본방하야 쓰라.

십육미유기음(十六味流氣飲)¹을 본방대로 쓴다.

¹. 십육미유기음(十六味流氣飲) : 허준, 《동의보감》〈외형편〉 유(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십육미유기음. 내암을 치료한다. 자소엽 1돈 반, 인삼 황기 당귀 각 1돈, 천궁 육계 후박 백지 방풍 오약 빈랑 백작약 지각 목향 감초 각 5푼, 길경 3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청피 1돈을 넣고 물에 달여 먹는다." (十六味流氣飲. 治癰巖. 紫蘇葉一錢半, 人參 黃芪 當歸 各一錢, 川芎 肉桂 厚朴 白芷 防風 烏藥 檳榔 白芍藥 枳殼 木香 甘草 各五分, 桔梗三分. 右剉, 作一貼, 加青皮一錢, 水煎服.) ↩

癰疹 두둘억이 | 두드러기

樺皮七錢煎服. 或燒存性, 蜜水調服.

벗나무 껍질 일곱 돈 중을 다려 먹으라. 혹 불살너서 꿀물에 타 먹느니라.

자작나무 껍질 7돈을 달여서 먹는다. 혹은 약성이 남게 태워서 꿀물에 타서 먹는다.

竹葉一握, 滑石五分, 煎服. 或清心丸調服. 又生葛腰膚間常帶, 卽效.

디넙 혼 줌, 활석 오 푼 중을 다려 먹으되, 혹 청심환¹을 타 먹기도 하고, 또 싱갈을 살허리에 싣면 즉효.

죽엽 1줌, 활석 5푼을 달여서 먹는다. 혹은 청심환을 타서 먹는다. 또 생침을 허리 살에 늘 두르고 다니면 곧 효험을 본다.

¹. 청심환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청심환'의 오기인 듯하다. ↪

手足部 슈족부 | 수족부



肩臂痛 억씨와 팔 압푼 디 | 어깨와 팔이 아픈 경우

海桐皮, 每日煎茶, 常服, 神效.

엄나무 껍질을 다려 장 먹으라.

엄나무 껍질을 매일 차로 달여서 늘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陳皮一錢四分, 厚朴薑製二錢, 四五次煎服, 神效.

진피 한 돈 너 푼, 후박 강제히서 두 돈 중을 스오츠 다려 먹으라.

진피 1돈 4푼, 후박(생강즙에 담갔다가 말린 것) 2돈을 4-5차례 달여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雙和湯本方, 加羌活 防風 桂枝 天麻 各一錢, 知母 黃柏 各五分, 食後煎服, 神效.

쌍화탕 본방에 강활 방풍 계지 천마 각 한 돈, 지모 황백 각 오 푼을 가입하여 식후에 다려 먹으라.

쌍화탕(雙和湯)¹ 본방에 강활 방풍 계지 천마 각 1돈, 지모 황백 각 5돈을 더하여 식후에 달여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¹. 쌍화탕(雙和湯)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허로(虛勞)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쌍화탕. 마음과 힘이 모두 피로하고 기혈이 모두 상하거나, 성교를 한 후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한 후 성교를 하거나, 큰 병을 앓은 후 허로가 되거나, 기가 허하여 자한이 있는 증상을 치료한다. 백작약 2돈 반,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각 1돈, 계피 감초 각 7푼 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雙和湯. 治心力俱勞, 氣血皆傷, 或房室後勞役, 或勞役後犯房, 及大病後虛勞, 氣乏自汗等證. 白芍藥二錢半, 熟地黃 黃芪 當歸 川芎 各一錢, 桂皮 甘草 各七分半. 右剉, 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



脚氣痛脬 다리 아프고 분 디 | 각기로 아프고 부은 경우

菁根煎爲頻洗, 卽效.

무를 살마 죽조 씨스라.

| 무를 달여서 자주 씻어주면 곧 효험을 본다.



四肢痛 손지가 압푼 디 | 사지가 아픈 경우

牛膝 威靈仙 各五錢, 薑三片, 木瓜二片, 煎爲常服.

우슬 위령선 각 닛 돈, 싱강 삼편, 목과 두 쪽을 다려서 장 먹으라.

| 우슬 위령선 각 5돈에 생강 3쪽과 모과 2쪽을 넣고 달여서 늘 먹는다.



肩臂疼 견비통 | 어깨와 팔이 아픈 경우

取陳鷄一首, 去腸, 入附子一兩, 濃煎服. 或入蔘桂, 尤好. 限十次試之, 神效. 莫過於此而不可責之速效. 附子入鷄, 不敢肆毒.

묵은 닭 한 마리를 내장을 꺼내고 부자 한 량 중을 넣어 진하게 달여서 먹으되, 인삼과 계피를 가입하면 더욱 조하니, 십여차 먹으면 신평. 닭이 부자독을 제하니라.

묵은 닭 1마리를 잡아 내장을 꺼내고 부자 1량을 넣어 진하게 달여서 먹는다.
혹은 인삼과 계피를 넣으면 더욱 좋다. 최대 10차례까지 이렇게 하여 먹으면
신평한 효험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으며 몹시 빠른 효험을 기대해서
는 안 된다. 부자를 닭에 넣으면 독성이 발휘되지 않는다.

脚氣疼 각기 | 각기로 아픈 경우

取朽松¹裹¹白蟲, 吞三介數次, 效.

썩은 소나무 속에 흰 벌레를 세 기식 수초 삼키면 즉효.

썩은 소나무 속의 흰 벌레를 잡아 3마리씩 여러 차례 먹으면 효험을 본다.

蘿菴煎沸浴之.

무를 삶어 씨치라.

무를 끓여오를 때까지 삶아서 환처를 씻어낸다.

生栗一斤, 蒸熟, 懸透風處, 冷乾, 每日空心食十顆.

싱을 훈 근을 찌서 바람땀이에 달아 차게 말녀 날마다 공심에 열 기식 먹으라.

생밤 1근을 찌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서 차게 말린 뒤, 매일 빈속에 10개씩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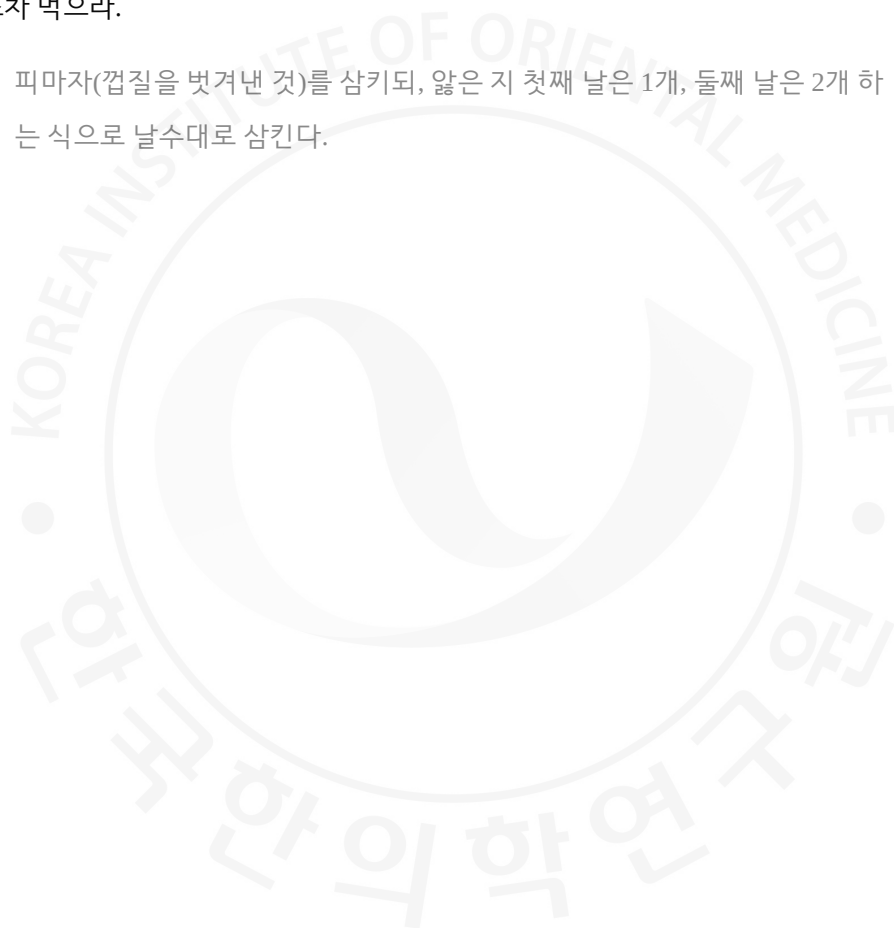
1. 裹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裹'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便毒 같이뿔 | 가래뿔

取皮麻子香下, 自疹日計之, 一日則香一介, 二日則香二介. 去殼用之.

피마즈를 싸서 시통헌 지 할오여든 헌 기를 먹고, 잇흘이여든 두 기를 먹고, 날슈를 조차 먹으라.

피마자(껍질을 벗겨낸 것)를 삼키되, 앓은 지 첫째 날은 1개, 둘째 날은 2개 하는 식으로 날수대로 삼킨다.



足贅 티눈 | 티눈

刮去贅肉, 取蛤蟹乾末, 貼于刮處, 糊紙緊封, 自消而拔根.

조기 속에 잇는 게를 말녀 작말햏야 티눈을 굵고 부치면 발근되느니라.

조개 속에 사는 게를 말려서 가루 낸 뒤 티눈을 도려내고 티눈 도려낸 곳에 가루약을 붙이고 종이에 풀칠하여 밀폐시키면 티눈이 저절로 사라지고 뿌리가 뽑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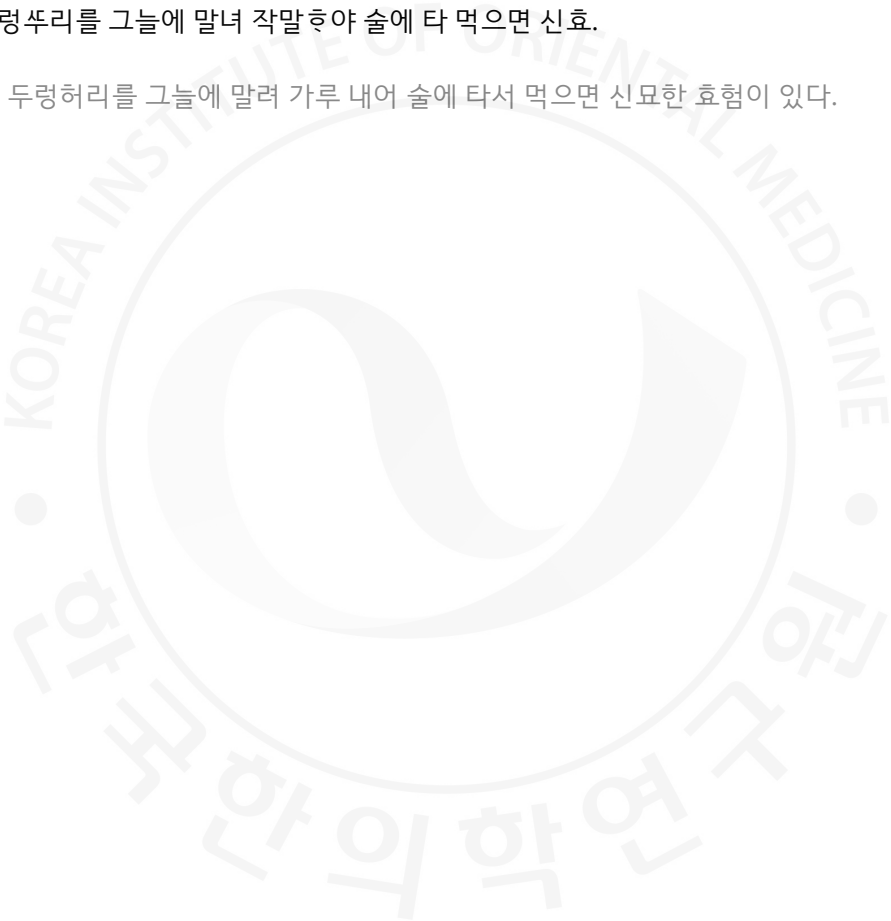


風溫脚疼 풍습으로 다리 알는 디 | 풍온으로 다리가 쭈신 경우

鱧魚陰乾, 末, 酒調下, 神效.

두렁꾸리를 그늘에 말녀 작말하야 술에 타 먹으면 신탈.

두렁허리를 그늘에 말려 가루 내어 술에 타서 먹으면 신탈한 효험이 있다.



水腫脚 수종다리 | 수종다리

氣衝穴艾灸三七壯, 神效. 灸之則無不祛根, 後不復發.

긁충혈을 이십일장만 씌면 신효.

기충혈에 21장 쑥뜸을 뜨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뜸을 뜨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없고, 뒷날 재발하지도 않는다.



前陰部 전음부 | 전음부



疝症 산증 | 산증

沙蔘課日煎服. 或作末和酒水間服之. 或煮食長服.

더덕을 다려 장복하고, 작말하야 술이나 물에나 타 먹고, 구어서도 먹어 장복하라.

더덕을 매일 달여서 먹는다. 혹은 가루 내어 술이나 물에 타서 먹는다. 혹은 구워서 장복한다.

木花¹ 莖未經霜者并根, 水煎, 每朝服二甫兒.

면화디 설이 맞기 전에 뿌리 채 다려 날마다 식전에 두 보식이식 먹으라.

서리 맞기 전의 면화 줄기를 뿌리 채 물에 달여 매일 아침 2보시기씩 먹는다.

¹. 木花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棉花'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陰痒 신랑이 가려온 디 | 성기가 가려운 경우

白礬湯水, 浸兩足, 神效.

빅반 다린 물에 두 발을 담그면 신평.

백반 달인 물에 두 발을 담그면 신평한 효험이 있다.

梧桐枝葉, 煎水, 限差洗之.

오동나무 가지와 잎을 다려 닦도록 씨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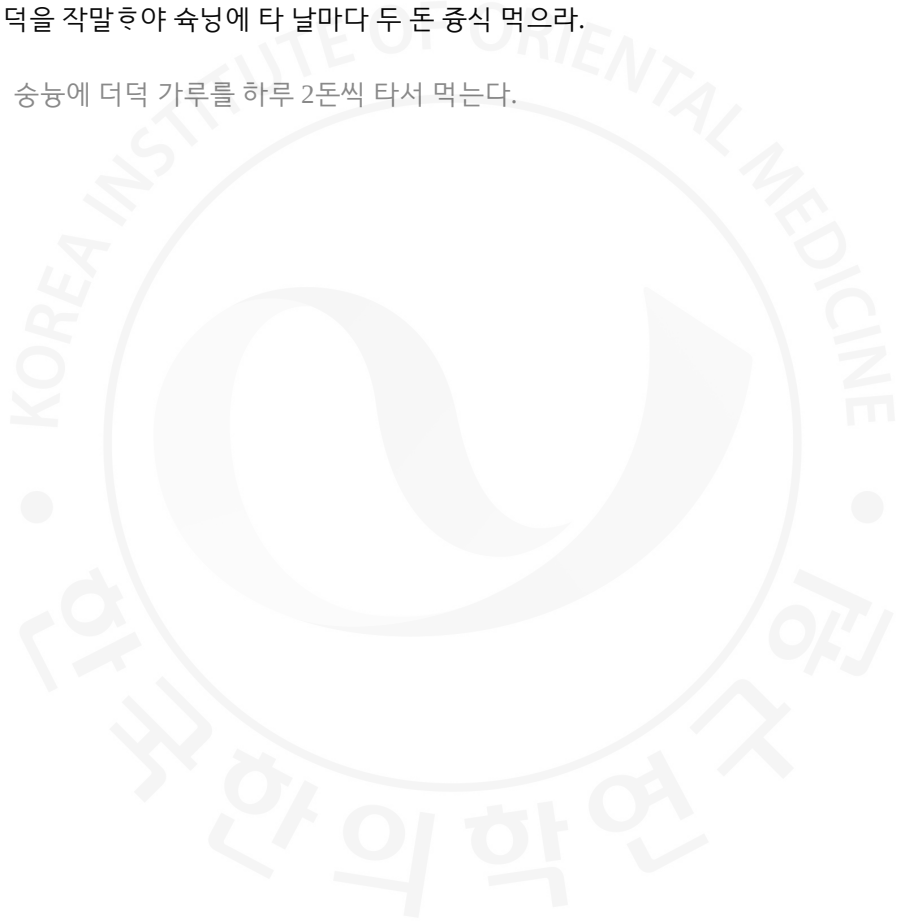
오동나무의 가지와 잎을 물에 달여 나을 때까지 씻어준다.

兩陰間痒 신랑과 황문 두 시이가 가려온 디 | 전음과 후음 사이가 가려운 경우

沙蔘末, 調熟冷水, 日服二錢.

더덕을 작말하야 속닝에 타 날마다 두 돈 증식 먹으라.

| 승능에 더덕 가루를 하루 2돈씩 타서 먹는다.



腎囊浮腫 신랑이 부은 디 | 음낭이 부은 경우

茄子莖, 燒灰水浸洗之.

가지 디 지물로 씨치라.

| 가지 줄기를 태워서 재를 내어 물에 담근 후 환처를 씻어낸다.

燒紅蛤毛, 和眞油塗之.

홍합털을 살와 참기름에 지여 발느라.

| 홍합의 족사(足絲)를 불살라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碧梧桐枝, 煎洗之.

벽오동 가지를 다려 씨치라.

| 벽오동 가지를 달여서 환처를 씻어낸다.

後陰部 후음부 | 후음부



脫肛 탈항증 | 탈항

蓼苳湯, 依本方, 加赤石脂 龍骨 阿子皮¹ 各五分, 限數十貼, 煎服.

삼기탕 본방에 적석지 용골 가자피 각 오푼씩 가입하여 한 수십첩 먹으라.

삼기탕(蓼苳湯)² 본방에 적석지 용골 가자피(訶子皮) 각 5푼을 더하여 최대 수십 첩까지 달여서 먹는다.

砂仁 木賊 黃連 各一兩, 作末, 散丸間, 頻服溫水. 若丸則以糊作丸.

쑤인 목적 황련 각 한 량 중을 작말하여 가루든지 환을 만들든지 더운 물에 먹으되, 환약을 만들면 풀노 만들느.

사인 목적 황련 각 1냥을 가루 내어 산제(散劑)나 환제로 따뜻한 물에 자주 먹는다. 만약 환을 빻어 먹는다면 풀로 환을 빻는다.

面塗粉, 泥於水, 頻洗肛門, 塗於當處. 如此久則漸縮去根.

발늑는 분을 물에 기서 당처에 발으라.

얼굴에 바르는 분을 물에 갠 뒤 자주 항문을 씻어내고 발라준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점차 항문이 들어가고 재발하지 않게 된다.

1. 阿子皮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訶子皮'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삼기탕(蓼苳湯)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진액(津液)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삼기탕. 자한을 치료한다. 황기(꿀에 축여 볶은 것) 인삼 백출 백복령 당귀 숙지황 백작약(술에 축여 볶은 것) 산조인(볶은 것) 모려분 각 1돈, 진피 7푼, 감초 2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대추 2개, 부소맥 1줌, 오

매 1개와 함께 달여 먹는다."(參芪湯. 治自汗. 黃芪蜜炒 人參 白朮 白茯苓 當歸 熟地黃 白芍藥酒炒 酸棗仁炒 牡蠣粉 各一錢, 陳皮七分, 甘草二分. 右剉, 作一貼, 棗二枚, 浮小麥一撮, 烏梅一箇, 同煎服.) ↩



脫肛 밧구멍 싸지는 디 | 탈항

皮麻子四十九介, 爛研作餅, 貼頂上, 收上如神.

피마자 스십구 톨을 눈도흐야 정수리에 부치면 신희.

피마자 49개를 문드러지게 갈아서 떡처럼 만들어 정수리에 붙이면 항문이 들어가는 데에 신포하다.

取冶壚浸鉄水熏之, 神效.

풀무간의 쇠 담근 물로 김을 쏘이면 신희.

대장간에 쇠 담근 물로 항문에 김을 쏘이면 신포한 효험이 있다.

鼈頭, 燒存性, 付肛門上, 神效.

자라 머리를 불살와 항문에 부치면 신희.

자라 머리를 약성이 남게 태워서 항문에 붙이면 신포한 효험이 있다.

松茸, 濃煎, 日三熏洗. 又爛搗, 入眞油少許, 作餅, 溫付連日, 卽愈.

송이를 진하게 다려 날마다 세 번씩 씨치라. 또 눈도흐야 참기름을 조금 너어 썩 민 들어 더웁게 부치면 족초.

송이버섯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3차례 김 쏘이고 씻어낸다. 또 문드러지게 찼어서 참기름 약간을 넣고 떡처럼 만들어서 며칠 연이어 따뜻할 때 붙이면 곧 낫는다.

肛門痒 황문이 가려온 디 | 항문이 가려운 경우

蛇床子或苦蔘, 煎水, 入白礬, 洗之.

사상조나 혹은 고삼을 다려 백반을 타 써치라.

| 사상자나 고삼을 물에 달여서 백반을 타서 씻어낸다.



大孔疼 뽕궁기 압흔 디 | 항문이 아픈 경우

木香 黃芩 黃連 乾干炒 等分, 煎服.

목향 황금 황련 건강 초햐 각 등분햐 다려 먹으라.

목향 황금 황련 건강(볶은 것) 각각 같은 양을 달여서 먹는다.

使君子 蓮肉(留心) 山藥 半生半炒 等分, 入陳倉米, 煎服.

스군즈련육심 빼지 말고 산약 반싱반초햐 각 등분햐 묵은 쌀과 함식 다려 먹으라.

사군자련육(심을 빼지 않은 것) 산약(반은 생것을 쓰고 반은 볶은 것을 쓴다)

각각 같은 양에 묵은 쌀을 넣고 달여서 먹는다.

瘡癰門 창종문 | 창종문



勿論某瘡 물논 모종기 하고 | 온갖 종기

初發時, 以醋作膏, 頻塗當處. 連珠瘰癧, 無不神效.

조흔 초를 한 스발만 불에 다려서 흰 종조짐 되거든 두고 조조 바르라.

처음 생겼을 때 식초로 고약을 만들어 환처에 자주 바른다. 연주창과 나력창에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白礬塊, 火上熏, 執勝溫, 瘡處頻頻煮之, 效.

백반 덩이를 불 위의 쏘여 덥거든 부스럼을 조조 누르라.

백반 덩어리를 불에 찌었다가 따뜻할 때에 집어서 환처를 자주 지지면 효험을 본다.

破瘡處 파종된 디 | 터진 종기

射干作末, 頻摻之, 神效.

범에부치 뿌리를 작말햏야 조쵸 쑤이라.

| 시간을 가루 내어 자주 뿌려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背瘡 등창 | 등창

狗肝作片, 厚付瘡處, 去舊生新. 若狗肝腐則尤好. 以差爲度.

개간을 두텁게 썰어서 부치라.

개의 간을 납작하게 썰어서 두텁게 환처에 붙이면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돌아난다. 개의 간이 썩은 것이면 더욱 좋다. 나을 때까지 붙인다.

雪綿子, 量其瘡處而作片, 其上黑荏子嚼而厚布其上, 又以雪綿子覆之, 以手^로¹壓之, 則如圓餅形. 付之當處, 去舊生新. 以差爲度.

설면조를 종쳐만치 조각을 만들고 그 위에 흑임조를 씹어서 늦코, 또 설면조로 덮고 손으로 누르면 전병쪽 갓치 될 터이니, 그것슬 당처에 부치면 거구싱신 헉느니라.

환처의 크기를 재어 풀솜을 그 크기만큼 조각내고 그 위에 검정깨를 씹어서 두텁게 덮고, 또 풀솜으로 덮고 손으로 누르면 전병처럼 된다. 이것을 환처에 붙이면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돌아난다. 나을 때까지 붙인다.

眞末糊, 去舊生新. 背瘡第一.

밀가루 풀을 자조 바르라.

밀가루로 쑨 풀은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돌아나게 한다. 등창에 제일 좋다.

¹. 로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연문으로 보인다. ↩

下疳瘡 하감창 | 하감창

黑鉛二錢, 水銀一錢二分熔火, 寒水石一錢七分, 經粉一錢二分, 礪砂五分, 枯白礬三分. 右爲細末, 先以藥艾湯, 洗其當處後, 藥末摻之頻頻.

거문납 두 돈, 슈은 한 돈 두 푼, 한수석 한 돈 칠 푼, 경분 한 돈 두 푼, 붕스 오 푼, 고백반 서 푼, 합햐야 작말햐되 납과 슈은은 사로 싸서 납을 불에 녹이고 슈은을 납의 타서 서로 합햐야 지가 되거든, 다른 약과 함궤 작말햐야 약쑥 다린 물노 당쳐를 씻고 약가루를 뿌리되 자주 햐라.

흑연 2돈, 수은(불에 녹인 것) 1돈 2푼, 한수석 1돈 7푼, 한수석 1돈 7푼, 경분 1돈 2푼, 붕사 5푼, 백반(구운 것) 3푼.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놓고, 우선 약쑥 달인 물로 환처를 씻은 뒤 약 가루를 자주 뿌려준다.

痔疾 치질 | 치질

鮓魚大者三介, 燒存性, 細末摻之. 濕則乾摻, 乾則調眞油塗之, 神效.

부어 큰 걸로 세 마리를 불에 살너 당처에 뿌리되, 병처가 마르면 기름에 지서 바르고 습한거든 그냥 뿌리라.

큰 붕어 3마리를 약성이 남게 태워 곱게 가루 내어 환처에 뿌린다. 환처가 습한 경우에는 마른 가루를 뿌리고, 환처가 건조한 경우에는 참기름에 개어서 발라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乾薑三錢式, 日再煎服十貼, 神效.

건강 서 돈 중식 하로 두 번식 달여 먹으면 신표.

건강 3돈씩 하루 2차례 달여서 10첩을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面塗粉, 和淸頻塗, 神效.

발으는 분을 꿀에 지어서 조쥬 발리라.

얼굴에 바르는 분을 꿀에 개어서 자주 바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唐瘡 당창 | 당창

消毒丹. 輕粉二錢, 黃丹 石雄黃 石鐘乳粉 各一錢, 琥珀 青皮 乳香 沒藥 枯白礬 朱砂 龍腦 各五分, 唐麝香一分. 右細末, 糊丸梧子大, 每日空心北魚湯下十丸式. 若有口瘡, 則甘豆湯含之.

소독단. 경분 두 돈, 황단 석웅황 석종유분 각 한 돈, 호박 청피 유향 몰락 고벽반 주사 용뇌 각 오 푼, 당사향 한 푼을 합하여 작말하여 꿀에 한을 만들어 미일 북어탕의 열 기식 공심에 먹으라.

소독단(消毒丹)을 쓴다. 경분 2푼, 황단 석웅황 석종유(가루) 각 1돈, 호박 청피 유향 몰약 백반(구운 것) 주사 용뇌 각 5푼, 당사향 1푼.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꿀로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어 매일 빈속에 북어탕으로 10환씩 먹는다. 구감(口瘡)이 있는 경우에는 감두탕(甘豆湯)¹을 입에 머금는다.

¹. 감두탕(甘豆湯)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화(火)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흑두 2홉과 감초 2돈, 생薑 7조각을 물에 달여 먹는다. 이것을 감두탕이라 한다."(黑豆二合, 甘草二錢, 生薑七片, 水煎服, 名曰甘豆湯.) ↩

諸有根惡瘡 제악창근 박인 디 | 뿌리가 박힌 온갖 악창

生梨腐者, 作片付之, 拔根生新.

싱비 썩은 것을 작편^{하야} 부치면 근이 빠지고 싱솔이 났느니라.

생배 썩은 것을 납작하게 썰어서 붙이면 악창의 뿌리가 빠지고 새살이 돌아난다.

茄子勿論赤白者, 乾作末, 根處搽之, 拔根生新.

가지를 말녀 작말^{하야} 근 박인 디 뿌리면 곱 근이 빠지느니라.

가지(붉은 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다)를 말려서 가루 내어 악창의 뿌리가 있는 곳에 뿌려주면 뿌리가 빠지고 새살이 돌아난다.

大風瘡 문둥이 | 대풍창

取假梧桐(如桐而花若麵絲者), 剉斫, 濃煎服, 或洗.

가오동나무를 진하게 다려 먹고 씨치라.

가래나무(오동나무 비슷하지만 꽃이 국숫발 같은 것이다)를 썰어서 진하게 달여 먹거나 환처를 씻어낸다.

玄蓼 蒼朮 熟苴 蒼耳子 薏苡仁 白伏苓 各四兩, 末, 蜜丸, 每日滾水服. 重者三劑用之, 全愈. 戒房事.

현삼 창출 숙지황 창이주 의이인 백복령 각 넉 양증을 작말하야 꿀에 환 지여 날마다 더운 물에 먹으되, 중한 조는 세 제만 쓰면 낫나니 방로를 절금하라.

현삼 창출 숙지황 창이자 의이인 백복령 각 4냥을 가루 내어 꿀에 반죽하여 환을 빚어 매일 끓인 물로 먹는다. 증세가 위중한 자도 3제를 쓰면 완치된다.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凍瘡 겨울에 얼어 종긋 된 디 | 동창

冬節肥膚凍而成瘡, 則每冬復發, 下針出血, 更不見肆.

침으로 조와 피를 빼면 낫고 다시 복발되지 만나니라.

겨울철 살이 얼어 헐게 되면 겨울마다 재발하는데, 침을 놓아 피를 뽑아내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 된다.

松脂二兩, 黃蠟一兩, 共熬勻付之.

송진 두 량 중, 황밀 한 량 중을 썰어 부치라.

송진 2냥, 황랍 1냥을 잘 섞이도록 끓여서 붙인다.

暑疥瘡¹ | 땀띠

浸菜中瓜子, 刀割, 以其水頻塗, 卽差.

김치에 너은 외를 칼로 베어서 그 물을 자주 발르면 즉초.

김치 속의 오이를 칼로 베어 거기서 나온 물을 자주 바르면 곧 낫는다.

取水芹汁塗之.

미나리즙을 발느라.

미나리즙을 바른다.

青蒿煎湯洗之. 或棗葉煎洗, 尤好.

젼이썩을 다려 씻고, 흑 대초넙을 다려 씻치라.

청호 달인 물로 환처를 씻어낸다. 흑은 대추 잎 달인 물로 씻어내도 좋다.

1. 暑疥瘡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暑癩瘡'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濕瘡 습창 | 습창

蒼耳子, 燒存性, 和油付之, 卽效, 永不復作.

독소말이를 불에 솔와 기름을 개여 발르면 즉초.

창이자를 약성이 남게 태워 기름에 개어서 바르면 곧 효험을 보고 영영 재발하지 않는다.

蠶蠟烹水, 頻溫洗.

누에고치를 삶어 더웁게 씨치라.

누에고치 삶은 물을 따뜻하게 해서 환처를 자주 씻어낸다.

楮柳槐桃桑枝, 同煎淋洗.

닥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복숭아나무 뽕나무 가지울 함씩 다려 씨치라.

닥나무와 버드나무와 회화나무와 복숭아나무의 가지를 함께 달여서 환처를 씻어낸다.

頭瘡 머리 혼 디 | 두창

陳緣豆¹作餅付之.

묵은 녹두를 작말^ㅎ야 썩 민들어 부치라.

묵은 녹두를 떡처럼 만들어 붙인다.

忍冬蔓濃煎, 和生緣豆²末, 塗之.

인동 넝쿨을 다려 싱녹두 곱우를 지여 발느라.

인동 넝쿨을 진하게 달여서 생 녹두가루를 개어서 바른다.

白楊枝葉, 濃煎洗之, 以差準.

백양목 가지와 잎을 다려 씨치라.

백양목 가지와 잎을 진하게 달여서 씻어내되, 나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

1. 緣豆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緣豆'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緣豆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緣豆'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頭髮毒瘡 머리와 발제에 독종 난 디 | 머리와 머리카락 경계에 독종이 난 경우

石菖蒲末, 調醋塗.

석창포를 작말하야 초에 기여 발느라.

석창포 가루를 식초에 개어서 바른다.



髮疽 발저 | 발저

取只實煨火, 或牛骨或梅木, 作土堠, 燃燒其中, 熏其烟, 多多尤好. 疔瘡亦效. 乾柿剖之, 和唾津付之, 即效.

기실을 불에 굽고, 혹은 쇠뼈나 혹은 미화나무를 흙으로 아궁이를 만들고 숯으며 그 연기를 쏘이라. 정종에도 조흔이라. 건시를 썬귀여 이로 지근지근 씹어서 부치면 즉효.

지실을 불에 굽거나 혹은 쇠뼈나 매화나무를 굽되, 흙으로 아궁이를 만들고 그 속에서 불살라 그 연기를 쏘는데, 많이 불사를수록 좋다. 정종(疔腫)에도 효험이 있다. 곱감을 쪼개어 입에 넣고 지근지근 씹어서 침과 섞이게 하여 붙이면 효험을 본다.

髮疽腦瘡 발저와 뇌후종 | 발저와 머리의 종기

取蝦蟆一介去皮, 葱七本, 百草霜一匙. 全搗爲泥, 付之, 經夜, 卽效. 諸瘡結核, 無不效.

큰 기골이 흰 개를 거피하고 파 일곱 켤이와 안진 검정 흰 술을 흰 가지 눈도하여 부치고 할오 밤을 지니면 즉효.

두꺼비(껍질을 벗긴 것) 1마리, 파 7뿌리, 백초상 1술. 이상을 걸쭉해질 때까지 찼어서 붙이고 하룻밤을 지내면 곧 효험을 본다. 온갖 종기와 멍울에 효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初發七日內, 付食鹽.

시초한 지 일해 안에 소금을 부치라.

처음 앓은 지 7일 이내에 소금을 붙인다.

腦癰初發 뇌후종 시초에 | 머리의 종기가 처음 났을 때

利羅草葉搗付, 雖乾者亦效. 凡瘡癰付之全葉, 吸出惡汁.

이랄이풀 잎을 씨어 부치면 독기를 쏘어내느니라.

이라초(利羅草)¹의 잎을 찢어서 붙이는데, 마른 잎을 써도 효험을 본다. 온갖 창종에 온전한 잎을 붙이면 나쁜 즙을 빨아낸다.

付鼠腦, 以其皮裹之.

쥐의 히골을 부치고 그 가죽으로 싸미라.

쥐의 뇌를 붙이고 쥐의 가죽으로 싸맨다.

¹. 이라초(利羅草) : 다른 용례가 없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

腦癰成膿 뇌후종이 끓는¹ 디 | 머리의 종기가 끓은 경우

苦蔘 蒲公英 百年草, 燒存性. 黃蠟 松脂 人糞 人中白 眞油. 右先將蠟脂油融化後, 入右五味末, 和勻作膏付. 或乾柿嚙付.

고삼 할미들에 백년초를 다소 존성하고, 밀 송진 인분 오줌적 참기름을 먼저 밀과 송진과 기름을 섞이고 다섯 가지 락을 너어 고락 만들어 부치라. 혹 건시도 씹어 부치느니라.

고삼 포공영 백년초를 약성이 남게 태운다. 황랍 송진 인분 인증백 참기름. 우선 황랍 송진 참기름을 달여서 녹인 후, 고삼 등 5가지 약재를 넣고 잘 섞어 고약을 만들어서 붙인다. 혹은 곱감을 씹어서 붙인다.

¹. 끓는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끓는'의 오기인 듯하다. ↩

面瘡 얼굴에 종기는 디 | 면창

蠹斯, 燒存性, 和油塗之, 奇效.

뿔뿔이를 불에 숯과 기름에 지어 발르면 신평.

메뚜기를 약성이 남게 태워 기름에 개어서 바르면 신기한 효험이 있다.

燒取白楊瀝塗之, 奇效.

백양목을 불에 태와 진을 니여 발느라.

백양목을 태워서 진을 내어 바르면 기묘한 효험이 있다.

鉛粉一兩, 輕粉二分半, 猪油塗之, 日三次.

연분 1냥, 량중과 경분 두 푼 반증을 도야지 기름에 개여 할오에 세 번식 발느라.

연분 1냥, 경분 2푼 반을 돼지기름에 개어서 하루에 3차례 바른다.

壞爛流汁, 百藥不效, 臘猪油塗之.

허어져 진물 흘러 낫지 안는 디, 셋달에 잡은 도야지 기름을 발느라.

문드러져 진물이 흘러나오고 온갖 약이 듣지 않는 경우에는, 납일(臘日)에 잡은 돼지의 기름을 바른다.

耳瘡 귀 흔 디 | 귀가 헐은 경우

桑葉, 燒存性, 或末, 和猪脂塗.

뽕잎을 불에 솔나 도야지 기름에 지어 발느라.

뽕잎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 내어 돼지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牛膝爛搗付之, 收膿生肥.

우슬을 논도햐 부치라.

우슬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이면, 끓은 곳이 가라앉고 새살이 돋는다.

鼻瘡 코가 흔 디 | 코가 혈은 경우

菊花末五錢, 調井花水服.

국화 닛 돈 중을 작말햐 정화슈에 타 먹으라.

| 국화 가루 5돈을 정화수에 타서 먹는다.

狗耳血塗之. 瓜蒌仁五錢煎服.

기 귀를 베이고 피을 니여 발느라. 또 한울타리씨 닛 돈 중을 다려 먹으라.

| 개의 귀에서 피를 내어 바른다. 과루인 5돈을 달여서 먹는다.

牛涎常塗之.

쇠침을 항상 발느라.

| 소의 침을 늘 바른다.

針刺出血, 好.

침으로 조아 피를 니면 조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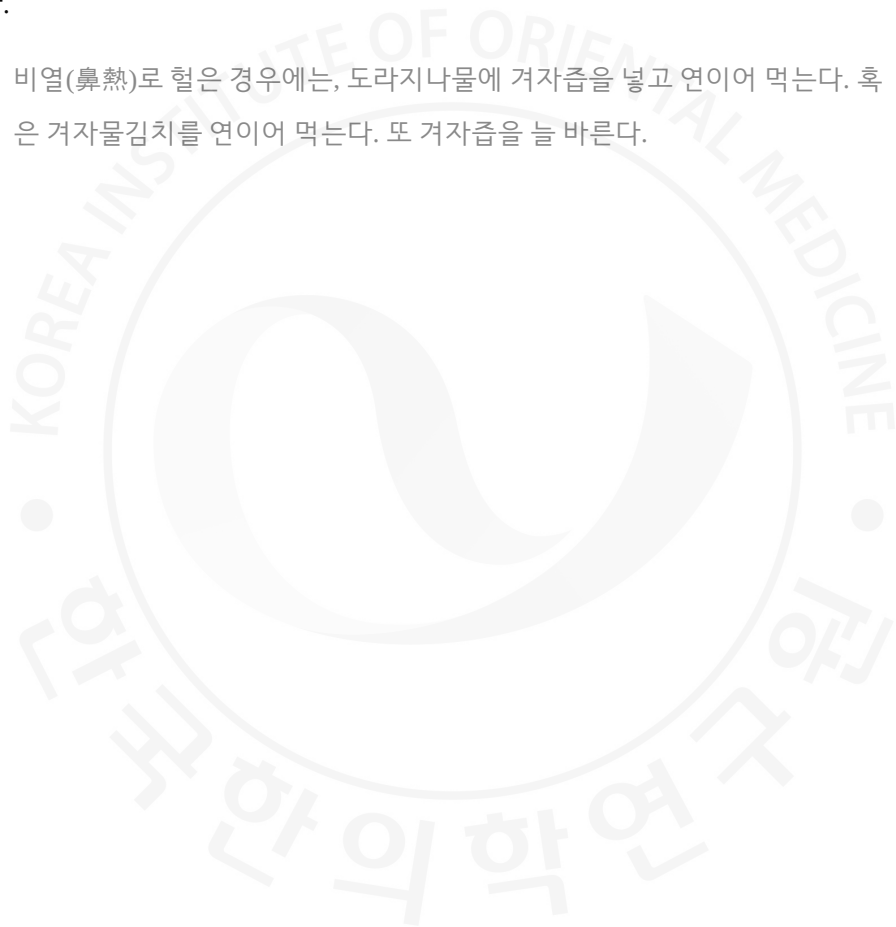
| 침으로 찔러 피를 내면 좋다.

鼻孔瘡 고궁기 흔 디 | 콧구멍이 헐은 경우

鼻熱成瘡, 吉更菜, 和芥子汁, 連服. 或連服芥菜水菹. 又芥子汁常塗.

돌아지나물에 계춥을 타 먹으라. 혹 계춥김치를 연복하고, 또 계춥을 항상 발느
라.

비열(鼻熱)로 헐은 경우에는, 도라지나물에 겨자즙을 넣고 연이어 먹는다. 혹
은 겨자물김치를 연이어 먹는다. 또 겨자즙을 늘 바른다.



鼻內瘡 고 속 흔 디 | 콧속이 헐은 경우

取北魚貫葛, 燒存性, 和眞油塗.

복어 썬든 측을 불술와 참기름에 지어 발느라.

| 복어를 꺾던 침을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取杏仁油塗之.

살구씨기름을 발느라.

| 행인 기름을 바른다.

口內瘡 입속 헐 디 | 입안이 헐은 경우

取黃柏皮煎水, 頻嗽之. 或潤醋飲之.

황경피를 다려 자조 물고, 혹 초에 담가 그 물을 먹으라.

황백피를 물에 달여서 자주 입을 행군다. 혹은 식초에 담근 뒤 그 식초를 마신다.

取白礬煎水, 嗽之.

백반을 다려 물나.

백반 달인 물로 입을 행군다.

口疳瘡 감창 | 구감창

取鷄子, 烹熟, 去白取黃, 炒至色紫, 蒸之炊飯, 取油塗之, 卽效.

계란을 삶어 흰조위는 발이고 노른조위를 নিয়ে 빻히 붉게 복거 밥숯 우에 써서 기름을 নিয়ে 발르면 즉효.

계란을 삶아서 흰자는 버리고 노른자를 자춧빛이 날 때까지 볶은 뒤, 밥 짓고 있는 밥솥에 써서 기름을 내어 바르면 곧 효험을 본다.

始初, 人中白 枯白礬 等分, 末, 搽之.

시초할 새, 오졸적과 고빅반을 작말혀여 뿌리라.

처음 앓을 때에 인중백과 백반(구운 것)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환처에 뿌린다.

取木上青蛙, 食之, 雖人中腐傷者, 生肥.

나무 위에 잇는 청기구리를 먹으면, 인중이 썩었셔도 시살이 나느니라.

나무 위에 사는 청개구리를 먹으면, 인중이 썩었더라도 새살이 돌아난다.

野棠根, 或白蓮草, 或蒲根, 或枳木, 濃煎含之.

히당화 쏘이느 혹 빅년초느 혹 부들쏘이느 혹 텅조나무를 다려 물나.

해당화 뿌리나 백련초나 부들 뿌리나 텅자나무를 진하게 달여 입에 머금는다.

烏梅, 燒存性, 枯白礬 等分, 末搽之.

오미를 불살와 작말혀고 고빅반을 등분혀야 뿌리라.

오매를 약성이 남게 태우고 같은 양의 백반(구운 것)을 가루 낸 뒤 섞어서 환처에 뿌린다.

黃柏五錢, 蘆薈一錢, 信石五分, 和勻末摻之.

황경피 닷 돈 중, 노회 한 돈 중, 비상 오 푼 중을 작말하야 뿌리라.

황백 5돈, 노회 1돈, 비상 5푼을 고루 섞어 가루 내어 환처에 뿌린다.



齒瘡 이몸이 썩는 디 | 치감

煮狗脂, 綿椎浸熱按之, 神效.

개기름을 삶여 솜방망이로 더웁게 지지면 신표.

개기름을 끓여서 뜨거울 때에 솜방망이를 담가 환처에 눌러주면 신표한 효험
이 있다.



舌瘡 허에 흔 데 나느 디 | 허가 혈은 경우

竹葉 茅根 各一握, 煎服.

디닙과 쉼쌀이를 다려 먹으라.

죽엽 모근 각 1줌을 달여서 먹는다.

金銀花茶水, 調牛黃服.

금은화 다린 물에 우황을 타 먹으라.

금은화를 차처럼 달인 물에 우황을 타서 먹는다.

糜爛¹, 海桐皮煎含.

허어진 디는 엄나무 껍질을 다려 물나.

혈어서 진무른 경우에는, 엄나무 껍질을 달여서 입에 머금는다.

狗胆常塗之. 狗砂, 尤好.

개 쓸개를 항상 발느라. 구사가 더욱 조흐니라.

개의 쓸개를 늘 발라준다. 구보(狗寶)도 좋다.

馬尿木葉, 含口, 神效.

말오줌나무잎을 입에 물면 신표.

말오줌나무²의 잎을 입에 머금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百草霜末, 調醋付.

안진 검정을 작말하야 초에 개여 부치라.

백초상을 가루 내어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1. 糜爛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糜爛'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말오줌나무 : 《동의보감》에서는 '삭조(蒺藳)'에 대해 "말오줌나무"라고 언해하고 있다. 삭조는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중국 문헌의 삭조와 국내에서 자생하는 말오줌나무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馬尿木"은 말오줌나무를 표기한 한국식 한자이다. 《향약구급방》에도 삭조에 대해 "俗云馬尿木"이라고 설명하였다. ↩



唇瘡 입살이 흰 디 | 입술에 종기가 난 경우

青魚鹽, 和白礬末, 拌作餅付之, 奇效. 疔瘡亦可.

청어젓국에 백반 곱우를 반죽하여 부치면 신효. 정농(疔腫)에도 쓸 수 있다.

청어젓국에 백반 가루를 개고 반죽하여 떡처럼 만들어 붙이면 기이한 효험이 있다. 정종(疔腫)에도 쓸 수 있다.

生芡爛搗付之. 或耳麥嚼付.

생지황을 논도하여 부치고, 흑 귀리를 씹어 부치라.

생지황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인다. 흑은 귀리를 씹어서 붙인다.

灸¹牛脅乘熱啗之, 唇灸而瘥.

쇠갈비를 구어 더웁게 먹으면 입살이 익어서 낫는다.

쇠갈비를 구어서 뜨거울 때 먹으면 입술이 익으면서 낫는다.

芭蕉根磨取汁, 頻塗之. 疳瘡亦可.

파초 쏙이를 집니여 자주 발느라.

파초 뿌리를 갈아서 즙내어 자주 바른다. 감창(疳瘡)에도 쓸 수 있다.

胡桐皮盛人糞付之, 穿孔, 艾灸三七壯.

호동피에 인분을 발너 부치면 구멍이 뚫니느니, 쑥으로 이십일 장을 쑤질하라.

호동나무 껍질에 인분을 담아서 환처에 붙이면 구멍이 생기는데, 이곳에 쑥뜸을 21장 뜬다.

- ¹. 𦵑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𦵑'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唇皰 입살이 불웃는 디 | 입술이 부르튼 경우

取牛肉生者, 作片, 溫火付之.

쇠고기를 점여 불에 쏘여 부치라.

쇠고기 날것을 납작하게 썰어서 따뜻해질 때까지 불에 쪄여서 붙인다.

白蘇皮, 炙熱付之, 最妙.

백선피를 불 쏘여 더웁게 부치라.

백선피(白鮮皮)를 불에 쪄여 뜨거울 때 붙이면 가장 좋다.

年久漿瓢子, 炙火熨之.

묵은 장 종골이를 불 쏘여 지리라.

오래된 물뜨는 바가지를 불에 쪄여 찜질한다.

頤下瘡 턱밑에 종괴 난 디 | 턱밑에 종기가 난 경우

多取忍冬葉, 和朴硝搗付.

인동넙과 박초를 함씩 씨어 부치라.

| 인동 잎을 많이 구해서 박초와 섞은 뒤 찌어서 붙인다.



連珠瘡 연주창 | 연주창

自耳邊繞項結核曰連珠.

귀밑해서 멍울이 서서 목에 도는 것이라.

귀밑에서부터 목을 둘러가며 멍울이 생기는 것을 연주창(連珠瘡)이라고 한다.

取好醋二沙鉢, 濃煎至一甫兒, 爲膏頻塗之, 小核自消. 或潰後付之, 祛惡生新.

조흔 초 두 사발을 다려 한 보 되게 고와 자조 발르면 멍울이 풀니고, 터진 후에 부쳐도 거악싱신 헉느니라.

좋은 식초 2사발을 1보시기가 될 때까지 진하게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자주 바르면 작은 멍울은 저절로 삭는다. 혹은 창(瘡)이 터진 뒤에 붙이면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돌아난다.

取舊墻灰 草麻子, 爛搗爲泥, 頻塗, 久則乃效.

구광터에 회반을 피마즈와 함씩 난도햐 조조 발르면 조흐니라.

오래된 광구의 석회와 피마자를 섞어서 문드러지게 찼어 걸쭉하게 만들어서 자주 바르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여야 효험을 본다.

取陳棗, 浸好醋潤之, 取肉和勻如膏付之, 乾則換之. 準差付之. 瘡核自消.

묵은 디초를 초에 담가 축여서 씨를 발으고 좇익여 고약 갓치 민드려 부치되, 말느거든 다시 부쳐 오리 하면 멍울이 풀니느니라.

묵은 대추를 좋은 식초에 담가 축인 뒤 씨를 발라내고 고약처럼 되도록 버무려 환처에 붙이되, 마르면 바꾸어준다. 나을 때까지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종기와 멍울이 저절로 삭는다.

細辛¹未¹, 和蜜付之, 作痂落之.

세신을 작말¹하야 술에 반죽²하야 부치면 싹지 안져 썩러지느니라.

세신 가루를 꿀에 개어서 붙이면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진다.

取唐墨一片, 以絲係之, 納于蟾口, 使之不吞不吐, 經一宿, 磨而塗之.

당먹 혼 도막을 실로 묶어 독겁이 입에 너어 싱키도 못하고 빗지도 못하게 하야 할오
밤 지낸 뒤에, 그 먹을 갈아 발느라.

당먹 1조각을 실로 묶어서 두꺼비 입속에 집어넣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게 하여 하룻밤을 지낸 뒤, 그것을 갈아서 바른다.

夏枯草莖葉, 取汁飲之, 付其滓.

하고초 디와 잎을 난도³하야 집니여 먹고 그 싹기를 부치라.

하고초의 줄기와 잎을 즈내어 마시고 그 찌꺼기를 붙인다.

百草霜 食鹽 等分, 炒黃, 烏雞骨, 燒存性末, 同入眞油和勻, 納瘡口屢次, 神效.

안진 검정과 소곰을 등분⁴하야 복거 오계의 싸를 불살나 작말⁵하야 함식 참기름에 개
여 창구에 너으면 신효.

백초상 소곰 각각 같은 양을 누렇게 될 때까지 볶아놓고, 오계의 싸를 약성이
남게 태운 뒤 가루 내어 앞의 약과 함께 참기름에 개어서 여러 차례 창구(瘡口)
에 넣어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胡燕一首, 燒存性, 空心和酒服三次, 雖極重有效.

명막이 혼 개를 불에 살나 작말⁶하야 공심에 술에 타 세 차례를 먹으라.

명마기(胡燕)² 한 마리를 약성이 남게 태워서 빈속에 술에 타서 3차례 먹으
면 증세가 몹시 위중하더라도 효험을 본다.

¹. 未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未'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명마기(胡燕) : 《동의보감》에는 다음과 같이 제비와 명마기를 구분하였다. 허준, 《동의보감》〈탕액〉 연시(燕屎) "연(燕)에는 2가지가 있으니 호연(胡燕)과 월연(越燕)이다. 자줏빛 가슴에 가볍고 작은 것이 월연(越燕, 제비)인데 약으로 쓰지 않는다. 가슴에 검은 반점이 있고 소리가 큰 것이 호연(胡燕, 명마기)인데 약으로 쓴다.《본초》"(燕有兩種, 有胡, 有越. 紫胸輕小者是越燕저비, 不入藥用. 胸斑黑, 聲大者, 是胡燕명마기, 入藥.)《本草》↩

癰癤 나력 | 나력

耳後結核, 漸至兩腋下, 或浮突或爛瘡.

귀 뒤에 멍울이 서서 겨드랑 아래로 촌촌 내려와 혹 쏸쏸하고 혹 성종되는 것이라.

귀 뒤쪽의 멍울이 점점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와 부어서 튀어나오거나 문드러져 허는 것이다.

百合根搗付, 朝夕改之, 以至多日, 核自拔去, 神效. 治癰癤第一方.

개느리 쑥이를 씨어 아침저녁으로 부치되, 여러 날 하면 신평. 나력에 제일 조흔 약이니라.

백합(百合)¹을 붙이되 아침저녁으로 바꾸어주면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면 멍울이 저절로 뿔힌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나력 치료에 가장 좋은 처방이다.

始發未膿核小, 艾灸, 妙.

시초하야 곱씨 안코 멍울이 적을 씨에 약쑥으로 쓰는 것이 조흔니라.

처음 앓아서 곱지도 않고 멍울이 작은 경우에는, 쑥뜸을 뜨면 좋다.

玄蓼三錢, 夏枯草二錢, 煎水長服, 必差.

현삼 서 돈 중과 하고초 두 돈 중식 다려 장복하면 낫느니라.

현삼 3돈, 하고초 2돈을 물에 달여서 장복하면 반드시 낫는다.

大戟 巴豆去油 滑石 各三分, 龍腦一分, 和勻付之.

대극 파두 활석 각 서 푼 중과 룡뇌 한 푼 중을 섞거 부치라.

대극 파두(기름을 뺀 것) 활석 각 3푼, 룡뇌 1푼을 섞어서 붙인다.

1. 백합(百合) : 참나리 또는 큰솔나리의 비늘줄기를 가리킨다. ↩



虎口瘡 범아귀 종괴 논 디 | 범아귀에 생긴 창종(瘡腫)

取狗生肉, 爛搗付之.¹

기고기를 날로 난도햐야 부치라.

개고기를 날것으로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인다.

¹. 取狗生肉, 爛搗付之. : '개'와 '게'의 발음 유사성에 기인한 전사 오류로 보인다. 《의취》에는 "호구창(虎口瘡)에는 살아있는 게를 찢어 붙이는데, 없으면 살아있는 해하자(蟹蝦子)(가재)를 찢어 붙인다. <주>"(虎口瘡, 生蟹搗付, 而如無, 生蟹蝦子(가\uf212)搗付. <舟>)라고 되어 있는데, 산 것을 문드러지게 찢는다는 표현으로 볼 때 개(狗) 보다는 게(蟹)가 더 적합하다. 발음의 유사성에 기인한 전사 오류로 보인다. 번역은 원문을 따랐다. ↩

蛇頭瘡 손가락 쏘헤 종괴 는 디 | 사두창

雄黃入鷄子內, 以病指浸其中一宿, 次早更以蜈蚣燒烟熏之一二次, 即消.

석웅황을 계란 속에 넣고 병든 손가락을 그 가운데 담겨 할오밤 지낸 뒤에, 진에를 불에 띄어 그 연기를 쏘이면 즉치.

웅황을 계란 속에 넣고 아픈 손가락을 그 속에 담고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진에를 태워 연기를 1-2차례 쏘면 곧 낫는다.

亂髮, 燒烟熏數日, 即消. 牛骨, 燒熏, 最奇.

머리털을 불살라 그 연기를 이삼 일 쏘이면 즉효. 혹 쇠뿔을 살라 그 연기를 쏘이면 더욱 조흐니라.

저절로 빠진 머리카락을 불살라 생긴 연기를 여러 날 동안 쏘면 곧 낫는다. 쇠뿔을 불살라 생긴 연기를 쏘는 것이 가장 좋다.

紅絲疔 홍사정 | 홍사정(紅絲疔)¹

手足間有黃疱, 其中忽紫黑色, 卽有一條紅絲逶迤血上而生. 若至心腹不救. 或生兩三條紅絲者, 急以針橫截紅絲, 至處刺之出血, 以膏藥貼之. 或嚼浮萍草根敷之, 立愈.

수족에 누른 정이 나며 그 속에 붉은 실 갇힌 줄기가 있느니, 만일 심복에 일으면 죽느니 급히 침으로 홍사 싯홀 조와 피를 빼고 고약을 부치라. 혹 말음풀 썰이를 부치면 족초.

손발 사이에 누른 수포가 생기고 그 속에 갑자기 자흑색의 한 가닥 붉은 실이 혈관 위에 구불구불 생겨난 것이다. 만일 이것이 명치로 들어가면 죽게 된다. 혹 2-3 가닥의 붉은 실이 생겼다면 급히 옆에서 침으로 붉은 실을 찢어 끊고 여기 저기 찢어서 피를 낸 뒤, 고약을 붙인다. 혹은 부평초 뿌리를 씹어서 붙이면 곧 낫는다.

¹. 홍사정(紅絲疔) : 왕유덕(王維德)의 《외과증치전생집》(淸, 1740)에는 홍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팔뚝이나 종아리에 붉은 선 같은 것이 한 가닥 생긴 것이다. 치료의 요체는 붉은 선의 양쪽 끝을 침으로 찢어주는데 있다. 독이 혈을 따라 나오면서 낫는다. 치료가 늦으면 독이 장위로 들어가 환자를 구할 수 없게 된다."(手小臂, 足小腿, 生如紅線一條者是也. 要在紅線兩頭始末刺破, 毒隨血出而愈, 遲則毒入腸胃不救) ←

手足指腫 손가락 발가락에 종기 난 디 | 손가락이나 발가락 에 종기가 난 경우

取鷄子穿孔, 納病指於其中, 自然卵熟因貼付, 自痊.

계란에 구멍을 뚫고 손가락에 끼여 두면 자연스럽게 계란이 말라붙어 낫는다.

계란에 구멍을 내고 아픈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그 속에 넣고 있으면, 저절로 계란이 익으면서 달라붙어서 저절로 낫게 된다.

取冬青葉, 燒存性, 和眞末糊付之.

동청나무잎을 불살나 밀갈우풀에 개여 부치라.

동청나무의 잎을 약성이 남게 태워 말가루로 쏘 풀에 개어서 붙인다.

取牛糞火熱之, 插病指, 冷則換之屢次.

쇠똥을 불에 구어 병든 손가락을 쏘되 식거든 시로 밧구라.

쇠똥을 불에 데워서 병든 손가락을 쏘되, 똥이 식으면 똥을 바꾸어주기를 여러 차례 한다.

手足掌心腫 수족 장심에 종기 난 디 | 손바닥 가운데나 발바닥 가운데에 종기가 난 경우

鵝掌風, 租糠油塗之, 卽效. 以差爲度. (生油法) 陶缸以厚紙封口, 以針亂刺紙面, 多作細孔後, 積糠紙上, 以火燒之, 幾盡燒時, 掃灰開紙, 則油在器中.

손바닥 현 디, 벼왕겨 기름을 발르면 즉효. (기름 니는 법)은, 옹박이를 독거운 조희로 입을 봉하고 침으로 조희를 송송 쏘어 쌍에 뚫고, 조희 우에 겨를 만히 덮고 불 피워서 거의 다 탈만 하거든, 지를 쏘고 조희를 쏘고 보면, 그릇 밋헤 기름이 잇느니라.

아장풍(鵝掌風)에는 왕겨의 기름을 바르면 곧 효험을 본다. 나을 때까지 발라준다. (기름 짜는 법)은 다음과 같다. 질항아리 주둥이를 두꺼운 종이로 봉하고 침으로 종이를 어지러이 찢어서 작은 구멍을 많이 낸 뒤에, 왕겨를 종이 위에 쌓아 불을 내어 태운다. 거의 다 탔을 때 재를 쓸어내고 종이를 개봉하면 질항아리 속에 기름이 있다.

川椒 食鹽 各等分,

천초와 소금을 등분하여 물에 개여 부치라.

천초 소금 각각 같은 양을 물에 개어서 붙인다.

手足瘡 수족에 종기 는 디 | 손이나 발의 종기

浮高紅潤, 將至成瘡, 米糊付之, 不膿而痊.

부어올으며 붉은 빛 나서 성종할 듯 헉거든 쌀풀을 되게 쑤어 부치면 곰씨 안고 낫는
니라.

부어오르고 붉고 윤기가 있으며 종기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쌀로 쑨 풀을
붙이면 굼지 않고 낫는다.

取猪蹄一介, 葱百¹十本, 濃煎, 入鹽少許, 頻洗之.

도야지발 한 개와 파 열 켤이를 다려 소금 조금 넣어 즈조 씨치라.

돼지 발굽 1개, 총백 10뿌리를 진하게 달여 소금 약간을 넣고 자주 씻어낸다.

1. 葱百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葱白'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

背瘡 등창 | 등창

取河豚卵, 末摻之, 付膏藥, 根死而愈. 又眞末糊付之, 神效.

복어의 알을 작말하야 썰리고 고약을 붙쳐두면 근이 죽어 낫느니라. 또 밀가루 풀을
쑤어 부치면 신호.

복어의 알을 가루 내어 환처에 뿌리고 고약을 붙여두면 뿌리가 죽어서 낫게 된
다. 또 밀가루로 쑤 풀을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始發, 剖生茄子付之. 乾者調而付之.

시초할 씨, 싱가지를 싸구여 부치고, 말는 가지여든 물에 불려 부치라.

처음 앓을 때에 생 가지를 쪼개어 붙인다. 마른 가지의 경우에는 물에 불려서
붙인다.

始發, 結核, 艾灸.

시초할 씨, 멍울이 셔거든 약쑥으로 쑤질 하라.

처음 앓을 때에 멍울이 맺히면 쑤뜸을 뜬다.

山藥葉, 煎爲膏付之. 無葉則根亦可.

마nip을 고와 고약 만들어 부치되, nim이 업거든 쑤이를 쓰라.

산약의 잎을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붙인다. 잎이 없는 경우에는 뿌리도 쓸 수
있다.

菁根大者, 爛烹作片, 承熱付, 神效.

무 밋등을 물우게 삶어 점여 더웁게 부치면 신호.

무 큰 것을 물러질 때까지 삶아 납작하게 썰어서 뜨거울 때에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敗履底革, 松脂 眞油, 煎爲膏付.

헌신 창을 송진과 참기름에 다려 고약 만들어 부치라.

헌신의 바닥을 송진과 참기름에 넣고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붙인다.

裂破狗陰囊付之, 卽消.

기불알을 갈나 부치면 즉초.

개의 음낭을 갈라서 환처에 붙이면 곧 낫는다.

靑布片, 浸醋付. 取牛骨, 炙火, 承熱点烙, 好.

풀은 뽕조각을 초에 당가 부치고, 쇠뿔을 불에 구워 더웁게 지지라.

푸른 베 조각을 식초에 담갔다가 환처에 붙인다. 쇠뿔을 불에 구워 뜨거울 때에 환처를 콕콕 지지면 좋다.

苦蔘, 爛搗付之, 神效. 他毒瘡亦效.

고삼을 난도해야 부치면 신표. 다른 종긋에도 조흐니라.

고삼을 문드러지게 찢어 환처에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다른 독종(毒腫)에도 효험이 있다.

膿壞有惡肉, 松脂 蟹蛭, 細末摻付, 卽消.

공겨 터진 디, 추육이 잇거든 송진과 고치누에를 작말해야 뿌리면 즉초.

등창이 끓아서 터져 썩은 살이 생긴 경우에는, 송진과 누에고치를 곱게 가루내어 뿌리면 곧 썩은 살이 삭는다.

毒盛根深, 針破開外, 取鷄子黃 眞末 胡桃肉 眞油 石雄黃, 并搗爲餅, 逐日以桑灰水或苦蔘湯, 淋洗後付之, 祛惡生新.

독기가 성하고 근이 깊은 디는, 침으로 헤치고 계란 노른자와 밀가루와 호도육과 참기름과 석웅황을 함씩 셋거 썩 만들어 날마다 뽕나무 지물이나 고삼 다린 물에 씻고 부치면 거악싱신하느니라.

독이 성하고 뿌리가 깊은 경우에는, 침으로 찢은 뒤, 계란흰자 밀가루 호도육 참기름 석웅황을 함께 찢어서 떡처럼 만들어놓고, 매일 뽕나무 잣물이나 고삼 달인 물로 환처를 씻어낸 뒤 붙이면,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난다.

田螺肉, 爛搗, 和粘米末, 爲餅付之, 死肉卽消.

울렁이 살을 난도하야 찹쌀 가루에 셋거 썩 만들어 부치면 추육이 다 녹느니라.

우렁이 살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찹쌀가루와 섞어서 떡처럼 만들어 붙이면, 죽은 살이 곧 삭는다.

黃蜜 髮灰 松脂, 融化爲膏付之, 吸出惡汁, 神效.

꿀과 멀이털 삶은 지와 송진을 끓여 고약 만들어 부치라.

꿀과 머리카락 태운 재와 송진을 끓여서 녹여 고약을 만들어서 붙이면, 나쁜 즙을 빨아낸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生山藥搗付, 盡祛死肉.

싱마를 씨여 부치면 추육이 다 녹느니라.

산약 생것을 찢어서 붙이면 죽은 살을 모두 없애준다.

鰻魚皮, 付之一夜, 祛舊生新.

메어기 겹줄을 부치고 할오밤을 지니면 거구싱신하느니라.

뱀장어(鰻鱺魚) 껍질을 붙이고 하룻밤을 지내면, 썩은 살이 없어지고 새살이 돌아난다.

鰻鱺汁搗之, 毒消膿小.

곰병이집을 발르면 독기가 소화하고 적게 곪느니라.

곰병이를 즈내어 바르면 독이 흩어지고 적게 곪는다.

根深不可拔, 蔓延不可救者, 麴子 葶麻子 等分, 和勻粘米餅付之. 朝付而翌朝見之, 夕付而翌夕見之, 根皆浮舉, 以竹刀舉而拔之, 根如苧絲, 孔之出來, 連付之. 諸惡瘡拔根, 甚效.

근이 깊고 스면 벗어 구하기 어려운 디, 누룩과 피마즈를 등분하여 찰쌀떡에 섯거 부치고 돌 만에 써여 보면 근이 다 써 들날 것이니, 디칼로 들어 썰면 근이 실갓치 구멍마다 나오느니 연하여 부치라.

뿌리가 깊어서 뽑아낼 수 없고 창이 넓게 퍼져서 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누룩 피마자 각각 같은 양을 찰쌀떡에 섞어서 붙인다. 아침에 붙인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살펴보고, 저녁에 붙인 경우에는 다음날 저녁에 살펴보면, 뿌리가 모두 떠 있을 것이니 대나무 칼로 들어내어 뽑아내면 뿌리가 모시줄기처럼 구멍에 서마다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떡을 붙인다. 온갖 악창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에 매우 효험이 있다.

下火針, 奇效. 凡疔瘡髮疽腦瘡唇瘡痔疾, 無不神效.

침을 불에 달와 질으면 등창, 뇌후종, 순종, 치질에 다 조흐니라.

불에 달군 침을 놓으면 기이한 효험이 있다. 무릎 정종(疔腫), 발저(髮疽), 머리의 종기, 입술의 종기, 치질에 신묘한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玉莖瘡 신에 흔데 는 디 | 음경이 혈은 경우

檳榔 石雄黃 輕粉 黃柏 蜜蛇僧¹ 黃連 朴硝 各等分, 末, 和勻, 先以葱白煎水洗之, 瘡濕乾糝之, 瘡乾和油塗.

빈랑 석웅황 경분 황백 밀타승 황련 박초 각 등분 작말하야, 몬져 총백 다린 물로 씨서, 창이 습하거든 말는 갈우로 뿌리고, 창이 조하거든 기름에 기여 발으라.

빈랑 석웅황 경분 황백 밀타승 황련 박초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고루 섞어 놓고, 우선 총백 달인 물로 환처를 씻어낸 뒤, 혈은 곳이 습하면 마른 가루를 뿌리고, 혈은 곳이 건조하면 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1. 蜜蛇僧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密陀僧'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下疳瘡 하감창 논 디 | 하감창

當歸 黃柏 甘草, 煎湯洗之, 地龍乾末, 眞油付之.

당귀 황백 감초를 다려 씻고, 지렁이를 말녀 작말햏야 참기름에 기여 부치라.

당귀 황백 감초 달인 물로 환처를 씻어내고, 말린 지렁이 가루를 참기름에 개어서 붙인다.

五倍子 未付之.

오비즈 갈우를 부치라.

오배자 가루를 붙인다.

腎癢痒 신 혼 디가 갈여온 디 | 음낭이 헐어서 가려운 경우

黃柏, 或蛇床子 地榆, 湯洗之.

황백이늑 혹 사상조와 지류를 다려 씨치라.

| 황백이나 사상자·지유를 달여서 환처를 씻어낸다.



下陰瘡 하음이 흐는 디 | 전음이 혈은 경우

黃柏皮末, 和勻酒付之, 用緣豆¹湯, 溫洗之.

항경피 갈우를 술에 지여 부치고 녹두를 다려 더웁게 씨치라.

항백피 가루를 술에 개어서 붙이고, 녹두 달인 물로 따뜻하게 환처를 씻어낸다.

常皂角末, 和醋付.

상조각 갈우를 초에 지여 부치라.

항상 조각 가루를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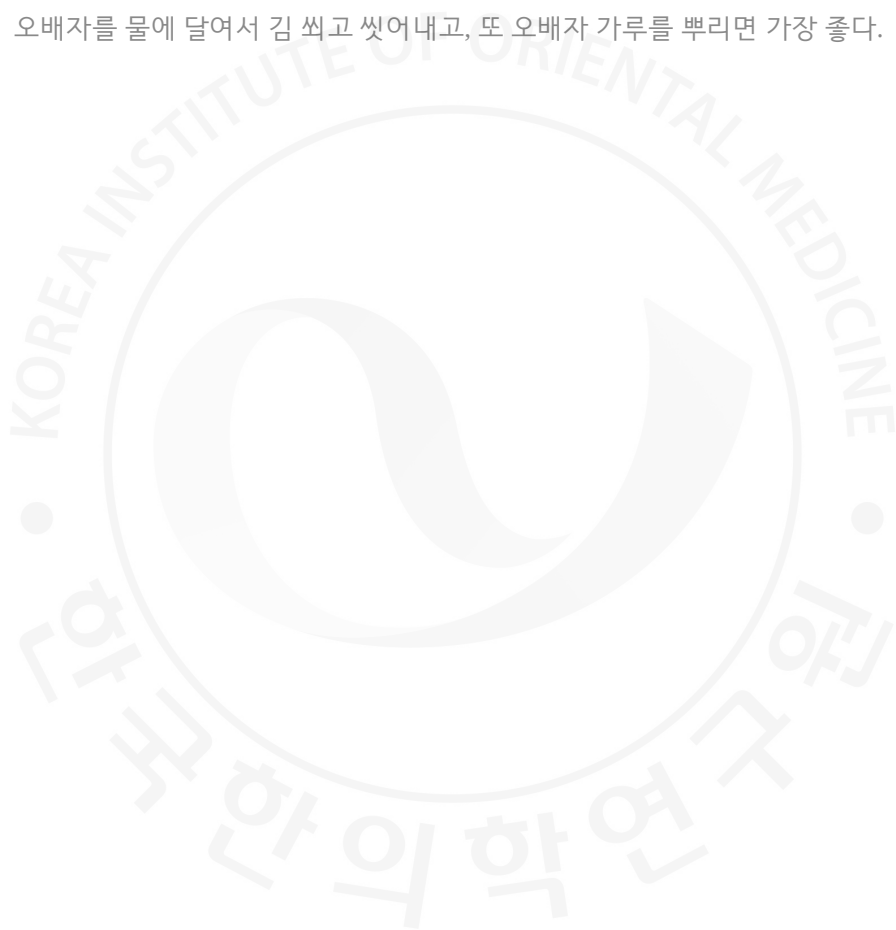
¹. 緣豆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緣豆'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陰濕瘡 하음에 습창 논 디 | 음습창

五倍子, 水煎熏洗之, 又以五倍子末糝之, 最妙.

오비즈를 물에 다려 씻고, 또 작말햐 뿌리면 조흐니라.

오배자를 물에 달여서 김 썬고 씻어내고, 또 오배자 가루를 뿌리면 가장 좋다.



兩陰間瘡 신랑과 분문 사이가 흐는 디 | 전음과 후음 사이 가 혈은 경우

石雄黃一兩, 煉艾¹一錢, 和勻, 牛角灸四百壯.

석웅황 한 냥 중과 부빈 약썩 흐 돈 중을 셋거 쇠썰썸 슻빅 장을 흐라.

석웅황 1냥, 묵은 약썩 1돈을 고루 섞어 우각구 400장을 뜬다.

¹. 煉艾 : 문맥을 살펴볼 때, '陳艾'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痔疾 치질 | 치질

無論雌雄痔疾, 黃蠟 枯白礬 各一兩, 石雄黃五錢, 細末盛于砂器, 自然融和, 作丸綠豆大, 溫水三十丸吞下. 藥盡即效.

무론 암치질 수치질하고 밀과 고빱반 각 한 냥 ¹중을 석유향 닛 돈 중을 세말하야 사기에 담어두면 즈연이 녹아 화합될 것이니, 녹두만치 환 지여 삼십 환식 더운 물에 먹으면 다 먹은 후 즉효.

암치질이든 수치질이든, 황랍 백반(구운 것) 각 1냥, 석유향 5돈을 곱게 가루 내어 사기에 담아 놓으면 저절로 녹아서 섞이는데, 이것으로 녹두알만 하게 환을 빚어 따뜻한 물로 30환씩 먹는다. 약을 다 먹고 나면 곧 효험을 본다.

取染色梔子百介, 水二碗煎半服, 翌日下血便一次, 即痊.

치즈 빻기를 물 두 디접에 다려 반 되게 하야 먹으면 돌 만에 피송 혼 차례를 두고 즉.

치자 100개를 물 2사발에 넣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먹으면, 다음날 혈변을 1차례 두고 곧 낫는다.

無論雌雄痔, 葱根煎沸, 入缸內, 盖板穿孔, 踞坐熏之, 即愈.

무론 암치질이나 수치질이든 파를 다려 항에 넛코 썬에를 덮고 구멍을 쏘어 걸어안져 김을 쏘이면 즉.

암치질이든 수치질이든 파뿌리를 끊어오를 때까지 달여서 항아리 속에 넣고 구멍 뚫린 판자로 뚜껑을 삼아서 담은 뒤, 그 위에 걸터앉아 김을 쏘면 곧 낫는다.

取籬邊小瓢經霜自枯者, 燒末, 和油塗之, 暫時疼極, 因止疼而痊.

울타리 가에 박이 설이 마주 스스로 말는 것을 불에 살와 작말하야 기름에 지여 발르면 낫느니라.

울타리 가의 서리 맞아 저절로 마른 작은 박을 태워서 가루 내어 기름에 개어 바르면, 잠시 동안 몹시 아프다가 고통이 멎고 낫는다.

烏膽塗紙付之, 神效. 午前有膽, 午後無膽.²

가마귀 쓸기를 조희에 발나 부치면 신표. 가마귀는 오전에는 쓸기가 있고 오후에는 쓸기가 업나니라.

가마우지(烏)³의 쓸개를 종이에 발라 환처에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까마귀는 오전에는 쓸개가 있지만, 오후에는 쓸개가 없다.

獾皮溫付之, 虫出而差.

수달피를 더웁게 하야 부치면, 벌여지가 다 나오고 즉츠.

수달의 가죽을 따듯하게 해서 붙이면, 벌레가 나오고 낫는다.

熊皮炙火, 乘熱付之, 卽差.

곰의 가죽을 불 쏘여 더웁게 부치면 즉츠.

곰의 가죽을 불에 찢어서 뜨거울 때에 붙이면 곧 낫는다.

¹. 을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과'의 오기인 듯하다. ↩

². 烏膽塗紙付之, 神效. 午前有膽, 午後無膽. : 《의취》〈痔漏〉에 다음과 같은 상사조문이 나온다. "가마우지 쓸개가 아주 좋은데 오전에는 쓸개가 있고, 오후에는 쓸개가 없으며, 매우 작다. 종이에 가루를 바르고 환부에 붙이면 신표한 효과가 있다. <주>"(烏膽, 極好, 午前有膽, 午後無膽, 極小. 以紙塗末, 付之瘡處, 神效. <舟>) ↩

3. 가마우지(烏) : 해오(海鳥, 가마우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전고는 쉽게 고증되지 않지만 오전에 쓸개가 있다가 오후에 없는 새로 《의휘》에는 '가마우지'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휘》〈안(眼)〉 "백막. ○눈병으로 백막이 눈동자를 가릴 때는 민간에서 말하는 해조(海鳥)(가마우지)의 쓸개를 눈 속에 떨어뜨리면 백막이 저절로 제거된다. 오전에는 쓸개가 있고, 오후에는 쓸개가 없으니, 정강이에 이어진 털을 뽑아 늘 눈을 닦으면 눈병을 제거할 수 있다." (白膜. ○眼疾, 白膜掩瞳, 俗稱海鳥〔가마우지〕膽, 滴眼中, 白膜自除. 午前有膽, 午後無膽, 其脛連毛取之, 常拭目, 能去眼疾.)

"적막이 눈동자를 가렸을 때는 가마우지 쓸개를 눈에 떨어뜨리면 저절로 사라진다.〔허〕 가마우지 쓸개는 오전에는 있고, 오후에는 없어진다." (赤膜掩瞳, 烏〔가마우지〕膽滴眼膜, 自消.〔許〕午前有之, 午後無之.)↩

陰囊腫 불알에 종기 난 뒤 | 음낭에 난 종기

取地龍糞, 調甘草汁付之. 調薄荷汁, 尤好.

지렁이 똥을 감초즙이나 박하즙에 끼여 부치라.

지렁이의 똥을 감초즙에 개어서 붙인다. 박하즙에 개어서 붙여도 좋다.

葱椒湯洗之, 取蚯蚓乾末, 和涎付之.

파와 호초를 다려 씻고, 지렁이를 말녀 작말하여 침에 개여 부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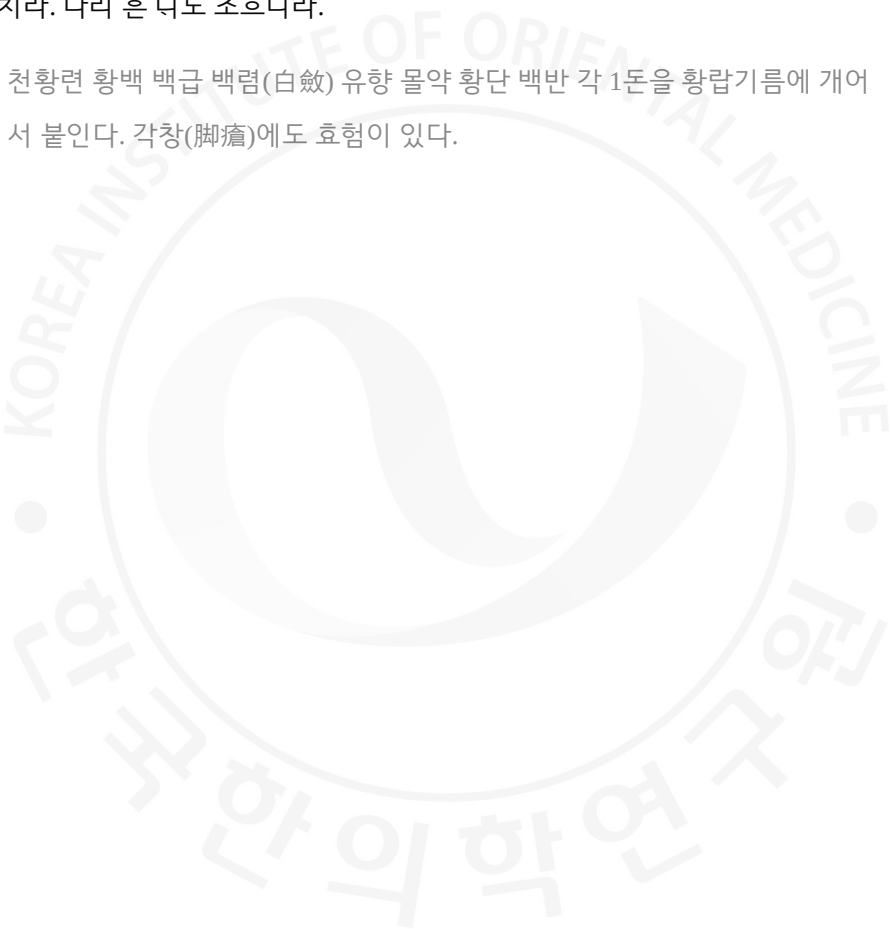
파와 호초를 달여서 환처를 씻어내고, 지렁이를 말려서 가루 낸 뒤 침에 개어서 환처에 붙인다.

癰疽 疔腫 | 불기에 난 종기

川黃連 黃柏 白芨 白斂 乳香 沒藥 黃丹 白礬 各一錢, 和蠟油付之. 脚瘡亦效.

천황련 황백 백급 백렴(白斂) 유향 몰약 황단 백반 각 1돈 중을 작말하여 밀기름에 개여 부치라. 다리 흔 디도 조흐니라.

천황련 황백 백급 백렴(白斂) 유향 몰약 황단 백반 각 1돈을 황랍기름에 개어서 붙인다. 각창(脚瘡)에도 효험이 있다.



脚腫 다리에 종기 난 디 | 다리에 난 종기

夜合花木, 燒取灰水, 浸. 經效.

자귀나무 지물에 담그면 신표.

자귀나무를 태워서 잿물을 만들어 환처를 담근다.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



腿膝濕癰 다리에 습증 논 디 | 넓적다리와 무릎의 습증

大暑伏天, 用燒酒糟一桶, 下鍋燒熱, 厚堆患處, 冷則換熱五六次, 除根.

삼복 더울 씨에 소주 고은 씨기를 썰어 종처에 두터이 부치되, 식거든 다시 더웁게
햏야 부쳐 오록 츄를 햏면 거근햏니라.

몹시 더운 삼복 때에 소주 지게미 1통을 솥에 붓고 뜨겁게 끓인 뒤 환처에 두텁
게 바르되, 차가워지면 뜨거운 것으로 바꾸어주기를 5-6차례 하면 병의 뿌리가
지 없애준다.

脚濕癰 다리에 습창 논 디 | 다리의 습종

嚼生薑付之, 神效. 又切柿作片付之, 亦效.

싱강을 씹어 부치면 신탈. 또 감을 썰어 부치면 조흐니라.

생강을 씹어서 붙이면 신탈한 효험이 있다. 또 감을 납작하게 잘라서 붙여도 효험을 본다.



內腫 니종 | 내종

紅花三掬, 白芥子研三匙, 鷄卵三介破入燒酒六盃, 清酒一碗, 和勻, 入缸, 緊封缸口, 厚裹缸身, 置溫突, 經一周, 隨量溫服, 以醉爲度, 取微汗. 若痛重, 用燒酒十二盃. 治落傷及腸癰, 神效無比. 或連珠初起, 亦效, 雖重症不過三劑, 無不自痊. 凡內腫自潰及藥潰, 百無一救, 右藥則不潰而痊.

홍화 석 줌, 흰 겨즈씨 작말하야 세 술과 계란 세 개를 찌쳐 소주 여섯 잔, 약주 한 디점에 골고로 셋거 항에 넋코 항 입을 단단이 봉하고 항을 두터이 싸서 더운 방에 두어 돌 만에 취토록 먹고 취한하되, 증세가 중하거든 소주 열두 잔을 쓰라. 내증이 스스로 골마 조끼하면 구하기가 어려우되, 이 약은 곰지 안코 낫느니라. 락상한 디와 장옹과 연쥬 시초에도 선약이니라.

홍화 3줌, 백개자(간 것) 3술, 소주 6잔(계란 3개를 깨뜨려 넣은 것), 청주 1사발을 고루 섞어서 항아리 속에 넣고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고 항아리 몸체를 두텁게 싸서 온돌에 하루 동안 둔 뒤, 따뜻하게 해서 양껏 먹되, 취할 때까지 먹고 약간 땀을 낸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주를 12잔 쓴다. 낙상이나 장옹(腸癰)에도 신묘한 효험이 있으니 이보다 좋은 약은 없다. 혹 연주창 초기에도 효험이 있으니, 증세가 위중하더라도 3제를 넘지 않아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내종이 저절로 터지거나 약을 먹고 터지면 백에 하나도 살려낼 수 없는데, 이 약을 먹으면 터지지 않고 낫는다.

取槐木茸, 末, 和酒或米飲, 空心服, 成膿或未成膿, 自消.

회화나무버섯을 작말하야 술에나 미음에나 타 공심에 먹으면, 성농이 되엿거나 안이 되엿거나 다 풀리나니라.

회화나무버섯을 가루 내어 술이나 미음에 타서 빈속에 먹으면, 끓았건 끓지 않았건 저절로 삭는다.

蟾蜍一介, 燒存性, 一錢溫酒調服, 溫處, 如是數次.

독겁이 흰 기를 불에 삶와 더운 술에 타 먹고, 더웁게 거쳐 햏야 두어 번 햏라.

두꺼비 1마리를 약성이 남게 태워 1돈을 따뜻한 술에 타서 먹고 따뜻한 곳에
있는다.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차례 한다.

取狗子纔生三日不開眼者, 二三介, 并皮通煎, 取汁服之.

기삿기 시로 나서 눈 뜨지 안이햏 것 이삼 개를 통으로 곁와 싸 먹으라.

태어난 지 사햏 되어서 눈을 뜨지 못한 강아지 2-3마리를 껍질을 벗기지도 말
고 통째로 삶아서 즈내어 먹는다.

痰腫 담종 | 담종

生山藥 南星 各一斗, 爛搗付之, 以布袋緊裹, 則周日當有痒症, 慎勿開封. 又強過一日, 有發表之類, 因以右藥數片輪回付之.

산약과 남성 각 한 말을 난도하여 부치고 수건으로 단단히 싸두면, 돌 만에 갈여온 증이 잇스리니, 쓸으지 말고 또 하루를 지니여 발포되거든 이 약을 연하여 조조 부치라.

산약(생것) 남성 각 1말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이고 수건으로 단단하게 싸매 두면, 하루 만에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수건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또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발산되어 나오는 알갱이가 있을 것이니 앞의 약 여러 조각을 연이어서 자주 붙인다.

初起, 苽蕖根, 爛搗, 熬取溫付之. 若至太硬, 以醋鹽付之, 炒.

시초를 씨 한울타리 썰이를 난도하여 복거 더웁게 부치라. 만일 단단히 뭉친 디는 소금에 초를 섰거 부치면 신표.

처음 앓을 때에 과루근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볶아서 따뜻하게 해서 붙인다. 담종이 크고 뚱뚱해진 경우에는 식초에 소금을 섞어서 붙이면 좋다.

未及成膿, 赤小豆末, 和酒作餅付之, 乾則換之, 細切生芹, 和蜜置溫處, 隨量服之, 神效.

곰씨 전에 붉은팻 갈우를 술에 반죽하여 부치되 말느거든 시로 부치고, 날미나리를 썰어 썰에 섰거 더운 디 두엇다가 양것 먹으면 신표.

아직 굵기 전에 팥가루를 술에 반죽하여 떡처럼 만들어 붙이되 마르면 바꾸어서 붙이고, 생 미나리를 잘게 썰어 꿀에 재어서 따뜻한 곳에 두고 양껏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鷄一首去腸膜, 乾蜈蚣留頭足者一介, 縣裹納于鷄腹中, 爛煎後, 去蜈蚣服之, 神效. 病重者, 服二三次. 諸痰症仙藥.

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바리고, 말는 진에 닭 개를 소음에 싸서 닭 비 속에 넣어 진하게 삶어 진에를 건져 바리고 먹으되, 병이 중하면 이삼 차례 먹으라. 담증에는 선약이니라.

닭 한 마리(내장과 막을 제거한 것), 지네(말리되 머리와 다리를 떼지 않은 것) 1마리를 솜에 싸서 닭의 배속에 넣고 문드러지게 삶은 후 지네를 건져내어 버리고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병이 위중한 경우에는 2-3차례 먹는다. 온갖 담증에 좋은 약이다.

疔腫 정종 | 정종

始發，涎濕甘藷付之，乾則隨唾之。或白粥浸之，亦奇效。

시초를 씨 침으로 메역을 축여 부치고, 말느거든 침을 비터 축이고, 혹은 흰죽에 담그면 신호.

처음 앓을 때에 침으로 미역을 축여서 붙이되, 미역이 마르면 침을 뺄어서 축여준다. 혹은 흰죽에 축여도 기묘한 효험이 있다.

剖大蜘蛛囊¹付之，消毒。

큰거미의 불알을 갈나 부치면 독기가 풀어나간다.

큰 거미의 배를 갈라서 붙이면 독을 삭인다.

大蒜切片，安疔上，艾灸，熱則換之。初灸不疼，灸至疼，初灸疼，灸至不疼。

큰 마늘을 쪼여 부치고 약쑥으로 썸질 후 처음 써서 압하지 안거든 압하도록 쓰고 처음써서 압하거든 압하지 안도록 쓰라.

큰 마늘을 납작하게 썰어서 정종(疔腫) 위에 두고 쑥뜸을 뜨되, 뜨거워지면 바꾸어준다. 처음 뜸을 뜰 때 아프지 않다면 아플 때까지 뜸을 뜨고, 처음 뜸을 뜰 때 아프다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뜸을 뜬다.

刺出雄鷄冠血，倒滴疔上，則自消。以差爲準。

숫닭의 벼슬을 질너 피 নিয়ে 정구에 밍으면 풀어나간다.

수탉의 벼슬을 질러 피 내어 정종(疔腫) 위에 똑똑 떨어뜨리면 저절로 삭는다. 나을 때까지 한다.

火針按之。或肉灸²，神效。

침을 불에 달와 질으고, 혹은 쑥으로 썸질 하야도 신호.

침을 불에 달구어 지진다. 혹은 싹뚝을 떠도 신묘한 효험이 있다.

乾柿, 或生薑, 或胡椒, 末, 付之.

곶감이나 생강이나 호초 갈우나 부치라.

곶감이나 생강이나 호초를 가루 내어 붙인다.

針絲濡墨, 橫貫破之, 付米糊, 止疼消根完合.

바늘에 실을 꿰어 먹물에 적시여 갈오 꿰인 뒤에 싹뚝을 부치면 굳이 녹어 합창되나
니라.

바늘에 실을 꿰어 먹물에 적시고 바늘을 뉘어서 관통시켜 정종(疔腫)을 찢은
뒤 쌀로 쏜 풀을 바르면, 통증을 멎게 하고 뿌리를 삭여서 온전히 아물게 된다.

白砂器片, 研末, 和醋付之.

백사기를 작말하야 초에 기여 부치라.

흰 사기그릇 조각을 갈아서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菊葉爛搗付之. 或搗取汁, 和香油飲, 免疔毒入心. 冬則用根亦可.

국화잎을 난도하야 부치고, 혹은 집니여 참기름에 타 먹으라. 겨울이어든 쑤이를 쓰라.

국화의 잎을 문드러지게 찢어 붙인다. 혹은 찢어서 즙을 내어 참기름에 타서
먹으면 정독(疔毒)이 심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겨울에는 뿌리를 써도
좋다.

1. 大蜘蛛囊 : '囊'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여기에서는 '배'로 보고
번역하였다. ←

2. 肉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艾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



黑疔 검은 정 논 디 | 검은 정

人屎 牛蒡子 玄蔘 大黃. 全搗成泥付之.

인분과 우방자와 현삼과 대황을 난도하여 부치라.

인분 우방자 현삼 대황. 이상의 약재를 걸쭉해질 때까지 함께 찼어서 붙인다.



濕癬 진버짐 | 진버짐

桃仁 薺根, 爛搗付之.

복송아씨와 무땀을 난도ㅎ야 부치라.

도인과 무를 문드러지게 찼어서 붙인다.

眞末水煎, 和眞油塗之. 硫黃 皮麻仁, 作餅付之.

밀갈우를 다려 참기름을 타 발으라. 유황과 피마즈를 씨어 반죽ㅎ야 부치라.

밀가루를 물에 달여서 참기름을 타서 바른다. 유황과 피마자를 떡처럼 만들어 붙인다.

炙牛骨, 透油氣, 捫摩之.

쇠뼈를 불에 구어 기름이 쓸커든 문질으라.

쇠뼈를 구워서 기름기까지 뜨거워지면 그것으로 환처를 문지른다.

乾疥 말하는 옴 | 마른옴

川椒 細幸¹ 硫黃 綠礬 輕粉 各二錢, 細末, 川椒煎水調塗. 濕疥則去川椒, 代竹葉灰, 調鷄子清塗之.

천초 세신 유향 녹반 경분 각 두 돈 중을 작말하야 천초 다린 물에 지여 발으라. 진옴
에는 천초를 썬고 더넙 살은 지물을 디용하야 계란흰자에 지여 발으라.

천초 세신 유향 녹반 경분 각 2돈을 곱게 가루 내어 천초 달인 물에 개어서 바
른다. 진옴의 경우에는 천초 대신 죽엽 태운 재를 쓰고 계란흰자에 개어서 바
른다.

1. 細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細辛'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
다. ←

濕疥 진음 | 진음

海蔘入鹽水, 濃煎淋洗數次, 效.

히삼을 소금물에 다려 수 차 씨치면 즉효.

해삼을 소금물에 넣고 진하게 달여 여러 차례 씻어내면 효험을 본다.

檳榔 硫黃 各五錢, 輕粉二錢, 五倍子一錢半, 胡椒一錢. 末, 調香油塗, 捫之無數, 以油盡爲度.

빈랑 유황 각 다섯 돈 중, 경분 두 돈 중, 오비즈 한 돈 오 푼 중, 호초 한 돈 중을 작말하여 참기름에 킶 발르고, 무수이 문질너 기름 곱운이 업도록 하라.

빈랑 유황 각 5돈, 경분 2돈, 오배자 1돈 반, 호초 1돈.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참기름에 개어서 바르고 기름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문지른다.

大黃 芒硝 玄蔘 苦蔘, 煎水溫洗, 取信石, 入秋牟甘酒, 煎沸塗之, 立效.

대황 망초 현삼 고삼을 다려 더운 김에 씻고, 비상을 불이감쥬에 썰어 발으면 신평.

대황 망초 현삼 고삼을 물에 달여 따뜻하게 씻어내고, 비상을 가을보리로 담은 단술에 넣어 끓어오를 때까지 달여서 바르면 바로 효험을 본다.

取鼠濃煎, 食其肉, 洗其水.

쥐를 진하게 고와 그 고기를 먹고 그 물로 씨치라.

쥐를 진하게 고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물로 씻어낸다.

硫黃磨皮麻子油, 露一宿, 刮先生瘡塗之. 輕效¹.

유황을 갈아 피마즈 기름에 타 밤이슬 맞쳐 먼저 눈 창을 긁고 부치면 조흐니라.

유황을 피마자기름에 갈아서 하룻밤을 이슬 맞힌 뒤, 먼저 생겨난 창(瘡)을 긁어내고 바른다. 여러 번 효과를 보았다.

石灰炒極火, 氣透出, 調香油塗之.

석회를 팔게 볶거 참기름에 개여 부치라.

열기가 투과해서 나오도록 석회를 아주 뜨겁게 볶아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取田螺, 或膾或烹食之, 則與患疥者同處, 不被傳染.

우렁을 날것으로든 삶아서나 만이 먹으면 옴 올린 자와 한가지 거쳐햐도 전염치 안느니라.

우렁이를 회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옴을 앓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전염되지 않는다.

預服硫黃, 亦不傳染.

유황을 미리 먹으면 전염치 안느니라.

유황을 미리 먹어도 전염되지 않는다.

1. 輕效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輕效'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漆瘡 옷 옴녀 혼 디 | 옷 옴아서 혈은 경우

濁酒一盃, 法油一鍾子, 和勻服, 卽效.

탁주 혼 잔과 들기름 혼 종즈를 타 먹으면 즉효.

| 탁주 1잔과 들기름 1종지를 섞어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鷄子白, 或蟹黃塗之.

계란흰조위느 혹 계장을 발으라.

| 계란흰자나 혹은 게 뱃속의 누런 알을 바른다.

毒若入腹, 桂皮末, 和蜜水服之.

칠독이 비에 들거든 계피가루를 꿀물에 타 먹으라.

| 칠독이 뱃속에 들어가면 계피가루를 꿀물에 타서 먹는다.

茅根, 或栗木皮煎洗.

씩썰이느 밤나무 껍질을 다려 씨치라.

| 모근이나 밤나무 껍질을 달여서 환처를 씻어낸다.

熱腫 열기로 종기 된 디 | 열종

蚯蚓汁, 和黃柏末, 作餅按之, 艾灸準差.

지렁이집에 황백 갈우를 개여 썩 만들어 부치고 약쑤으로 무수이 쓰라.

지렁이즙에 황백 가루를 개어서 떡처럼 만들어 얹혀놓고 나을 때까지 쑤뜸을 뜬다.

燒杏仁, 熏其烟. 唇背腫, 尤好.

살구씨를 불에 살와 그 연기를 쏘이라. 순종과 등창에 더욱 조흐니라.

행인을 불태워 그 연기를 쐬다. 순종(唇腫)과 배종(背腫)에도 좋다.

梅瘡 당창 | 매창

水銀一兩重, 入木麥米, 爛勻作丸綠豆大, 二十丸式服之, 無不神效. 若有口瘡, 甘草水, 綠豆汁口含, 無妨.

수은 한 량 중을 모밀쌀 한 홑에 넣어 난도하여 잘게 환 지어 이십 개씩 먹으면, 비록 중한 병이라도 즉치하니, 구감이 나거든 감초를 다려 입에 물거나, 녹두즙을 넣어 물면 낫는다.

수은 1냥을 메밀쌀에 넣고 문드러지게 찼고 고루 섞어 녹두알만 하게 환을 빻아서 20환씩 먹으면 신묘한 효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 구감(口瘡)이 있는 경우에는, 감초 달인 물이나 녹두즙을 입에 머금어도 된다.

桃虫四五介, 乾末, 好酒調服.

복숭아 벌레지 5개를 말려 작말하여 조흔 술에 타 먹으라.

복숭아벌레 4-5마리를 말리고 가루 내어 좋은 술에 타서 먹는다.

水銀裹飯, 與鷄, 鷄食而死, 烹食. 準差.

수은을 밥에 싸서 닭을 먹여 닭이 죽거든 삶어 먹으라.

수은을 밥으로 싸서 닭에게 주어서 닭이 먹고 죽으면, 그것을 삶아서 먹는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한다.

取稷一斗, 爛蒸, 熏病處.

피쌀 한 말을 써서 그 김을 창에 쏘이라.

기장 1말을 문드러지도록 찼서 환처에 김을 쐬다.

鷹一首, 燒存性, 服數匙式.

미 한 마리를 불에 삶아 두어 술식 퍽비탕에 먹으라.

매 1마리를 약성이 남게 태워 여러 술씩 먹는다.



風熱毒瘡 풍열로 독종된 디 | 풍열로 독종이 생긴 경우

蒼耳子燒存性 木鱉子 杏仁 麻子二十粒, 鷄屎白炒 麴末 眞末 各二匙. 細末, 蜜醋和勻付之.

독고말이를 불에 태인 것과 목별조와 살구씨 조곰식과 삼씨 이십 개와 퉁의 송 흰 것을 늘우게 복근 것 조곰과 늘옥갈우와 밀갈우 각 두 술을 작말하야 술과 초에 지어 부치라.

창이자(약성이 남게 태운 것) 목별자 행인 삼씨(20알), 계시백(볶은 것) 누룩가루 밀가루 각 2술.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꿀과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取陳久石灰, 入皮麻子, 搗付之, 或以石灰末糝之.

오리 묵은 회를 피마조와 난도하야 부치고, 혹은 회갈우를 뿌리라.

오래 묵은 석회와 피마자를 섞어서 문드러지게 찼어서 붙이거나, 혹은 석회 가루를 뿌린다.

取南苧花, 爛搗付之. 有根處亦仙方.

호박꽃을 난도하야 부치라. 근 잇는 종기에 선약.

호박꽃을 문드러지게 찼어서 붙인다. 뿌리가 있는 종독에도 좋은 약이다.

瘡蟲 각식 창질에 충 싱기는 디 | 창에 벌레가 생긴 경우

凡瘡有黑色, 宜用殺虫藥, 待黑肉祛盡後, 用生肥藥. 檳榔五錢, 黃連二錢五分, 穿山甲五片燒存性, 射香一分. 細末, 茶清調塗.

종기에 검은 빛 잇거든 살충할 약을 쓸지니, 빈랑 닛 돈 종과 황년 두 돈 오 픈 종과 천산갑 다섯 조각을 불에 태인 것과 사향 한 픈 종을 작말하야 창에 기여 부치라.

창에 검은 빛이 도는 경우에는, 살충약을 써서 검게 된 살이 다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살이 돋는 약을 쓴다. 빈랑 5돈, 황련 2돈 5푼, 천산갑(약성이 남게 태운 것) 5조각, 사향 1푼. 이상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찻물에 개어서 바른다.

木綿子 鷄屎 牛骨 桑木 黃大豆 松脂 皮麻子 麻仁, 入瓶埋地, 燒糠火, 取油塗之.

목화씨, 닭의 똥, 쇠뿔, 뽕나무, 누른 콩, 송진, 피마자, 삼씨를 등분하야 병에 너어 싸에 묶고 겨불을 피여 기름 니여 발느라.

목화씨, 닭똥, 소뿔, 뽕나무, 큰 콩, 송진, 피마자, 삼씨를 병속에 넣고 땅에 묻은 뒤 겨 태운 불로 기름을 내어 바른다.

瘡癰初起 각식 종기 시초하는 디 | 창종을 처음 앓을 때

無論某瘡初起, 取眞末水調爲簞, 上下通之, 安于瘡處, 再作盖板, 鑽穴多數, 覆于簞口, 置人糞少許於盖上, 以艾灸之無壯數, 腫口隨艾氣浮上潰散, 付以膏藥, 自然見差. 雖大瘡, 限一晝夜如法灸之, 不膿而痊.

밀가루를 물에 개어 통을 만들어 종기 위에 싸우고 뚜껑을 만들어 열어 구멍을 নিয়ে 통 위에 덮고 인분을 조금 그 위에 늦코 약썸으로 무수히 씹질하면 종기가 부어 허여 지거든 고약을 부치면 즉치. 대종이라도 일쥬야만 하면 곱지 안코 낫느니라.

어떤 종기이든 처음 앓을 때에 밀가루를 물에 개어서 통을 만들되 위아래가 뚫린 것으로 만들어서 환처에 놓은 뒤, 뚜껑을 만들되 여러 개의 구멍을 내어서 만들어 통의 입구에 덮는다. 인분 약간을 뚜껑 위에 올리고 썸뚝을 무수히 뜨면 종기 꼭지가 썸 기운을 따라 부풀어 오르면서 터져서 흩어지는데, 이때 고약을 붙이면 저절로 낫게 된다. 큰 종기라 하더라도 하루 밤낮 동안 이렇게 뜸을 뜨면 곱지 않고 낫는다.

馬糞和酒糟炒, 取溫常熨之.

말똥을 술지검이와 섯거 복가 더웁게 씹질하라.

말똥을 술지검이에 섞어서 볶은 뒤 따뜻할 때에 늘 찜질한다.

南草津塗之, 良.

담비진을 발으면 조흐니라.

담배의 진을 바르면 좋다.

無名毒瘡 일흠 업는 독헌 종긔 | 이름 없는 독종

取桃核殼半個, 填狗屎, 覆患處, 穿一小孔, 外用艾灸七壯, 全愈. 口背瘡, 俱可治.

복숭아씨 껍질 반 쪽에 지뽕을 담어 종긔 우에 덮고 자근 구멍을 니여 약쑥으로 일곱 장을 쓰면 즉치.

복숭아씨 껍질 반 개에 개뽕을 담고 환처를 덮은 뒤 작은 구멍 하나를 내고 그 겹에 쑥뜸 7장을 쓰면 온전히 낫는다. 입이 헐거나 등창이 난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다.

枯白礬和涎, 無數塗之.

고백반을 침에 지여 무수히 발으라.

백반(구운 것)을 침에 개어서 무수히 바른다.

浮疹, 白朮爛搗, 和醋付之, 極妙.

벗고 압흔 디, 빅출을 난도햐 초에 지여 부치라.

벗고 아픈 경우에는, 백출을 문드러지게 찢어서 식초에 개어서 붙이면 매우 좋다.

陰蛇皮, 燒存性, 豬脂或香油, 調塗之. 久瘡亦效.

그늘에 잇는 비암껍질을 불에 살와 도야지 기름이나 참기름에 지여 발으라.

음사(陰蛇)¹의 가죽을 약성이 남게 태워 돼지기름이나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오래된 창에도 효험이 있다.

¹. 음사(陰蛇) : 언해에는 "그늘에 있는 뱀"으로 풀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뱀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



諸惡瘡 각식 악창 | 온갖 악창

不問久近, 以鹽湯洗之, 候乾, 地骨皮, 細末擦塗之, 妙.

소금물에 씻고 지골피를 작말하야 뿌리라.

오래 앓은 것이건 최근 앓게 된 것이건, 끓인 소금물로 씻어내고 말린 뒤 지골피를 곱게 가루 내어 바르면 좋다.

無論膿未膿, 母酒付之, 極效.

성농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모주를 부치면 신표.

끓었건 안 끓었건, 모주를 붙이면 큰 효험을 본다.

杏仁油塗之, 或銀杏生搗付之.

살구씨 기름을 발르고, 혹은 은행을 날노 씨어 부치라.

행인을 기름 내어 바르거나, 혹은 은행 생것을 찢어서 붙인다.

黃蠟 松脂 桂皮燒存性 水銀 各一兩, 朱砂三錢, 眞油一合半, 煎爲膏, 付之.

밀과 송진과 계피 불에 토했던 것과 수은 각 한 량 중과 주사 서 돈 중을 참기름 한 홑에 다려 고약 만들어 부치라.

황랍 송진 계피(약성이 남게 태운 것) 수은 각 1냥, 주사 3돈을 참기름 1홑 반에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붙인다.

諸有根惡瘡 각식 근 잇는 악창 | 뿌리가 있는 온갖 악창

取龍葵莖根實, 爛搗付之, 瘡根自消, 仍差.

가마중이 디와 열미를 난도후야 부치면 발근되느니라.

가마중의 줄기와 뿌리와 열매를 문드러지게 찢어서 붙이면 창 의 뿌리가 저절로 삭고 낫는다.



諸血癰 각식 피종기 | 온갖 혈종

無論破不破, 牛膽 眞末 皮麻油 百草霜 枯白礬 唐磁器 等分, 末, 鹽水作餅付之, 神效.

쇠슬기, 밀가루, 피마조 기름, 안진 검정, 고박반, 당사기를 작말하여 소금물에 기어 썩 민들어 부치면 신표.

터진 경우이건 안 터진 경우이건, 소의 쓸개, 밀가루, 피마자기름, 백초상, 백반 (구운 것), 당자기(唐磁器)¹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소금물에 개어 떡처럼 만들어서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¹. 당자기(唐磁器) : 중국산 사기그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瘡癰毒血 창종에 독혈 나는 디 | 창종의 독혈

黃蠟少許, 入清油爲膏, 候冷, 調白礬末付之, 吸出毒血膿汁而止疼.

밀을 참기름에 다려 고약 만들어 백반 가루를 너어 부치라.

항랍 조금을 참기름에 넣고 고약을 만든 뒤 식기를 기다렸다가 백반 가루를 넣고 개어서 붙이면, 독혈과 고름을 빨아내고 통증을 멎게 한다.



大瘡熱毒 큰 종기에 열독이 심한 디 | 큰 종기의 열독

無論未發已發, 熱甚, 宜內治. 取忍冬爲膏, 垂成, 入黑大豆少許, 膏成, 二三匙, 和熱水連服.

인동을 진하게 다리고 검은 콩을 조금 넣어 다려 고를 만들어 두세 술씩 더운 물에 타 연복하라.

열독이 퍼졌건 안 퍼졌건 열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인동으로 고약을 만들되 거의 다 되었을 때 검정콩 조금을 넣고, 고가 다 만들어지거든 2-3술씩 뜨거운 물에 타서 연이어 먹는다.

久瘡不瘥 오란 종기 압하지 안이흔 디 | 오래도록 종기가 낫지 않는 경우

葛苳苳 木通實殼 王不留行 等分, 末, 和油塗之, 卽效.

상취디와 을음 껍질과 왕불유행을 작말하야 기름에 개여 발으면 즉효.

상취 줄기, 목통 열매의 껍질, 왕불류행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기름에 개어
서 바르면 곧 효험을 본다.

諸瘡痒疼 각식 종기가 갈엽고 압흔 디 | 창으로 가렵고 아 픈 온갖 경우

陰蛇皮去鱗, 調唾付之, 立效如神.

그늘에 있는 비암겍질을 비늘을 긁고 침 발나 부치면 신평.

음사(陰蛇)¹의 가죽에서 비늘을 없앤 뒤 침에 개어서 붙이면 바로 효험을 보니
귀신같다.

¹. 음사(陰蛇) : 언해에는 "그늘에 있는 뱀"으로 풀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뱀
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

久瘡不愈 오랜 종기가 합창되지 않는 디 | 오래된 종기가 아물지 않는 경우

棗肉 皮麻子 黃蠟 等分, 棗木內皮燒存性, 並入眞油作膏付之.

대초 피마자 밀을 등분하고 대초나무 속껍질을 불에 살와 참기름에 쓰려 고약 만들어 부치라.

대초육 피마자 황랍 각각 같은 양과 대초나무 속껍질(약성이 남게 태운 것)을 함께 참기름에 넣고 고약을 만들어 붙인다.

燒陳久網巾, 未, 付之.

오리 묵은 망건을 불에 살와 작말하야 부치라.

오래 묵은 망건을 태워서 가루 내어 붙인다.

人蔘末一分, 糝之, 神效.

인삼가루 한 톨 중을 뿌리면 신표.

인삼 가루 1톨을 뿌려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牛肉生切付之, 或海螵蛸末糝之.

쇠고기를 날로 썰어 부치고, 혹 오징어뼈를 작말하야 쏘이라.

쇠고기 생것을 썰어서 붙이거나, **해표초**¹를 가루내어 뿌려준다.

鹽湯淋洗, 取大松自落皮, 細末糝之.

소금물에 씻고 솔나무 써러진 껍질을 작말하야 쏘이라.

끓인 소금물에 씻고, 큰 소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껍질을 곱게 가루 내어 뿌려준다.

燒牛骨末, 和香油付之.

쇠뼈를 불에 토틈워 참기름에 개여 발으라.

쇠뼈를 태워서 가루 내어 참기름에 개어서 붙인다.

¹. 해표초 : 오적골(烏賊骨)의 이명이다. [↩](#)



拔根 근 썬는 약 | 창의 뿌리를 뽑아내는 약

桃木津付之, 神效.

복숭아나무 진을 부치면 신표.

복숭아나무의 진을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取生蟹漿, 和蜜付之, 塗眞墨於白紙, 付其上.

싱게장을 꿀에 타 부치고, 박지에 참먹을 발나 그 위에 부치라.

싱게장을 꿀에 타서 붙이고, 참먹을 흰 종이 위에 발라서 환처에 붙인다.

生梨或生田螺, 搗付.

비나 혹은 싱울엇을 난도하여 부치라.

배나 우렁이 생것을 찢어서 붙인다.

硫黃, 或白蘇皮末, 枯白礬末, 白磁器末, 延日礪石末, 北魚末, 生牛骨末, 河豚魚卵末,

유황이나 백선평 갈우나 고백반 갈우나 백사기 갈우나 연일 솟돌 가루나 복어 가루나 쇠새 가루나 복어알 가루를 쏘이라.

유황이나 백선평(白鮮皮) 가루나 백반(구운 것) 가루나 흰 사기그릇 가루나 연일(延日) 산 솟돌¹ 가루나 복어 가루나 소뽕(생것) 가루나 복어알 가루를 뿌려 준다.

¹. 연일(延日) 산 솟돌 : 연일 지방에서 생산된 솟돌을 가리킨다. ↩



祛惡生新 거악싱신 허는 약 | 썩은 살을 없애고 새살을 돋게 하는 약

菊花末, 和鹽, 納瘡口.

국화를 작말하야 소곰을 셋거 창구에 너으라.

국화 가루를 소곰과 섞어서 창구(瘡口)에 넣는다.

魚膠潤之, 作片付之.

불에를 물에 불너 부치라.

부레풀을 물에 담가 축여서 조각을 낸 뒤 붙인다.

雪綿子, 塗油付之, 餘地則生太末糝之.

설면즈에 기름을 못쳐 창구에 부치고, 날 콩가루를 그 밧그로 썰이라.

풀숨에 기름을 묻혀서 환처에 붙이고, 그 주위에는 생콩을 가루 내어 뿌려준다.

瘡口塞 창구가 메인 디 | 창구가 막힌 경우

狗膽, 塗紙心插之, 或田螺榆根皮, 作心插之, 或白沙器, 細末, 塗心插之, 塞者復通.

개쓸개를 조희심에 발나 쫓고, 혹 우렁이나 늪나무 쫓이 겹질을 심 민들어 쫓고, 혹 빅사기를 세말하야 심에 발나 쫓이면 다시 통하느니라.

개의 쓸개를 종이심지에 발라서 쫓거나, 우렁이나 유근피(榆根皮)¹로 만든 심지를 만들어 쫓거나, 흰 사기그릇을 곱게 가루 내어 심지에 발라서 쫓으면, 막힌 것이 다시 뚫린다.

¹. 유근피(榆根皮) : 느릅나무 뿌리 겹질을 가리킨다. 느릅나무의 겹질은 유백피(榆白皮)라고 한다. [↗](#)

經先皮合 시살 나기 전에 뺏그로 합창된 디 | 새살이 돋기 전에 피부가 아물어버린 경우

針破前處, 石雄黃炒鹽作餅, 付之.

다시 침파하고 석웅황과 복근 소금으로 썩 민들어 부치라.

아물어버린 부분을 침으로 터뜨리고 석웅황과 볶은 소금을 떡처럼 만들어 붙인다.

灸瘡 씌질흔 자리가 합창되지 않는 디 | 구창(灸瘡)

取黑牡牛屎, 燒存性, 調真油付之.

검은 황소의 똥을 불살와 참기름에 개여 발으라.

검은 황소의 똥을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붙인다.

出血不止, 靑布燒灰糝之.

피 흘너 곳치지 않는 디, 푸른 베를 불살와 그 지를 쏘이라. 혈갈 갈우도 조흐니라.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푸른 베를 태워서 재를 내어 뿌려준다.

驗膿方 골문 것을 증험하는 법 | 끓었는지 시험하는 방법

凡陰疽，夏則一朔後膿，冬則四五十日後膿。若不知膿否，用濕紙付之，經一日開視，色青則已膿者也，針破可矣。

열음에는 일삭 후에 곬꼬, 겨울에는 스오십일 후에 곬나니, 곬문 것을 알려 하면 조 희를 물에 축여 부치고, 할오 지낸 뒤에 써여 보아 빛이 풀으면 곬문 게라.

무릇 음증(陰腫)은 여름에는 1달 뒤에 곬고 겨울에는 40-50일 뒤에 곬는다. 곬 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물에 축인 종이를 붙인 뒤 하루 지나서 열 었을 때 색이 푸르면 이미 곬은 것이니, 침으로 터뜨려도 좋다.

自破方 자파하는 약 | 저절로 터지게 하는 약

眞末 鷄卵 曲子, 和勻付之. 或白丁香, 和醋付之.

밀갈우와 계란과 눌육을 셋거 부치고, 흑 참시 쏹을 초에 기여 부치라.

밀가루 계란 누룩을 고루 섞어서 붙인다. 흑은 참새의 똥을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香棉花子一介, 周回日自破.

면화씨 한 개를 삼키면 돌 만에 터지느니라.

면화씨 1개를 삼키면 하루 지나서 저절로 터진다.

破瘡後藥 파종하고 부치는 약 | 종기를 터뜨린 후 붙이는 약

取牛糞, 微溫付, 冷則換. 吸汁生肥, 無踰此者. 限完合付之.

쇠똥을 더웁게 부치되 차거든 시로 밧구어 부치라.

쇠똥을 약간 따뜻하게 해서 붙이되, 차가워지면 바꾸어서 붙인다. 즙을 빨아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데에 이보다 좋은 약은 없다. 완전히 아물 때까지 붙인다.

眞末, 入鹽水拌勻, 取皮麻子, 爛搗, 和右水作片, 付之.

밀갈우를 소금에 반죽하고 피마자를 논도하여 함썬 섯거 썬 민들어 부치라.

밀가루를 소금물에 넣어서 반죽해 놓고, 피마자를 문드러지게 찢어 앞의 물과 섞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붙인다.

洗瘡藥 종기를 씻는 약 | 혈은 곳을 씻어내는 약

鹽湯或小便洗之.

소금물이냐 혹 오줌에 씨치라.

| 소금물이나 소변으로 씻어낸다.

桑葉 當歸 防風 荊芥 黃柏, 煎洗.

쑥넙 당귀 방풍 형개 황백을 다려 씨치라.

| 쑥잎 당귀 방풍 형개 황백을 달여서 씻어낸다.

黃柏 茵陳 葱白 藿香 等分, 煎洗.

황백 인진 총백 곽향을 등분하여 다려 씨치라.

| 황백 인진 총백 곽향 각각 같은 양을 달여서 씻어낸다.

婦人門 부인문 | 부인문



虛勞 부인허로증 | 부인의 허로

加味平胃散. 沙蔘蜜¹三錢, 蒼朮二錢, 陳皮一錢四分, 製厚朴一錢, 甘草²六分.
限二十貼用. 未產婦人用之, 有孕胎.

가미평위산. 사삼 밀³하야 셔 돈, 창출 두 돈, 진피 한 돈 너 푼, 후박 강제하야 혼
돈, 감초 ⁴하야 육 푼. 한 이십첩 쓰면 아히 업는 부인이라도 곳 포티가 되느니라.

가미평위산(加味平胃散)을 쓴다. 사삼(꿀을 발라 구운 것) 3돈, 창출 2돈, 진피 1돈 4푼, 후박(법제한 것) 1돈, 감초(구운 것) 6푼. 20첩까지 쓴다. 아이 없는 부인도 이 약을 쓰면 잉태하게 된다.

1.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具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자'의 오기인 듯하다. ←

4. 具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자'의 오기인 듯하다. ←

帶下 下하증 | 대하

乾葛 山茱萸 各一錢, 煎湯, 九煎靈砂五分重, 限二十日吞下即效. 久服永去根.

건갈 산수유 각 한 돈, 다린 물에 구전영소 오 푼 증식 타 먹으면 신표.

갈근 산수유 각 1돈을 달인 물에 영사(9회 구운 것) 5푼씩을 넣고 최대 20일까지 먹으면 효험을 본다. 장복하면 병의 뿌리를 영영 없애준다.

木柑珠木枝葉, 煎茶長服, 神效. 木在處京城東大門外永道寺.

염쥬꽃나무와 입을 다려서 찹처럼 오리 먹으라.

모감주나무¹의 가지와 잎을 찹처럼 달여서 장복하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이 나무가 있는 곳은 서울 동대문 밖 영도사(永道寺, 개운사)이다.)

三年陳久南果², 烹食數三次, 神效.

삼년 묵은 호박을 삶머 슈삼차 먹으면 신표.

3년 묵은 호박을 삶아서 여러 차례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百合一兩, 陳皮三錢, 胡桃肉一個, 空心煎服. 以差爲度.

백합 한 양, 진피 서 돈, 호도육 한 개를 공심의 다려 먹으라.

백합 1냥, 진피 3돈, 호도육 1개를 달여서 빈속에 먹는다. 나을 때까지 먹는다.

產後初食飯羹前, 葡萄樹軟枝, 煎湯, 先服一甫兒, 乳道甚多.

산후 첫 국밥 먹기 전에 포도 연한 가지를 다려서 혼 보시기만 먹으면 젖이 많이 나리라.

산후에 처음으로 밥이나 국을 먹기 전에 먼저 포도나무 연한 가지를 달여 1보 시기를 먹으면 젖이 매우 많이 나온다.

¹. 모감주나무 : 염주나무라고도 한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木甘珠木" 혹은 "木紺珠"라고 표기하였으며, "櫨木", "老櫨"을 세속에서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

². 南果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南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虛勞 허로 | 허로

取大棗三升, 濃煎, 並其滓服之. 可代人蔘.

대추 서 되를 진하게 다려 먹으면 인삼을 더하느니라.

대추 3되를 진하게 달여 그 찌꺼기와 함께 먹는다. 대추 대신 인삼을 써도 좋다.



臨經腹痛 월후할 씨 비 압흔 증 | 월경 때가 되어 배가 아픈 경우

宜膠艾四物湯. 艾葉五錢, 阿膠三錢, 熟芩二錢, 當歸 川芎 白芍藥 各一錢, 玄胡索五分, 紅花三分. 煎服.

교이사물탕. 이엽 닷 돈 중, 아교쥬 서 돈 중, 숙지황 두 돈 중, 당귀 천궁 백작약 각 한 돈 중, 현호식 오 푼 중, 홍화 서 푼 중을 다려 쓰라.

교애사물탕(膠艾四物湯)을 쓴다. 쑥잎 5돈, 아교 3돈, 숙지황 2돈, 당귀 천궁 백작약 각 1돈, 현호색 5푼, 홍화 3푼.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먹는다.

心腹疼 심복통 | 명치 부위가 아픈 경우

芎歸湯, 加赤茯苓 厚朴, 煎服.

궁귀탕에 적복령 후박을 가입 하여 다려 먹으라.

궁귀탕(芎歸湯)¹에 적복령 후박을 더하여 달여서 먹는다.

¹. 궁귀탕(芎歸湯)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부인(婦人)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불수산. ① 임신부가 산월에 이것을 먹으면 태가 작아져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저절로 난산의 우려가 없게 된다. 당귀 6돈, 천궁 4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이되, 다 끓을 무렵에 술 약간을 넣고 다시 달여 따뜻할 때 먹는다. 여기에 익모초 3돈을 더하면 더욱 묘한 효과가 있다.《회춘》 ② 궁귀탕이라고도 하니 천궁과 당귀가 같은 양이다.《입문》"(佛手散. ① 孕婦臨月服之, 則縮胎易產, 自無難產之患. 當歸六錢, 川芎四錢. 右剉作一貼, 水煎, 臨熟入酒少許, 再煎, 溫服. 若加益母草三錢, 尤妙.《回春》 ② 一名芎歸湯, 卽芎歸等分也.《入門》) ←

帶下 디하증 | 대하

無論赤白, 文魚卵煎服, 以差爲準. 又烏賊魚, 去骨, 每一尾式煎服.

무론 적디백디하고 문어알을 다려 먹고, 또 오적어 뼈 썰고 훈 개식 다려 먹으라.

적대하(赤帶下)이든 백대하(白帶下)이든 상관없이 문어알을 달여서 먹되, 나을 때까지 먹는다. 또 오징어를 뼈를 제거하고 1마리씩 달여서 먹는다.

薺尼煎水, 和蜜服. 或狗骨燒末, 白湯下.

잔디를 다려 꿀을 타 먹고 혹 개뼈를 불에 살와 빻비탕에 타 먹으라.

잔대(薺尼)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먹는다. 또 개 뼈를 태워서 가루 내어 끓인 맹물에 타서 먹는다.

取醴腸草¹煎服, 神效. 但有毒, 不可多用.

한련초를 다려 먹으면 신표하되, 독하야 많이 쓰지 못하나니라.

한련초(醴腸草)를 달여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다만 한련초는 독이 있으니 많이 써서는 안 된다.

1. 醴腸草 : *醴腸草 ※문맥상 ↩

下陰痒 소문이 갈여온 디 | 전음이 가려운 경우

取猪肝, 切如瓜片, 微灸¹, 納陰內, 以蟲出爲準. 或以鹽塗之, 卽瘥.

도야지간을 잠간 불 쏘여 소문에 너어 벌에가 나오도록 하라. 혹 소곰을 발르면 즉
츠.

돼지 간을 오이를 썰듯이 얇게 썰어서 살짝 구운 뒤 전음 속에 집어넣되, 벌레
가 나올 때까지 넣어둔다. 혹은 소곰을 바르면 곧 낫는다.

¹.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下陰瘡 소문에 종괴 는 디 | 전음이 혈은 경우

黃柏 葱白 甘草 地骨皮, 濃煎, 洗之

황백 총백 감초 지골피를 다려 씨치라.

| 황백 총백 감초 지골피를 진하게 달여 그 물로 창을 씻어낸다



下陰冷 소문이 넣힌 디 | 전음이 차가운 경우

宜茱萸丸. 吳茱萸 川椒 各一升, 末, 蜜丸彈子大, 綿裹, 納陰內, 日再換之.

수유환. 오수유 천초 각 한 되를 작말하여 꿀에 환 짓기를 탄조만큼 하여 솜에 싸서 소문에 할오 두 번식 너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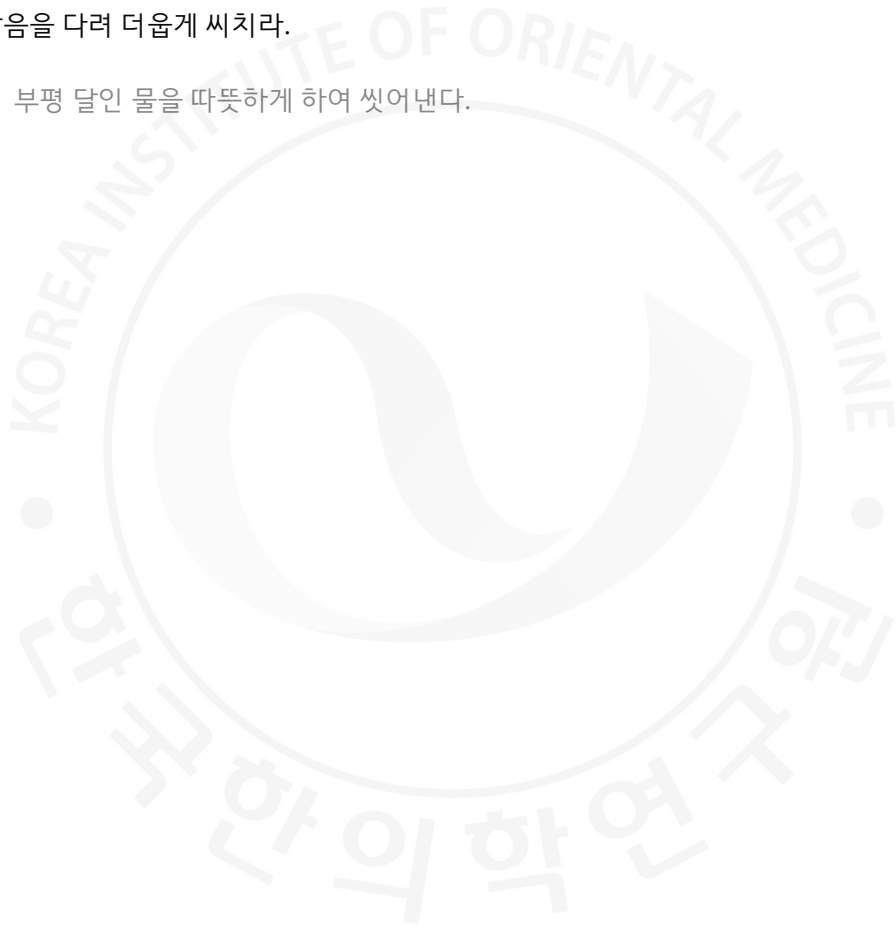
수유환(茱萸丸)을 쓴다. 오수유 천초 각 1되를 가루 내어 꿀로 탄환만 하게 환을 빚어 솜에 싸서는 전음 속에 하루 2차례 바꾸어가며 집어넣는다.

兩陰間痒 분문과 소문 사이가 갈여온 디 | 전음과 후음 사이가 가려운 경우

浮萍煎水, 溫洗之.

말음을 다려 더웁게 씨치라.

부평 달인 물을 따듯하게 하여 씻어낸다.



兩陰間瘡 분문과 소문 시이에 흔디 는 디 | 전음과 후음 사이가 혈은 경우

蛇床子煎洗後, 馬齒莧四兩, 青黛一兩, 同煎, 付之, 乾則換之. 限二十日, 見愈.

사상조를 다려 씨친 뒤에 쇠비름 넉 량 중과 청디 혼 량 중을 다려 부치되, 말느거든 시로 헹야 이십일 흔흔고 쓰면 낫나니라.

사상자 달인 물로 씻어낸 뒤, 마치현 4냥, 청대 1냥을 함께 달여 붙이되 마르면 바꾸어준다. 최대 20일 동안 이렇게 하면 낫는다.

胞門突出 탈음중 | 포문이 툇 튀어나온 경우

鼈頭, 燒存性, 溫水或酒調服. 或小八稍魚¹多食, 則見效.

잘아 머리를 불에 살와 더운 물에나 술에 타 먹으라. 혹 락제를 만이 먹으면 조흐니라.

자라 머리를 약성이 남게 태워 따뜻한 물이나 술에 타서 먹는다. 혹은 낙지(小八稍魚)를 많이 먹으면 효험을 본다.

¹. 小八稍魚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小八稍魚'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血塊 비속에 피 뭉친 디 | 혈괴

大黃四兩, 一兩醋煮, 一兩酒煮, 一兩鹽水煮, 一兩童便煮, 各七次煮後, 勻合, 又七蒸七晒, 末, 當歸 熟苻 各一兩五錢, 煎水, 糊丸梧子大, 紅花湯下.

대황 4냥(1냥은 식초에, 1냥은 술에, 1냥은 소금물에, 1냥은 동변에 각각 7차례 달여 합한 뒤 7차례 찌다가 7차례 볶아 말려서 가루 낸 것)을 당귀 숙지황 각 1냥 5돈을 넣고 달인 물로 쏘 풀로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어 홍화 달인 물로 먹는다.

대황 4냥(1냥은 식초에, 1냥은 술에, 1냥은 소금물에, 1냥은 동변에 각각 7차례 달여 합한 뒤 7차례 찌다가 7차례 볶아 말려서 가루 낸 것)을 당귀 숙지황 각 1냥 5돈을 넣고 달인 물로 쏘 풀로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어 홍화 달인 물로 먹는다.

孕胎奇方 잉티훅는 법 | 임신하는 기묘한 처방

九十月間, 取藤蘿子一斗, 陰乾細末, 糊丸, 每朝米飲吞下. 初日四丸, 次日八丸, 逐日加四丸, 至四十丸, 則每四十丸式服之. 畢服前, 勿犯房, 服盡交媾, 非但受胎, 必生男子, 又無墮胎之患. 經道不調、服冷、瘀血、半產等症, 無不神效.

구십월간에 덩덩이 열매 한 말을 그늘에 말녀 작말하야 풀에 환하야 식전마다 미음에 먹으되, 처음날은 네 기를 먹고 잇튼날은 여덟 기를 먹어 날마다 네 기씩 더하야 열흘 뒤에는 스십 기씩 먹으되 약 먹을 찌는 범방 말고 다 먹은 후에 교구하면 잉티훅뿐 아니라 남주를 잉티훅 터이오, 락티훅 넘려도 업고 복녕, 어혈, 반산 등 증에도 신효하니라.

음력 9월에서 10월 사이에 **덩덩이덩굴 열매**¹ 1말을 그늘에 말려서 곱게 가루 낸 뒤 풀로 환을 빻어 매일 아침 미음으로 먹는다. 첫날은 4환, 다음날은 8환 하는 식으로 매일 4환을 더하여 40환이 되면 매일 40환씩 먹는다. 다 복용하기 전에는 성교를 해서는 안 되며, 복용을 마친 이후에 성교를 하는데 수태할 뿐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되고 유산할 염려도 없다. 이 약은 월경이 순조롭지 않거나 배가 차거나 어혈이 있거나 유산하는 등의 증상에 신효한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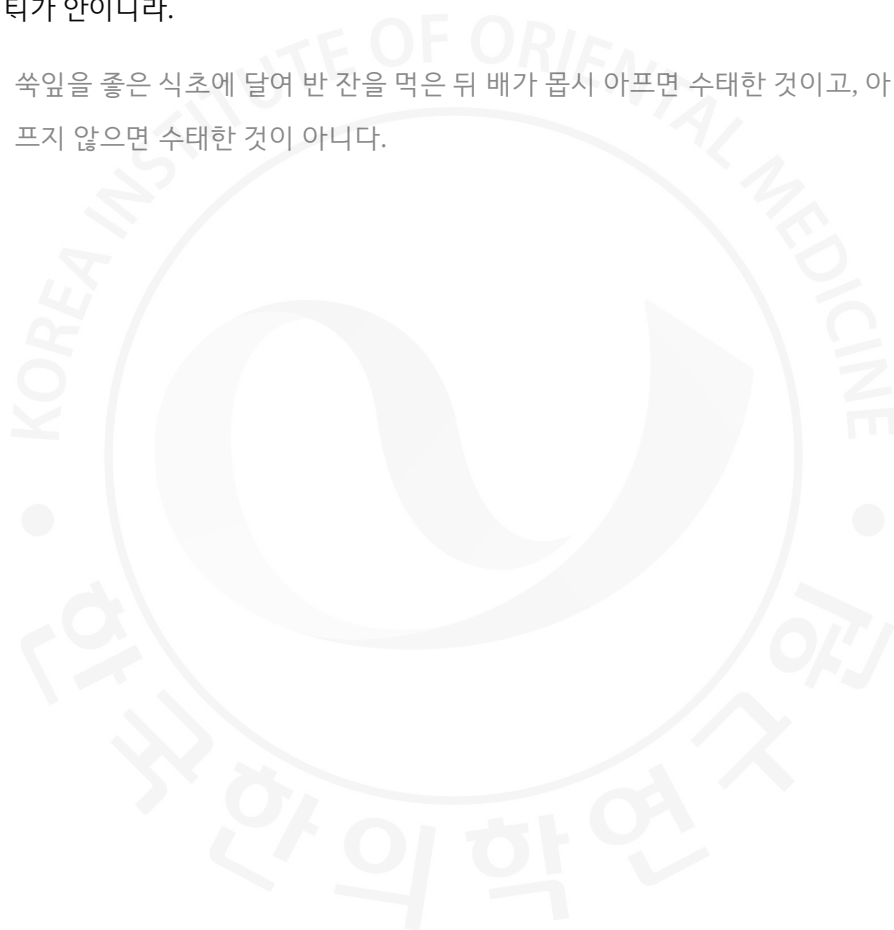
1. 덩덩이덩굴 열매 : 원문의 "藤蘿"는 하나의 식물이 아니라 덩굴을 이루는 식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원문에서 언급한 등라자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언해를 근거로 덩덩이덩굴로 번역하였다. ↗

驗胎方 포터를 징험하는 법 | 수태했는지 시험하는 처방

取艾葉, 煎好醋, 服半盞, 腹中大疼則立胎, 不疼則不墮.

쑥잎을 초에 다려 반 잔을 먹은 뒤에 배가 압하면 잉태된 것이오, 압하지 안이하면 잉태가 안이니라.

쑥잎을 좋은 식초에 달여 반 잔을 먹은 뒤 배가 몹시 아프면 수태한 것이고, 아프지 않으면 수태한 것이 아니다.



孕婦傷寒 芍藥散 芎藭散의 상한증 | 임산부의 상한

宜芎藭散. 黃芩 前胡 麥門冬 各一錢, 川芎 陳皮 白芍藥 各八分, 紫蘇六分, 乾葛五分, 甘草三分. 薑三葱五, 煎服.

궁소산. 황금 전호 맥문동 각 한 돈 중, 천궁 진피 백작약 각 팔 분 중, 조소엽 육 분 중, 건갈 오 분 중, 감초 서 분 중, 싱강 석 점, 파 다섯 켤을 다려 먹으라.

궁소산(芎藭散)을 쓴다. 황금 전호 맥문동 각 1돈, 천궁 진피 백작약 각 8분, 조소엽 6분, 갈근 5분, 감초 3분. 이상의 약재에 생강 3쪽과 파 5뿌리를 넣고 달여서 먹는다.

淋瀝 오줌 솟티 | 소변이 찝끔찝끔 나오는 경우

無論立胎未胎, 多服眞油.

턱중이나 안이나 참기름을 만이 먹으라.

임신을 했는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참기름을 많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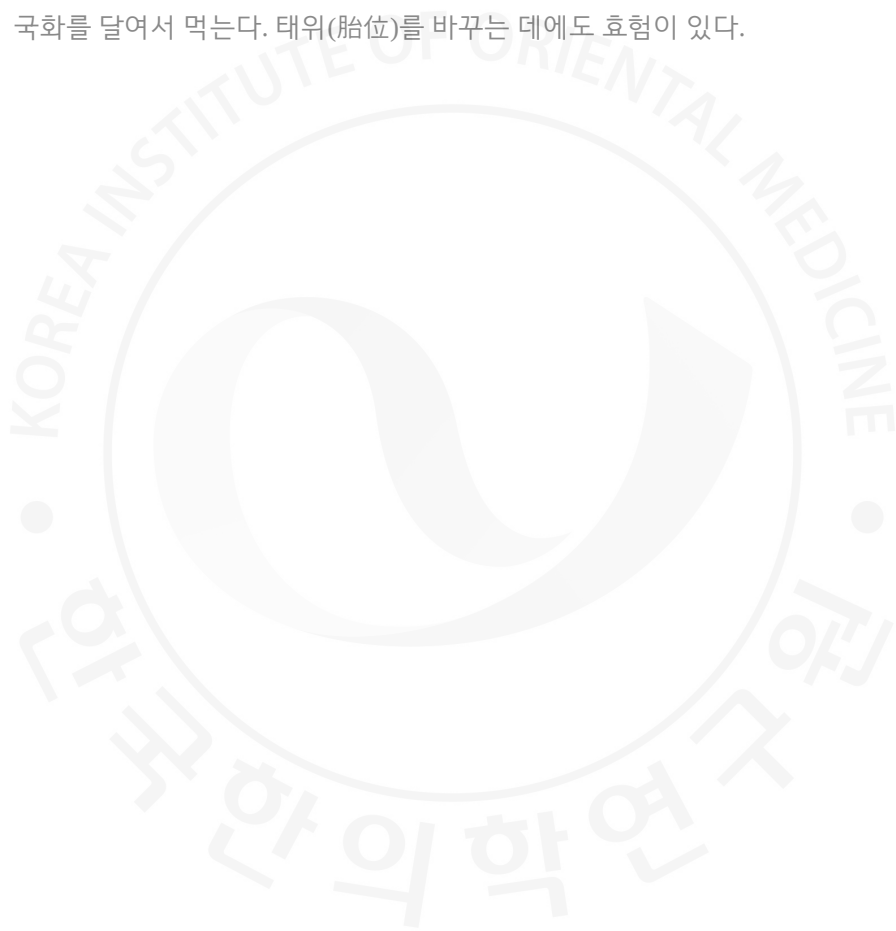


小便不通 오줌 못 누는 디 |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菊花煎服. 轉胎亦效.

국화를 다려 먹으라. 동탁에도 신표.

| 국화를 달여서 먹는다. 태위(胎位)를 바꾸는 데에도 효험이 있다.



産朔數便 산삭에 자주 뒤 보는 디 | 해산달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

當歸芍藥湯. 白芍藥 白朮 各一錢五分, 當歸 白茯苓 各一錢, 澤瀉 唐木香 檳榔 乾薑 魚 甘草 各七分. 煎服.

당귀작약탕. 백작약 백출 각 한 돈 오 푼 중, 당귀 백복령 각 한 돈 중, 택사 당목향 빈랑 건강 포하고 감초 각 칠 푼 중을 다려 먹으라.

당귀작약탕(當歸芍藥湯)을 쓴다. 백작약 백출 각 1돈 5푼, 당귀 백복령 각 1돈, 택사 당목향 빈랑 건강(습지에 싸서 구운 것) 감초.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먹는다.

孕婦虛弱 粥食 빈 계집이 허약한 디 | 임산부가 허약한 경우

滿六七朔, 有雜病虛弱, 日將棗三升, 裹紙, 爛¹灸服之, 產事極順. 雖月滿試之, 亦好.

날마다 대초 서 되를 조희에 싸 불에 구어 먹으면, 순산하고 달 찬 후에 먹어도 조흐니라.

임신한 지 6개월에서 7개월이 되었을 때 잡병이 있고 허약한 경우, 매일 대추 3되를 종이에 싸서 문드러지도록 구워 먹으면 쉽게 순산한다. 만삭 때에 먹어도 좋다.

¹.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護胎 보타하는 약 | 태를 보호하는 법

海松子粥, 能安胎, 連服. 胎漏亦效.

잣죽을 년복하라. 누혈 뵈는 디도 조호니라.

| 잣죽은 태를 든든하게 해주니 계속해서 먹는다. 태루(胎漏)에도 좋다.



胎動 동딕 된 디 | 태동

全鰓三介, 爛烹服其水. 或葡萄根煎服.

전복 세 개를 다려 그 물을 먹고, 혹 포도 뿌리를 다려 먹으라.

전복 3개를 꼭 삶아 그 물을 먹는다. 혹은 포도나무 뿌리를 달여서 먹는다.

眞末作稀粥, 不下鹽漿服之, 卽效.

밀갈우를 물새 죽 쑤어 간 치지 말고 먹으면 즉효.

밀가루로 묶은 죽을 쑤어서 간을 하지 말고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墮在下腹, 取象碁士卒, 全水煎服, 卽安. 或槐落葉三握, 煎服數次.

티가 동하야 하복에 잇는 디, 장귀쪽 스와 졸을 다 다려 먹으면 즉츰. 혹 회화나무 떨어진 님시 세 줌을 두어 츠 다려 먹으라.

태가 동하여 아랫배에 있는 경우에는, 장기의 사(士)와 졸(卒)을 물에 달여 먹으면 곧 안정된다. 혹은 회화나무의 떨어진 잎 3줌을 달여서 여러 차례 먹는다.

子懸 티가 내려 안진 디 | 자현(子懸)¹

白米作稀粥, 取海衣, 塗眞油, 不下鹽²之, 和食即效.

백미로 물새 죽 쑜고, 또 히의를 참기름 발라 소금 뿌리지 말고 구어 함씩 먹으면 즉 효.

흰쌀로 묶은 죽을 쑜고, 김에 참기름을 발라 소금을 바르지 않고 구운 뒤, 죽에 섞어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取布片浸尿, 付腹上三四次. 夏節, 取水中苔付之.

뽕 조각을 오줌에 담가 비 우에 삼스 촌 부치라. 하절에는 물속에 익새를 건져 부치라.

뽕 조각을 오줌에 담갔다가 배 위에 3-4차례 붙인다. 여름에는 물 속의 익새를 붙인다.

¹. 자현(子懸)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부인(婦人)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신 중에 태기가 고르지 못하여 심흉으로 거슬러 올라 불러 오르고 아픈 것을 자현이라고 한다. 자소음·충백탕을 써야 한다." (妊婦胎氣不和, 逆上心胸, 脹滿疼痛, 謂之子懸. 宜用紫蘇飲, 葱白湯.) ↩

².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難産 난산 | 난산

取銀杏木東向枝, 置産婦席底, 勿令産婦知之, 卽下.

은행나무 동으로 향흔 가지를 산부 몰으게 자리 밋헤 너으라.

동쪽으로 뺀 은행나무 가지를 산부의 자리 밑에 몰래 넣어두되 산부가 알지 못하게 하면 아이가 곧 나온다.

漿 醋 蜜 眞油 各一盞, 鷄子一介, 和勻溫服, 卽效.

간장과 초와 꿀과 참기름 각 1잔에 계란 1개를 고루 섞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즉효.

간장 식초 꿀 참기름 각 1잔과 계란 1개를 고루 섞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童便一甫兒, 和薑汁溫服, 兩手握皮麻子一介, 卽下.

동변 1보시기를 생강즙에 타서 따뜻하게 먹고, 두 손에 피마자 1개씩 쥐면 곧 나오느니라.

동변 1보시기를 생강즙에 타서 따뜻하게 먹고, 양손에 피마자 1개씩 쥐고 있으면 아이가 곧 나온다.

眞油二合, 亂髮灰少許, 鷄子二介, 和勻溫服, 神效.

참기름 두 홑과 난발회(亂髮灰) 조금을 계란 두 기에 타 따뜻하게 먹으면 신호.

참기름 2홑, 난발회(亂髮灰) 조금, 계란 2개를 고루 섞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取白蝦醢三介, 去頭尾足吞之, 卽下. 若不效, 則或用五六介, 無不效. 或云: "多吞則並與腸出." 甚言其效也.

시오젓 세 개를 머리와 쏘리와 발을 세발이고 삼키면 곧 희산하느니, 만일 효험이 업거든 오륙 지를 쓰되 만이 먹으면 창자까지 나온다 일느니라.

새우젓 3개를 머리, 꼬리, 다리를 떼어내고 삼키면 아이가 곧 나온다. 이렇게 하여 효험이 없을 때 5-6개를 쓰면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 어떤 이는 "새우젓을 많이 먹으면 아이가 산부의 내장과 함께 나온다." 하니, 이는 그 효험을 과장되게 말한 것이다.



橫産 곧오 히산하는 디 | 횡산

剃去頂上些髮, 取皮麻子三十介, 爛研付之, 須臾腹中攪動提正, 便刮去頂藥, 付于兩足掌心, 自然順生.

머리 정수리털을 조금 삭고 피마자 삼십 기를 눈도해야 부치면 아기가 돌아 다시 발 오지거든, 급히 정수리에 부친 약을 써여 두 발 장심에 부치면 곧 히산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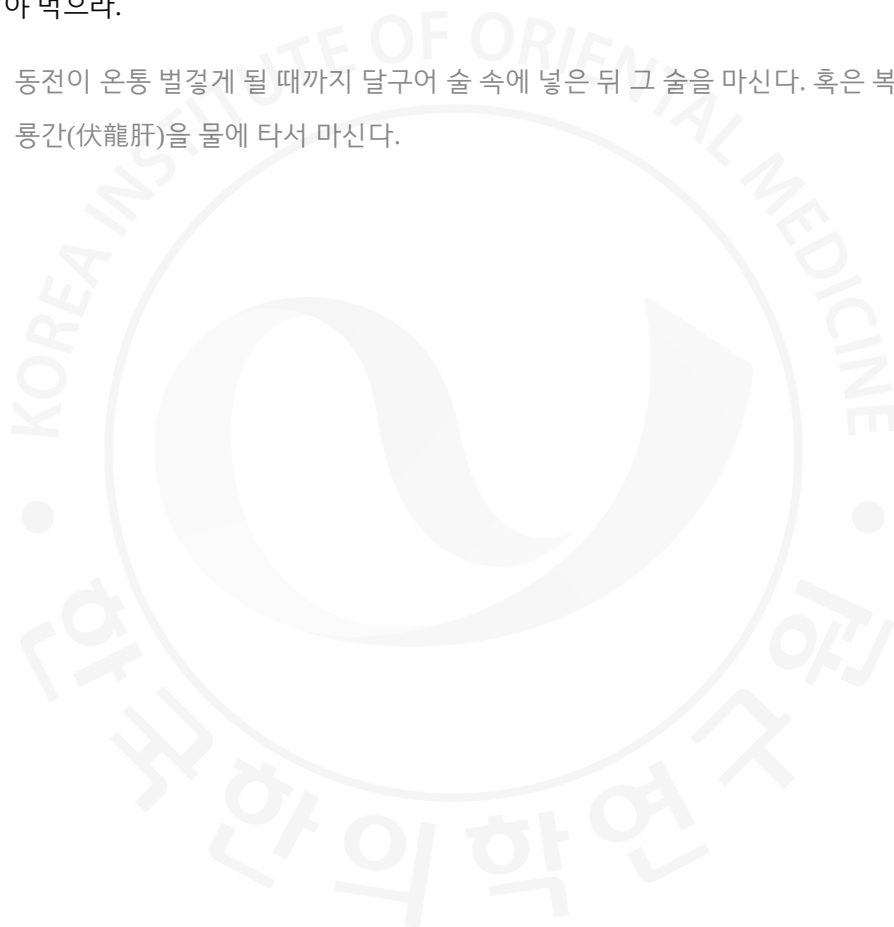
정수리의 머리칼을 약간 깎아낸 뒤 피마자 30개를 문드러지도록 갈아서 붙이면, 잠시 후 뱃속에서 아이가 요란하게 움직이다가 제자리를 찾는데, 이때 곧 바로 정수리에 붙였던 약을 떼 내어 양쪽 발바닥 가운데에 붙이면 저절로 순산하게 된다.

逆産 각구로 히산하는 디 | 역산(逆産)

燒銅錢通紅, 放酒飲之. 或取伏龍肝, 水調下.

구리돈을 불에 달와 술에 담가 그 술을 먹으라. 혹 아궁이 바닥 흙을 물에 담가 도청
하야 먹으라.

동전이 온통 벌겋게 될 때까지 달구어 술 속에 넣은 뒤 그 술을 마신다. 혹은 복
룡간(伏龍肝)을 물에 타서 마신다.



通治 통치하는 약 | 두루 치료하는 처방

保命湯. 當歸身酒洗 川芎 各一錢五分, 白芍藥微炒一錢二分, 貝母去心研 兔絲子法製 各一錢, 荊芥穗 黃芪 各八分, 厚朴薑炒 艾葉醋炒 各七分, 只角炒六分, 羌活 甘草 各五分. 薑三片, 煎服. 冬月, 白芍藥, 又加一錢. 右藥能安胎易產, 及橫逆產, 或三五日不下, 或交骨不開, 或胎死腹中, 胞衣不下, 一切難產, 服之, 立效, 神奇莫比.

보명탕을 쓰면 안티하고 순산하고, 혹 곁오 희산하는 디와 격구로 희산하는 디와 열어 날 빌운는 디와 교골이 열니지 안는 디와 복중 스티와 후산 못하는 일절 난산에 신표.

보명탕(保命湯)을 쓴다. 당귀신(술로 씻은 것) 천궁 각 1돈 5푼, 백작약(살짝 볶은 것) 1돈 2푼, 패모(심을 빼고 가루 낸 것) 토사자(법제한 것) 각 1돈, 형개수황기 각 8푼, 후박(생강즙에 볶은 것) 쑥임(식초에 볶은 것) 각 7푼, 지각(볶은 것) 6푼, 강활 감초 각 5푼. 이상의 약재에 생강 3쪽을 넣고 달여서 먹는다. 겨울에는 백작약 1돈을 더한다. 이 약은 안태시키고 아이가 잘 나오도록 하며, 횡산이나 역산으로 혹 3-5일 동안이나 아이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치골이 열리지 않거나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 포의가 나오지 않는 등의 일체 난산에 먹으면 바로 효험을 보니, 신기함이 비할 것이 없다.

兒死腹中 아기가 복중에서 죽은 디 |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경우

川芎 蘇葉 各等分, 酒水同煎, 隨量服.

천궁과 소엽을 등분하여 술과 물을 상반하여 다려 먹으라.

천궁 자소엽 각각 같은 양을 물과 술을 섞은 것에 달여서 양껏 먹는다.



孕婦未産經死 아히 빈 계집이 히산 못하고 죽은 디 | 산부가 해산하지 못하고 죽으려는 경우

取皮麻油, 塗左足背掌, 又取鼠穴土, 盛帛, 置腹上, 自然解脫.

피마즈기름을 좌편 발등과 장심에 발르고 쏘 쥐구멍 흙을 자루에 담아 비 우에 눌너 노으면 즈연이 히산흐느니라.

피마자기름을 양쪽 발의 발등과 발바닥에 바르고 쥐구멍의 흙을 자루에 담아 산부 배 위에 올려두면 저절로 해산하게 된다.

胞衣不下 후산 못하는 디 | 포의가 나오지 않는 경우

白礬末五分重, 以溫水調下, 則出.

백반 오 분 중을 더운 물에 타 먹으면 곧 나오느니라.

백반 가루 5분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먹으면 곧 나온다.



産後陰戶脫 히산 후에 탈음된 디 | 산후에 음문이 빠지는 경우

宜歸芪飲. 黃芪酒炒三錢, 人蔘 當歸 升麻 各二錢, 甘草一錢, 日三服.

귀기음. 황기 술에 복거 셔 돈 중, 인삼 당귀 승마 각 두 돈 중, 감초 한 돈 중을 다려 날마다 세 첩식 먹으라.

귀기음(歸芪飲)을 쓴다. 황기(술로 볶은 것) 3돈, 인삼 당귀 승마 각 2돈, 감초 1돈을 달여서 하루 3차례 복용한다.

蛇床蔓煎水, 藉坐其滓, 卽瘡.

사상조 년출을 다려 그 씨시를 깔고 안지면 즉치.

사상자 년쿨을 물에 달여서 그 찌꺼기를 깔고 앉으면 곧 낫는다.

産後腹疼 히산 후에 비 압흔 디 | 산후에 배가 아픈 경우

陳久山査 細桂皮 各五錢, 煎服. 若不差, 各加二錢.

묵은 산사와 가는 계피 각 닛 돈 줌을 다려 먹으라. 또 독가비바늘 혼 줌을 다려 먹으면 즉츄. 누시누험. 만일 그치지 안커든 혼 번 더 먹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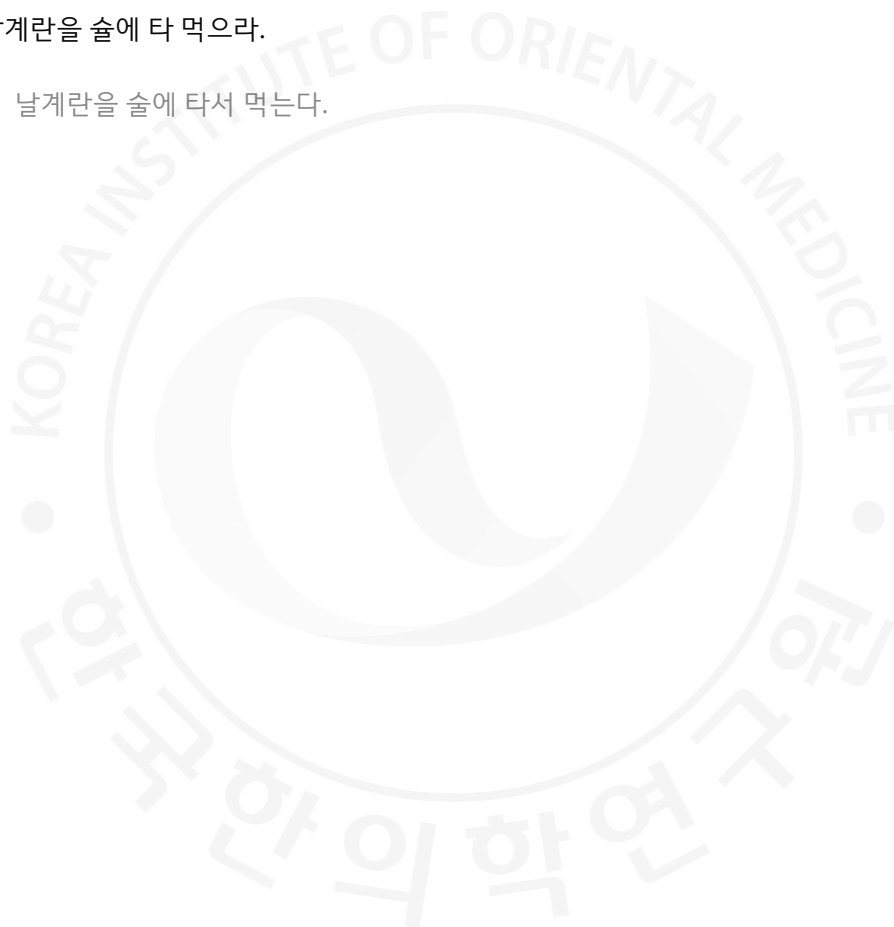
산사(묵은 것) 계피(가는 것) 각 5돈을 달여서 먹는다. 낫지 않으면 각각 2돈씩을 더한다. (도깨비바늘 1줌을 달여 먹으면 곧 낫는다. 이 약은 누차 시험하여 효험을 보았다. 만일 통증이 멎지 않으면 한 번 더 먹는다.)

産後心疼 息山 후에 가슴 압흔 디 | 산후에 가슴이 아픈 경우

取生鷄子, 調酒下.

날계란을 술에 타 먹으라.

| 날계란을 술에 타서 먹는다.



産後腰腹疼 息山 후에 허리와 비 압흔 디 | 산후에 허리와 배가 아픈 경우

藿湯和醋, 三七日內常服之. 或煎大棗服之, 神效.

메역국에 초를 타 삼칠일 안에 장복하라. 혹 대초를 다려 먹으면 즉효.

미역국에 식초를 타서 21일 동안 늘 먹는다. 혹은 대추를 달여서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産後血暈 息山 후에 현긔 잇는 디 | 산후의 혈훈

乾荷葉燒末, 溫酒調服一錢.

말는 년뎡을 불에 살와 훈 돈 중을 더운 술에 타 먹으라.

| 말린 연잎을 태워서 가루 내어 따뜻한 술에 1돈을 타서 먹는다.



産後惡露 血山 후에 악혈이 갓치지 않는 디 | 산후의 오로

久而不止, 百草霜一兩, 井花水一鍾子, 炒鹽一勻調下.

안진 검정 혼 량 중과 정화수 혼 종즈에 복근 소곰 혼 술을 타 먹으라.

오래 되어도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백초상 1냥을 정화수 1종지에 넣고 볶은 소곰 1술을 타서 먹는다.



產後發熱 히산 후에 발열되는 디 | 산후의 발열

生芡汁 童便 好醋 各一盃, 次取斧刀火煨通紅浸之, 乘熱飲之, 發汗.

싱지황집과 동변과 초 각 한 잔을 합하여 독기날을 불에 달와 담겨 더웁게 먹고 취한 하면 신표.

생지황즙 동변 식초(좋은 것) 각 1잔을 섞는다. 그곳에 온통 벌겋게 될 때까지 불에 달군 도끼날을 담근 뒤 뜨거울 때에 마시고 땀을 낸다.

溪蟹生搗取汁 好醋 各一甫兒, 同沸一次, 乘熱頓服, 雖至發狂者, 發汗而愈.

가제집과 조흔 초 각 한 보를 흠씩 쓰러 더웁게 먹으면, 비록 발광하는 증도 낫는다.

시내에 사는 게¹ 생것을 찢어서 낸 즙과 좋은 식초 각 1보시기를 섞어서 1차례 달아오를 때까지 끓여 뜨거울 때에 단번에 마시면, 발광하는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땀을 흘리고 낫는다.

太菜濃煎, 乘熱服, 取汗.

콩나물을 삶어 더웁게 먹고 취한하라.

콩나물을 진하게 달여 뜨거울 때에 먹고 땀을 낸다.

引飲, 則黃梅皮煎服, 腹疼, 則乾松茸煎服.

물을 먹거던 사양나무 껍질을 다려 먹고, 비 알커던 말는 송이를 다려 먹으라.

물을 커면 새양나무(黃梅) 껍질을 달여서 먹고, 배가 아프면 말린 송이를 달여서 먹는다.

¹. 시내에 사는 게 : 언해에는 "가제집"으로 되어 있으나, 가제는 "石蟹"로

"溪蟹"와는 다르다. 글자 그대로 "시내에 사는 게"로 번역하였다. ↩



産後浮腫 히산 후에 부증 나느 디 | 산후부종

取黃梅並根, 煎服數次, 又浴其身, 雖浮高喘急, 無不效.

사양나무를 썰어 찢다려 두어 번 먹고, 또 그 물로 목욕하면 대단이 부어 천축증이
잇셔도 낫느니라.

새양나무(黃梅)를 뿌리째 달여서 여러 차례 먹고, 또 그 물로 목욕하면 몹시
부어 숨이 차더라도 효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

若兼雜症而浮, 蓮根汁和薑汁, 溫服.

잡증을 겸하여 부기 잇는 디는, 연근집에 강집을 타 먹으라.

온갖 증세를 겸하여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즙에 생강즙을 섞어서 따뜻하
게 먹는다.

觸風失攝而有浮氣, 郤¹食等症, 濁酒一椀, 蓮根六錢, 同煎服, 神效.

바람 씌고 실섭하여 부기 잇고 음식 못 먹는 디, 탁주 한 사발에 연근 엿 돈 중을 다려
먹으면 신표.

바람을 씌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여 부기가 생기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
등에는, 탁주 1사발에 연근 6돈을 넣고 달여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¹. 郤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却'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産後咳逆 息山 후 딸꾹질 하는 디 | 산후에 딸꾹질하는 경우

當歸 玄胡索 血竭 沒藥 各一錢, 細末, 每二錢, 童便調下.

당귀 현호색 혈갈 몰약 각 한 돈 중을 함식 작말하야 두 돈 중식 동변에 타 먹으라.

| 당귀 현호색 혈갈 몰약 각 1돈을 곱게 갈아 2돈씩 동변에 타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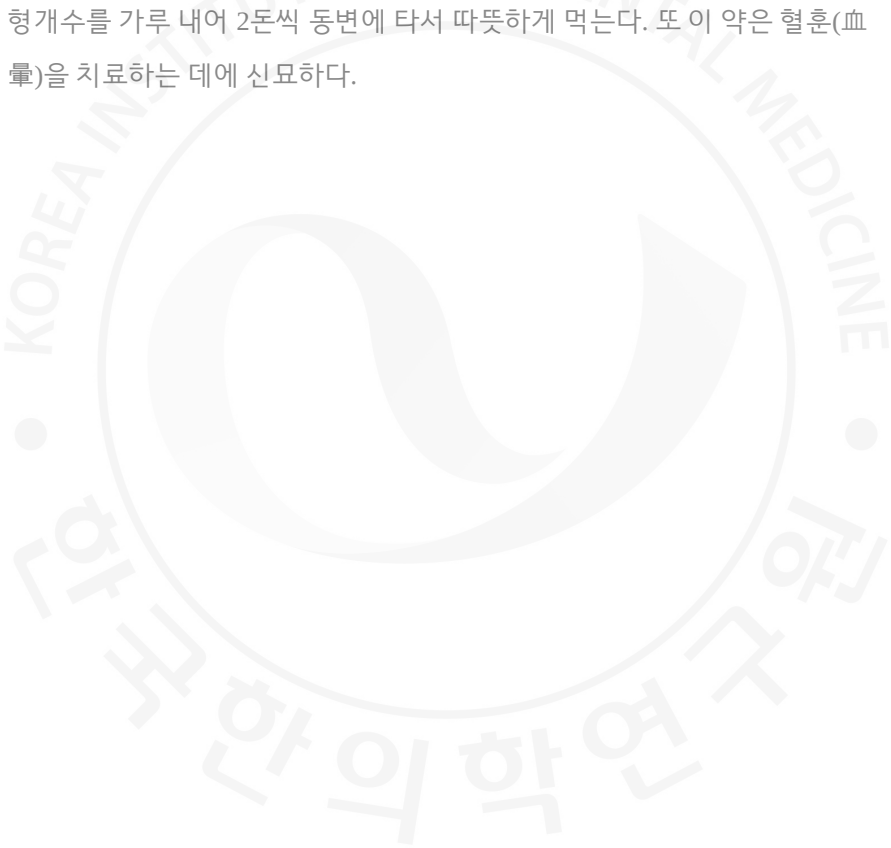


産後衄血 息山 후에 코피 나는 디 | 산후에 코피가 나는 경우

荊芥穗末, 每二錢, 調童便溫服. 又治血暈如神.

형기 이삭을 작말하야 두 돈 증식 동변에 타 더웁게 먹으라. 혈훈증에도 조흐니라.

형개수를 가루 내어 2돈씩 동변에 타서 따뜻하게 먹는다. 또 이 약은 혈훈(血暈)을 치료하는 데에 신묘하다.



産後四肢不仁 히산 후에 사지가 불인한 디 | 산후에 사지가 마비된 경우

語音不通, 水飲不入口, 取艾葉 桑葉, 雜積溫突, 沒身取汗.

말 못하고 음식 못 먹거던, 쑥잎과 뽕잎을 셋거 더운 방에 싹코 그 속에 안져 뒹하락.

말을 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쑥잎과 뽕잎을 온돌 위에 마구 쌓아놓고 그 속에 몸을 파묻고 땀을 낸다.

產後熱入血室 히산 후에 열기가 포문에 든 디 | 산후의 열입혈실(熱入血室)

若至發狂, 宜柴胡四物湯.

발광하는 지경이면, 시호사물탕을 의본방해야 쓰라.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¹을 본방대로 쓴다.

¹. 시호사물탕(柴胡四物湯)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해학(痃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호사물탕. 삼음경의 온학이나 밤에 발작하는 학질을 치료한다. 시호 생건지황 각 2돈, 인삼 반하 황금 감초 천궁 당귀 적작약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柴胡四物湯. 治三陰經溫瘕, 或夜發者. 柴胡 生乾地黃 各二錢, 人參 半夏 黃芩 甘草 川芎 當歸 赤芍藥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

産後血塊 히산 후에 어혈이 뭉친 디 | 산후에 어혈이 뭉친 경우

秋牟茶, 和醋三匙, 服之.

가을보리차에 초 세 술을 타 먹으라.

가을보리차에 식초 3술을 타서 먹는다.



産後數便 息산 후에 자쵸 뒤 보는 디 | 산후에 대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

四君子湯, 加蒼朮一錢, 煎服.

사군자탕에 창출 한 돈 중을 가입해야 다려 먹으라.

사군자탕(四君子湯)¹에 창출 1돈을 더하여 달여서 먹는다.

加味理脾湯. 人蔘 唐厚朴 各一錢五分, 山查 神曲 各一錢, 只角 砂仁 乾薑炒黑 白茯苓 各七分, 甘草五分. 生薑三片, 煎服.

가미리비탕을 의본방해야 쓰라.

가미이비탕(加味理脾湯). 인삼 당후박 각 1돈 5푼, 산사 신곡 각 1돈, 지각 사인 건강(검어질 때까지 볶은 것) 백복령 각 7푼, 감초 5푼. 이상의 약재에 생강 3쪽을 넣고 달여서 먹는다.

1. 사군자탕(四君子湯)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기(氣)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군자탕. ① 진기(眞氣)가 허약한 것을 보하여, 숨이 짧은 것과 기운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노두를 제거한 것) 백복령 백출 감초(구운 것) 각 1돈 2푼 반. 이 약들을 썰어 물에 달여 먹는다.《국방》 ② 방씨(方氏)가, '인삼은 폐를 보하고 비를 도우며, 백출은 비를 든든하게 하고 습을 말리며, 복령은 기를 내리고 습을 스며 나가게 하며, 감초는 위(胃)를 보하고 중(中)을 조화롭게 한다. 너그럽고 화평한 군자가 간사하고 급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③ 《의감》에 '인삼은 원기를 보하고, 백출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복령은 습을 빼내고 인삼을 아래로 이끌어 하초의 원기를 보한다'고 하였다.《입문》"(四君子湯. ① 補眞氣虛弱, 治氣短, 氣少. 人蔘去蘆 白茯苓 白朮 甘草炙 各一錢二分半. 右剉, 水煎服.《局方》 ② 方氏曰, 人蔘, 補肺扶脾, 白朮,

健脾燥濕, 茯苓, 降氣滲濕, 甘草, 補胃和中. 譬如寬厚和平之君子, 不爲奸險
卒暴之行也. ③ 醫鑑曰, 人參補元氣, 白朮健脾胃, 茯苓滲濕, 又引人參下行,
補下焦元氣.《入門》) ←



産後泄瀉 息山 후에 설사하는 디 | 산후에 설사가 나는 경우

三白湯, 依本方煎, 調滑石三錢, 連服三貼.

삼백탕을 의본방하야 다려 활석 서 돈 중을 타 먹으되, 세 첩을 쓰라.

삼백방(三白湯)¹을 본방대로 달인 뒤 활석 3돈을 타서 3첩을 연이어 먹는다.

蔓蓼煎服, 亦好.

잔디를 다려 먹어도 조흐니라.

만삼을 달여서 먹어도 좋다.

¹. 삼백방(三白湯)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대변(大便)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삼백탕. ① 모든 설사를 치료한다. 백출 백복령 백작약 각 1돈 반, 감초(구운 것)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② 이 3가지 흰 약제는 설사를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다.《입문》"(三白湯. ① 治一切泄瀉. 白朮 白茯苓 白芍藥 各一錢半, 甘草炙五分. 右剉, 作一貼, 水煎服. ② 三白, 泄瀉之要藥也.《入門》) ←

産後痢疾 息山 후에 이질 하는 디 | 산후 이질

無論赤白, 葱白一握, 酒煎服.

무론 적백리하고 총백 한 줌을 술에 다려 먹으라.

| 적리나 백리에 상관없이 총백 1줌을 술에 달여 먹는다.



產後雜病通治 산후 잡병을 통치하는 약 | 산후의 잡병을 두루 치료하는 처방

童便 冷水 好醋 清酒 各一盃, 煎服, 產後無雜症.

동변과 냉수와 초와 약주 한 잔씩 함씩 다려 먹으면, 산후 잡증이 업느니라.

동변 냉수 식초(좋은 것) 청주 각 1잔을 섞어서 달여 먹으면, 산후에 잡병을 알지 않는다.

鷄冠花煎服, 神效. 或白紙三張, 煎服.

민도람이 꽃을 다려 먹으면 신표. 흑 빻지 석 장을 다려 먹으라.

맨드라미를 달여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흑은 백지 3장을 달여서 먹는다.

取南苽老紅者一介, 斬蒂去內, 入青黎半升, 忍冬一握, 還覆元蒂, 縛以索物, 入鼎, 水半浸, 苽身煎沸, 取自然汁服之, 取汗.

늙은 호박 한 지를 꼭지 도리고 속을 글거니고 청정미 반 되와 인동 한 줌을 넋코 도로 꼭지를 덥혀 삭끼로 묶거 솥 속에 세워넋코 반쯤 잠기게 물을 붓고 삶어 호박속에 고인 물을 먹고 취한하라.

늙은 호박 1개를 꼭지를 도려내고 속을 파낸 뒤, 청정미¹ 반 되와 인동 1줌을 넣는다. 다시 원래의 꼭지를 뚜껑 삼아서 덥고 새끼로 묶은 다음, 호박을 솥에 넣되 물이 반쯤 잠기게 물을 넣고 호박 껍 달여서 생긴 즙을 마시고 땀을 낸다.

¹. 청정미 : 원문의 "靑黎"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언해에는 "청정미"라고 한 것을 근거로 번역하였다. ↩



乳少 젖이 귀한 디 | 젖이 잘 돌지 않는 경우

穿山甲五錢, 微炒末, 米泔水調下.

천산갑 닷 돈 중을 잠간 불 쏘여 작말하야 쌀뜨물에 타 먹으라.

천산갑 5돈을 살짝 볶아서 가루 내어 쌀뜨물에 타서 먹는다.

葛苳子一合, 糯米炒一合, 甘草二分半, 研, 沸湯一碗, 調下.

상취씨 한 홑과 복근 찰쌀 한 홑과 감초 두 톨 반을 작말하야 빻비탕에 타 한 사발을 먹으라.

상취씨 1홑, 찰쌀(볶은 것) 1홑, 감초 2톨 반을 갈아서 끓인 물 1사발에 타서 먹는다.

乳疼 젖 알는 디 | 젖이 아픈 경우

生山藥一搗, 爛搗付之, 卽差.

싱마 혼 줌을 난도햐 부치면 즉초.

| 산약(생것) 1웁큼을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붙이면 곧 낫는다.



乳癰 유종 | 유종

成癰前, 夫婦同枕, 則即差.

성종되기 전에 니외 동침하면 즉차.

宗기가 되기 전에 부부가 동침하면 곧 낫는다.

始初, 四物湯, 煎水, 調麥芽末五錢服之, 一宿, 即痊.

시초할 씨, 스물탕에 엿기름 가루 닛 돈 중을 타 먹으면 즉차.

초기에는 사물탕(四物湯)¹을 물에 달여서 맥아 가루 5돈을 타서 먹고 하룻밤 자면 곧 낫는다.

始初, 水鐵片火煨通紅, 浸于一椀清酒, 如是屢次, 則酒味乃淡, 飲之和解.

시초할 씨, 청주 혼 디접에 무쇠를 불에 달와 담가 여러 번 햏야 술맛이 업도록 혼 후 에 먹고 취한햏라.

초기에는 무쇠(水鐵) 조각이 온통 벌겁게 될 때까지 불에 달군 뒤 청주 1사발 에 담그기를 여러 차례 햏면 술맛이 업어지는데, 이것을 마셔서 풀어낸다.

始初, 松茸煎服. 或牡馬屎三四塊, 煎熱, 去滓服之.

시초할 씨, 송이를 다려 먹고, 햏 수말의 똥 삼사 덩이를 다려 거지햏야 먹으랏.

초기에는 송이를 달여서 먹는다. 햏은 수말의 똥 3-4덩이를 뜨겁게 달여서 씨 꺼기를 버리고 먹는다.

結核將成腫, 蒲公英二介, 金銀花二兩, 煎服, 微取汗. 或鰯魚, 爛搗付之, 不膿而痊.

장햏 성종햏는 디, 포공영 세 기와 금은화 두 량 중을 다려 먹고 취한햏라. 햏 송살이 를 난도햏야 부치면 곱씨 안코 낫햏니라.

멍울이 졌다가 막 종기가 되려고 할 때는, 민들레 2개, 금은화 2냥을 달여서 먹고 땀을 약간 낸다. 혹은 미꾸라지를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붙이면 굼지 않고 낫는다.

病在乳房, 靑皮五錢, 細末, 和糊付之.

젖통을 알커던 청피 닛 돈 중을 작말하야 쓸풀에 기여 부치라.

유방이 아픈 경우에는, 청피 5돈을 곱게 갈아 풀에 개어서 붙인다.

病在乳蒂, 白芷五錢, 細末, 和糊付之. 或經霜南苽葉, 末, 和水勻拌, 付之.

젖꼭지를 알커던 백지 닛 돈 중을 작말하야 쓸풀에 기여 부치고, 혹은 설이 맞진 호박 닛을 작말하야 물에 개여 부치라.

젖꼭지가 아픈 경우에는, 백지 5돈을 곱게 가루 내어 풀에 개어서 붙인다. 혹은 서리 맞은 호박 닛을 가루 내어 물에 잘 개어서 붙인다.

通治. 耳麥末, 和蜜付之, 神效. 背癰亦效.

귀리 가루를 꿀에 개여 부치면 신평. 등창에도 조흐니라.

두루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귀리(耳麥)² 가루를 꿀에 개어서 붙이면 신평한 효험이 있다. 이 약은 배중에도 효험이 있다.

淸酒一椀, 苽蓼全者三介, 靑皮三錢, 煎服.

청주 한 사발과 한울타리 세 기와 청피 서 돈 중을 다려 먹으라.

청주 1사발에 과루 온 것 3개와 청피 3돈을 넣고 달여서 먹는다.

大口魚皮, 浸水付之, 乾則換之. 或鯉魚皮, 和涎付之. 或狗膽作片, 付之.

대구 겁질을 물에 담가 부치고, 혹은 리어 겁질을 침에 축여 부치고, 혹은 기 쓸기를 부치라.

대구 껍질을 물에 담갔다가 붙이되, 마르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준다. 혹은 잉어 껍질에 침을 발라 붙인다. 혹은 개의 쓸개를 납작하게 썰어서 붙인다.

破膿久不完合, 十味導赤散, 依本方用之, 極效. 或蒲公英末, 糝付之.

파종훈 후 오리 합창 안이 되는 디, 십미도적산을 의본방하야 쓰라. 혹 포공영을 작말하야 뿌리라.

고름을 터뜨렸으나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경우에는, **십미도적산(十味導赤散)**³을 본방대로 쓰면 매우 효험이 좋다. 혹은 민들레 가루를 뿌려준다.

1. 사물탕(四物湯)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혈(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물탕. 혈병을 두루 치료한다. 숙지황 백작약 천궁 당귀 각 1돈 2푼 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국방》"(四物湯. 通治血病.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各一錢二分半. 右剉, 作一貼, 水煎服.《局方》)

2. 귀리(耳麥) : "耳麥"은 귀리를 가리킨다. "耳"의 의미가 "귀"인 것에서 파생한 한국식 한자어로 보인다. 《동의보감》에는 "귀보리", "雀麥", "燕麥"이라고 하였다. 《주춘신방》〈종(腫)〉에도 다음과 같은 상사 조문이 보인다. "또 귀리(껍질 벗긴 것)를 씹어 붙이면 신묘한 효과가 있다."(又耳麥(귀우리)去皮嚼而塗之則神效) ←

3. 십미도적산(十味導赤散)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심장(心臟)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십미도적산. 심장의 실열로 입과 혀가 헐고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번갈아 있는 것을 치료한다. 황련 황금 맥문동 반하 지골피 복신 적작약 목통 생지황 감초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과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十味導赤散. 治心藏實熱, 口舌生瘡, 驚悸煩渴. 黃連 黃芩 麥門冬 半夏 地骨皮 茯神 赤芍藥 木通 生地黃 甘草 各五分. 右剉, 作一貼, 薑五片, 水煎服.) ←



乳核 젓멍울 선 디 | 젓에 멍울이 진 경우

蒲根, 爛搗付之.

부들 뿌리를 난도햐 부치라.

| 포근(蒲根)¹을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붙인다.

| ¹. 포근(蒲根) : 부들(蒲)의 뿌리를 가리킨다. ↪

乳岩 젓멍울이 단단해야 풀리지 않는 디 | 유암(乳巖)

付不去滓松指, 神效.

거지 안이훈 송진을 부치면 신효.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은 송진을 붙이면 실효한 효험이 있다.

眞荏虫, 乾作末, 付之, 神效.

노양충을 말녀 작말하야 부치면 신효.

참깨벌레¹를 말려서 가루 내어 붙이면 실효한 효험이 있다.

鰻魚一介, 并生山藥, 爛搗, 付之.

복어 훈 기와 싱마를 난도하야 부치라.

복어 1마리를 산약(생것)과 함께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붙인다.

¹. 참깨벌레 : 원문의 "眞荏虫"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글자의 뜻에 따라 "참깨벌레"로 번역하였다. ↩

産門傷處 히산 후 소문 상흔 디 | 산문이 상한 경우

紅蛤毛, 燒存性, 調油塗之, 卽效.

홍합털을 살나 뿌리든지 참기름에 기어 발르면 즉효.

홍합의 족사(足絲)를 약성이 남게 태워서 기름에 개어 바르면 곧 효험을 본다.



小兒門 소아문 | 소아문



小兒長壽法¹ 소아장수법 | 소아장수법

臍自落者, 燒存性 九煎紅靈砂 鏡面朱砂 各一錢, 狗砂五分, 常射香一分, 各爲細末, 塗之乳頭, 使兒盡食之, 永無雜病善長.

비췌 제절로 써러진 것슬 쇼존성하야, 구전홍영스 경면 주스 각 혼 돈, 구스 오 푼, 상사향 혼 푼 극세말하야 젓꼭지에 발나 먹이면 영영 병이 업느니라.

저절로 떨어진 배꼽(약성이 남게 태운 것), 홍영사(9회 구운 것), 경면주사 각 1돈, 구보(狗寶)² 5푼, 상사향(常麝香)³ 1푼을 각각 곱게 갈아서 유두에 바른 뒤 아이에게 다 먹게 하면 영영 잡병 없이 잘 자란다.

1. 小兒長壽法 : 본문에는 없으나 문맥과 연해로 보아 탈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역자가 추가하고 번역하였다. ↪

2. 구보(狗寶) : 원문의 "狗砂"는 구보(狗寶)의 이명이다. 조선 후기 의서인 《본초휘영》에는 "구보는 세속에서 구사라고 한다." (狗寶, 俗稱狗砂)라고 적혀 있다. ↪

3. 상사향(常麝香) :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향(麝香)을 가리킨다. ↪

丹毒 단독 | 단독

唐射香, 水調塗之, 隨其蔓連處而塗之, 卽差.

당사향을 물에 갈아서 바르되, 만연하는 데로 조처 바르면 낫느니라.

당사향을 물에 개어서 바르되, 퍼져 나간 곳을 따라가며 발라주면 곧 낫는다.

胡桃葉內塗白清, 裹於當處, 一宿, 卽效.

호도잎 안에 꿀을 발라서 당처에 붓치고 하로밤 자고르면 즉효.

호두 잎 안쪽에 좋은 꿀을 발라 단독이 난 곳을 싸매고 하룻밤 자고 나면 곧 낫는다.

聾耳 귀젓 흐르는 디 | 고름으로 귀가 막힌 경우

九煎紅靈砂少許, 入耳則卽止. 神效.

구전홍영사를 귀속에 조금 넣으면 낫는니라.

홍영사(9회 구운 것) 약간을 귓속에 넣으면 곧 고름을 멎는다. 신묘한 효험이 있다.



咽喉始痛 이후 | 인후가 갓 아픈 경우

益元散半貼, 或半半貼, 水調下即効. 長則一貼用. 日久則無用.

진스익원산 반 첵 혹 반반 첵 물에 타 먹이라. 어른은 한 첵을 쓰고 알은 지 오래면 효
험이 업느니라.

익원산(益元散)¹ 반 첵, 혹은 반의 반 첵을 물에 타서 먹으면 곧 효험을 본다.
어른의 경우에는 1첵을 쓴다. 알은 지 오래된 경우에는 쓰지 못한다.

1. 익원산(益元散) : 익원산은 습문(濕門)의 육일산(六一散)을 참조 바란다.
익원산은 육일산의 이명(異名)이다. 언해에 보이는 진사오령산(辰砂五苓散)
의 처방 구성 등은 허준, 《동의보감》〈잡병편〉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 "상한으로 열이 나고 미친 말이나 헛소리를 하는 것과 나은 후 열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택사 적복령 저령 백출 각 2돈 반, 육계 진사 각
5푼. 이 약들을 곱게 가루 내어 2돈씩 끓인 물에 타서 먹는다." (治傷寒, 發熱,
狂言譫語, 及差後熱不退, 虛煩等證. 澤瀉 赤茯苓 猪苓 白朮 各二錢半, 肉桂
辰砂 各五分. 右細末, 每二錢, 沸湯點服.)" ↩

腹中啼 아기가 복중에서 우는 디 | 아이가 뱃속에서 우는 경우

取多年空房下鼠穴中土, 令孕婦含之, 卽止.

오리 뱃인 방 아리 쥐구멍 흙을 잉부가 입에 물면 곧 굶치느니라.

오래 비워 둔 방 아래의 쥐구멍 속의 흙을 임산부가 입에 머금고 있게 하면 곧 울음을 그친다.

初生預治 갓 나서 예방약 | 신생아 예방약

兒生, 卽以新綿多漬産血, 陰乾無傷, 收置不熱處. 兒或不平, 口熱身溫, 則取之浸水, 頻頻飲之, 治小兒百病.

아이를 나커든 곳 시 솜으로 히산피를 만이 못쳐 그늘에 상치 안케 말녀 선을흔 디 두엇다가, 아히가 혹 편치 안이히고 입과 몸이 더웁거든 물에 담겨 찰조 먹이면 빅병을 통치흐느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곧 새 솜에 산혈을 듬뿍 묻혀 그늘에서 상하지 않도록 말렸다가 서늘한 곳에 둔다. 아이가 혹 편안하지 않고 입과 몸이 뜨거울 때에 앞의 약을 물에 담갔다가 자주 마시게 하면 어린아이의 온갖 병을 치료해준다.

初生, 卽以九煎靈砂塗唇, 則百病通治. 又以新綿濡法油, 刷口中, 則麤物盡吐, 除雜病.

처음 나서 구전영사를 입살에 발나주면 빅병을 통치하고, 또 시 소음에 들기름을 못쳐 입속을 닦거주면 추흔 물을 다 토해야 잡병이 업느니라.

갓 태어났을 때 바로 영사(9회 구운 것)를 입술에 발라주면 온갖 병을 두루 치료한다. 또 새 솜에 들기름을 묻혀 입속을 닦아주면 더러운 것을 모두 토해내고 잡병을 없애준다.

取狗屎白者, 蜜¹末, 浸白沸湯, 去滓, 頻頻溫服, 預防急慢驚、火丹胎毒、口疳等症.

기송 흰 것을 꿀 발나 불 쏘여 작말해야 빅비탕에 담겨 찰조 더웁게 먹이면, 급경풍과 만경풍과 태단과 태독과 감창병을 다 예방흐느니라.

개송 흰 것에 꿀을 발라서 구운 뒤 가루 내어 끓인 맹물에 담갔다가 찌꺼기를 제거하고 자주 따뜻하게 해서 먹이면 급경풍·만경풍·화독·단독·태독·구감창 등을 예방해준다.

- ¹.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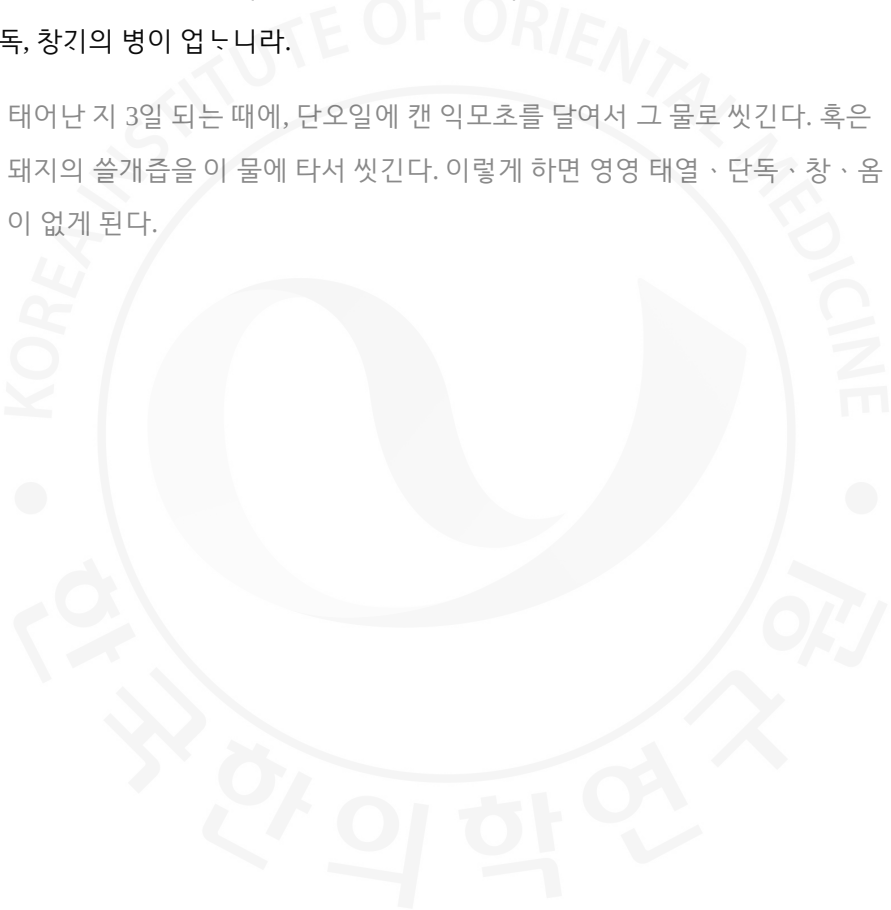


洗浴法 아히 씻기는 법 | 씻기는 방법

初生三日, 取端午日所採益母草, 沸湯浴之. 或入猪膽汁, 洗之. 永除胎熱、丹毒、瘡疥.

삼일 만에 단오날 씻은 익모초를 다려 씨시키고, 흑 도야지 쓸기를 타서 씨씨면 턱열, 단독, 창기의 병이 업느니라.

태어난 지 3일 되는 때에, 단오일에 캔 익모초를 달여서 그 물로 씻긴다. 혹은 돼지의 쓸개즙을 이 물에 타서 씻긴다. 이렇게 하면 영영 태열、단독、창、옴이 없게 된다.



初生危症 갓난아히 위증 | 갓 태어났을 때의 위급한 증세

初生, 面靑身冷口噤, 急煎¹ 仁蔘 白殭蚕 甘草 各二三分, 服之. 或² 仁蔘 烏藥 各三分, 煎服.

처음 나서 얼굴이 푸르고 몸이 차고 입을 옥물거든 급히 인삼 백강잠 감초 각 이삼푼 중을 다려 먹이며, 혹은 인삼 오약 각 서푼 중을 다려 먹이라.

갓 태어났을 때 얼굴이 푸르고 몸이 차며 입을 악다문 경우에는, 인삼 백강잠 감초 각 2-3푼을 급히 달여서 먹인다. 혹은 인삼 오약 각 3푼을 달여서 먹인다.

初生, 嘔吐, 不善乳, 木果³ 生薑, 煎水, 和蜜服.

처음 나서 구역하고 토해야 젖을 못 먹는 디, 모과와 생강을 다려 꿀을 타 먹이라.

갓 태어났을 때 토하고 젖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과와 생강을 물에 달여 꿀을 타서 먹인다.

初生, 白屑滿口, 不能吮乳, 名鵝口. 石雄黃 甘草 黃連 各等分, 末, 和蜜塗口中.

처음 나서 흰 갈우가 입에 가득해야 젖을 빨지 못하는 디, 석웅황 감초 황련을 작말해야 꿀에 지어 입속에 발느라.

갓 태어났을 때 혀연 것이 입안에 가득 끼 있어 젖을 빨지 못하는 것을 아구창〔鵝口〕이라 한다. 석웅황 감초 황련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 뒤 꿀에 개어 입속에 발라준다.

嘔吐白沫, 手足冰冷者, 全蝎十介, 酒炙⁴ 末, 入射香一字, 和勻, 每取半字, 煎於金銀器飲之. 或牛黃二分, 調竹瀝入口.

입에 흰 거품을 토하고 수족이 냉거든, 전갈 열 개를 술에 볶가 작말해야 사향 일조를 셋거 반조식 금은귀에 다려 먹이라. ⁵혹 우황 두푼 중을 죽력에 타 먹이라.

흰 거품을 토하고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찬 경우에는, 전갈 10마리를 술에 축여서 볶아 가루 내어 사향 1자를 넣고 고루 섞어서 반 자씩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에 넣고 달여서 먹인다. 혹은 우황 2푼을 죽력에 타서 먹인다.

遍身魚泡如水晶, 碎則水流, 密陀僧末糝之.

전신에 어포가 일어 수정 갓치 불오퍼 만지면 물 흐르는 디, 밀타승 갈우를 뿌리라.

온몸에 부레 같고 수정 같은 것이 나서 터뜨리면 진물이 나올 경우에는, 밀타승 가루를 뿌려준다.

齒齦上有泡如粟米, 撮口不能飲乳, 急以手指蘸溫水, 輕輕擦破, 卽止.

이몸에 좁쌀 갓치 부르터 젖 먹지 못하는 디, 급히 손가락에 더운 물을 싹어 가만이 눌너 터치라.

잇몸에 좁쌀 같은 물집이 있고 입이 오므라들고 젖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히 손가락으로 따뜻한 물을 찍은 뒤 살짝 문질러 터뜨려주면 곧 낫는다.

1.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果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4.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炙'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5. 肅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肅'의 오기인 듯하다. ↩



胎毒 톱독 | 태독

取網巾飾貢緞陳久者, 燒, 和眞油塗之.

망건 꾸며 오랜 공단을 불살와 참기름에 타 바르라.

망건 꾸민 공단 오랜 것을 불살라 참기름에 개어 바른다.

取小蝦¹爛搗付之, 朝試夕差. 或馬胎燒存性, 和油塗之, 妙. 兼治胎痒.

지고리²를 난도햐 부치면 즉츰. 혹 말의 톱을 불살와 기름에 지여 바르라.

소하(小蝦)를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붙이는데, 아침에 붙이면 저녁이면 낫는다. 혹은 말의 태(胎)를 약성이 남게 태워 기름에 개어 바르면 좋다. 이 약은 태양(胎痒)³도 치료해준다.

1. 小蝦 : *小蝦 ※문맥상 ↩

2. 小蝦 : 오역이다. 원문의 "小蝦"는 "小蝦"의 오기로서 도랑에 사는 작은 새우를 의미한다. ↩

3. 태양(胎痒) : 의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소하(小蝦)의 주치증인 태단(胎丹)의 오기이거나 태독으로 생긴 가려움증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丹毒 단독 | 단독

頭面背及手足有紅点, 乃丹毒之候也. 紅暈蔓延者, 火丹也. 紅暈上生赤腫, 如粟米, 如癰疹蔓延差後者, 風丹也. 綿花仁, 燒存性, 和眞油, 作片, 以羽塗暈處, 自上而下, 則逆塗, 自下而上, 則順塗, 暈不敢肆. 或搗芥子作餅, 付紅暈處, 毒氣不得蔓延.

머리와 얼굴과 손과 발에 붉은 점이 잇스면 단독이오, 붉은 빛이 만연하면 화단이오, 붉은 빛 위에 좁쌀 갓치 듯으면 풍단이니, 면화씨를 불에 살와 참기름에 개어 발느 되, 우의서 시작하야 내려가거든 거실너 발ngo, 아리서 시작하야 올라가거든 순이 발n면 독기가 벌지 못하고, 혹 계즈를 난도하야 부치면 독기가 벌지 못하느니라.

머리、얼굴、등、손、발에 붉은 점이 나는 것은 단독의 징후이다. 붉은 테두리가 퍼지는 것은 화단(火丹)이다. 붉은 테두리 위에 좁쌀 같은 것이 붉게 부어 오르고, 낮고 난 다음에 은진 같은 것이 퍼지는 것은 풍단(風丹)이다. 면화씨를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 편(片)을 떼서 새의 깃에 묻혀 테두리 진 곳에 바르되,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는 거슬러서 바르고 아래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결대로 바르면 테두리가 번지지 않는다. 혹은 겨자를 찢어서 떡처럼 만들어 붉은 테두리에 붙이면 독기가 퍼져나가지 못한다.

付生猪肉, 最妙. 或狗皮生付, 勝於猪肉.

도야지고기를 날로 붓치면 신표하고, 혹 개가죽을 날로 붓치면 신표.

돼지고기 날것을 붙이면 가장 좋다. 혹은 살아있는 개의 가죽을 붙이면 돼지고기보다 더 낫다.

白丹毒 帛단독 | 백단독

猝浮白色, 如常蔓延, 成瘡如癰疥者, 亦丹毒之類, 治法上全.

줄연이 부어 순식으로 벌어 흔디 되면, 단독과 갓흐니 약도 단독과 갓치 쓰라.

갑자기 부어오르되 흰색이고 퍼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선(疥癬)처럼 허는 것은 단독의 종류이니, 치법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胎丹 퇴단 | 태단

生鷄割腹付之, 或水蛭屢次付臍處, 吮出惡血.

산 닭을 비 갈나 붓치라. 혹 검어리를 붓쳐 악혈을 쏘아니게 하라.

생닭의 배를 갈라서 붙이거나 거머리를 테두리 진 곳에 여러 차례 붙여 나쁜
피를 빨아내게 한다.

眞黃土調白沸湯, 頻頻塗之, 亦治風丹.

진황토를 빙비탕에 개여 자조 바르라.

좋은 황토를 끓인 물에 개어서 자주 발라준다. 이 약은 풍단(風丹)도 치료한다.

黃丹毒 황단독 | 황단독

身生黃泡如彌羅珠, 初生如粟, 或如綠豆, 頃刻, 漸如橡如栗如柿, 大小不一, 遍滿一身, 毒氣入腹, 腹脹而死. 急煎金銀花, 調牛黃半分, 連服. 外用, 女人多年梳頭眞梳, 削爲尖利, 橫破腫泡, 盡出毒汁. 其汁亦黃, 自最大者始, 至最小者, 令無一點毒汁, 毒氣始衰.

몸에 누른 빛이 잇게 부푸러나서 구슬도 갖고 좁쌀도 갖고 녹두도 갖혀 경각 간에 도토리만 하고 밤만 하고 감만 하여 독기가 일신에 편만하여 비에 들면 죽느니, 급히 금은화를 다려 우황 반 푼 중을 타 먹이고, 계집의 머리카락은 참빗살을 싹가 굴로 침 주어 독집을 빼되 큰 것부터 시작하여 촌촌로 적은 것까지 침파하면 독기가 점점 쇠느니라.

몸에 갇힌 구슬 같은 누런 수포가 나되 처음에는 좁쌀만 하거나 녹두만 하다가 좀 지나면 도토리만 하거나 혹은 밤만 하거나 혹은 감만 하여 크기가 일정치 않은 것이 온몸을 덮는데, 독기가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창만해져 죽게 된다. 급히 금은화를 달여 우황 반 푼을 타서 연이어 먹인다. 외용(外用)으로는 여인이 오랫동안 빗질한 참빗을 깎아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누워서 부른 수포를 찔러 독즙을 모두 빼낸다. 그 독즙 역시 누런색인데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터뜨려 독즙이 전혀 없도록 하면 독기가 절로 감쇠된다.

取猪屎洗之, 木麥醋炒爲熟餅, 候冷付之. 又皮麻子磨醋塗之.

도야지 똥으로 씻고 모밀을 초와 한 가지 볶아 익혀 썩 만들어 붓치라. 또 피마자를 초에 굽아 바르라.

돼지 똥으로 씻어내고 메밀을 식초에 볶아서 떡처럼 찌서 식기를 기다렸다가 붙여준다. 또 피마자를 식초에 굽아 발라준다.



驚風預防 경풍예방 | 경풍의 예방

方產時，取鷺窩前鷺子額下所按土，浸水，兒生即時，濡綿，塗口內二三次，一生無驚風。

임산후야 제비집 압혜 제비 샷기 턱 다엇던 흙을 물에 담것다가 아히 낫커든 즉시 솜을 담거 아히 입에 이삼 촌를 바르면 평싱 경풍이 업느니라.

막 해산하려 할 때에 제비새끼 턱이 닿았던 제비집 앞의 흙을 물에 담갔다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솜에 적셔서 입속에 2-3차례 발라주면 평생 경풍을 앓지 않는다.

內外同寢，以陰陽水納兒口嚙之，卽效。急驚慢驚皆效。

니외 동침 하고 음양수로 아히를 먹이면, 급경만경에 다 즉효.

내외가 동침한 뒤 음양수(陰陽水)를 아이 입속에 넣어 먹이면 곧 효험을 본다.
급경풍、만경풍 모두 효험을 본다.

驚風 경풍 | 경풍

左手第二指爪甲底, 必有泡如粟米者, 針破出水, 非但即瘥, 永不復作.

좌편 손 둘째 손가락 손톱 밑에 좁쌀 갓치 불우튼 것이 잇슬 것이니, 침파하여 물을
니면 즉치고 다시 도지지 안느니라.

원손 둘째 손가락 손톱 아래에 필시 좁쌀만 한 수포가 있을 것이니, 침으로 터
뜨려 물을 빼낸다. 이렇게 하면 곧 나을 뿐 아니라, 영영 경풍이 다시 생기지 않
는다.

葛苳苳, 燒存性, 和蜜或調乳服.

상추 더를 불에 살와 꿀이나 흑 젖에 타 먹이라.

상추 줄기를 약성이 남게 태워 꿀에 버무리거나 젖에 버무려 먹인다.

車前子湯, 和朱砂少許, 隨兒大小服之, 急慢驚皆效. 但不可多用.

차전자를 다려 주사 조금 타 아히의 대소를 보아 먹이면, 급만경풍에 다 신평.

차전자 달인 물에 주사 조금을 타서 아이의 크기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여 먹이
면, 급경풍·만경풍 모두 효험을 본다. 다만 많이 써서는 안 된다.

取衣服中蠹魚二三介, 浸眞油, 自然消解, 服之, 神效, 更不發作.

의복 싸 둔 더 바디좀 이삼 기를 참기름에 담가두면 자연 녹을 것이니, 그 기름을 먹
으면 신평하고 다시 발작 안느니라.

옷 사이의 **좀(蠹魚)**¹ 2-3마리를 참기름에 담그면 저절로 녹아내리는데, 이것
을 먹으면 신평한 효험이 있고, 다시는 경풍을 앓지 않게 된다.

¹. 좀(蠹魚) : 옷 사이에 있는 좀으로 의어(衣魚)라고도 한다. ↪



慢驚 만경 | 만경풍

大黃 蒲黃 各三錢, 牛黃一錢五分, 甘遂一錢, 狗砂五分. 右末, 糊丸梧子大, 滑石爲衣, 一歲兒一介, 二三歲兒二介服之.

대황 포황 각 서 돈 중, 우황 한 돈 오 푼 중, 감수 한 돈 중, 구사 오 푼 중을 작말하여
풀에 환하여 활석으로 의하여 한 살 된 아히는 한 기를 먹이고 이삼 세 된 아히는 두
기를 먹이라.

대황 포황 각 3돈, 우황 1돈 5푼, 감수 1돈, 구사 5푼.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풀로 반죽하여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은 다음, 활석으로 겉을 입혀 1세 아이
는 1환, 2-3세 아이는 2환을 먹인다.

急慢驚 급경풍 만경풍 통치하는 약 | 급경풍과 만경풍

無論急慢驚, 百治不效, 取蛇脫皮一錢, 牛黃一分, 研服. 五歲以上倍之.

비암 겁질 혼 돈 증, 우황 혼 혼 증 작말하야 먹이되 다섯 살 이상은 갑절을 쓰라.

급경풍인지 만경풍인지 상관없이 온갖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에는, 뱀허물 1돈, 우황 1푼을 갈아서 먹인다. 다섯 살 이상이면 양을 2배로 하여 먹인다.

靑礞石¹ 焰硝 各一兩, 入鍋內火煨, 待硝盡鎖²如金色, 取出, 末, 薄荷汁, 入蜜, 微溫服之.

청몽석과 염초 각 혼 량 중을 노구에 한 가지 넛코 불에 달와 염초가 다 녹으면 몽석이 금빛 갖거든, 작말하야 박하 다린 물에 타서 꿀을 섷거 더웁게 먹이라.

청몽석(靑礞石) 염초 각 1냥을 솥에 넣고 염초가 다 녹고 청몽석이 금빛을 띠 때까지 불에 달군 뒤 꺼내어서 가루 낸다. 이것을 박하 달인 물에 넣고 꿀을 타서 살짝 데워서 따듯하게 먹인다.

五月五日, 取白頭蚯蚓, 以竹刀中斷, 急跳者治急驚, 慢跳者治慢驚, 不拘多少, 去滓焙乾, 末, 入朱砂 等分, 糊丸綠豆³火, 金箔衣, 白湯下.

오월 단오날 목에 흰 싹 썬 지렁이를 디칼로 쓰르면 급히 뛰는 증은 급경풍에 쓰고, 더디 뛰는 증은 만경풍에 쓰느니, 거지하야 불에 말녀 작말하고 주사와 등분하야 풀에 환 지여 금박으로 의하야 퍽비탕에 먹이라.

음력 5월 5일 목에 흰 띠 있는 지렁이를 잡아 대나무 칼로 가운데를 자른다. 이때 급히 도망가는 놈으로는 급경풍을 고치고, 서서히 도망가는 놈으로는 만경풍을 고치는데, 양에 구애 없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별에 말려 가루 낸 뒤 같은 양의 주사를 넣고 풀로 반죽하여 녹두알만 하게 환을 빚어 금박을 입혀서 끓인 맹물로 먹인다.

冬瓜子, 和乳汁爛研服. 或乾松茸煎服.

동과씨를 젖에 갈아 먹이고, 혹은 말린 송이를 다려 먹이라.

동과자(冬瓜子)를 젖에 넣어서 문드러지도록 갈아서 먹인다. 혹은 말린 송이를 달여서 먹인다.

1. 靑蒙石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靑礞石'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몽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礞'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3. 火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火'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感氣 감기 | 감기

腦後熱, 不善乳, 喘促身熱, 沙蔘 羌活 荊芥 各八分, 煎服. 或金銀花數錢, 煎服. 或¹灸生梨取汁用.

머리와 몸이 더웁고 젖을 잘 못 먹거든, 사삼 강활 형개 각 팔 톨 즙을 다려 먹이고, 혹 금은화 두어 돈 즙을 다려 먹이고, 혹 비를 구어 집니여 쓰라.

뒷머리에 열이 있고 젖을 먹지 못하며 숨을 헐떡이고 몸에 열이 있는 경우에는, 사삼 강활 형개 각 8푼을 달여서 먹인다. 혹은 금은화 여러 돈을 달여서 먹인다. 혹은 생 배를 구워서 즙내어서 먹인다.

¹.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暑傷 더위에 상한 디 | 서사(暑邪)에 상한 경우

生脉散. 或加黃芪 甘草 各一錢, 黃柏二分, 妙.

싱막산에 황기 감초 각 한 돈 중과 황백 두 푼 중을 가입하여 쓰라.

생맥산(生脉散)¹을 쓴다. 혹은 황기 감초 각 1돈, 황백 2푼을 더하여 쓰는데, 효과가 좋다.

¹. 생맥산(生脉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서(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생맥산. ① 맥문동 2돈, 인삼 오미자 각 1돈을 물에 달여 여름철에 끓인 물 대신 마신다. 혹 여기에 황기 감초 각 1돈을 넣거나 황백 2푼을 넣고 먹으면 기력이 샘물처럼 솟아난다.《입문》 ② 화(火)가 몹시 성하여 금(金)이 굴복하는 때에 한수(寒水)가 몸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급히 치료해야 한다. 생맥산으로 습열을 제거한다. 폐는 수렴하려 하고, 심은 늘어지는 것을 싫어하니 모두 신맛으로 수렴한다. 심화가 성하면 단맛으로 사해야 하니 인삼의 단맛을 오미자의 신맛으로 돕는다. 손진인이, "여름철에는 늘 오미자를 복용하여 오장의 기를 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더하면 맥문동의 약간 쓰고 차가운 성질은 수(水)의 근원을 길러주고 폐기를 식혀서 내려보낸다. 황백의 쓰고 차가운 성질을 약간 더하면 수(水)의 흐름을 늘어나게 해서 다리에 힘이 없고 약한 것을 제거한다.《동원》 ③ 인삼 맥문동 오미자가 맥(脈)을 생기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맥은 원기이다.《동원》"(生脉散. ① 麥門冬二錢, 人參 五味子 各一錢, 水煎, 夏月代熟水飲之. 或加黃芪 甘草 各一錢, 或加黃柏二分服之, 則令人氣力涌出生用.《入門》 ② 火熾之極, 金伏之際, 寒水絕體於斯時也. 故急救之. 以生脉散, 除其濕熱. 肺欲收, 心苦緩, 皆酸以收之, 心火盛則甘以瀉之. 故人參之甘, 佐以五味子之酸. 孫真人曰, 夏月常服五味子, 以補五藏氣, 是也. 麥門冬之微苦寒, 能滋水之源, 而清肅肺氣, 微加黃柏之苦寒,

以滋水之流, 除兩足之痿弱也.《東垣》③ 人參 麥門冬 五味子, 生脈, 脈者, 元氣也.《東垣》) ←



暑泄 더위에 상하여 설사하는 디 | 서설

生薑 甘草 木果¹ 厚朴 白扁豆 香薷 等分, 煎服.

싱강 감초 모과 후박 백편두 향유를 등분하여 다려 먹이라.

싱강 감초 모과 후박 백편두 향유 각각 같은 양을 달여서 먹인다.

1. 果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痰症 담증 | 담증

喉痰膈痰, 天麻煎服.

목구멍 담과 흉격에 담증은 천마를 다려 먹이라.

목구멍의 담증과 흉격의 담증에는 천마를 달여서 먹인다.

痰盛, 胡桃 大棗 生薑 杏仁, 煎服良. 又生槐木茸, 煎服, 治土痰, 最妙.

담이 성흔 디, 호두 대초 생강 행인을 다려 먹이라. 또 회화나무버섯을 다려 먹이면 조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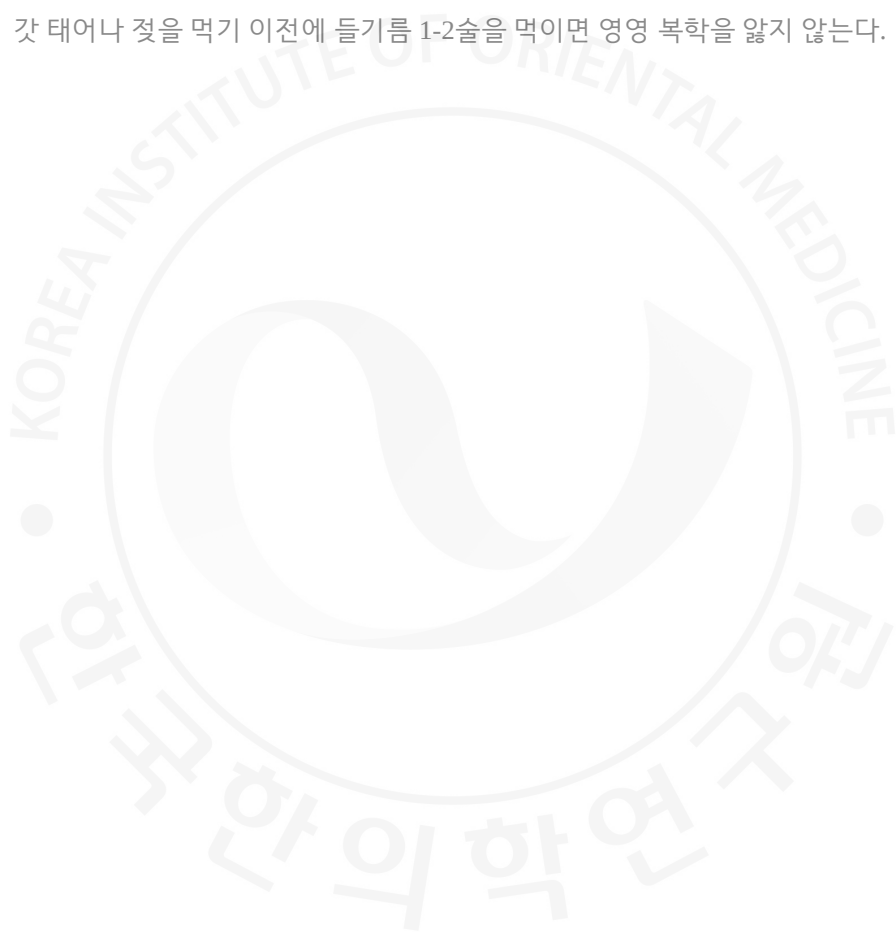
담이 꼭 막힌 경우에는, 호두 대초 생강 행인을 달여서 먹이면 좋다. 또 회화나무버섯(생것)을 달여서 먹이면 담을 토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에 가장 좋다.

腹癰預防 복학 예방 | 복학의 예방

新生未飲乳前, 取法油一二匙, 飲之, 永無腹癰.

갓 나서 젖 먹기 전에 들기름 한두 술을 먹이면 복학이 업느니라.

갓 태어나 젖을 먹기 이전에 들기름 1-2술을 먹이면 영영 복학을 앓지 않는다.



腹瘧 복학 | 복학

石雄黃五分, 硫黃三分, 淸酒三匙, 小沸飲下, 神效. 又金雞蠟用之

석웅황 오 분 중과 유황 서 분 중과 약쥬 세 술을 잠간 삶여 먹이면 신표. 또 금계랍을 쓰라.

석웅황 5분, 유황 3분을 청주 3술에 넣고 잠간 끓여 먹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또 금계랍(金雞蠟, 염산키니네)을 쓴다.

麥芽茶, 濃磨水荏瀘出, 飲其水, 卽差.

옛기름차에 들씨를 진하게 굴아 거지하야 먹이면 즉초.

옛기름차에 들개를 진하게 갈아 걸러내어 먹이면 곧 낫는다.

取斑猫三介, 去頭翅足, 同糯米炒, 候米黃, 去米取猫, 入唐黃丹 石雄黃 礬砂 各一分, 研末, 三里式, 連三朝, 溫酒調下.

청굴이 세 개를 머리와 발을 써여 바리고 찰쌀과 함새 복거 쏘이 누르거든 쏘은 바리고, 그 굴이를 당항단 석웅황 봉사 각 한 분 중과 작말하야 삼 리중식 사흘 식전을 더운 술에 타 먹이라.

반묘(머리와 날개와 다리를 떼어낸 것) 3마리에 찰쌀을 섞어서 찰쌀이 누렇게 될 때까지 볶은 뒤, 찰쌀은 버리고 반묘에 당항단 석웅황 봉사 각 1분을 넣고 가루 내어 3리씩 3일 동안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타서 먹인다.

直日早朝, 針四關穴及坎窩, 煎紅花少許服之.

직날 새벽에 스관과 감와에 침 놋코 홍화를 조금 다려 먹이라.

얇은 날 새벽에 사관혈과 우묵한 곳¹에 침을 놓고 홍화 약간을 달여서 먹인다.

取溪蟹汁服之, 或灸²食, 神效.

가제를 집니여 먹이고 혹 구어 먹이면 신표.

민물가재를 즈내어 먹이거나 구워서 먹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寒熱作疼, 宜鼈甲飲. 鼈甲一錢五分, 苧蓂仁 青皮 草果 各七分, 水煎, 調水飛黃丹三分, 服之.

한전하고 번열 잇서 중통하는 디, 별갑 한 돈 오 푼 중과 과루인 청피 초과 각 칠 푼 중을 다려 수비한 황단 서 푼 중을 타 먹이라.

오한이 들다 열이 나다를 반복하고 몸이 쑤시는 경우에는, 별갑음(鼈甲飲)을 쓴다. 별갑 1돈 5푼, 과루인 청피 초과 각 7푼을 물에 달여 황단(수비한 것) 3푼을 넣어 먹인다.

南草仁末少許, 直日, 溫水調, 數次服.

담배씨를 작말하야 직날 조금식 더운 물에 타 두어 차례 먹이라.

담배씨 가루 조금을 얹는 날 따뜻한 물에 타서 여러 차례 먹인다.

1. 우묵한 곳 : 원문에 "坎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글자의 의미를 풀어 번역하였다. ↩

2. 찻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찻'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鼈瘡 학모 | 별학(鼈瘡)

青蛙一介, 置小器內, 灌以法油少許, 以紙封器口. 翌日油有青色則蛙溲. 如小兒則服二三匙, 大兒則服半鍾子, 神效.

풀은 기고리를 적은 그릇에 넋코 들기름을 조금 부어 조희로 봉햐 잇튼날 보면 기름이 풀으면 기고리 오좁이니, 어린아히는 두세 술을 먹이고 큰 아히는 반 종즈를 먹이라.

청개구리 1마리를 작은 그릇 속에 넣고 들기름 약간을 부은 다음, 종지로 입구를 막는다. 다음날 들기름에 푸른색을 띠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청개구리의 오좁이다. 어린 아이는 2-3술을 먹이고, 큰 아이는 반 종지를 먹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鼈母黃瘦, 宜養元粥. 蓮肉 山藥 薏苡仁 粳米 等分, 末, 作粥, 常服. 入砂糖, 尤妙.

복학으로 얼굴이 누르고 몸이 팔이흔 디, 연육 산약 의이인에 썰을 등분햐 죽 쑤어 사탕을 타 장복햐라.

학모(瘡母)로 얼굴이 누렇고 파리해진 경우에는, 양원죽(養元粥)을 쓴다. 연육 산약 의이인 멍쌀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죽을 쑤어서 늘 먹인다. 설탕을 넣어 먹어도 좋다.

地鼠肉, 或灸¹或烹食之.

두더쥐 고기를 혹은 굽거나 혹은 고아 먹이라.

두더지고기를 굽거나 삶아서 먹인다.

¹. 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疳疾 감질 | 감질

黃瘦, 肚大臍尖, 用明雄黃一兩, 黃丹二兩, 並水飛, 細末. 三歲內用三分, 五歲內外用五分, 取雄雞肝一介割碎, 以末糝入肝內, 飯上蒸熟, 空心連服三次, 神效.

석옹황 혼 량 중과 황단 두 량 중을 함씩 수비작말하야 세 살 안에는 서 푼 중식 쓰고, 다섯 살은 오 푼 중식 쓰되, 수닭의 간 혼 보를 갈나 약 갈우를 뿌려 밥 우에 써서 공 심에 세 차례를 연복하면 신표.

얼굴이 누렇게 파리하며 배가 커지고 배꼽이 뽕죽해지는 경우에는, **옹황**¹ 1냥, 황단 2냥을 함께 수비하여 곱게 가루 낸다. 3살 이하는 3푼을 쓰고 5살 내외는 5푼을 쓰는데, 수닭의 간 하나를 쪼개어서 그 속에 가루 낸 약을 뿌린 뒤 밥 위에 얹어 찌 익혀서 빈속에 3차례 먹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土鼠²食, 勝凡鼠十倍.

두더쥐 고기를 구어 먹이면 예상 쥐보다 나으니라.

두더지를 구워먹으면 보통 쥐를 구워먹는 것보다 10배 낫다.

愛喫土泥, 脾疳也. 好黃土作餅, 黃連煎水, 晒乾喫之, 卽効.

감질로 흙 먹기를 좋아하는 디, 황토로 썩 만들어 황년 다린 물에 담가 말녀 먹이라.

흙 먹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감(脾疳)이다. 황토로 떡을 빻어서 황련 달인 물에 담근 뒤 벌에 말려 먹이면 곧 효험을 본다.

宜養脾湯. 石膏一錢, 陳皮 白朮 赤茯苓 甘草 軟芩酒炒 各二分. 煎服.

양비탕. 석고 혼 돈 중, 진피 백출 적복령 감초 황금 각 두 푼 중을 다려 먹이라.

양비탕(養脾湯)을 쓴다. 석고 1돈, 진피 백출 적복령 감초 황금(술로 볶은 것) 각 2푼.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먹인다.

1. 응황 : 원문의 "明雄黃"은 응황(雄黃)의 이명이다. 응황은 본래 깨끗하고 밝은 빛을 내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明雄黃"이라고도 한다. ↩

2. 좃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끓'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蛔蟲 회충으로 비 알는 디 | 회충

眞茸作末, 每二錢, 和蜜, 限二兩服.

참버섯을 작말하야 두 돈 중식 꿀에 타 먹이되, 두 량 중 위한하고 쓰라.

참버섯을 가루 내어 2돈씩 꿀에 버무려 먹이되, 최대 2냥까지 먹인다.

赤雄鷄腸, 淨洗, 和油漿¹, 空心服, 限十介.

붉은 숫닭의 니장을 정하게 씻쳐 유장을 발나 구어 먹이되, 열 기 위한하고 쓰라.

붉은 수탉의 장을 깨끗이 씻어 기름장을 발라 구워서 빈속에 먹이되, 최대 10개까지 먹인다.

¹. 漿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漿'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吐瀉 토사하는 디 |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

吐黃, 傷熱乳也, 瀉青, 傷冷乳也, 俱以白餅子下之. 滑石 輕粉 白附子 南星並炒 各一兩, 爲末, 巴豆十二粒去皮, 水一升煮, 水盡爲度, 研勻, 糯米飲和丸綠豆大. 三歲前三介, 三歲後五介, 葱白湯下.

누른 물을 토하면 더운 것에 체한 것이오, 풀은 쏙을 누면 찬 것에 체한 것이라. 활석 경분 백부자 남성(이상 모두 붉은 것) 각 1냥을 가루 낸 것과 파두(깍질을 까고 물 1되에 넣고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졸인 것)를 섞어서 고루 가루 내어 찹쌀로 만든 미음에 개어서 녹두알 만하게 환을 빚는다. 3세 이전의 아이는 3환, 3세 이후의 아이는 5환을 총백 달인 물로 먹인다.

暑吐, 取西壁土水, 暑瀉, 取東壁土水, 澄之, 或爲米飲, 或煎茶服之.

서증으로 토하거든 서편 벽 흙을 쓰고, 서증으로 설사하거든 동편 벽 흙을 쓰되, 흙을 더운 물에 담가 도청하야 그 물로 미음도 쑤며, 흑 차도 다려 먹이라.

더위 먹어 토하는 경우에는, 서쪽 벽의 흙을 물에 담가 가라앉히고, 더위 먹어 설사하는 경우에는, 동쪽 벽의 흙을 물에 담가 가라앉힌다. 이 물로 미음을 만들어 먹이거나 차를 달여서 먹인다.

小便不通 소변이 불통하는 디 |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作蒜餅付之臍上.

마늘을 난도하여 썩 만들어 비썩에 부치라.

| 마늘을 떡처럼 만들어 배꼽 위에 붙인다.



淋瀝 오줌소터 | 소변이 찝끔찝끔 나오는 경우

取鵲腦髓五六介, 和木通煎茶, 連服三四次, 奇效.

가치 히골 오륙 기를 목통과 함씩 다려 삼사 초 연복하면 신희.

가치의 골 5-6개를 목통과 함께 달여 3-4차례 연이어 먹이면 기이한 효험이 있다.



泄瀉 설사 | 설사

取山葡萄軟葉, 濃煎, 溫洗足跟.

멸우 년출의 부드러운 입을 다려 더웁게 발꿈치를 씨치라.

산포도의 연한 잎을 진하게 달여서 발꿈치를 따뜻하게 씻어낸다.

糯米作糊, 取一鍾子, 蜜一匙, 鷄子清, 和勻服.

찰쌀풀 한 종자와 꿀 한 술에 계란 흰조위를 타 먹이라.

찹쌀로 쑨 죽 1종지에 꿀 1술, 계란흰자를 넣어서 잘 섞어서 먹인다.

暴泄氣陷, 將成慢驚, 仁蔘¹煎湯, 和石雄黃末少許服.

폭설로 기함한 디, 인삼을 다려 석웅황 가루를 조금 타 먹이라.

폭설(暴泄)로 기가 처져 만경풍이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삼 달인 물에 석웅황 가루 조금을 타서 먹인다.

1.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赤痢膿血 피급송 | 적리농혈

宜黃芩芍藥湯. 黃芩¹ 白芍藥并炒 各一錢, 甘草五分. 煮服.

황금작약탕. 황금 초하고 백작약 초한 것 각 한 돈 중과 감초 오 분 중을 다려 먹이라.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을 쓴다. 황금 백작약(두 약재 함께 볶은 것) 각 1돈, 감초 5분. 이상의 약재를 달여서 먹인다.

1. 黃芩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黃芩'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白痢 흰곱송 | 백리

益元散, 入乾薑末用之. 虛弱則蓮肉湯, 調服.

익원산에 건강 가루를 가입하여 쓰고, 허약한 거든 연육탕에 타 먹이라.

익원산(益元散)에 건강(가루낸 것)을 넣어서 쓴다. 허약한 경우에는 연육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赤白痢 붉고 흰 게 석긴 곱송 | 적리와 백리

黃連三兩, 赤茯苓二兩, 末, 另取阿膠炒, 末, 調水, 和丸梧子大, 空心, 米飲下三五丸.

황련 석 량 중과 적복령 두 량 중을 작말하야 아교 가루를 물에 환 지여 공심에 미음에 삼오 기식 먹이라.

황련 3냥, 적복령 2냥을 가루 내어놓고, 별도로 아교를 볶아서 가루 낸 뒤, 물에 반죽하여 벽오동씨만 하게 환을 빚어 빈속에 미음으로 3-5환 먹인다.

海衣細末, 和蜜服. 壯老亦可.

히의를 작말하야 술에 타 먹이라. 장경과 노인에게도 조호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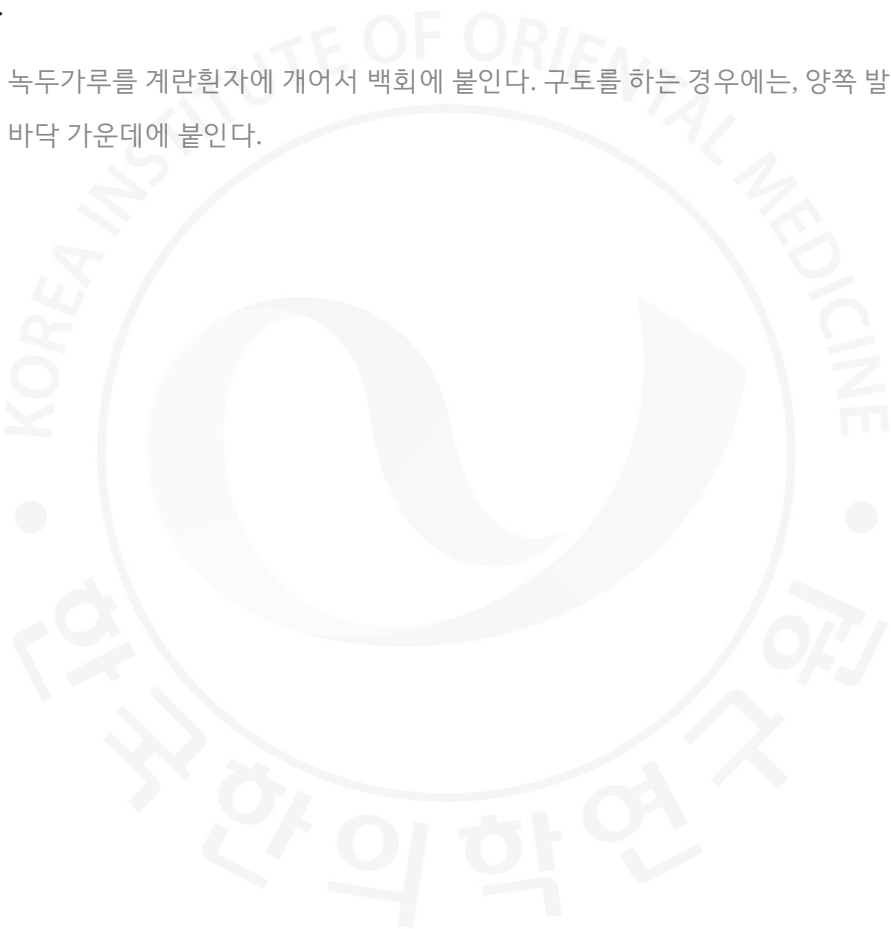
김을 곱게 가루 내어 꿀에 버무려 먹인다. 어른이나 노인에게 써도 좋다.

暑泄痢 서증으로 설사하고 리질하는 디 | 서설과 서리

綠豆末, 和鷄子清, 付百會. 如有嘔吐, 付兩足掌心.

녹두 갈우를 계란흰즈위에 기여 백회혈에 부치고, 만일 토하거든 두 발 장심에 부치
락.

녹두가루를 계란흰자에 개어서 백회에 붙인다.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양쪽 발
바닥 가운데에 붙인다.



諸泄痢 각식 설사와 리질 | 온갖 설사와 이질

滑石 硫黃, 蜜水調服, 立效. 如兼吐症, 加砂仁 藿香 各三四分.

활석과 유황을 꿀물에 타 먹이면 신표. 만일 토증을 겸하거든 사인 곽향 각 삼스푼
증을 가입하라.

활석과 유황을 꿀물에 타서 먹이면 곧 효험을 본다. 토하는 증세가 겸하여 나
타나면 사인 곽향 각 3-4푼을 더한다.

閱月不止肉脫, 取田螺去角尖, 多服, 則神效. 或眞麴末, 和蜜, 早朝空心服.

오리 낫지 안는 디, 울렁을 만이 먹으면 신표. 혹 놀옥 갈우를 꿀에 기여 시벽 공심에
먹이라.

한 달이 지나도록 설사나 이질이 멎지 않아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우렁이(뽕
죽한 끝부분을 떼어낸 것)를 많이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혹은 참누룩 가
루를 꿀에 개어서 이른 아침에 공복에 먹인다.

頭上瘡 머리에 종기 는 디 | 머리 위의 종기

大如栗如胡桃, 或堅或軟, 疔毒也. 未膿, 南星 枯礬, 末, 薑汁和醋塗之. 已膿, 針破出汁, 厚付粘飯, 日二三次.

곰씨 전에는 남성 고백반 갈우를 강집과 초에 지여 발르고, 곰새든 침파하고 찰밥을 두터이 부쳐 날마다 이삼 초식 하라.

크기가 밤이나 호두만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무르기도 한데, 이것은 감독(疔毒) 때문이다. 굼지 않았을 때는, 남성과 백반(구운 것)을 가루 내어 생강즙과 식초에 타서 발라준다. 이미 굼았을 경우에는, 침으로 터뜨려 즙을 내고 하루 2-3차례 끈끈한 밥을 두텁게 붙여준다.

頭面瘡 머리와 얼굴이 헛 디 | 두면창

取平胃散爲末, 調冷水付之, 乾則換之.

평위산을 작말하여 냉수에 지어 부치라.

평위산(平胃散)¹을 산제로 만들어 냉수에 개어서 붙여준다. 마르면 바꾸어 붙여준다.

¹. 평위산(平胃散)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위(胃)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평위산. ① 비위가 조화롭지 못하여 음식 생각이 없고 명치 부위가 불러오르고 아프며, 구역질 딸꾹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트림이 나고 탄산(呑酸)이 있으며, 얼굴이 누렇게 살이 마르며, 나른하여 눕기 좋아하고 자주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곽란 오열(五噎) 팔비(八痞) 격기(膈氣) 반위의 증상을 치료한다. 창출 2돈, 진피 1.4돈, 후박 1돈, 감초 6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와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 또는 가루내어 2돈씩 생강과 대추 달인 물에 타서 먹는다.《입문》 ② 평위산은 강렬하게 소모시키고 흠는 약이다. 실제로 위(胃)를 보하는 약은 아니고 토기(土氣)가 두터운 것을 사하여 고르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위기(胃氣)가 조화롭게 되면 곧 복용을 중지해야 하고 늘 복용해서는 안 된다.《단심》"(平胃散. ①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脹痛, 嘔噦惡心, 〔噯氣〕呑酸, 面黃肌瘦, 怠惰嗜臥,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反胃等證. 蒼朮二錢, 陳皮一錢四分, 厚朴一錢, 甘草六分. 右剉, 作一貼, 薑三片棗二枚, 水煎服. 或爲末, 取二錢, 薑棗湯點服.《入門》 ② 平胃散, 決烈耗散之劑, 實非補胃之藥, 能瀉土氣之敦阜, 使之平耳. 用之而胃氣和平則便止, 不可常用也.《丹心》) ←



聾耳 귀젓 흘리는 디 | 고름으로 귀가 막힌 경우

杏仁燒存性, 和眞油, 綿裹塞之. 或燒陳皮爲末, 吹入, 妙. 又生蠶蛹乾末, 吹入.

살구씨를 불에 살와 참기름에 개여 솜에 싸서 귀를 막으라. 혹 진피를 불에 살와 작말하야 불어 너으라. 또 누에번데기를 말녀 작말하야 불어 너으라.

행인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참기름에 개어 솜으로 싸서 귓구멍을 막는다. 혹은 진피를 태워서 가루 내어 귓속에 불어넣어주면 좋다. 또 누에번데기를 산 채로 말려서 가루 내어 귓속에 불어넣어준다.

膿汁不止, 取生銀杏汁, 滴入耳孔. 少加射香末, 尤妙.

농집이 흘리는 디, 싱 은행을 집니여 귀에 너으되, 사향을 조금 가입하면 더욱 조흐니라.

고름이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생것)을 즈내어 귓구멍에 똑똑 떨어뜨린다. 사향 가루를 약간 더해주면 더욱 좋다.

鼻生瘰肉 고궁게 무살 녹는 디 | 콧속에 군살이 생긴 경우

巴豆去油末裹之, 如管插入鼻孔, 久之, 黃水流出, 以水盡爲準, 則瘰消鼻通. 但勿使豆末褴肥.

파두를 거유하고 작말하야 싸서 코궁게 씻이면, 눌은 물이 흘으고 살이 녹느니, 파두 갈우가 살에 닿치 말게 하라.

파두(기름을 짜낸 것)를 가루 내어 싸서 관을 꽂듯이 콧구멍에 꽂은 채로 오래 두면 누런 물이 흘러나온다. 누런 물이 모두 흘러나올 때까지 두면 군살이 없어지고 코가 뚫린다. 다만 파두가 살에 직접 닿게 해서는 안 된다.

猪牙皂角刺 草烏薑製 等分末, 葱汁成膏, 貼頤門上.

도야지 아금니¹와 조각조와 초오를 등분작말하야 파집에 고와 고약 만들어 솟구멍에 부치라.

저아조각 초오(생강즙으로 법제한 것)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파즙으로 고약을 만들어 솟구멍 위에 붙여준다.

¹. 도야지 아금니 : 조각의 일종인 저아조각(猪牙皂角)에 대한 오역이다. ↩

鼻孔猝浮 코궁기 졸연 부은 디 | 코구멍이 갑자기 붓는 경우

內外猝浮, 仍爲腐傷, 以鹽水擦之, 出毒血, 人中白 黃柏, 末, 糝之. 又南星末, 調薑汁, 付頤門.

코구멍 썩고 상하는 디, 소금을 발나 독혈을 빼고 오줌적과 황백을 작말하여 뿌리라.
또 남성 갈우를 강집에 개여 숫구멍에 부치라.

코구멍 안팎이 갑자기 붓는 것은 썩어서 상했기 때문이니, 소금물로 문질러주
어 독혈을 뽑아낸 뒤, 인중백과 황백을 가루 내어 뿌려준다. 또 남성 가루를 생
강즙에 개어서 숫구멍에 붙여준다.

衄血 코피 나는 디 | 코피

青蒿塞鼻, 冷水滴腦後, 以血止爲準.

제비쑥으로 코궁글 막고 냉수로 뒤흔를 씨쳐 굿치기 썻지 위한 허라.

청호로 콧구멍을 막고 코피가 그칠 때까지 냉수로 뒤통리에 똑똑 떨어뜨린다.



口糜爛 입안이 허여지는 디 | 입속이 헐어 짓무르는 경우

枯白礬 黃柏, 末, 和蜜塗之. 或土鼠肉, 乾末, 和蜜塗之.

고북반 황백을 작말하야 꿀에 지여 발느고, 혹 두더취를 말녀 작말하야 꿀에 개여 발느라.

백반(구운 것) 황백을 가루 내어 꿀에 개어서 바른다. 두더지 고기를 말려서 가루 내어 꿀에 개어서 바른다.

口瘡、重舌、重脣、喉痺及口中百病, 宜牛黃散. 焰硝一錢五分, 黃連 黃柏 各八分, 辰砂 牛黃 青黛 各二分, 雄黃 片腦 硼砂 各一分. 右末, 每少許糝之.

입안에 각식 병에 우황산을 의본방하야 작말하야 조곰씩 뿌리라.

구창, 중설, 중악, 후비 및 입속의 온갖 병에는 우황산(牛黃散)을 쓴다. 염초 1돈 5푼, 황련 황백 각 8푼, 진사 우황 청대 각 2푼, 우황 용뇌(片腦) 붕사 각 1푼.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매번 조금씩 뿌려준다.

齒疳 니 두덩 썩는 디 | 잇몸이 곱고 썩은 경우

秋石 三綠 等分末, 糝之. 或取狗糞抹齒, 卽以冷水漱之. 如是數次, 雖至傷腐者, 卽效.

오줌적 삼녹을 등분작말하야 뿌리라. 혹 개똥을 니에 발르고, 곱 냉수로 양치하야 두어 차례 하면 즉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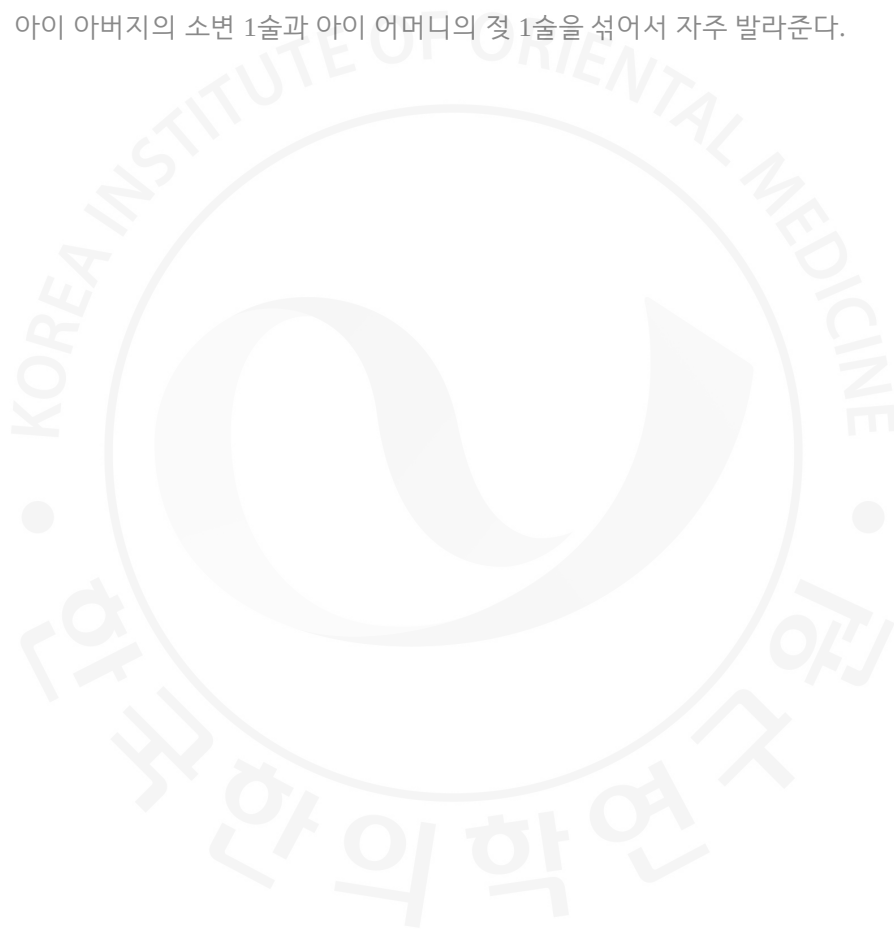
추석 삼록(三綠)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뿌려준다. 혹은 개똥으로 이를 문지르고 곱 냉수로 씻어낸다.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차례 하면, 몹시 썩은 경우에도 곱 효험을 본다.

口中白苔 입안에 박티 싰 디 | 입속에 백태가 끼는 경우

其父小便一匙, 其母乳汁一匙, 調和, 頻塗之.

그 아비 오줌 한 술과 그 어미 젖 한 술을 타 자조 발느라.

| 아이 아버지의 소변 1술과 아이 어머니의 젖 1술을 섞어서 자주 발라준다.



滯頤 침 흘리는 디 | 입가로 침을 흘리는 경우

冷涎, 丁香 益智仁, 煎服. 熱涎, 山梔 天花粉, 煎服. 清涎, 虵漸, 苦練根 使君子 各一錢, 白礬半生半枯 檳榔 各五分, 煎服.

침이 냉하면 정향 익지인을 다려 먹이고, 침이 더우면 산치자 천화분을 다려 먹이고, 말근 침을 흘리면 회충이니, 고련근 스군즈 각 한 돈 중, 백반 빈랑 각 오 푼 중을 다려 쓰라.

차가운 침을 흘리는 경우에는, 정향 익지인을 달여서 먹인다. 더운 침을 흘리는 경우에는, 산치자 천화분을 달여서 먹인다. 맑은 침을 흘리는 것은 회충이 있어서이니, 천련근 사군자 각 1돈, 백반(반은 생것이고 반은 구운 것) 빈랑 각 5푼을 달여서 먹인다.

唇浮 脣살이 부은 디 | 입술이 붓는 경우

付黃柏皮, 或藍汁頻塗, 妙.

황경피를 부치고, 혹 쪽집을 자주 발느라.

| 항백 껍질을 붙이거나, 쪽즙을 자주 발라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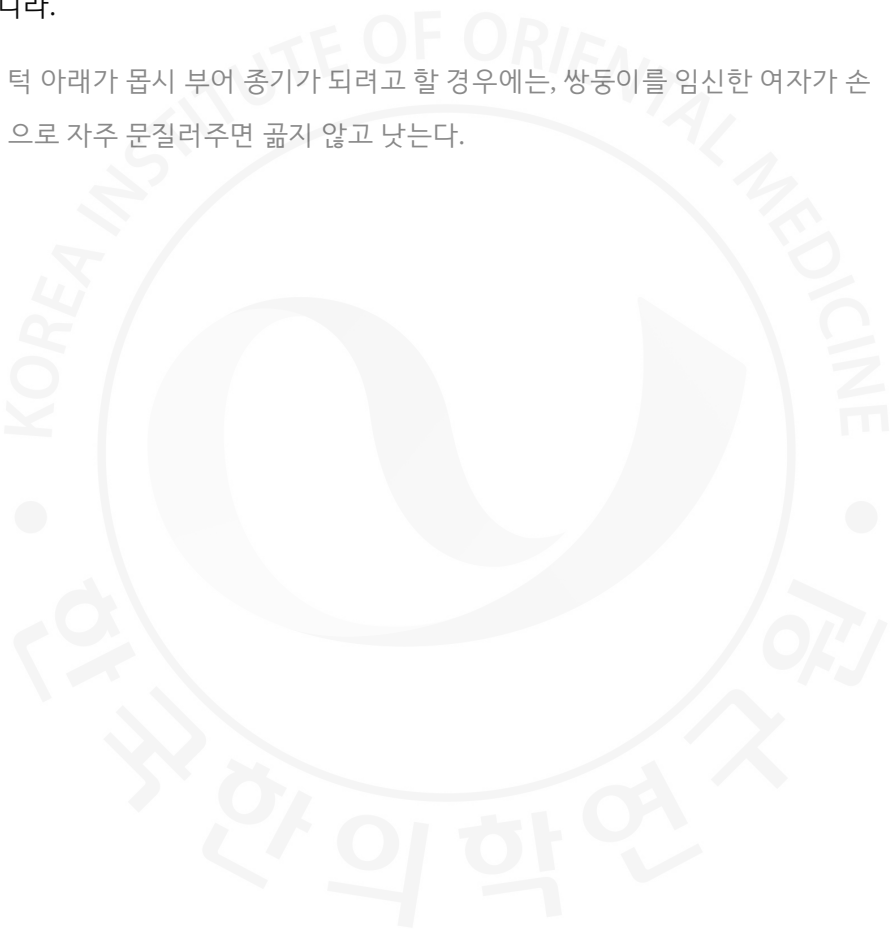


頤下核 턱거리 | 턱 아래에 멍울이 생긴 경우

頤下浮高, 將至成瘡, 用雙胎女人手, 頻頻摩之, 不膿而痊.

턱 맞히 부어 골무라 하는 디, 쌍티흔 계집의 손으로 자조 만지면 곱씨 안이하고 낫
느니라.

턱 아래가 몹시 부어 종기가 되려고 할 경우에는, 쌍둥이를 임신한 여자가 손
으로 자주 문질러주면 곱지 않고 낫는다.



龜胃 가슴 투여나는 디 | 구흥

宜百合丹. 大黃酒炒七分半, 天門冬 杏仁 百合 木通 桑白皮 只角 甘草 松脂 石膏煨
各五分. 末, 蜜丸, 白湯下. 或用肥兒丸, 數三劑, 卽愈.

백합단을 의본방하야 쓰고, 혹 비아환 이삼 제를 쓰면 낫느니라.

백합단(百合丹)을 쓴다. 대황(술로 볶은 것) 7푼 반, 천문동 행인 백합 목통 상
백피 지각 감초 송진 석고(불에 달군 것) 각 5푼.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환을 빚어 끓인 맹물로 먹인다. 혹은 비아환(肥兒丸)¹을 여러 제(劑) 쓰면 곧
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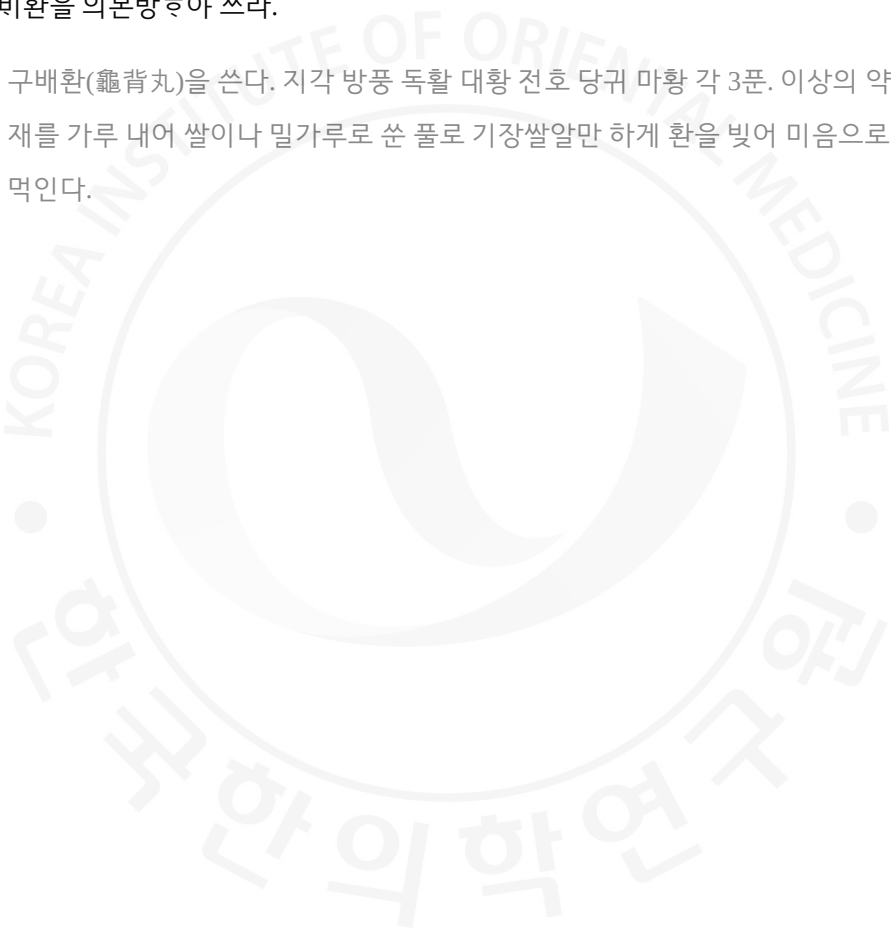
¹. 비아환(肥兒丸)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소아(小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비아환. 감병에는 비아환과 감적병을 주로 쓴다. 이 약은 감
(疳)을 삭이고 적(積)을 녹이며, 벽(癖)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간을 치고 비를
보하며, 음식을 들게 하고 살충한다. 호황련 5돈, 사군자육 4돈 반, 인삼 황련
(생강즙에 축여 볶은 것) 신국(볶은 것) 맥아(볶은 것) 산사육 각 3돈 반, 백출
백복령 감초(구운 것) 각 3돈, 노회(사발에 넣고 진흙으로 감싸 겨를 태운 잿불
에 묻어 속까지 충분히 구운 것) 2돈 반. 이 약들을 가루내고 기장쌀로 쏜 풀로
반죽하여 녹두대로 환을 만든다. 미음에 20-30알씩 먹인다."(肥兒丸. 凡疳病,
以肥兒丸, 疳積餅爲主. 此藥消疳, 化積, 磨癖, 清熱, 伐肝, 補脾, 進食, 殺蟲.
胡黃連五錢, 使君子肉四錢半, 人參 黃連薑汁炒 神麴炒 麥芽炒 山楂肉 各三
錢半, 白朮 白茯苓 甘草灸 各三錢, 蘆薈碗盛泥裹糠灰火煨透二錢半. 右爲末,
黃米糊和丸菉豆大, 米飲下二三十丸.) ←

龜背 등 투여는 디 | 구배

宜龜背丸. 只角 防風 獨活 大黃 前胡 當歸 麻黃 各三錢. 末, 米麵糊丸黍米大, 米飲下.

구비환을 의본방햐 쓰라.

구배환(龜背丸)을 쓴다. 지각 방풍 독활 대황 전호 당귀 마황 각 3푼.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쌀이나 밀가루로 쏘 풀로 기장쌀알만 하게 환을 빚어 미음으로 먹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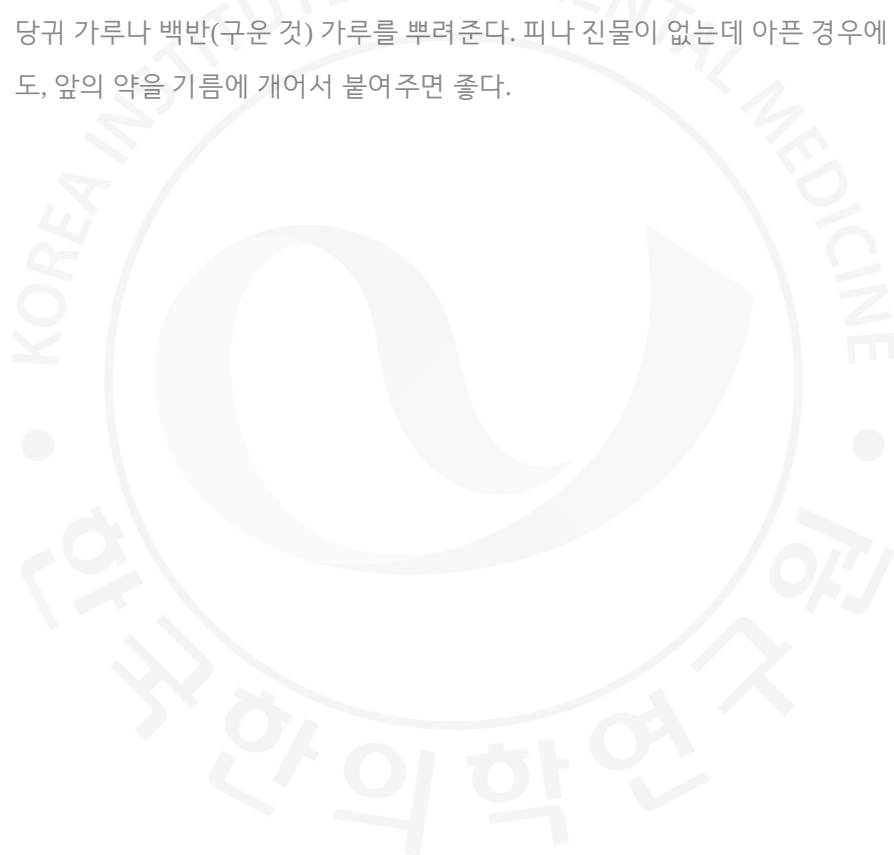


臍中血汁 비꼽에 피진물 나는 디 | 배꼽에 피나 진물이 나는 경우

當歸末, 或枯礬末, 糝之. 若乾而疼者, 調油付之, 亦妙.

당귀 갈우느 혹 고백반 갈우를 썰리고, 만일 말느고 압흔 디는 기름에 개여 발느라.

당귀 가루나 백반(구운 것) 가루를 뿌려준다. 피나 진물이 없는데 아픈 경우에도, 앞의 약을 기름에 개어서 붙여주면 좋다.



臍封犯風 비꼽에 바람 든 디 | 배꼽에 바람이 든 경우

或爛瘡, 或猝浮突起, 名旋螺. 荊芥穗 艾葉, 同煎洗. 或石雄黃 乳香, 和清油塗之.

허여지고 혹 부어올르는 디, 형기 이삭과 쑥넙을 다려 즈조 씨치라. 혹 석웅황과 유향을 참기름에 지어 발느라.

혹은 짓무르면서 헐고, 혹은 갑자기 부어서 튀어나오는데, 이것을 선라(旋螺)라고 부른다. 형개수와 쑥잎을 함께 달여서 그 물로 씻어준다. 혹은 석웅황과 유향을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臍瘡 비썩 흐는 디 | 배꼽이 헐은 경우

生布細切爲屑, 白蘚皮 黃芪, 細末, 和勻, 糝付. 或黃柏 枯礬, 末, 糝之.

싱 베를 간을게 썰어 갈우 만들고, 백선틸과 황기를 작말하야 섯거 쏙이고 흑 황경피와 고빅반 갈우를 뿌리라.

싱 베를 가늘게 썰어서 가루 내고, 백선틸(白鮮皮)와 황기를 곱게 가루 낸 뒤, 고루 섞어서 배꼽에 뿌려준다. 흑은 황백과 백반(구운 것)을 가루 내어 뿌려준다.

腹疼 비 알는 디 | 배앓이

時時啼，背浮席，或倒左右者，腹疼，丁香一錢，煎服。

씨씨로 울고 몸을 주리에 부치지 않는 것은, 비가 압흔 것이니 정향 혼 돈 중을 다려 먹이라.

계속해서 울고 몸을 제자리에 붙이지 못하고 혹 좌우로 뒹구는 것은 배가 아파서이니, 정향 1돈을 달여서 먹인다.

上半夜，仰身有汗而啼者，熱腹疼。其症小便赤，口熱腹煖，宜導赤散。

초저녁에 울고 몸에 땀 안 나면 열해야 비 알는 것이니, 도적산을 의본방해야 쓰라.

자정이 되기 전에 몸을 젖히고 땀이 나면서¹ 우는 것은 열증으로 배앓이 하는 것이다. 그 증상은 소변이 붉고 입이 뜨겁고 배가 따뜻한 것이니, 도적산(導赤散)²을 쓴다.

下半夜，曲腰而啼者，寒腹疼。其症面青白，口有冷氣，手足及腹亦冷，宜六神散。

시벽에 울고 얼굴이 푸르고 수족과 배가 냉하면 치워서 비 알는 것이니, 육신산을 의본방해야 쓰라.

자정이 된 이후에 몸을 굽히면서 우는 것은 한증으로 배앓이 하는 것이다. 그 증상은 얼굴이 희푸르고 입에 냉기가 있으며 손발과 배 또한 찬 것이니, 육신산(六神散)³을 쓴다.

犯風或觸冷而腹疼，仁蔘⁴四五分，煎服。或茴香酒炒 香附子 乳香 各等分，煎服。

바람과 치위에 상하여 비 알는 디, 인삼 스오 푼 중을 다려 먹이라. 혹 회향 향부즈 유향을 등분하여 다려 먹이라.

바람이 들거나 추위에 감촉되어 배가 아픈 경우에는, 인삼 4-5푼을 달여서 먹인다. 혹은 회향(술로 볶은 것) 향부자 유향 각각 같은 양을 달여서 먹인다.

1. 땀이 나면서 : 언해에 '몸에 \uea77 안 나면'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

2. 도적산(導赤散)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소장부(小腸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도적산. 소장열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생지황 목통 감초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서 청죽엽 7장을 넣어 달여 먹는다." (導赤散. 治小腸熱, 小便不利. 生地黃 木通 甘草 各一錢. 右剉, 入青竹葉七片, 同煎服.) ←

3. 육신산(六神散)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소아(小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육신산. 배가 차고 아파 밤에 우는 것을 치료한다. 백복령 백편두(볶은 것) 각 2돈, 인삼 백출 산약(볶은 것) 각 1돈, 감초(구운 것) 7푼. 이 약들을 거칠게 가루 내어 1돈씩에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먹인다." (六神散. 治腹冷痛夜啼. 白茯苓 白朮豆炒 各二錢, 人參 白朮 山藥炒 各一錢, 甘草灸七分. 右爲麤末, 每取一錢, 入薑三棗二, 水煎服.) ←

4.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腹脹 복창증 | 복창

宜消脹飲. 蘿菥子 蘇莖 乾葛 各七分, 陳皮 白朮 只角 甘草 各五分, 煎服. 治兒脹聖劑.

소창음. 나복조 소경 건갈 각 칠 분 중, 진피 백출 지각 감초 각 오 분 중을 다려 먹이라.

소창음(消脹飲)을 쓴다. 나복자 소경 갈근 각 7분, 진피 백출 지각 감초 각 5분을 달여서 먹인다. 이 약은 아이의 복창을 치료하는 성제(聖劑)이다.

腎囊濕浮 신랑이 습으로 부은 디 | 음낭이 습으로 부은 경우

煎艾葉，入一缸，煎地膚子，入一缸，并使熱之，交迭跨之，熏其氣。

쑥잎을 다려 훈 향에 담고, 대쑥이 씨를 다려 훈 향에 담어 각각 데어 타고안져 그 김을 쏘이라.

쑥잎을 달여서 항아리 하나에 담고, 지부자를 달여서 항아리 하나에 담고, 모두 뜨겁게 한 뒤 차례대로 그 위에 걸터앉혀서 그 김을 쏘게 한다.

腎末浮紅，磨杏仁，塗之。

신 솟이 부어 붉은 디, 살구씨를 갈아 발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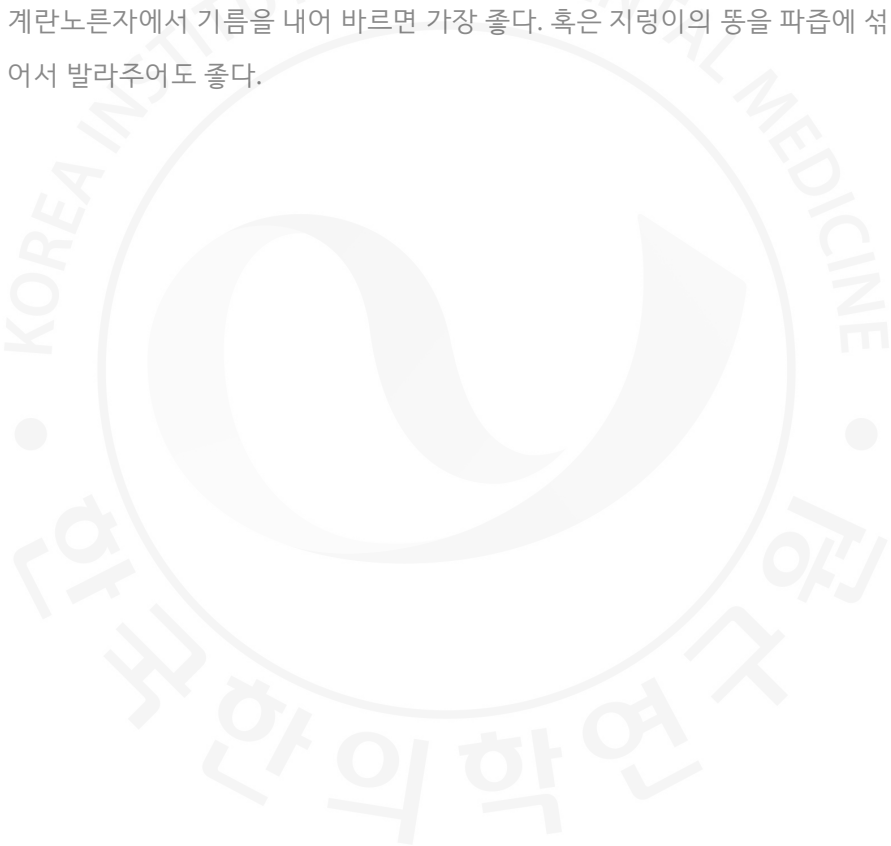
신낭 끝이 붓고 벌건 경우에는, 행인을 갈아서 발라준다.

陽頭猝浮 신 씻이 졸연이 부은 디 | 음경 끝이 갑자기 부은 경우

鷄子黃, 取油塗之, 最妙. 或蚯蚓糞, 調葱汁, 塗之, 亦妙.

계란 기름을 নিয়ে 발르면 신호하고, 혹은 지렁이 똥을 파집에 끼여 발느라.

계란노른자에서 기름을 내어 바르면 가장 좋다. 혹은 지렁이의 똥을 파집에 섞어서 발라주어도 좋다.



陽莖傷腐 신이 썩는 디 | 음경이 썩는 경우

外皮腐傷, 亦濕熱所傷. 蛇床子湯, 頻洗之. 內消難治, 膽礬 藜蘆 黃丹 孩兒茶 等分, 和蜜塗之. 壯老亦效.

가죽이 썩는 디, 사상조를 다려 조조 씨치고, 속이 썩는 디, 담반 려로 황단 히아다를 등분작말하야 쏘에 지여 발느라.

음경 가죽이 썩는 것은, 역시 습열에 상했기 때문이다. 사상자 달인 물로 자주 씻어준다. 속이 썩어서 치료하기 힘든 경우에는, 담반 여로 황단 해아다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꿀에 개어서 발라준다. 어린이나 노인에게 써도 좋다.

葛苳莖 木通實 黃菊沙 等分末, 和蜜付之, 神效.

상취 디와 올음 년출과 술우취를 등분작말하야 쏘에 지여 부치면 신표.

상추줄기 목통열매 **황국사(黃菊沙)**¹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어 꿀에 개어서 붙여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蛇膽塗之, 神效. 諸無名惡瘡, 俱效.

비암에 쓸기를 발느라. 각식 악창에 다 신표하니라.

뱀의 쓸개를 발라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이 약은 온갖 이름 없는 악창에도 모두 효험이 있다.

¹. 황국사(黃菊沙) : 언해에 "술우취"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화과의 수리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불유행(王不留行)의 의명이라는 기록도 있어 명백하지 않다. 《보유신편》〈편신평태중〉 "오래된 종창이 낫지 않는 경우에는 상추줄기、목통、황국사〔왕불유행이라고도 한다〕를 같은 양 가루 내어 기름에 개어 발라주면 바로 효과가 있다."(久瘡不瘥, 葛苳莖、木通、枳

殼、黃菊沙〔一名王不留行〕等分作末, 和油塗之, 即效.) ↩



下疳瘡 하감창 | 하감창

宜消疳敗毒散. 柴胡 黃柏酒炒 赤茯苓 木通 草龍膽酒洗 連翹 荊芥穗 黃連酒炒 蒼朮 知母酒炒 防風 獨活 甘草 各三分, 燈心少許, 煎服. 亦治腹際兩陰間小瘡或赤爛.

소감패독산을 의본방해야 다려 먹이라. 비와 신랑 분문 시이의 종기와 혹 부어 허여 지는 디도 쓰라.

소감패독산(消疳敗毒散)을 쓴다. 시호 황백(술로 볶은 것) 적복령 목통 초롱담(술로 씻은 것) 연교 형개수 황련(술로 볶은 것) 창출 지모(술로 볶은 것) 방풍 독활 감초 각 3푼, 등심 약간을 달여서 먹인다. 이 약은 또한 배 경계와 양음(兩陰, 전음과 후음) 사이에 작은 종기가 나거나 벌겍게 문드러진 것도 치료한다.

蛇床子煎水洗之, 取鷄子油, 和石雄黃, 塗之, 妙.

사상조를 다려 씻고, 계란 기름을 নিয়ে 석웅황을 기어 발느라.

사상자 달인 물로 씻어내고, 계란기름¹에 석웅황을 개어서 발라주면 좋다.

¹. 계란기름 : 《의취》〈諸厥〉에는 계란기름 내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계란기름 내는 방법. 계란 4-5개의 노른자를 냄비 속에 넣고 한나절 동안 불에 쪄면 밤 기름처럼 검게 타는데 이것을 환부에 바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鷄子油法. 鷄子黃四五箇, 置銚內火烘半日許, 焦黑如栗子油, 塗之, 神效.) ↩

疝症 산증 | 산증

臞丸¹ 如鵝卵大, 碧梧桐皮或葉, 濃煎, 溫洗, 疝氣自消. 壯老亦效.

토산 불이에 벽오동 껍질이느 닙이느 진하게 다려 더웁게 씨치라.

고환이 거위 알만 하게 부은 경우에는, 벽오동의 껍질이나 잎을 진하게 달여서 따뜻하게 하여 씻어주면 산기(疝氣)가 저절로 없어진다. 어른이나 노인에게 써도 좋다.

囊縫後十字紋上, 灸三七, 春灸夏差, 夏灸冬差.

불알 혼술 뒤에 십자금 우에 솜칠 장을 씌질하면, 수삭 후에 낫느니라.

양쪽 고환 사이의 선 뒤쪽으로 십자 무늬가 있는 곳에 뜸을 21장 뜨는데, 봄에 뜸을 뜨면 여름에 낫고, 여름에 뜸을 뜨면 겨울에 낫는다.

1. 臞丸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臞丸'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肛門皮塞 황문에 가죽이 막힌 디 | 항문 부위가 피부로 막혀 있는 경우

初生, 肛門皮塞, 以鑱針或金石簪尖穿孔, 取蘇合香元作心, 納孔, 令不更合.

침이느 혹은 금석 동곳 솟으로 구멍을 뚫고 소합원으로 심 만들어 구멍에 쏘이면 다시 합히지 안느니라.

갓 태어났을 때 항문 부위가 피부로 막혀 있을 경우에는, 낫쇠로 된 침 혹은 쇠 불이나 돌로 만든 비녀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구멍을 내고, 소합향원(蘇合香元)¹으로 심지를 만들어 구멍에 끼워 넣어 다시 구멍이 붙지 않도록 해준다.

¹. 소합향원(蘇合香元) : 허준, 《동의보감》〈내경편〉 기(氣)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소합향원. 모든 기병과 중기(中氣)·상기(上氣)·기역(氣逆)·기울(氣鬱)·기통(氣痛)을 치료한다. 백출 목향 침향 사향 정향 안식향 백단향 주사(수비한 것으로 반은 곁에 입힌다) 서각 가자피 향부자 필발 각 2냥, 소합유(안식향으로 만든 고약에 넣는다) 유향 용뇌 각 1냥. 이 약들을 곱게 가루 내어 안식향으로 만든 고약과 졸인 꿀로 반죽하여 수없이 찢어서 1냥에 40알씩 환을 만든 후 2~3알씩을 정화수나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술이나 생강 달인 물에 녹여 먹는다. 여기에 용뇌를 넣으면 용뇌소합원이라 하고, 용뇌가 없으면 사향소합원이라고 한다." (蘇合香元. 治一切氣疾, 及中氣, 上氣, 氣逆, 氣鬱, 氣痛. 白朮 木香 沈香 麝香 丁香 安息香 白檀香 朱砂水飛半爲衣 犀角 訶子皮 香附子 葶撥 各二兩, 蘇合油入安息香膏內 乳香 龍腦 各一兩. 右細末, 用安息香膏并煉蜜搜和, 千擣. 每一兩, 分作四十丸. 每取二三丸, 并華水或溫水, 溫酒, 薑湯化服. 有龍腦, 則謂之龍腦蘇合元. 無龍腦, 則謂之麝香蘇合元.) ↩



惡瘡預治 악창 예방법 | 악창을 예방하는 방법

天氣溫和之時, 頻頻澡洗更衣, 名曰'外宣', 不須服藥. 春用柳條 荊芥, 夏用棗葉 槐枝, 秋用苦蔘, 煎水溫洗.

천기가 온화한 시에 자주 씻기되, 봄에는 버들가지와 형기오, 여름에는 디초나무 잎과 회화나무 가지오, 가을에는 고삼을 다려 씻기라.

날씨가 따스하고 좋을 때에 자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이것을 '외선(外宣)'이라고 하니, 약을 먹일 필요도 없다. 봄에는 버드나무가지와 형개, 여름에는 대추나무 잎과 회화나무가지, 가을에는 고삼을 달인 물로 따뜻하게 씻어준다.

肥膚傷腐 살이 상하고 썩는 디 | 살이 썩는 경우

割生狗皮付之, 一日二三次. 冷則不效. 或當歸末糝之.

기가죽을 날로 부치되 할오에 두세 번씩 더웁게 부치라. 혹은 당귀 갈우를 뿌리라.

개가 살아있는 채로 개가죽을 벗겨서 하루에 2-3차례 붙여준다. 가죽이 차가우면 효험이 없다. 혹은 당귀 가루를 뿌려준다.



癩疹 두둘억이 | 은진

宜升麻葛根湯. 葛根二錢, 升麻 白芍藥酒炒 當歸身 各一錢, 甘草五分, 煎服. 班疹, 加連翹 防風 牛蒡子 各六分. 白色, 加羌活 蒼朮 仁蔘¹ 各五六分.

승마갈근탕을 의본방해야 쓰라.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쓴다. 갈근 2돈, 승마 백작약(술로 볶은 것) 당귀신 각 1돈, 감초 5푼을 달여서 먹인다. 반진(斑疹)에는 연교 방풍 우방자 각 6푼을 더한다. 흰 색일 경우에는, 강활 창출 인삼 각 5-6푼을 더한다.

1. 仁蔘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人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紅疫 홍역 | 홍역

始疹, 升麻葛根湯, 入連鬚葱白, 煎, 日再服. 或自始疹至發癍, 連用葱白湯.

시통홀 씨, 승마갈근탕에 총뽕을 너어 다려 할오에 두 첵식 먹이고, 또 시통으로 발 반홀 씨까지 날마다 총뽕을 다려 쓰라.

갓 병들었을 때에는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에 총백(잔뿌리가 달린 것)을 넣고 달여서 하루 2차례 먹인다. 혹은 갓 병들었을 때부터 반진이 돋을 때까지 총백 달인 물을 계속해서 먹인다.

始疹未發癍前, 溪蟹三五介, 煎服.

시통으로 발반 전까지 가제 솜오 기를 다려 먹이라.

갓 병들어 반진이 돋지 않았을 때는 민물가재 3-5마리를 달여서 먹인다.

沙蔘蜜炙¹二錢, 胡桃不去皮二介, 煎服.

사삼 밀구²해야 두 돈 중과 호두 두 기를 겁질 치 다려 먹이라.

사삼(꿀을 발라 구운 것) 2돈, 호두(겁질을 까지 않은 것) 2개를 달여서 먹인다.

宜回天甘露飲. 茅根五錢, 竹茹 忍冬 各二錢, 地骨皮一錢, 煎, 調砂糖五錢服.

씩 썰이 닛 돈 중과 죽여 인동 각 두 돈 중과 지골피 혼 돈 중을 다려 사탕 닛 돈 중을 타 먹으라.

회천감로음(回天甘露飲)을 쓴다. 모근 5돈, 죽여 인동 각 2돈, 지골피 1돈을 달여서 설탕 5돈을 타서 먹인다.

欲出不出, 葱白湯, 和牛黃飲之.

괘이 발반되지 안는 디, 총뽕탕에 우황을 타 먹이라.

반진이 돋을락 말락 할 때는 총백 달인 물에 우황을 타서 먹인다.

1. 찼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찼'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2. 구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자'의 오기인 듯하다. ←



拾遺¹ 습유 | 습유

蛔疹預防. 始疹, 預服苦練根 使君子 各一錢五分, 蛔不能作.

시통할 씨, 고련근과 사군조 각 한 돈 오 푼 중을 다려 먹이면 회충을 예방하느니라.

회충으로 인한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 처음 아프려 할 때에 미리 고련근 사군
자 각 1돈 5푼을 먹이면 회충이 동하지 않는다.

泄瀉痢疾, 好黃土水飛調水服. 或加益元散, 神效.

설사 리질에는 조흔 황토를 수비하야 물에 타 먹이면 신표.

설사와 이질에는, 좋은 황토(수비한 것)를 물에 타서 먹인다. 혹은 익원산(益元
散)을 더하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1. 拾遺 : 이하 2개의 조문은 위의 홍역(紅疫)과 상관 없는 조문이다. 이를 구
별하기 위하여 역자가 임의로 "拾遺"라는 제목을 추가하였다. ↩

諸傷門 제상문 | 제상문



落傷 낙상흔 디 | 떨어지거나 넘어져 상한 경우

生地黃去皮 紅花 各五錢, 木果¹二片, 酒水相半, 煎服.

싱지황 거피하고 홍화 각 닷 돈, 모과 두 쪽을 주슈상반하야 다려 먹으라.

생지황(껍질을 벗긴 것) 홍화 각 5돈, 모과 2조각을 술과 물을 반반씩 섞은 것에 넣고 달여서 먹는다.

¹. 果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瓜'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腹裂傷臟出 비가 씨져 창조 낙온는 디 | 배가 찢어져 창자가 나온 경우

松皮付之當處後, 冷水一椀飲之, 卽入.

솔껍질을 부치고 냉수 한 스발을 먹으면 곧 들어가느니라.

소나무껍질을 환처에 붙인 뒤 냉수 1사발을 마시면 곧 창자가 들어간다.

人糞付之, 卽入.

인분을 부치면 곧 드러가느니라.

인분을 붙이면 창자가 곧 들어간다.

違骨 뼈 억에져 상흔 디 | 뼈가 어긋난 경우

生地黃搗泥付之, 神效.

생지황을 짓서여 부치라.

생지황을 진흙처럼 되도록 찢어서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火傷 불에 덴 디 | 화상

米糊付之, 神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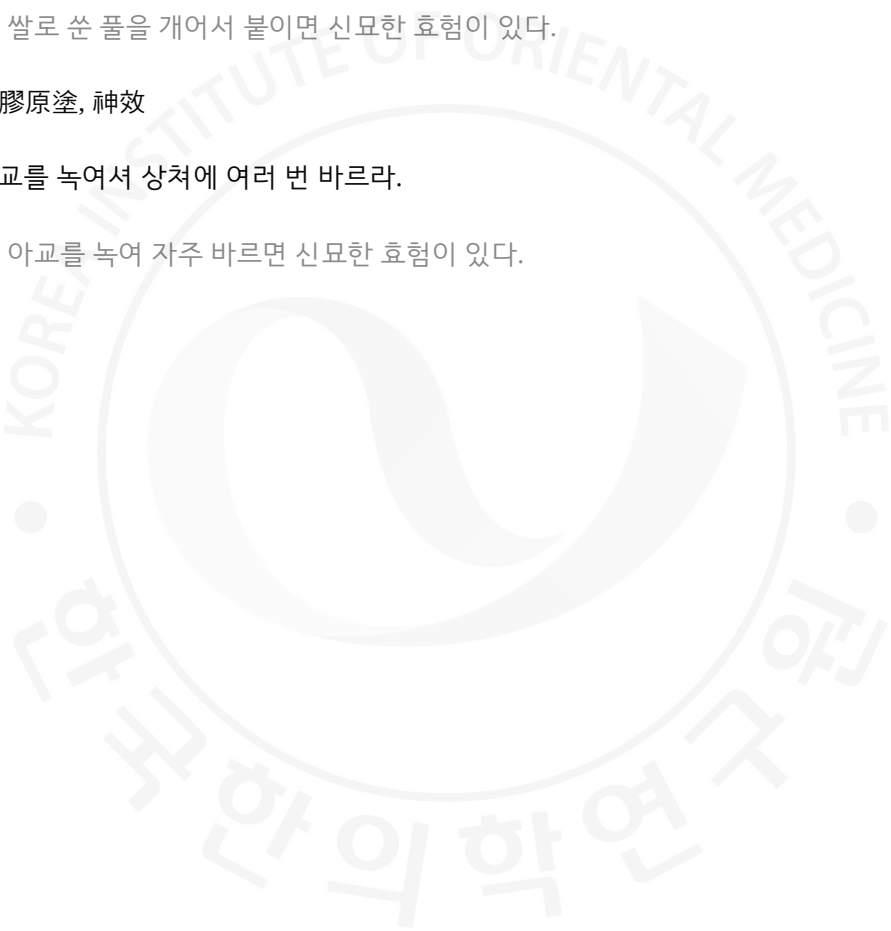
쌀풀을 기서 붓치라.

| 쌀로 쪄낸 풀을 개어서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阿膠原塗, 神效

아교를 녹여서 상처에 여러 번 바르라.

| 아교를 녹여 자주 바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金刀傷 칼과 연장에 상한 디 | 쇠붙이나 칼에 상한 경우

石油浸之, 止血止痛, 神驗.

석유에 담그면 지통지혈 해야 신평하니라.

| 석유에 환처를 담그면 지혈과 지통에 신평한 효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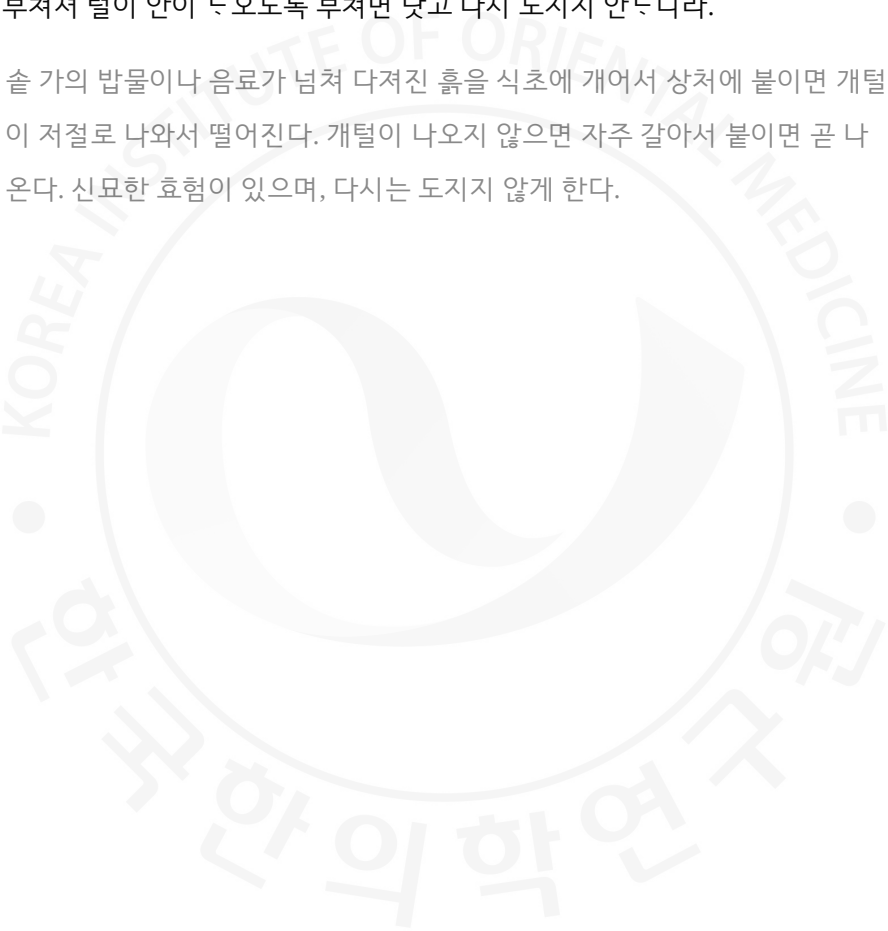


狗咬傷 기게 물인 디 | 개에게 물려 상한 경우

鼎邊土, 醋調付, 則狗毛自出落. 不出, 屢屢付之, 卽出. 神效, 更不發.

숫 가에 밥물 장 너머져 진흙을 초에 개여 상처에 부치면, 개털이 녹으느니 조조 가
러 부쳐서 털이 안이 녹도록 부쳐면 낫고 다시 도지지 안느니라.

솔 가의 밥물이나 음료가 넘쳐 다져진 흙을 식초에 개어서 상처에 붙이면 개털
이 저절로 나와서 떨어진다. 개털이 나오지 않으면 자주 갈아서 붙이면 곧 나
온다. 신묘한 효험이 있으며, 다시는 도지지 않게 한다.



蛇咬 빔 물닌 디 | 뱀에게 물린 경우

火鐵付, 神効.

부쇠를 부치면 낫느니라.

부시(火鐵)¹를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四亥油塗之, 神効.

히년 히월 히일 히시에 썬 기름을 바르라. 만일 부어싸든, 부은 외 슾면으로 먼저 바르고, 물닌 즈리는 나조에 바르라.

해년(亥年) 해월(亥月) 해일(亥日) 해시(亥時)에 썬 기름을 바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만약 부었다면 물려서 부은 곳의 사방 주변에 먼저 바르고 물닌 자리는 나중에 바른다.)

初咬時, 小台木皮付之.

처음 물닌 씨에 쇼터나무 껍질을 부치라. 싱거시 업거든 급히 미토리 뒤축에 감은 걸 풀어 물에 축여 부치라. 물닌 지 오리면 무효.

막 물렸을 때 쇼태나무(小台木)² 껍질을 붙인다. (생것이 없는 경우에는 미토리 뒤축에 감은 것을 풀어서 물에 축여서 붙인다. 물닌 지 오래 되면 약효가 없다.)

水一盆作湯, 草屋上注之, 下流水一碗食之, 神効.

물 한 동의를 썰여서 초가집 집웅 우에 부으면 흘너나릴 거시니, 그 물 한 슾발만 먹으면 싯효.

물 한 동이를 끓여서 초가집 지붕에 부어 흘러내리게 한 물 1사발을 먹으면 싯묘한 효험이 있다.

1. 부시〔火鐵〕 : "불을 내는 쇠"란 의미로 돌에 마찰시켜서 불을 일으키는 쇠 조각을 가리킨다. ↪
2. 소태나무〔小台木〕 : 연해울 근거로 소태나무로 번역하였다. 중국에서는 맛이 쓰다 하여 "苦木"이라고 한다. ↪



蛇入口中 비암이 목구멍에 든 디 | 뱀이 입속에 들어간 경우

其尾以火煮之, 卽出.

불로 꼬리를 지지면 곧 나오¹니라.

뱀 꼬리를 불로 지지면 곧 나온다.

¹. 나오\ue285니라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나오\ue283니라'의 오기인 듯 하다. ↩

蜂螫 벌 쏘인 디 | 벌에 쏘인 경우

燒酒卽塗, 神効.

소주를 즉시 바르라.

| 소주를 바로 바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落傷 락상 |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

執唐稷莖心，一握剪去握外上下，取握中所存者，煎服。被打牽引，亦效。

수수당이 속 흰 줄을 손에 쥐고 줄 바깥에 것은 거두절미하고 줄 속에 잇는 것만 다려 먹으라. 미 맛고 견인한 디 조호니라.

사탕수수(唐稷)¹ 줄기의 가운데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잡은 손에서 벗어난 부분의 사탕수수 위와 아래를 잘라낸 뒤, 손에 남은 사탕수수를 달여서 먹는 다. 얻어맞아서 땅기는 경우에도 효험이 있다.

腹脹小便不通，惡血攻心悶亂，蓮葉燒灰，和小便下。

락상하야 비가 창만하고 소변을 볼통하고 악혈²이 모여 속이 번란한 디,련납을 불에 살와 오줌³에 타 먹으라.

배가 창만하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나쁜 피가 심장을 공격하여 어지러운 경우에는, 연잎 태운 재를 소변에 타서 먹는다.

懸生狗，取頸血，溫灌口，落傷被打，吐血不止，昏塞危境，無不神效。

산 개를 미달고 목질너 더운 피를 먹이면, 락상과 미 맛고 토혈하야 위급한 디 다 신포호니라.

살아 있는 개를 매달아 놓은 채 목에서 피를 내어 따뜻한 피를 먹이면,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얻어맞아서 피를 토하는 것이 멎지 않고 의식을 잃어 위험할 때에 신포한 효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

服眞品熊膽，起死回生。

진품 웅담을 먹으면 신포.

진짜 웅담을 먹이면 기사회생한다.

1. 사탕수수(唐稷) : 언해에는 "수수" 혹은 "수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수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 《제중신편》 등에는 "秬薊"을 "슈슈"로 언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부터 전래된 수수라는 의미에서 사탕수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
2. 악혈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악혈'의 오기인 듯하다. [↩](#)
3. 오즙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오즙'의 오기인 듯하다. [↩](#)



折傷 절골된 디 | 절상

取冰片以手指按疼處付之, 初付而不知其冷, 必以認冷爲準, 是其效也. 慎勿犯不疼處, 不堪其冷.

손으로 눌어 압흔 곳에 얼음을 부치면, 처음에는 찬 줄을 모르다가 누쳐 부쳐 찬 줄을 아도록 되도록, 압흔지 안인 디는 얼음이 닳치 않게 하라.

환처에 얼음조각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붙이면, 처음에는 차가운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차가움을 느끼니 이때까지 얼음조각을 눌러서 붙인다. 차가움을 느끼게 되면 효험이 있는 것이다. 삼가여 아프지 않은 곳에는 얼음을 대지 않아야 하니, 그 차가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宜二生膏. 生芩一斤, 生薑四兩, 爛搗, 入酒糖一斤, 炒熱, 布裹熨之. 傷筋損骨, 亦效.

이싱고. 생지황 한 근과 생강 네 량 중을 난도하여 술지검이 한 근에 석거 불에 쏘여 흔겁에 싸서 찜을 하라.

이생고(二生膏)를 쓴다. 생지황 1근, 생강 4냥을 문드러지도록 찢은 것에 술지검 1근을 뜨거워질 때까지 볶아서 넣고, 베로 싸서 찜질한다. 근골이 손상된 경우에도 효험을 본다.

違骨 위골 | 뼈가 어긋난 경우

取伏龍肝, 調勻小便, 溫以熏之. 或細沙炒熱, 頻頻熨之.

복룡간을 오줌에 개여 더웁게 부치고, 혹은 간은 모리를 더웁게 복가 조조 찜질하라.

복룡간을 소변에 고루 섞어서 따뜻하게 하여 그 증기를 쐬다. 혹은 가는 모래를 뜨거울 때까지 복가 자주 찜질한다.



觸傷 다질녀서 상한 디 | 눌러서 상한 경우

爲木石所觸, 肥膚破傷, 流血浮高, 取煉艾 桃仁, 入缸燃火, 封缸口穿一小孔, 熏其熱氣, 則止疼止血, 黃水流出, 候凝綿裹, 不過四五日, 完合無痕.

나무와 돌에 다질녀서 상한 디, 약쑥과 복숭아씨를 항 속에 너어 불 달여놋고 항 입을 막고 적은 구멍을 뚫어 그 연기를 쏘이면 피가 그치고 누른 물이 흘러 엉키거든 솜으로 싸 두면 스오 일만에 합창되고 흉이 지지 안느니라.

나무나 돌에 눌러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몹시 부은 경우에는, 쑥과 도인을 항아리에 넣고 불을 켜다. 이때 항아리에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 그 열기를 쏘면 곧 통증이 멎고 피가 그치고 누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응고하기를 기다렸다가 솜으로 싸두면 4-5일이 지나지 않아 온전히 아물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

被蠲痰結, 搗桃葉, 和酒, 蒸熏之.

다질녀 담 결리는 디, 복숭아 잎을 난도햐 술에 섯겨 썬겨 씹질햐라.

눌러서 담이 뭉친 경우에는, 복숭아 잎을 찢어 술에 탄 다음, 그것을 썬겨 그 증기를 쐬다.

火傷 불에 데인 디 | 화상

取醋塗之, 乃貼紙, 連塗之, 使無乾, 雖至焦灼, 止疼如神, 又無痕.

초를 발르고 그 우에 종의를 덮고 연하야 말으지 안케 바르면 신표하고 또 흥이 지지 안느니라.

식초를 바르고 종의로 싼 뒤 마르지 않도록 연이어 식초를 바르면, 심하게 데 있어도 통증이 귀신같이 멎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

玉簪花葉, 燒存性, 和眞油塗之. 生葉搗付, 亦神效. 無論某火傷, 皆效.

옥잠화 잎을 소존성하야 기름에 개여 발느라. 싱납을 짓씨여 부쳐도 신표.

옥잠화의 잎을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옥잠화 생잎을 붙여도 신표한 효험이 있다. 이 약은 어떠한 화상이든 모두 효험이 있다.

老松皮, 燒存性, 和油塗之, 或糝之, 不過三日而成痂.

솔 껍질을 불에 살와 기름에 개여 발느던지 뿌리던지 하면 불과 솜 일에 싹지 지느니라.

노송의 껍질을 약성이 남게 태워 기름에 개어서 바르거나 뿌리면, 3일이 지나지 않아 딱지가 앉는다.

西苴, 燒存性, 和眞油塗之. 湯火傷亦宜.

수박을 불에 살와 참기름에 개여 발느라.

수박을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이 약은 탕화상에도 좋다.

獐脂塗之, 甚效. 石油塗之, 亦神效.

오솔이 기름을 발르면 신표. 석유를 발너도 신표.

오소리의 기름을 바르면 매우 효험이 좋다. 석유를 발라도 신묘한 효험이 있다.

牛糞牛尿所畜渦中水, 洗之.

소의 똥과 소의 오줌이 흘러나가는 곳에 고인 물로 씻치면 신표.

소똥과 소의 오줌이 모여 있는 웅덩이 속의 물로 씻는다.



湯火傷 쓸넌 물에 ¹더 인 디 | 탕화상

水苔, 或生苾葉, 或馬尾草葉, 付之, 神效.

물넋기나 혹 날비치 넋이느 혹 솔우장이 넋을 부치면 신표.

물이끼나 생배추의 잎 혹은 ²소루쟁이(馬尾草)의 잎을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老柳皮, 燒存性, 和眞油塗之. 每日一換, 不過五六日效.

늪은 버드나무 껍질을 불에 삶와 참기름에 개여 발느라.

늪은 버드나무의 껍질을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하루 1차례 새로 발라주면 5-6일이 지나지 않아 효험을 본다.

鷄卵 眞油 百草霜, 和勻塗之, 神效.

계란과 참기름에 안진 검정을 지여 발느면 신표.

계란 참기름 백초상을 고루 섞어서 바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黃菊沙根, 爛搗付之. 或黃土調水付之, 乾則換之.

수루치 썰이를 난도햐 부치고, 혹 황토물에 지여 부치되, 말느거든 쯔조 가라 부치라.

수리취(黃菊沙)의 뿌리를 문드려지도록 찢어서 붙인다. 혹은 황토를 물에 개어서 붙이되, 마르면 바꾸어서 붙인다.

¹. 더 : 원문과 문맥을 살펴볼 때, '데'의 오키인 듯하다. ↩

². 소루쟁이(馬尾草) : "馬尾草"가 소루쟁이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고증에 한계로 인하여 언해을 근거로 번역하였다. ↩



火藥傷 화약에 상흔 디 | 화약에 덴 경우

先用蛇煎水, 或熊脂塗之, 取馬尾草, 燒存性, 糝之.

비암 삶은 물을 먹고, 흑 곰의 기름을 발르고, 솔우장을 불에 살와 작말햏야 뿌리
락.

우선 뱀 달인 물이나 곰의 기름을 바르고, 소루쟁이(馬尾草)¹를 약성이 남게
태워서 뿌린다.

¹. 소루쟁이(馬尾草) : "馬尾草"가 소루쟁이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고증에 한계로 인하여 언해를 근거로 번역하였다. [↩](#)

金刀傷 쇠연장에 상한 디 | 쇠붙이나 칼에 상한 경우

蠶蛹爲未付之, 完合. 瘡癰生肥, 甚效.

누에번데기를 작말하여 부치라. 합창하는 디 조흔 약이니라.

누에번데기를 가루 내어 붙이면 온전히 아문다. 창종에 새살이 돋게 하는 데도 매우 효험이 있다.

大栗或榛子, 乾末, 或生嚼付之, 神效.

밤이나 흑 지암을 작말하여 부치고 흑 날로 씹어 부치면 신표.

왕밤이나 개암을 말려서 가루 내거나 생것을 씹어서 붙이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血不止, 馬糞爲末, 裹之, 或大黃爛搗付之, 或灌以清油, 更以綿絮浸油, 厚裹, 神效.

피가 굶치지 않는 디, 말뚝을 작말하여 싸고, 흑 대황을 난도하여 부치고, 흑 참기름을 발르고, 또 솜에 기름을 축여 두터이 싸 두면 신표.

피가 멎지 않는 경우에는, 말뚝을 가루 내어 싸매거나, 대황을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붙이거나, 참기름을 붓고 솜에 기름을 축여서 두터이 싸매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一身浮大, 喘急欲死, 紫檀 黃蠟, 同煎服.

철독으로 전신이 붓고 천축하여 위급한 디, 조단향과 밀을 다려 먹으라.

온몸이 크게 붓고 숨이 가빠서 죽으려 하는 경우에는, 자단과 황랍을 함께 달여서 먹는다.

破傷風, 寒熱往來, 煩熱, 或背漸曲, 筋引急, 好酒一椀, 紫丹香一握, 黃蠟一兩, 煎沸, 和童便一甫兒, 溫服取汗. 或濁酒 黃蠟, 同煎服.

상처에 바람 들어 한열이 왕리하고 번열 잇고 혹 등이 굽고 힘줄이 켜이는 디, 술 혼 대접과 조단향 혼 즈과 밀 혼 량 증을 다려 동변을 타 더웁게 먹으라. 혹 탁주와 밀을 다려 먹으라.

파상풍으로 한열이 왕래하고 번열이 있거나 등이 점점 굽고 굳이 땅기는 경우 에는, 좋은 술 1사발에 자단향 1줌, 황랍 1냥을 넣고 끓을 때까지 달인 뒤 동변 1보시기를 타서 따뜻하게 먹고 땀을 낸다. 혹은 탁주에 황랍을 넣고 함께 달여 서 먹는다.

腹破腸出, 取人糞, 乾末, 塗抹之, 腸自入.

비가 상하야 창자가 나온 디, 사람의 똥을 말녀 작말하야 뿌리면 스스로 들어가는 니 라.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온 경우에는, 인분을 말려서 가루 내어 발라주면 창자가 저절로 들어간다.

通治. 酸漿爛搗, 爲餅付之. 瘡久不合, 亦效.

꾸와리를 난도하야 부치라. 오리 합창되지 않는 디도 조흐니라.

두루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파리〔酸漿〕를 문드러지도록 찢어 떡처럼 만들어 붙인다. 이 약은 창(瘡)이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경우에도 효험이 있다.

杖毒 미 맞고 사독 되는 디 | 매 맞아서 독이 오른 경우

甘草煎水洗之, 大黃末, 調童便付之.

감초 다린 물에 씻고 대황을 작말하야 동변에 기여 부치라.

감초 달인 물로 씻어내고, 대황 가루를 동변에 탁서 붙인다.



針鍼入肥 바늘과 살촉이 살에 박인 디 | 바늘 끝이 살에 박힌 경우

鼠粘子 硫黃, 末, 和勻付.

서점즈와 유황을 작말햐 부치라.

우방자(鼠粘子)와 유황을 가루 내어 고루 섞어 붙인다.

入久不拔, 積年不仁, 秋麥飯一甫兒, 淨黃土一甫兒, 混合, 爛搗付之, 一日或半日.

연구햐 썬지 못햐는 디, 불이밥 햐 보와 정황토 햐 보를 섯거 난도햐 부치면 나 오느니라.

바늘이 박혀 나오지 않은 것이 오래 되어 감각이 없어진 경우에는, 가을보리로 지은 밥 1보시기와 맑은 황토 1보시기를 섞어서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하루나 한나절을 붙여둔다.

大刺入肥 나무가시가 살에 박힌 디 | 큰 가시가 살에 박힌 경우

搗牛膝根付之, 自出. 或牛脂付之, 自然退出.

우슬 썰이를 난도해야 부치고, 혹은 쇠기름을 부치면 스스로 나오느니라.

우슬 뿌리를 찢어서 붙이면 저절로 나온다. 혹은 소의 기름을 바르면 저절로 나온다.

針屬及木刺通治. 薔薇木根, 濃煎, 浸刺處, 所刺物聳出.

장미나무 썰이를 진하게 다려 찢린 디를 담그면 곧 나오나니라.

바늘 종류나 나무가시가 박힌 경우에 두루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장미의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찢린 부위를 담그면 바늘이나 가시가 툭 튀어나온다.

取榛子去殼爛搗, 付刺處, 自然湧出. 石花亦如法付, 卽出.

기암을 싸서 난도해야 찢린 곳에 부치면 즙연이 소스 나오느니라. 또 굴송이를 부치라.

개암의 껍질을 벗겨내고 문드러지도록 찢어 찢린 곳에 붙이면 저절로 솟아난다. 굴을 앞의 방법처럼 하여 붙여도 곧 나온다.

棘刺入眼 나무가시가 눈에 든 디 | 가시가 눈에 들어간 경우

取蟪蛄摩捫眼胞。又端午日午時捉白蝶，陰乾，付眼胞上，一宿自出。

싱 굴병이로 눈두덩우를 문지르라. 또 단오날 오시에 흰 나뉼를 잡아 그늘에 말닌 것을 안포 우에 부치고, 할오밤을 지니면 스스로 나오느니라.

굴병이를 잡아 눈두덩을 문지른다. 또 단오일 오시에 잡은 흰 나비를 그늘에 말려 눈두덩에 붙이고 하룻밤 자고나면 가시가 저절로 나온다.

塵物入眼 쓰글이 눈에 든 디 | 먼지가 눈에 들어간 경우

ㄱ用新筆濡水微出. 又濃磨唐墨點眼, 自出.

시 붓을 물에 담겨 씨척니고, 또 당묵을 진하게 곱아 눈에 너으면 곳 나오느니라.

새 붓을 물에 적셔서 흠쳐낸다. 또 당묵을 진하게 갈아 눈 속에 똑똑 떨어뜨리면 먼지가 저절로 나온다.

栗刺煎洗. 又桑灰水洗.

밤가시를 다려 씻고, 또 뽕나무 지물로 씨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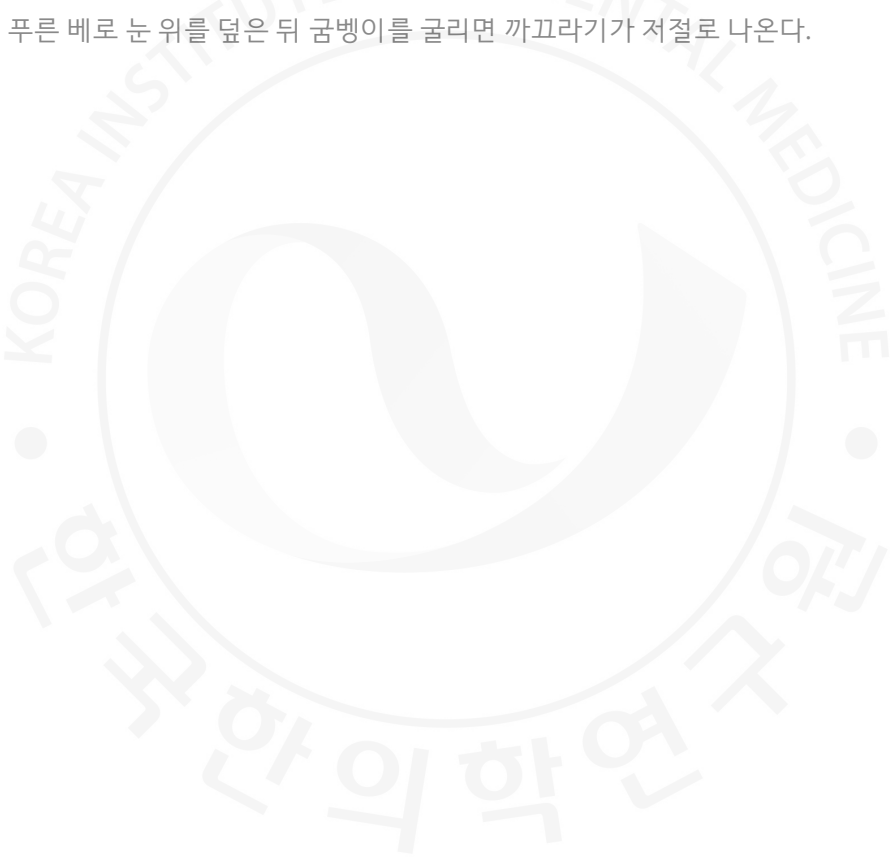
밤의 가시를 달여서 씻어낸다. 또 뽕나무 잿물로 씻어낸다.

穀芒入眼 곡식 싸락이 눈에 든 디 | 곡식 까끄라기가 눈에 들어간 경우

靑布覆眼上, 取蟪蟪轉其上, 其芒自出.

푸른 뵤로 눈을 덮고 굴뵤이를 그 우에 굴니면 꾯 나오나니라.

| 푸른 베로 눈 위를 덮은 뒤 굴뵤이를 굴리면 까끄라기가 저절로 나온다.



飛絲入眼 연가시가 눈에 든 뒤 | 실날같은 먼지가 눈에 들어간 경우

雄鷄冠血, 或螻蛄汁, 滴之, 神效. 又僧牙汁納之.

숫닭의 벼슬 피나 혹 굴병이집을 너으면 신희하고, 또 고수영을 집니여 너으라.

수탉 벼의 피 혹은 굴병이의 즙을 눈에 똑똑 떨어뜨리면 신평한 효험이 있다.

또 승아초(僧牙草)¹의 즙을 넣어준다.

白礬磨水, 浸其舌. 或針風池、神門、間愈²、太冲穴.

백반을 물에 갈아 그 혀를 담그라. 혹 풍지혈·신문혈·간유혈·태충혈에 침을 노으라.

백반을 갈아 넣은 물에 혀를 담근다. 혹은 풍지혈·신문혈·간수혈·태충혈에 침을 놓는다.

1. 승아초(僧牙草) : 초장초(酢漿草)와 유관해 보인다. 《주춘신방》에는 "괴시양"(필사본), "고\ue999영"(연인본)으로 언해되어 있고, 《의회》에는 "고식영"이라고 언해되어 있다. 본서에는 "고수영"으로 언해되어 있다. 《동의보감》에 "괴승아"로 언해된 초장초(酢漿草)와 유관해 보이니 동일한 약재인지는 고증할 수 없어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

2. 間愈 : '肝俞'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신만, 《주춘신방》〈대인편〉 안(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비사(飛絲)가 눈에 들어간 경우예, ○일방으로, 풍지·신문·간수·태충에 자침하고 귀지를 점안한다."(飛絲入目 ○一方, 針風池、神門、肝膈、太衝、糝耳中垢.) ←



人咬 사람에게 물린 디 | 사람에게 물린 경우

龜板或鼈甲, 燒存性, 和香油塗之. 或粘米飯付之.

거북껍질이나 족라껍질을 불에 술와 참기름에 기여 바르라. 또 찰밥을 붓치라.

거북의 배 껍질이나 등딱지를 약성이 남게 태워 참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혹은 끈끈한 쌀밥을 붙인다.



馬咬 말에게 물린 디 | 말에게 물린 경우

細嚼生栗付之。又益母草, 爛搗, 和醋炒付。

싱밤을 씹어 붓치라. 또 익모초를 난도햐 초를 섯거 더웁게 햐 붓치라.

생밤을 꼭꼭 씹어서 붙인다. 또 익모초를 문드러지도록 찢어 식초에 개어 볶아서 붙인다.



虎咬 범에게 물린 디 | 호랑이에게 물린 경우

取地榆根末, 和冷水服之.

지류 썰이를 작말하야 냉수에 타 먹으라. 또 날 개고기를 붓치라.

| 지유 뿌리를 가루 내어 냉수에 타서 먹는다. 또 개고기 날것을 붙인다.



狗咬 자에게 물린 디 | 개에게 물린 경우

患人頂心有紅髮, 拔去後, 服藥, 快差.

병인의 이마 우에 붉은 털이 잇스니, 곳 췌여바리고 약을 먹어야 쾌차ㅎ느니라.

환자 정수리 가운데에서 붉은 머리카락이 났다면 그것을 뽑아낸 뒤 약을 먹으면 쾌차한다.

敗毒散, 加杏仁二錢, 限五貼, 服之, 海蔘以醋沈之, 長久付之.

패독산에 행인 두 돈 중을 가입햐 댓 첵 쓰고, 히숨을 초에 축여 오리 붓쳐 암을지 말게 햐라.

패독산(敗毒散)¹에 행인 2돈을 더하여 최대 5첩까지 먹고, 해삼을 식초에 담근 뒤 오래도록 붙여놓는다.

杏仁作粥, 頓服. 又搗入眞末少許, 水調付, 無後患.

솔구씨로 죽 쑤어 먹고, 쏘 난도햐 밀글우를 조금 넛코 물에 기여 붓치라.

행인으로 죽을 쑤어서 단번에 먹는다. 또 행인을 찢어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물에 개어서 붙이면 후환이 없다.

斑猫七介, 去頭足翅, 爲末, 溫酒調服, 毒從大小便出, 卽愈.

청굴이 일곱 개를 머리와 발과 날기를 바리고 작말햐 더운 술에 타 먹으라.

반묘 7마리를 머리와 다리와 날개를 떼어내고 가루 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먹으면, 독이 대소변으로 나오고 곧 낫는다.

艾灸咬處二三壯, 日二次, 直至二十日. 或限三朔, 勿令完合, 永不再發.

약썩으로 물린 디를 날마다 이숨 장식 두 차례씩 씹질햐 이십 일을 햐라. 혹 석 달 위햐햐 써서 합창 못햐게 햐면 복발치 안이햐느니라.

물린 곳에 하루 2차례 2-3장 썩뜸을 뜨되 20일이 될 때까지 뜬다. 혹은 최대 3달 동안 떼서 온전히 아물지 않도록 하면 영영 재발하지 않는다.

蟾蜍後兩腿, 爛搗, 酒調服. 或虎骨爲末, 調酒服, 且塗之.

독겁이 뒤다리를 난도해야 술에 타 먹고, 혹은 범의 뼈를 작말해야 술에 타서 먹고, 또 상처에 바르라.

두꺼비의 양쪽 뒷다리를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술에 타서 먹는다. 혹은 호랑이의 뼈를 가루 내어 술에 타서 먹고 또 그 가루를 바른다.

1. 패독산(敗毒散) : '인삼패독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한(寒)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인삼패독산. ① 상한이 나 유행성 질병으로 발열·두통이 있고 목덜미가 뻣뻣하며, 팔다리와 온몸이 괴롭고 아프거나, 상풍으로 기침하고 코가 막히며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을 치료한다.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지각 길경 천궁 적복령 인삼 감초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박하 약간을 넣어 물에 달여 먹는다.《의감》 ② 본방에 천마·지골피를 같은 양으로 넣은 것을 인삼강활산이라고 한다. ③ 본방에 형개수 방풍을 같은 양으로 넣은 것을 형방패독산이라고 한다."(人參敗毒散. ① 治傷寒時氣, 發熱頭痛, 項強, 肢體煩疼, 及傷風, 咳嗽, 鼻塞, 聲重.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川芎 赤茯苓 人參 甘草 各一錢. 右剉, 作一貼, 入薑三片, 薄荷少許, 水煎服.《醫鑑》 ② 本方, 加天麻, 地骨皮等分, 名曰人參羌活散. ③ 加荊芥穗 防風 等分, 名曰荊防敗毒散.) ↪

蛇咬 비암 물린 디 | 뱀에게 물린 경우

被咬, 卽殺其蛇, 急以艾如棗大, 猛灸咬處無數, 以亥生人髮, 緊縛浮氣上處, 鍼刺使血流不止.

물던 비암을 죽이고 급히 약썩을 대초만식 상처에 노코 무수히 쓰고, 히싱인의 두발로 부어올르는 디를 단단이 묵고, 침으로 조아 독혈이 흐르게 하라.

뱀에게 물렸을 때 곧장 그 뱀을 죽이고 급히 썩을 대추 크기로 만들어 물린 곳에 무수한 횃수로 맹렬히 뜸을 뜨고, 해년(亥年)이나 해월(亥月)이나 해일(亥日)이나 해시(亥時)에 태어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부어오른 곳을 꾹꾹 매고 침을 찔러 피가 계속해서 나오도록 한다.

石雄黃細末, 貼瘡口. 或調萵苣汁付之.

석웅황을 작말하야 상처에 부치고, 혹은 상치집에 기여 부치라.

석웅황을 곱게 가루 내어 창구(瘡口)에 붙인다. 혹은 석웅황을 상추즙에 개어서 붙인다.

垂楊枝葉, 爛煮, 針刺咬處, 因以浸洗, 毒汁流出, 神效無比.

수양버들 가지와 잎을 진하게 다려 상처를 침으로 좁고 담그면 신평하니라.

수양버들의 가지와 잎을 문드러지도록 달인 뒤, 침으로 뱀에게 물린 곳을 찌르고 앞의 약물에 환처를 담그고 씻으면 독즙이 흘러나오니, 신묘한 효험이 이것에 비길 데가 없다.

白粥煎溫, 浸洗, 日三次, 神效.

흰 죽을 더웁게 하야 날마다 삼스 촌식 담그라. 혹은 기장에 담그고, 또 만이 먹으라.

흰죽을 따뜻하게 달여서 하루 3차례 물린 곳을 담가 씻어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혹은 개장국에 담가 씻어내고 또 단번에 먹는다.



蜈蚣咬 진에 물린 디 | 지네에게 물린 경우

付生蜘蛛, 吸其毒氣. 又生鷄肉, 或鷄肝, 付之, 神效.

싱 검의를 부쳐 그 독기를 썰게 하라. 또 닭의 날고기나 간을 부치면 신효.

살아있는 거미를 붙여서 독기를 빨아내게 한다. 또 닭의 날고기나 닭의 날간을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取行廚水巾付之, 神效. 或獨頭蒜付之.

헝즈수건을 부치면 신효하고, 혹은 쏘야마늘을 부치라.

행주를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혹은 외톨마늘을 붙인다.

誤食蜈蚣所過食物而中毒, 生栗汁灌口, 或嚼下.

진에 먹든 음식을 먹고 중독한 디, 생밤을 먹으라.

실수로 지네가 지나간 음식을 먹어서 중독이 된 경우에는, 생밤의 즙을 입속에 부어넣거나 씹어서 먹는다.

蛛蝎咬 검의 물닌 디 | 거미에게 물린 경우

葛根末, 調薑汁付之, 或鷄血塗之, 其毒立止.

갈근 갈우를 강집에 지여 부치라. 혹 닭의 피도 발느라.

| 갈근 가루를 생강즙에 개어 붙이거나, 닭의 피를 발라주면 독이 곧 멎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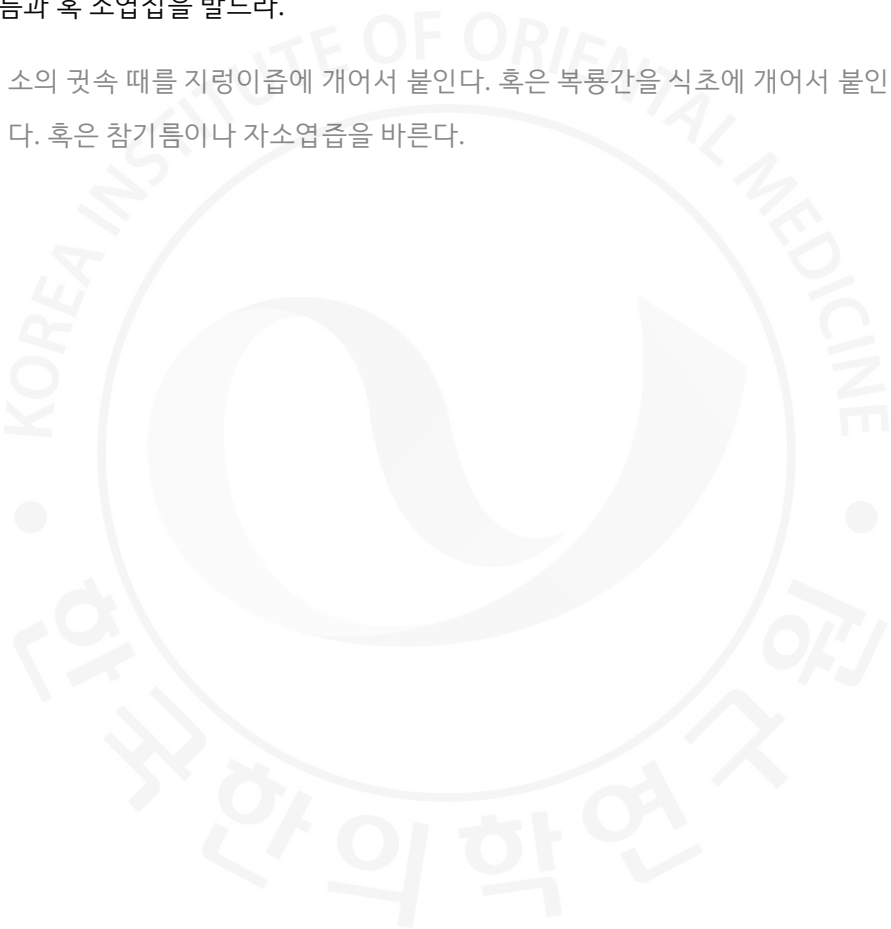


諸蟲咬 각식 벌레 물린 디 | 온갖 벌레에 물린 경우

牛耳中垢, 和蚯蚓汁付之. 或伏龍肝, 調醋付之. 或香油, 或蘇葉汁塗之.

쇠 귀속에 잇는 씨를 지렁이집에 개여 부치고, 혹은 복룡간을 초에 기여 부치고, 혹은 참기름과 혹은 소엽집을 발느라.

소의 귓속 때를 지렁이집에 개어서 붙인다. 혹은 복룡간을 식초에 개어서 붙인다. 혹은 참기름이나 자소엽즙을 바른다.



一切蟲蛇咬 각식 벌레와 비암 물린 디 | 온갖 벌레나 뱀에 물린 경우

貝母末, 酒調頓飲, 毒化爲水, 從傷處流盡, 因以藥滓付之.

패모 갈우를 술에 타서 양것 먹으면, 독기가 물 되어 상처로 흘으거든 약 썩기를 부치라.

패모 가루를 술에 타서 단번에 마시면, 독이 물로 변화여 상처에서 흘러나올 것이니 모두 흘러나오고 나면 약 찌꺼기를 상처에 붙인다.

蜂螫 벌 쏘인 디 | 벌에게 쏘인 경우

薄荷或醋滓塗之.

박하나 혹은 초 찌꺼기를 발라라.

| 박하나 식초 찌꺼기를 바른다.

齒間汚滓刮付, 神效.

이 사이에 끼인 염을 긁어 발르면 즉치.

| 이빨 사이의 치태를 긁어내어 붙이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解毒門 히독문 | 해독문



馬肉毒 말고기 체훈 디 | 말고기독

淸酒溫服, 神效. 濁酒有害, 不可用.

말근 술을 더웁게 먹으면 낫느니, 탁주는 먹으면 히로우니 먹지 말나.

청주를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탁주는 해로우니 써서는 안 된다.



諸骨鯁在咽 각식 뼈와 고기가시가 목에 걸린 디 | 온갖 뼈 나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黃橘或煎或生食之. 若非時則乾者亦無妨.

누른 귤을 다려 먹든지 싱으로 먹든지 하고, 만일 썬 게 안이면 말은 것도 무방하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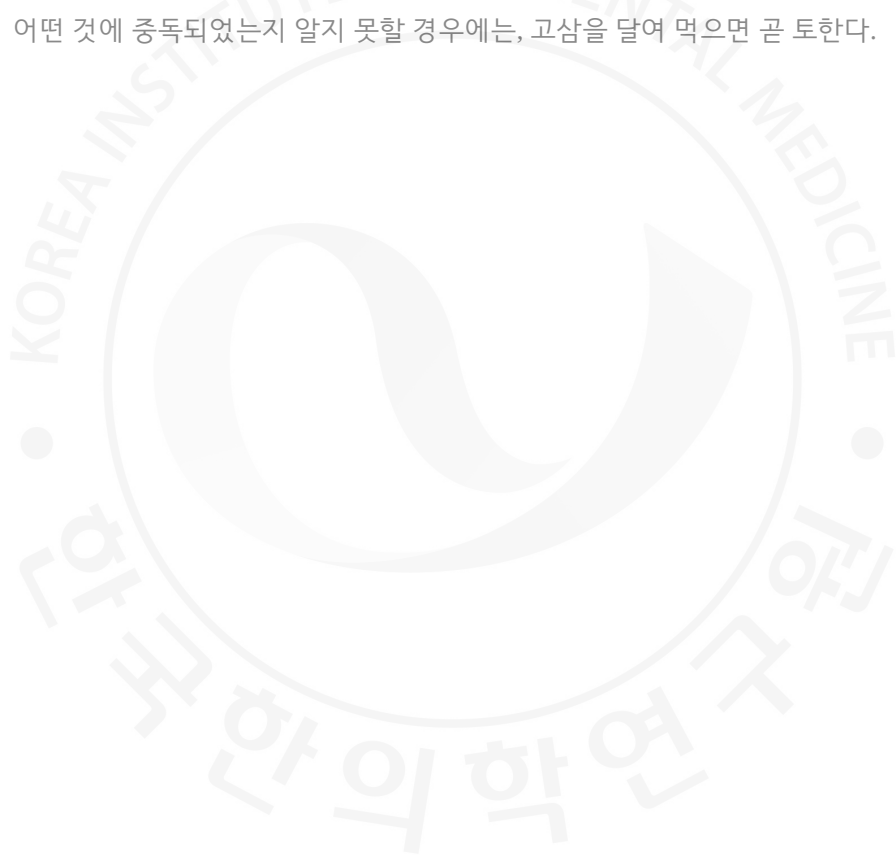
귤을 달여서 먹거나 생것으로 먹는다. 제철이 아닐 경우에는 말린 것을 써도
상관없다.

飮食煩悶 음식에 중독하야 번민흔 디 | 음식에 중독되어 가슴이 답답한 경우

不知中毒何物, 苦蔘煎服, 卽吐.

무신 음식에 중독흔지 모르논 디, 고삼을 다려 먹으면 곧 토하느니라.

어떤 것에 중독되었는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고삼을 달여 먹으면 곧 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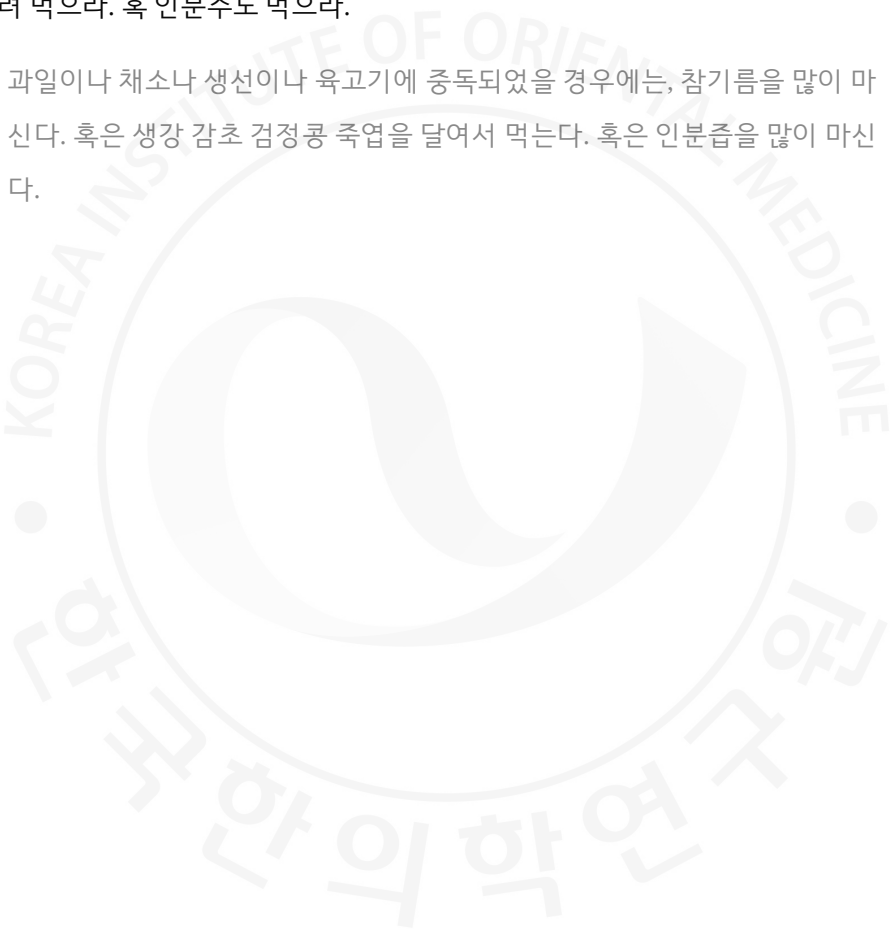


諸食毒 각식 음식에 중독한 뒤 | 온갖 음식의 독

果菜魚肉中毒, 多飲香油. 或生薑 甘草 黑大豆 竹葉, 煎服. 或多飲人糞水.

실과와 나물과 어육독에 참기름을 많이 먹으라. 혹은 생강과 감초와 검은콩과 뉘릅을
다려 먹으라. 혹은 인분수도 먹으라.

과일이나 채소나 생선이나 육고기에 중독되었을 경우에는, 참기름을 많이 마
신다. 혹은 생강 감초 검정콩 죽엽을 달여서 먹는다. 혹은 인분즙을 많이 마신
다.



燒酒毒 소주독 | 소주의 독

葛粉和蜜水, 或砂糖水, 服之. 或馬齒莧汁灌之. 或柿葉汁服. 或苡汁飲之, 葉汁, 亦可.

갈분을 꿀물이나 사탕물에 타 먹으라. 혹은 쇠비름집을 먹고 혹은 감잎을 다려 먹고, 혹은 외늑 외늑이늑 집니여 먹으라.

갈분을 꿀물이나 설탕물에 타서 먹는다. 혹은 마치현즙을 먹는다. 혹은 감잎즙을 먹는다. 혹은 오이즙을 마시거나 오이 잎 즙 낸 것을 써도 좋다.

肉毒 고기독 | 육독

白鳳仙花根莖葉煎服. 或取汁服. 或鴟羽三四介, 煎法油, 飲之. 或藁荷根葉汁飲之, 神效.

빅봉선화 쑤리와 디와 입을 다려 먹고, 흑 집니여 먹으라. 흑 술이 깃 삼스 개를 들기름에 다려 먹으라. 흑 년입이느 쑤이를 집니여 먹으면 신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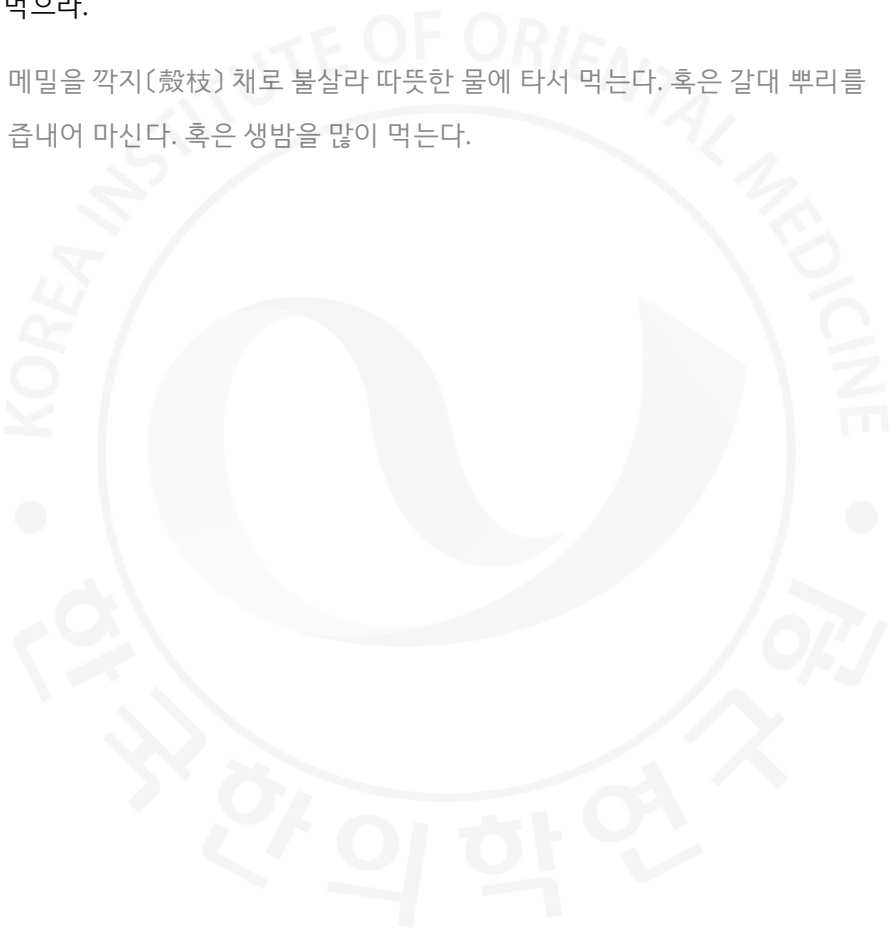
흰 봉선화의 뿌리와 줄기와 잎을 달여서 먹는다. 흑은 즙을 내어 먹는다. 흑은 술개의 깃 3-4개를 들기름에 달여서 마신다. 흑은 양하(藁荷)의 뿌리와 잎을 즙내어 마시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馬肉毒 말고기독 | 말고기독

木麥及殼枝，燒火，溫水調服。或蘆根汁飲之。或多食生栗。

모밀을 싹지 치 불살와 더운 물에 타 먹으라. 혹은 갈 썰이를 집니여 먹고, 혹은 생밤을 만
이 먹으라.

메밀을 깍지(殼枝) 채로 불살라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다. 혹은 갈대 뿌리를
즙내어 마신다. 혹은 생밤을 많이 먹는다.



牛肉毒 쇠고기독 | 소고기독

甘草濃煎, 飲一二升, 卽愈. 或人頭垢, 熱水調服, 吐出. 或黃柏末三錢, 和水服. 韭汁或人尿飲之.

감초를 진하게 달여 만이 먹으라. 흑 사름의 머리 새를 더운 물에 타 먹으라. 흑 황백 갈우 서 돈 중을 물에 타 먹으라. 줄집과 흑 사름의 오줌을 먹으라.

감초를 진하게 달여 1-2되 마시면 곧 낫는다. 흑은 사람 머리의 때를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토해낸다. 흑은 황백 가루 3돈을 물에 타서 먹는다. 부추즙이나 사람의 오줌을 마신다.

狗肉毒 기고기독 | 개고기독

蘆根煎服. 又杏仁末, 熱水和勻服.

갈 썰이를 다려 먹으라. 또 살구씨 곱우를 더운 물에 반죽하야 먹으라.

갈대 뿌리를 달여서 먹는다. 또 행인 가루를 뜨거운 물에 잘 섞어서 먹는다.



羊肉毒 염소고기독 | 양고기독

甘草煎水服一二升.

감초를 다려 먹으라.

| 감초 달인 물을 1-2되 먹는다.



猪肉毒 제육독 | 돼지고기독

猪屎燒存性, 二三錢, 調水服. 杏仁或大黃, 汁服之.

도야지 똥을 불에 살와 이삼 전중을 물에 타 먹고, 살구씨나 대황을 집니여 먹으라.

돼지의 똥을 약성이 남게 태워 2-3돈 물에 타서 먹는다. 행인이나 대황을 즈내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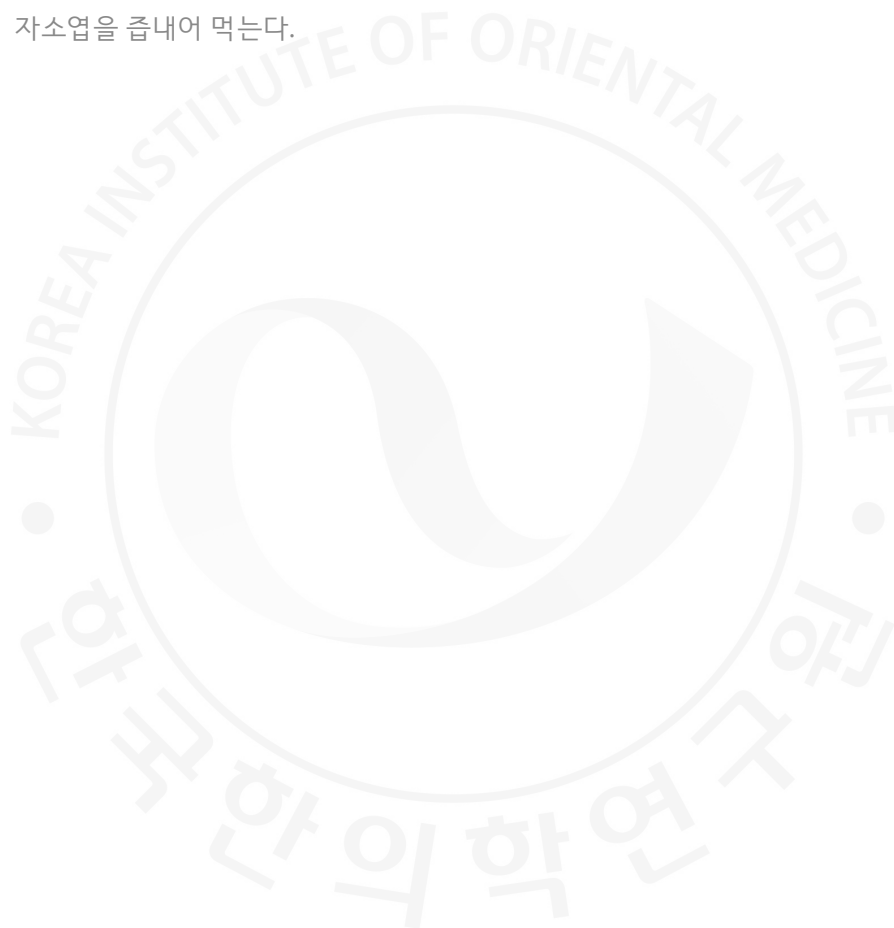


鷄肉及卵毒 닭고기와 닭알독 | 닭과 계란의 독

紫蘇汁服之.

조소엽을 집니여 먹으라.

| 자소엽을 즈내어 먹는다.



自死肉毒 진육독 | 저절로 죽은 짐승의 고기독

黃柏末三錢, 水調服. 不解則再服. 或人頭垢一錢, 熱湯和服. 又黑豆煎汁, 藍葉汁, 人屎汁, 皆可.

황백 곁우 셔 돈 중을 물에 타 먹고, 만일 풀니지 안커던 두 번을 쓰라. 혹 사람의 머리 새ZZ_b를 혼 돈 중을 더운 물에 타 먹으라. 또 검은콩을 다려 먹고, 쪽집도 먹고 인분집을 먹으라.

황백 가루 3돈을 물에 타서 먹는다. 해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먹는다.

사람 머리의 때를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다. 또 검정콩즙, 쪽잎즙, 인분 모두 좋다.

諸魚毒 각식 싱선독 | 온갖 생선의독

冬菰汁, 最效. 又橘皮濃煎服之. 或紫蘇汁服之.

동와집이 신표하고, 쏘 굴피를 다려 먹고, 혹 즈소엽을 집니여 먹으라.

동아즙이 가장 좋다. 또 굴껍질을 진하게 달여 먹는다. 혹은 자소엽즙을 먹는다.



河豚及卵毒 복어와 복의 알독 | 복어와 복어 알의 독

蘆根汁, 或人尿汁, 或香油多灌, 吐出, 即愈.

굴뚝이집이냐 인분집이냐 참기름을 많이 먹이고 토하면 즉치.

갈대뿌리의 즙이나 인분즙이나 참기름을 입속에 많이 부어넣으면 토해내고 곧 낫는다.

羊蹄草汁, 藍汁, 或槐花末三錢, 新汲水調服.

소로장이집이냐 쪽집이냐 흑 회화골우 서 돈 중을 물에 타 먹으라.

소루쟁이즙이나 쪽즙을 먹거나, 흑은 회화 가루 3돈을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먹는다.

諸菜毒 각식 나물독 | 온갖 채소의 독

烏鷄屎燒研末一錢, 和水服. 又香油多飲之, 卽差.

오계의 똥을 불살와 작말하야 혼 돈 중을 물에 타 먹으라. 또 참기름을 많이 먹으면 즉췌.

오계의 똥(태워서 가루 낸 것) 1돈을 물에 타서 먹는다. 또 참기름을 많이 마시면 곧 낫는다.

葛根煎服, 甘草煎飲. 或人乳及童便服之, 卽差.

굴근이느 감초를 다려 먹으라. 혹은 사람의 젖이나 동변을 먹으면 즉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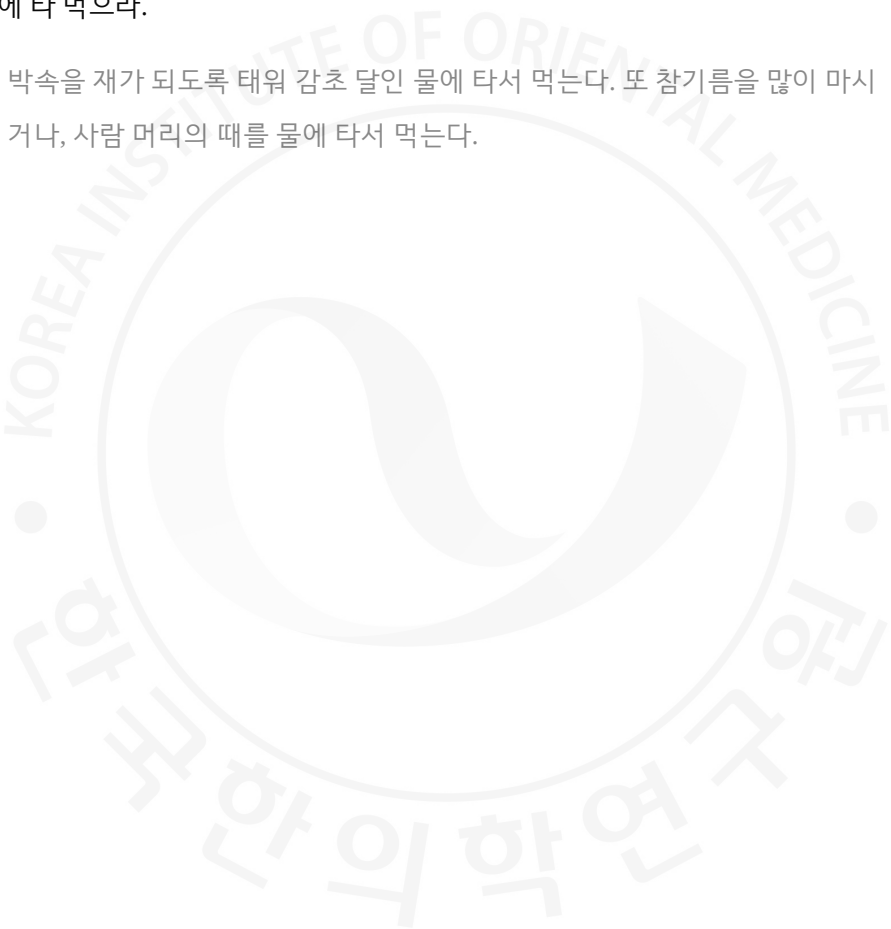
갈근을 달여서 먹거나, 감초를 달여서 먹는다. 혹은 사람의 젖이나 동변을 먹으면 곧 낫는다.

諸菌毒 각식 버섯독 | 온갖 버섯의 독

瓠瓢燒灰, 和甘草煎水, 服之. 又多飲香油, 或人頭垢, 和水服之.

박속을 불에 살와 감초 다린 물에 타 먹으라. 또 참기름을 먹고, 혹은 사람의 머리 씨를 물에 타 먹으라.

박속을 재가 되도록 태워 감초 달인 물에 타서 먹는다. 또 참기름을 많이 마시거나, 사람 머리의 때를 물에 타서 먹는다.



諸海菜毒 각식 히치독 | 온갖 해초의 독

凡海中諸菜多食損人, 腹疼發氣, 吐白沫, 飲熱醋, 卽安. 神效.

더운 초를 먹으면 신표.

바다 속의 온갖 해초를 많이 먹고 상하여 배가 아프고 방귀가 나오며 흰 거품을 토해낼 경우에는, 뜨거운 식초를 마시면 곧 안정된다. 신표한 효험이 있다.



諸果毒 각식 실과독 | 온갖 과일의 독

桂皮濃煎飲之. 又猪骨燒末一錢, 和水服. 又苳蒂末一錢, 溫水調服, 吐之, 卽差.

계피를 진하게 다려 먹으라. 도야지 뼈를 불에 살와 작말하야 혼 돈 중을 물에 타 먹으라. 혹 참외 씨지를 작말하야 혼 돈 중을 더운 물에 타 먹고, 토하면 즉치.

계피를 진하게 달여 마신다. 또 돼지의 뼈(태워서 가루 낸 것) 1돈을 물에 타서 먹는다. 또 과체 가루 1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토해내고 곧 낫는다.



諸百物毒 각식 음식독 | 온갖 음식에 중독된 경우

諸飲食、酒麵、果菜、魚肉、百藥中毒, 甘草 黑豆 各五錢, 煎服, 神效. 或加竹葉, 或加薺尼, 尤效.

감초와 검은콩 각 닢 돈 중을 다려 먹으면 신표하고, 혹 디닙이느 잔디를 가입하면 더욱 조흐니라.

온갖 음식、술、국수、과일、채소、생선、육고기, 온갖 약에 중독된 경우에는, 감초 검정콩 각 5돈을 달여서 먹으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혹은 죽엽이나 잔대(薺尼)를 더하면 더욱 좋다.

凡中毒, 卽燒所食物, 作末服之. 或香油多服.

중독한 디, 먹은 물건을 불에 살와 작말하야 물에 타 먹으라. 혹 참기름을 많이 먹으라.

중독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먹었던 음식을 불에 태워 가루내어 먹는다. 혹은 참기름을 많이 먹는다.

掘黃土地作坎, 以冷水沃其中, 攪令濁. 少頃取清, 飲之.

황토 잇난 쌍을 파고 냉수를 붓고 저어 흠이게 하야 조금 두엇다가 맑어지거든 그 물을 먹으라.

황토로 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속에 냉수를 부은 뒤 휘저어서 탁하게 만든다. 잠시 기다렸다가 맑은 옷물을 마신다.

諸藥毒 각식 약독 | 온갖 약의 독

葛根搗取汁, 飲之. 或水煎取汁服.

칫솔이를 논도하야 집니여 먹고 혹 물에 다려 먹으라.

갈근을 찢어 즙을 내어 마신다. 혹은 갈근을 물에 달여 그 물을 마신다.

藍葉或藍實, 搗汁飲之. 又韭汁飲之.

쪽납이나 쪽열미를 논도하야 집니여 먹고, 혹 줄집을 먹으라.

쪽잎이나 쪽의 씨를 찢어서 즙내어 마신다. 또 부추즙을 마신다.

生鷄子, 取黃吞之. 或粳米粉, 和水服之.

계란 노른자를 날로 먹으라. 혹 쌀갈우를 물에 타 먹으라.

날계란의 노른자를 먹는다. 혹은 멍쌀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다.

眞黃土煮取汁, 煖飲之. 又六畜及鵝鴨, 皆取熱血, 飲之, 卽差.

진황토를 다려 더웁게 먹으라. 또 육축과 거위와 오리의 더운 피를 먹으면 즉차.

좋은 황토를 달여서 그 물을 따뜻하게 마신다. 또 여섯 가축이나 거위나 오리에서 뜨거운 피를 내어 마시면 곧 낫는다.

巴豆毒 파두독 | 파두의 독

黃連 黃柏, 煎湯, 冷服. 又 菖蒲 或 葛根, 搗取汁, 飲之.

황련과 황백을 다려 차게 먹으라. 혹 창포나 혹 갈근을 논도 해야 집니여 먹으라.

황련과 황백 달인 물을 차게 해서 먹는다. 또 창포나 갈근을 찌어서 즙내어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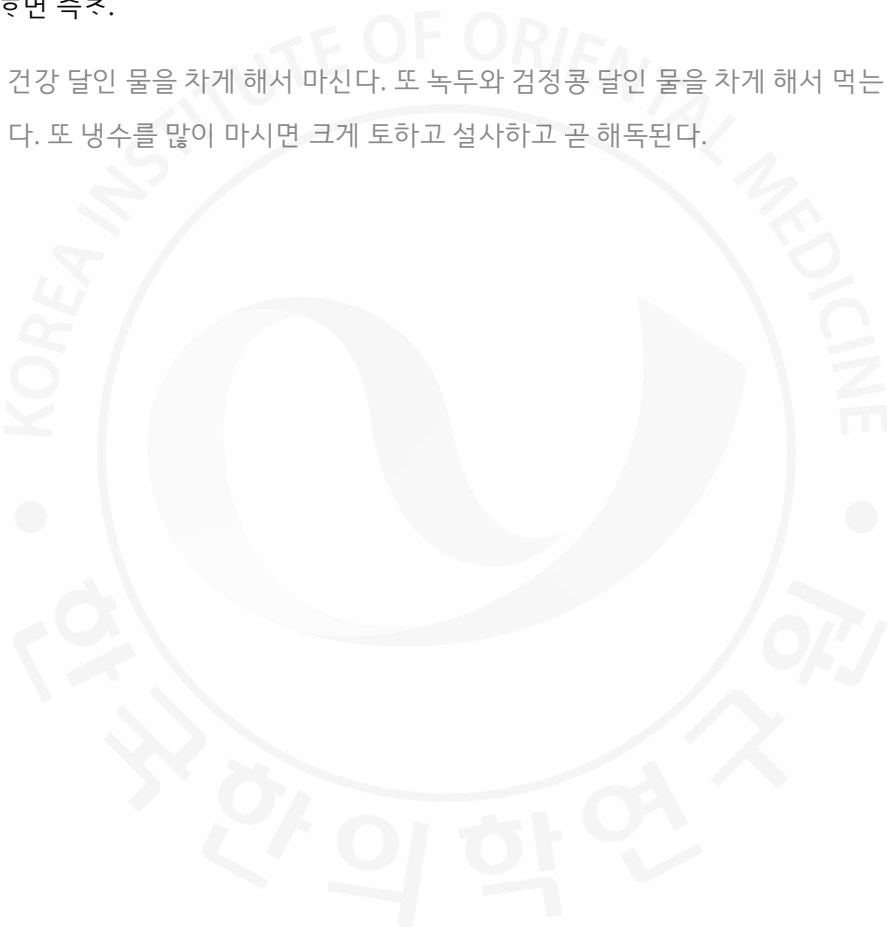


附子毒 부조독 | 부자의 독

乾薑煮汁, 冷飲之. 又菉豆 黑豆, 煮汁, 冷服之. 又多飲冷水, 大吐瀉, 即止.

건강을 다려 차게 먹고, 흑 녹두와 흑두를 다려 차게 먹으라. 또 냉수를 많이 먹고 토
사하면 즉치.

건강 달인 물을 차게 해서 마신다. 또 녹두와 검정콩 달인 물을 차게 해서 먹는
다. 또 냉수를 많이 마시면 크게 토하고 설사하고 곧 해독된다.



草烏毒 초오독 | 초오의 독

生薑汁飲之. 或童便飲之.

싱강즙을 먹고 혹 동변을 먹으라.

| 생강즙을 마신다. 혹은 동변을 마신다.



硫黃毒 유황독 | 유황의 독

羊血熱飲之. 又猪肉冷啗. 又鴨肉羹冷服.

염소에 더운 피를 먹고, 혹은 도야지고기를 차게 먹고, 혹은 오리고기국을 차게 먹으라.

양 의 피를 뜨겁게 해서 마신다. 또 돼지고기를 차게 해서 먹는다. 또 오리고깃국을 차게 해서 먹는다.



砒霜毒 비상독 | 비상의 독

黑鉛四兩, 磨水一椀, 灌服, 卽解. 或靑藍汁一椀, 灌服. 或香油一二升, 服之.

납 넉 량 중을 물 한 대접에 갈아 먹고, 흑 쪽집 한 대접을 먹으라. 흑 참기름을 많이 먹으라.

흑연 4냥을 물 1사발에 갈아서 먹으면 곧 해독된다. 흑은 푸른 쪽의 즙 1사발을 먹는다. 흑은 참기름 1-2되를 먹는다.

冷水研菉豆汁, 飲之. 又稻稈灰淋汁, 冷服. 或人糞汁多灌.

냉수에 녹두를 갈아 집니여 먹으라. 또 벼집 지물을 차게 먹으라. 흑 인분집을 많이 먹으라.

냉수에 녹두를 갈아서 즙내어 마신다. 또 벼짚 태운 잿물을 차게 해서 먹는다. 흑은 인분즙을 많이 마신다.

救急門 구급문 | 구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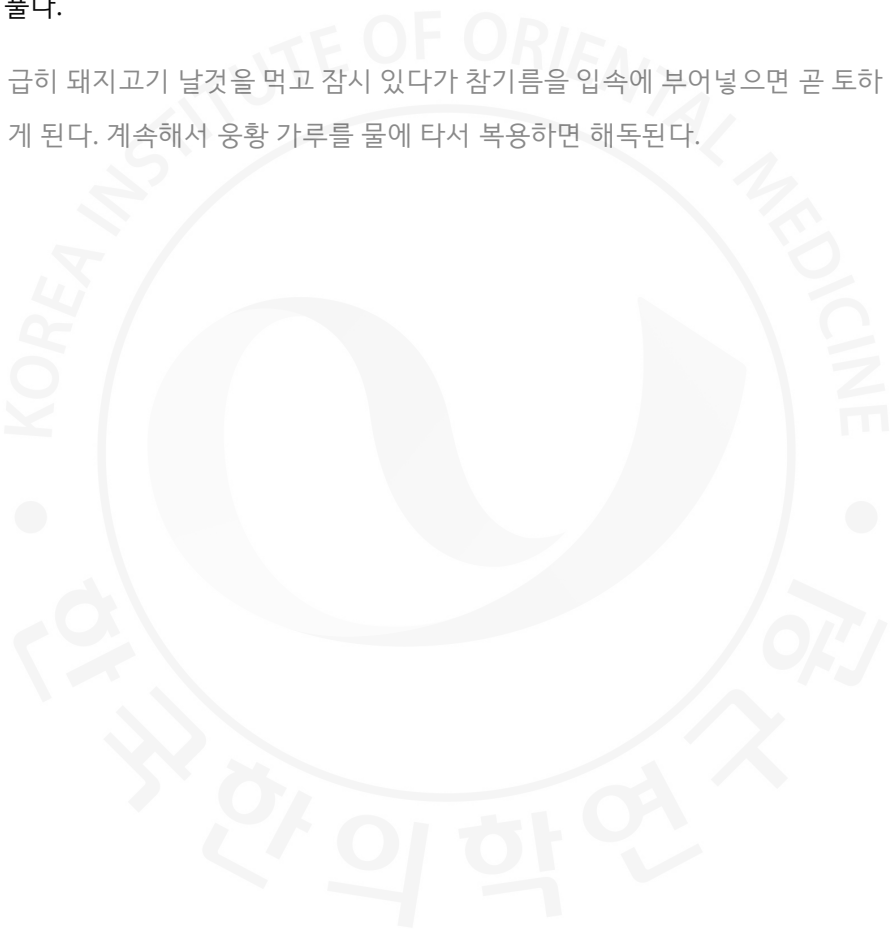


誤吞蜈蚣 진에를 삼킨 디 | 실수로 지네를 삼킨 경우

急取生猪肉吃之, 須臾以清油灌口中, 卽吐出. 繼而雄黃末, 水調服, 解毒.

급히 날 제육을 먹고 곧 참기름을 마시면 토할 것이니, 석웅황을 물에 타 먹어 독기를 풀나.

급히 돼지고기 날것을 먹고 잠시 있다가 참기름을 입속에 부어넣으면 곧 토하게 된다. 계속해서 웅황 가루를 물에 타서 복용하면 해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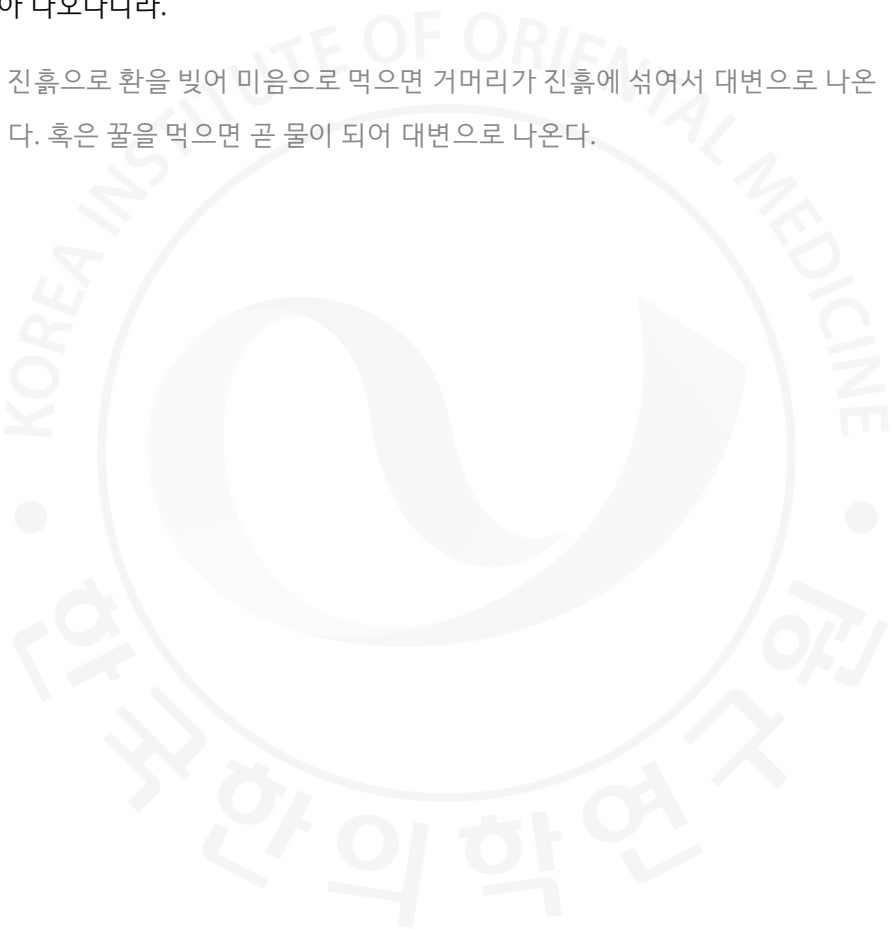


誤吞水蛭 금어리 삼킨 디 | 실수로 거머리를 삼킨 경우

取泥土爲丸, 米飲吞下, 蛭包泥土從大便出. 或食蜜, 卽下爲水.

진흙을 환 지어 미음에 먹으면 금어리가 흙에 섞겨 대변으로 나오고, 혹은 꿀을 먹으면 녹아 나오나니라.

진흙으로 환을 빚어 미음으로 먹으면 거머리가 진흙에 섞여서 대변으로 나온다. 혹은 꿀을 먹으면 곧 물이 되어 대변으로 나온다.



誤吞針 바늘 삼킨 디 | 바늘을 삼킨 경우

磁石如棗核大, 磨令尖, 鑽作竅, 穿絲, 令含, 鍼自出.

지람석을 대초씨만큼 갈아 싯을 뽕족이 헉고 구멍을 뚫어 싯을 꼬여 입에 물면 즈연 나오나니라.

대추씨만 한 자석의 끝을 뽕족하도록 간 뒤 구멍을 뚫어 싯을 꿰고 입에 물리면 바늘이 저절로 나온다.

吞豆(一方碗豆)煎熟, 同韭菜喫之, 針與菜從大便出

완두를 삶어 줄나물과 함식 먹으면 대변으로 나오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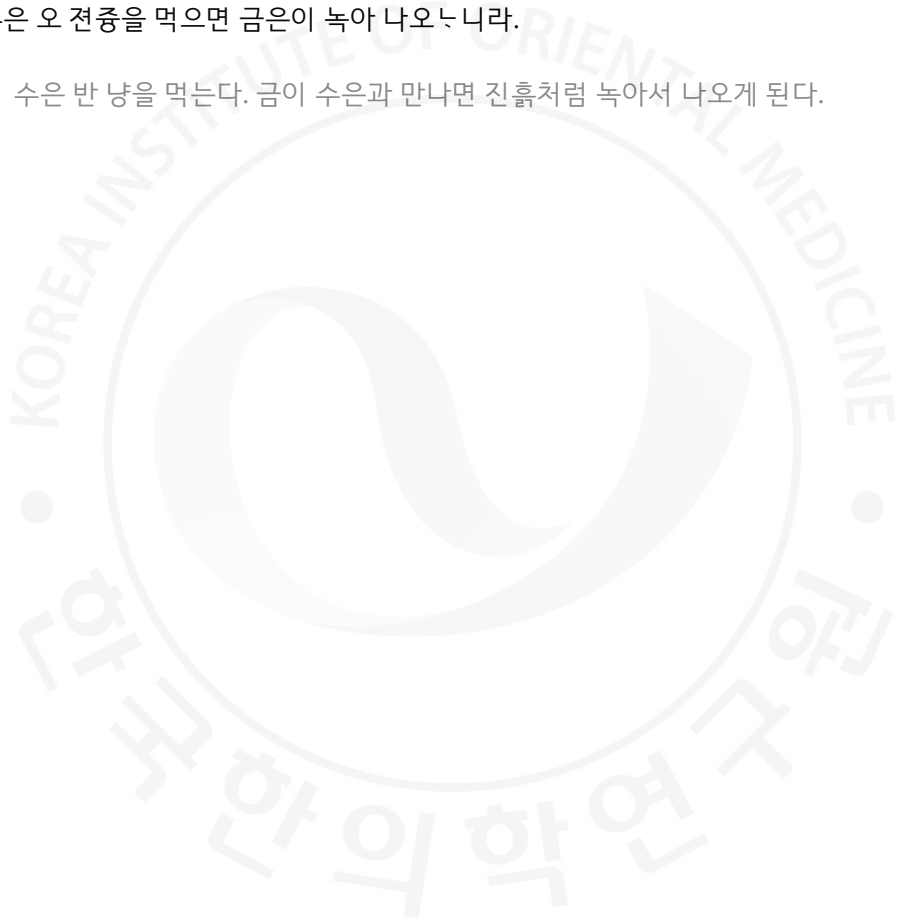
콩(어떤 곳에는 완두로 되어 있다)을 달여서 익힌 후 부추와 함께 먹으면 침이 부추와 함께 대변으로 나온다.

誤吞金銀 금과 은을 삼킨 디 | 실수로 금이나 은을 삼킨 경우

取水銀半兩服之. 金見水銀, 如泥消出.

수은 오 전종을 먹으면 금은이 녹아 나오느니라.

| 수은 반 냇을 먹는다. 금이 수은과 만나면 진흙처럼 녹아서 나오게 된다.



諸骨鯁在咽 각식 뼈와 고기가시가 목에 걸린 디 | 온갖 뼈나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薤白嚼令柔, 以繩繫中, 吞到鯁處, 引之, 卽隨出.

줄썰이를 부드럽게 씹어 노으로 가운데를 미어 삼켜서 걸린 디 일으거든, 잡아 달이면 곧 사라나오니라.

해박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씹어서 그 가운데에 끈을 매달고 가시 걸린 곳까지 삼킨 뒤 끄집어내면 곧 따라서 나온다.

大蒜塞鼻, 卽出. 又鹿角含之, 津嚥下.

마늘로 코궁글 막으면 곧 나오나니라. 또 사슴의 뿔을 입에 물고 침을 삼키라.

마늘로 콧구멍을 막으면 곧 나온다. 또 사슴의 뿔을 입에 물고 침을 삼킨다.

鷄骨在咽, 野苧根, 洗淨, 爛搗如泥, 取櫻桃大, 以鷄糞化下, 立出.

닭의 뼈가 목에 걸린 디, 모시썰이를 새갓이 씨서 난도하야 잉도만큼 닭국에 타 먹으면 즉출.

닭뼈가 목에 걸린 경우에는, 야생 토란 뿌리를 깨끗이 씻어 진흙처럼 되도록 짓찧어 앵두 크기만큼 닭고깃국에 녹여서 먹으면 곧 나온다.

魚骨在喉, 細嚼榛子, 付項後曲凹處, 鯁從項後出. 或取大豆納鼻孔, 男左女右, 神效.

고기가시가 목에 걸린 디, 개암을 씹어 목 뒤 움푹한 디 부치면 가시가 목 뒤로 나오나니라. 혹은 콩을 콧구멍에 끼우되 남자는 왼쪽 코에 끼우고 여자는 오른쪽 코에 끼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에는, 개암을 꼭꼭 씹어 목뒤의 움푹한 곳에 붙이면 가시가 목뒤로 나온다. 혹은 콩을 콧구멍에 끼우되 남자는 왼쪽 코에 끼우고 여자는 오른쪽 코에 끼우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砂仁 威靈仙, 煎砂糖水服之, 骨軟如綿. 或舌舐米糠而吞之, 消出.

사인 위령선을 다려 사탕물에 먹으라. 혹은 혀로 쌀겨를 핥아 삼키면 녹아 나오나니라.

사인과 위령선을 설탕 달인 물에 타서 먹으면, 뼈가 솜처럼 부드러워진다. 혹은 혀로 쌀겨를 핥아 삼키면 녹아서 나온다.



穀芒在咽 곡식 새럭이 목에 걸린 디 | 곡식 까끄라기가 목에 걸린 경우

取鵝口中涎灌之, 卽出. 又脂麻炒爲末, 湯點服, 妙.

게우의 침을 먹으면 즉출. 또 참깨를 볶아 작말하야 더운 물에 타 먹으라.

거위 입 속의 침을 입 속에 부어넣으면 곧 나온다. 또 참깨를 볶아 가루 내어 더운 물에 타서 먹으면 좋다.



竹木刺在咽 나무가시가 목에 걸린 디 | 대나무나 나무 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鼠腦厚塗¹硬¹上, 卽出. 鯽魚膽或鰕魚膽, 俱和酒服, 卽出.

쥐히 골을 걸린 위에 두터이 부치라. 또 부어 쓸개나 쏘가리 쓸개를 술에 타 먹으면 즉출.

쥐의 골을 뼈가 걸린 곳 위에 두텁게 붙이면 곧 나온다. 붕어 쓸개나 쏘가리 쓸개를 술에 타서 먹으면 곧 나온다.

1. 硬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硬'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匙着口中 수저가 입에 붙어 들어가는 디 | 수저가 입속에 붙은 경우

急針三里卽落. 又灸匙頭七壯, 卽落. 又匙頭納火, 卽落.

급히 삼리혈을 침 주면 즉침. 또 수저 싯홀 일곱 장을 쓰고, 혹 수저 싯홀 불 쏘이면 곧 떨어지나니라.

급히 삼리혈에 침을 놓으면 곧 떨어져 나온다. 또 수저 끝에 뜸을 7장 뜨면 곧 떨어져 나온다. 또 수저 끝에 불을 쏘이면 곧 떨어져 나온다.

鬼魘 귀신에게 눌린 디 | 귀신에게 가위 눌린 경우

半夏末或皂角末, 吹兩鼻孔, 卽活.

반하 갈우나 혹 조각 갈우를 두 코구멍에 불어 너으면 즉초.

반하 가루나 조각 가루를 양쪽 콧구멍에 불어넣으면 곧 살아난다.

以水噴面, 仍用竹管吹兩耳.

얼굴에 물을 뿌고 디통으로 두 귀를 불나.

물을 얼굴에 뿌어주고 대나무 대롱으로 양쪽 귀속을 분다.

伏龍肝末二錢, 井華水調灌, 更吹入鼻中.

복룡간을 작말하야 정화수에 타 먹고 또 코구멍에 너으라.

복룡간 가루 2돈을 정화수에 타서 입속에 부어넣고, 콧속에도 불어넣는다.

溺水死 물에 빠져 죽은 디 | 익사

灸臍中百壯. 又取皂角末, 綿裹肛門.

비곱을 빅 장을 썸질 하고, 또 조각즈를 작말하야 솜에 싸서 항문을 막으라.

배꼽에 뜸을 100장 뜬다. 또 조각 가루를 솜에 싸서 항문에 끼워넣는다.



船暈 비멀미 하는 디 | 배멀미

多食生栗及黃栗. 又飲自己尿.

싱룰이나 황룰을 만이 먹으라. 또 즈긔 요를 먹으라.

생밤이나 말린 밤을 많이 먹는다. 또 환자 자신의 오줌을 마신다.



六畜病 육축병 | 육축병



牛病 소의 병 | 소의 병

氣脹病, 用攻胃散. 白芷一兩, 茴香 官桂 細辛 一兩一錢, 桔梗一兩二錢, 蒼朮 芍藥 一兩三錢, 橘皮九錢半. 共爲末, 每一兩, 用生薑一兩, 鹽水一升, 煎溫, 灌之.

기창병에 공위산. 백지 한 량 중, 회향 관계 세신 각 한 량 한 돈 중, 길경 한 량 두 돈 중, 창출 한 량 서 돈 중, 굴피 아홉 돈 반 중을 작말하여, 한 량 중식 싱강 한 량 중을 소금물 한 되에 너어 다려 쓰라.

기창병(氣脹病)¹에는 공위산(攻胃散)을 쓴다. 백지1냥, 회향 관계 세신 1냥 1돈, 길경 1냥 2돈, 창출 작약 1냥 3돈, 굴피 9돈 반. 이상의 약재를 모두 가루 낸 뒤, 1냥씩 생강 1냥과 함께 소금물 1되에 넣고 따뜻하게 달여서 입속에 부어준다.

忽肚脹, 狂走觸人, 大黃 黃連 各五錢, 鷄子清一介, 酒一椀, 和勻灌之.

비가 창만하고 미쳐 사람을 밟는 디, 대황 황련 각 다섯 돈 중과 계란 흰조위 한 기와 술 한 대접에 타서 먹이라.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미쳐서 사람에게 달려들어 들이받는 경우에는, 대황 황련 각 5돈, 계란흰자 1개, 술 1사발을 잘 섞어서 입속에 부어준다.

尿血, 當歸 紅花, 爲末, 酒煎一椀, 灌之.

피오줌 누는 디, 당귀와 홍화를 작말하여 술에 다려 한 대접을 먹으라.

피오줌을 누는 경우에는, 당귀 홍화를 가루 내어 술에 달여 1사발을 입속에 부어준다.

糞血, 取竈中黃土二兩, 酒一升煎, 候冷灌之.

피똥 누는 디, 아궁이 바닥의 황토 두 량 중을 술 한 되에 다려 차게 먹이라.

피똥을 누는 경우에는, 부뚜막의 황토 2냥을 술 1되에 달인 뒤 차가워지면 입 속에 부어준다.

鼻脹, 用醃醋一盞, 灌耳中, 立差.

코이 부은 디, 조흔 초 혼 잔을 귀속에 부으면 족츠.

코가 붓는 경우에는, 진한 식초 1잔을 귓속에 부어주면 곧 낫는다.

白膜遮眼, 用炒鹽並竹節, 燒好性², 細研, 一錢點膜上.

눈에 빅태 썬 디, 복근 소금과 디 마디를 불에 살와 작말햐야 눈에 너으라.

백태가 눈에 낀 경우에는, 복은 소금과 대마디를 약성이 남게 태워 곱게 간 뒤 1돈을 백태 위에 찍어준다.

咳嗽, 鹽一兩, 豉汁一升, 相和灌.

기침 햐는 디, 소금 혼 량 중을 며쥬물 혼 되에 타 먹으라.

해수에는 소금 1냥과 두시즙 1되를 섞어서 입속에 부어넣는다.

牛疫, 芭蕉根, 取汁灌之. 或大黃 柴胡 各一兩, 水煎灌之, 立差

우역에 파초 뿌리집을 먹이라. 혹 대황과 시호 각 혼 량 중을 다려 먹이면 나으니라.

소의 돌림병에는, 파초 뿌리를 즈내어 입속에 부어넣는다. 혹은 대황 시호 각 1냥을 물에 달여 입속에 부어넣으면 곧 낫는다.

身上生蟲, 當歸爛搗, 醋浸一宿, 塗之.

비루 올린 디, 당귀를 난도햐야 초에 할오밤을 담겨 발느라.

몸에 벌레가 생긴 경우에는, 당귀를 문드러지도록 찢어서 식초에 하룻밤 동안 담근 뒤 바른다.

病後腸結, 不得放糞, 白米二升, 浸一宿, 研取汁, 油半升相和, 灌之.

창자가 막혀 똥을 누지 못하는 디, 빅미 두 되를 할오밤 담가 굶아 기름 반 되에 타 먹이라.

병이 든 후에 장이 막혀 똥을 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흰쌀 2되를 하룻밤 동안 담갔다가 갈아서 즙을 내어 기름 반 되와 섞어서 입 속에 넣어준다.

疥癩, 藜蘆爲末, 水調塗之. 或蕎麥穰燒灰, 淋洗之.

지라창에 여로를 작말하야 물에 지어 발느라. 혹 모밀디 지물로 씨치라.

개라창(疥癩瘡)에는 여로를 가루 내어 물에 개어서 바른다. 혹은 메밀짚 태운 잿물로 씻어준다.

1. 기창병(氣脹病) : 허준, 《동의보감》〈잡병편〉 창만(脹滿)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七情鬱結, 氣道壅塞, 上不得降, 下不得升, 身體腫大, 四肢瘦削, 是爲氣脹." (칠정이 쌓여 뭉치고 기도(氣道)가 막혀 위에서는 내려가지 못하고 밑에서는 제대로 오르지 못하며, 몸이 크게 붓고 사지가 마른다. 이것이 기창이다.) ↩

2. 燒好性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燒存性'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

馬病 말의병 | 말의 병

腹痛, 灸臍中五十壯, 神效.

비 알는 디, 비꼽을 오십 장만 쓰면 신표.

복통에는 배꼽에 뜸을 50장 뜨면 신표한 효험이 있다.

大便不通, 以脂或油, 塗人手, 探穀道, 去結糞.

똥 누지 못하는 디, 사름에 손에 기름 발라 분문에 너어 말는 똥을 끓어니이라.

대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계나 기름을 손에 발라 항문 속을 더듬어 뭉친 똥을 빼낸다.

泄瀉, 麴末微炒四兩, 蒼朮末四兩, 溫泔湯調灌之. 未愈再灌.

설스하는 디, 눌옥 곶우 녀 량 중과 창출 곶우 녀 량 중을 더운 쓰물에 타 먹이라.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룩(가루 내어 볶은 것) 4냥, 창출(가루 낸 것) 4냥을 따뜻한 쌀뜨물에 타서 입속에 부어준다. 낫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입속에 부어준다.

小便不通, 滑石一兩, 朴硝 木通 牽牛子 各二兩, 爲末, 溫水調灌.

오줌 누지 못하는 디, 활석 1냥 중, 박초 목통 견우자 각 두 량 중을 작말하야 더운 물에 타 먹이라.

소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활석 1냥, 박초 목통 견우자 각 2냥을 가루 내어 따뜻한 물에 타서 입속에 부어준다.

脊癰, 黃丹¹之, 避風, 立差.

등창에 황단을 부치고 바람을 들이지 말면 즉초.

등창에는 황단을 붙이고 바람을 피하면 곧 낫는다.

疥癩瘡, 皮麻子一升, 連皮爛搗, 用麴五合釀酒, 過四五日, 待熟. 先以杵末尖其頭束之, 刷其瘡處, 以此酒塗.

개라창에 피마자 한 되를 난도해야 눌욱 반 되 너어 술 비져 익거든, 싸리나무 술로 상처를 빗기고 술을 발느라.

개라창(疥癩瘡)에는 피마자 1되를 껍질 채 문드러지도록 찢어 누룩 5홉으로 술을 빗어 4-5일이 지나 익기를 기다린다. 우선 싸리나무 끝을 뽕죽하게 하여 묶고 그것으로 창이 난 부위를 빗질한 뒤 앞의 술을 바른다.

挾滯, 燒酒一甫兒, 入清心元二介, 煎沸灌之, 卽效.

체한 디, 소주 한 보에 청심원 두 개를 너어 씹어 먹이라.

체했을 때는, 소주 1보시기에 청심원(淸心元) 2환을 넣고 끓을 때까지 달여 입속에 부어넣으면 곧 효험을 본다.

土漿 食鹽 各等分, 焦熬, 入口灌, 而童便.

토장과 소금을 등분해야 복거 입에 넣코 동변을 먹이라.

지장(地漿) 소금 각각 같은 양을 탈 때까지 볶은 뒤 입속에 부어넣고 동변을 먹인다.

黑柎 檳榔 大黃 芒硝 乾薑 細辛 各三錢, 甘遂 木通 各二錢, 煎灌.

흑촉 빈랑 대황 망초 건강 세신 각 서 돈 중과 감수 목통 각 두 돈 중을 다려 먹이라.

흑촉 빈랑 대황 망초 건강 세신 각 3돈, 감수 목통 각 2돈을 달여서 입속에 부어 넣는다.

牛馬時疫, 白朮 藜蘆 川芎 細辛 鬼臼 石菖蒲 等分粗末, 燒熏鼻, 令烟入腹, 卽愈.

우역 마역에 백출 여로 천궁 세신 귀구 석창포를 등분작말¹하야 코에 피여 연기가 비에 들게 하면 즉초.

소나 말의 돌림병에는, 백출 여로 천궁 세신 귀구(鬼臼) 석창포 각각 같은 양을 거칠게 간 뒤, 태워서 코로 그 김을 씹게 하여 배속으로 연기가 들어가게 하면 곧 낫는다.

牛馬百病, 柳葉與牛乳, 同爛搗, 丸如彈子, 晒乾. 用時爲細末, 和牛乳灌之, 神效.

소와 말의 각식 병에 버들잎을 쇠젓과 난도¹하야 환약 만들어 베헌 말녀 쓸 씨에 작말¹하야 쇠젓에 개여 먹이라.

소와 말의 온갖 병에는, 버들잎과 우유를 함께 문드러지도록 찢어 탄환만 하게 환을 빚어 벌에 말린다. 약으로 쓸 때는 이것을 곱게 가루 내어 우유에 타서 입 속에 부어넣으면 신묘한 효험이 있다.

牛馬背癢, 取小便或豆腐水, 淋洗之, 次取生蘿菈作片, 炒火, 乘熱付之, 冷則換之, 輪回頻頻, 不幾日完合. 或茱萸油塗之.

소와 말의 등창에 오줌이나 두부물로 씻고 무를 쓸어 불에 구어 더웁게 부치되, 식거든 즈조 곱아 부치라. 혹은 수유기름을 발느라.

소와 말의 등창에는, 소변이나 두부순물을 걸러서 그 물로 씻긴 다음, 생무를 얇게 썰어 불에 볶아 뜨거울 때에 붙여주되 차가워지면 새것으로 갈아주기를 자주 하면 며칠이 되지 않아 온전히 아문다. 혹은 수유로 짠 기름을 바른단.

1. 傳 : 언해과 문맥을 살펴볼 때, '付'의 오기인 듯하다. 번역은 이를 따른다.



羊病 양의 병 | 양의 병

有疥者, 百草霜及鹽 茱萸油 等分調勻, 塗之.

개창에 백초상과 소금과 수유기름을 등분하여 개여 발느라.

개창(疥瘡)이 있는 경우에는, 백초상과 소금과 수유에서 짠 기름 각각 같은 양을 잘 섞어서 발라준다.



猪病 도야지의 병 | 돼지의 병

諸病, 割去尾尖, 出血, 即愈.

각식 병에 쏘리 솓흘 비여 피를 니라.

돼지의 온갖 병에는, 꼬리 끝의 뽀죽한 부분을 잘라 피를 내면 곧 낫는다.

猪疫, 蘿菹根或葉, 與喫之.

제역병에 무밋이나 님을 만이 먹이라.

돼지의 돌림병에는 무의 뿌리나 잎을 많이 먹인다.

狗病 개의병 | 개의 병

狗疫, 伏令皮煎灌之, 或香油灌之.

구역에 복령 껍질을 다려 먹이라. 혹은 참기름을 먹이라.

개의 돌림병에는 복령 껍질을 달여서 입속에 부어넣거나 참기름을 입속에 부어넣는다.



鷄病 닭의 병 | 닭의 병

雜病, 以眞油灌之, 立愈.

각식 병에 참기름을 먹이면 즉초.

닭의 잡병에는 참기름을 입속에 부어넣으면 곧 낫는다.



해제

개요

본서는 온갖 병증에 대해 구하기 쉬운 약재로 대비할 수 있도록 편제된 임상서이다. 주기사항을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單方新編. 卷1 / 丁若鏞 著

筆寫本

龍仁 : 柳璉, 1917.

1冊{81張} : 四周雙邊 半郭 18.4x12.3cm, 有界, 10行字數不定, 上下向黑魚尾 ; 21.3x16.0cm

大正六年丁巳{1917}陰七月初三日畢草

구성 및 내용

본서는 ‘單方新編’이라는 표제로 묶여 있으나 『단방신편』 내용이 끝난 뒤에 ‘두진{痘疹}’이라는 제목 하에 두진 관련 의학정보를 함께 필사해 묶어놓았다. 『단방신편』은 임상에 최적화된 서적으로, 처방 내용이 매우 간결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선 책의 체제 확인을 위해 목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중풍문{中風門}」, 「한문{寒門}」, 「서문{暑門}」, 「습문{濕門}」, 「조문{燥門}」, 「화문{火門}」, 「내상문{內傷門}」, 「허로문{虛勞門}」, 「곽란문{癰亂門}」, 「학질문{瘧疾門}」, 「담문{痰門}」, 「구토문{嘔吐門}」, 「해역문{咳逆門}」, 「해수문{咳嗽門}」, 「소갈문{消渴門}」, 「소변문{小便門}」, 「대변문{大便門}」, 「정문{精門}」, 「신문{神門}」, 「혈문{血門}」, 「적취문{積聚門}」, 「창만문

{脹滿門}」, 「부종문{浮腫門}」, 「황달문{黃疸門}」, 「제충문{諸蟲門}」, 「두부{頭部}」, 「면부{面部}」, 「안부{眼部}」, 「이부{耳部}」, 「비부{鼻部}」, 「구설부{口舌部}」, 「아치부{牙齒部}」, 「함항부{頤頤部}」, 「인후부{咽喉部}」, 「배부{背部}」, 「흉복부{胸腹部}」, 「유부{乳部}」, 「요협부{腰脇部}」, 「피부{皮部}」, 「수족부{手足部}」, 「전음부{前陰部}」, 「후음부{後陰部}」, 「창종문{瘡腫門}」, 「부인문{婦人門}」, 「소아문{小兒門}」, 「제상문{諸傷門}」, 「해독문{解毒門}」, 「구급문{救急門}」, 「육축문{六畜門}」.

위 내용이 끝난 다음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두진 관련 정보가 필사되어 있다. 이 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책은 전체 3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중풍문」부터 「제충문」까지는 병증에 따라 배치하였고, 「두부」부터 「후음부」까지는 병증이 발발하는 몸의 각 부위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창종」부터 「육축문」까지는 이상 2가지 묶기 애매한 사항들을 묶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제에 ‘단방{單方}’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대개의 처방들은 단방이거나 단방에 가까운 처방들로 형성되어 있어 구급 시에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제조 과정을 겪는 온보(溫補) 위주의 처방과는 달리, 구급 시에 필요한 약재를 일반 가정에서도 수급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필사본으로 나와 있으며 언해 부분이 필사되지 않았으나, 애초의 연활자본은 언해까지 되어 있는데, 이는 상업적 보급을 극대화하려 한 의도로 파악된다. 본서에서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책의 말미에 붙은 「육축문」이다. 소, 말, 양, 닭, 돼지 등에 처방은 이미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나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과농소초(課農小抄)』 등에서 살필 수 있으나 개에 대한 처방은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저자사항

본서 표지에는 저자를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라 표기하고 있으나 정약용이 이러한 의서를 만들었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다만 우리는 이 서적 저자에 대해 정약용이라 표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계 자료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에 나온 의서 가운데 『만병만약(萬病萬藥)』이라는 서적이 있다. 1930년에 간행된 연활자본으로, 우송(又松) 김해수(金海秀)의 저작이다. 유가에서 적통(嫡統)을 중시하여 계보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서에서는 종종 역대 의학자를 책머리에 두고 계보를 따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책은 이분들에게서 이어받은 의술을 실었다’라는 의미를 담아 권위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도 ‘역대의방(歷代醫方)’이라는 것을 두어 복희씨(伏羲氏) 시대부터 우리나라 양예수(楊禮壽, ?-1600)의 『의림촬요(醫林撮要)』까지 실고 있다. 『만병만약』 역시 ‘역대의학성씨약술(歷代醫學姓氏略述)’을 첫머리에 두어 상고(上古)의 복희씨부터 우리나라 주요 의사들과 그들이 남긴 의서에 대해 기록하였다. 여기에 서 특기할 것은 ‘丁若鏞 號茶山 著單方新編’라는 글귀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 글귀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역대주요 의사 가운데 한 명으로 정약용을 꼽고 있으며, 『단방신편』이라는 서적이 실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1930년에는 이것을 정약용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당시에는 『경험두방』, 『소아의방』 등 정약용의 이름을 빈 한의서가 더 있었다. 모두 연활자로 나온 판본들이다. 『단방신편』은 1917년 필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애초 연활자본은 1908년 이의동(李義綱)에 의하여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증보판은 1913년에 신소설 작가이자 신구서림(新舊書林)의 대표였던 지송욱(池松旭)에 의해 신구서림에서 간행되었다. 연활자판에는 모두 저자를 정약용과 주촌(舟村) 신만(申曼) 2인으로 기재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단방 혹은 단방에 가까운 서적들로 가득하다. 이 책에서 처방을 분류하여 정약용 것을 표방한 것과 신만 것을 표방한 것을 구분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다만, 정약용에게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2곳 정도 발견되었다. 아래와 같다.

〔1〕〔暴聾〕全蝎去毒, 末, 調酒滴耳, 聞水即愈.

○〔급작이 귀 막은 디〕전갈을 거독하고 작말하야 술에 타 귀에 너으면 즉초.

〔2〕〔眼赤〕取田螺一介去掩, 糝以黃連末, 置露中, 曉取之, 肉化爲水, 以之滴眼, 赤瘡〔障의 오류이다〕自消.

○〔눈알 붉은 안질〕울렁 혼 개를 싹지 세고 황년 갈우를 뿌려 이슬 맞춧다가
시벽에 보면 살이 다 물이 될 것이니 눈에 발느라.

위 부분과 정약용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정약용의 『의령』 때문이다. 위와 관련된 곳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耳暴聾者, 用全蝎去毒爲末, 酒調滴耳中, 聞水聲, 卽聾愈如神.¹

〔2〕-2 病眼生赤瘡者, 取田螺一枚, 去掩以黃連末糝之, 置于露中, 曉取則肉化爲水, 以之滴目赤瘡自消.²

『의령』은 각각 속집1(續集一)과 속집2(續集二)에 수록된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의령』의 내용은 조선후기 당시 유행하던 필기집인 『설부(說郛)』에 나오는 내용들 일뿐 아니라 모두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도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단방신편』을 정약용의 저작으로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문만 전하는 『촌병혹치(村病或治)』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닐지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방신편』의 목차를 보면 「중풍문(中風門)」부터 시작하여 육기(六氣)로 시작하는 체제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촌병혹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체제와는 다르다. 『촌병혹치』 서문에 의하면, 상하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권의 끝을 주병(酒病)과 색병(色病)으로 삼아 세상에 경계를 하고자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두 가지 판본의 『주춘신방』과 비슷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단방신편』의 끝부분은 육축문(六畜門)으로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말·양·닭·돼지 등에 처방은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나 연암(燕巖) 박지원의 『과농소초(課農小抄)』 등에서 살필 수 있으나 개에 대한 처방은 이 책에 처음으로 나온다. 개의 경우 ‘목양(牧養)’의 측면에서 대량으로 길러낸 바가 없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되어 애완동물에게까지 의료적인 혜택이 미친 경우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도 정약용의 저작 가능성을 매우 낮추어준다. 『단방신편』은 일반인들도 경제적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구비할 수 있는 연활자본의 언해가 부기된 서적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단방신편』은 정약용을 가탁하여 지은 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연활자본 인쇄

는 상업출판을 의미하며 상업출판에서 요구된 것은 당시에 명의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산림경제』의 저자가 유암이라는 것은 상식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지식인들 중에는 이 역시 정약용의 저작이라고 여겼던 이들도 있었다.³ 이 모두는 정약용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의사로서의 명성이 어떠한가를 반증하게 해준다 할 것이다.

서지적 특성 및 자료적 가치

본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의 파급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주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의료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온갖 고급 약재가 들어가는 처방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후기가 되면서 처방은 더욱 간결해지고 약재는 수급이 더욱 용이한 것으로 처방이 변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실생활에 의학이 면밀히 파급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면에서 대중에게 얼마나 의학 파급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서적이다. 우선 연활자로 서적을 찍어 일반에 상업출판을 하였으며, 처방들이 간결할 뿐 아니라 쉽게 수급되는 재료라는 것이 그 표징이라 할 만하다. 특히 간단하게 실리긴 하였으나 육축에 대한 처방을 곁들인 것은 일반 의원 단위에서 이 서적을 활용하기보다는 가정에 상비할 수 있는 서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애초 연활자본의 언해는 이러한 정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연활자로 출간된 서적을 다시 필사하여 묶은 것으로, 일제 강점기 우리 의학정보의 파급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었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 : 丁若鏞, 『醫零』續集一. [↩](#)

2. : 丁若鏞, 『醫零』續集二. [↩](#)

3. :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고전명저총서DB 『朝鮮醫學界』第參號 1918년

5월 15일 기사에 다음 내용이 보인다. “余가 養生法 研究의 動機{下}. 朝鮮에도 丁茶山의 所著 山林經濟 中の 攝生篇에는 頗히 研究를 價値가 有은 記事를 見하얏고.....” [↩](#)

※ 참고자료

* 작성자 : 박상영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는 없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임의제목** : 임의 제목 표시
-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㉔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 } : 양각
 - 【】: 음각
 - _ : 격자(隔字)
 - **제목 설명** : 제목에 대한 설명문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증보단방신평_전 補單方新編_全

원저자 : 미상

번역자 : 지송욱 池松旭

국역 및 해제 : 박상영

교열 : 오준호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월 31일

Renewal : 2016년 10월 31일

Renewal : 2019년 07월 31일

Renewal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박상영(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며,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오준호(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16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6670》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



ISBN : 978-89-5970-196-4